

PAJU CULTURE 2011

# 파주문화 研究

25



**파주문화원**  
파주문화연구소

# 문예중흥선언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문화창달의 사명을  
절감한다.  
民族中興 歷史的轉換期 文化創造 使命

한겨레의 운명을 결정 짓는 근원적 힘은 그 민족의 예술적 문화적  
창의력이다. 예술이 창조력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문화가 자주성  
을 찾았을 때 나라는 흥한다. 신라통일의 위대한 업적과 세종시대의 문화  
창조는 이를 증명한다.  
運命 決定 根源的 民族 藝術的 文化的 創造力 藝術 創造力 文化 自主性 新羅統一 偉大 業績 世宗時代 文化 創造 證明

우리는 길이 남을 유산을 개발하고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 받아 오늘의  
새 문화를 창조한다. 맹목적인 복고경향을 경계하고 분별없는 모방행위를  
배척하며 천박한 퇴폐풍조를 일소하여 우리 예술을 확고한 전통 위에  
꽃 피우고 우리 문화를 튼튼한 주체성에 뿌리 박게 한다.  
遺產 開發 民族的 正統性 繼承 接收 오늘의 新文化 創造 盲目的 復古傾向 警戒 分別 없는 模倣行爲 排척하며 天박한 退廢風潮를 一掃하여 我們 藝術을 確固한 傳統 위에 꽃 피우고 我們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 박게 한다.

우리는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영광된 겨레의 내일을 위하여 가치의식  
과 사관을 바로 잡고 표현의 자유와 문화의 자주성을 함께 누리며, 곳곳  
마다 문화의 전당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예술을 즐기도록 한다.  
祖國 現實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내일을 위하여 價値의식 和 史觀을 바로 잡고 表現의 자유와 文化의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 마다 文化의 前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자신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세계에 부각  
되도록 힘쓰며, 문화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인류문화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한다.  
自己의 姿態를 새롭게 加다듬어 我們의 業績이 世界에 부각 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活潑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伊바지 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예술가 모든 문화인들은 온 국민과 동참하는 대열에 서서  
예술과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정성을 다해 문예중흥을  
이룩할 것을 선언한다.  
藝術家 所有 文化人 都是 全國民과 共同 參與的 行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조성하고 正誠을 다해 文藝中興을 伊룩할 것을 선언한다.

2011년 제25호

# 파주문화 研究



**파주문화원**  
파주문화연구소

# 발간사



파주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이해를 통해 문향 파주의 얼을 자랑스럽게 이어가며, 더불어 우리 지역의 문화적 성장과 변화의 발자취를 담아온 <坡州文化 研究> 제 25호를 발간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5년의 오랜 세월을 이어온 <파주문화 연구>는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글들을 발표하는 유일한 창구로의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이제는 그 자체로 파주의 소중한 역사적 증거물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호에는 지역 문화계의 원로 및 중진들을 모시고 파주문화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에 대해 접점을 모색한 「파주문화 발전을 위한 원로와의 좌담회」의 내용을 정리하여 실었으며, 조선 숙종 때 충숙공 이세화, 충정공 오두인, 문열공 박태보 선생을 모시고 향사를 올리던 사당인 풍계사(豊溪祠)에 대한 연구성과를 담은 「풍계사의 역사적 의의와 복원(復元)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파주 민통선내 장단지역의 세거성씨와 인물」, 「문헌을 중심으로 본 임진강과 임진나루」, 「글로벌 이야기」를 통해 본 파주 칠중성과 감악산 전적지에 관한 고찰, 「交河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파주 청백리록」등 우리지역과 관련된 향토사 연구글과 자료들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전통문화의 큰 줄기를 이루는 민속을 소개한 「세시풍속 연구」와 도시경관에 관한 담론을 소개한 「도시경관은 문화다」, 그리고 2011년 한 해 파주의 다양한 문화적 소식을 이야기 방식으로 풀어낸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관한 다양한 글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坡州文化 研究>가 우리 문화가족들에게 유용하게 읽혀지기를 기원하며, 책의 발간을 위해 노력 해주신 본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박재홍 소장님과 주옥같은 글들을 발표해주신 연구위원님과 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1. 12  
파주문화원장 민 태 승



## Contents

### 발간사

25호를 펴내며 ..... 민태승 ..... 2

### 화보와 단신

2011년 파주문화원 행사 ..... 편집실 ..... 4

### 특별좌담

파주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원로와의 좌담회 ..... 편집실 ... 19

### 향토문화 연구

풍계사(豊溪祠)의 역사적 의의와 복원(復元)에 대한 제언 ... 이동륜 ... 28

글로스터 이야기를 통해 본 파주 칠중성과

감악산 전적지에 관한 고찰 ..... 박재홍 ... 36

파주 민통선 내 장단지역의 세거성씨와 인물 ..... 권호숙 ... 44

문헌을 중심으로 본 임진강과 임진나루 ..... 오순희 ... 66

交河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 이윤희 ... 79

파주의 능과 원 - 순릉 · 영릉 ..... 강근숙 ... 87

파주의 청백리록 ..... 서교송 ... 93

### 문화사랑방

효의 정신과 생명론 ..... 심성구... 119

회고록 - 구름따라 꿈같이 흘러간 발자취 ..... 이기현... 122

신사임당 추모제 ..... 편집실... 128

도시경관은 문화다 ..... 김희병... 131

세시풍속 연구 ..... 성희모... 136

어느 멋진 가을날-울곡문화제 유가행렬기 ..... 이종화... 165

파주북소리 2011 지식난장, 한통속 참여 후기 ..... 변인숙... 168

파주전통문화예술학교 김옥조 이사장을 만나다 ..... 한성희... 175

울곡고등학교 취타대 ..... 이병춘... 179

### 제24회 울곡문화제 수상작품

울곡 백일장 ..... 181

사임당 미술제 ..... 193

전국 한시 백일장 ..... 194



### 파주문화 25호 ▶

발행일 : 2011년 12월 / 발행처 : 파주문화원 / 발행인 : 민태승 / 편집 : 권호숙 / 인쇄 : 승림디엔씨  
※ 이 책은 비매품이며 시비보조금으로 발행되었습니다.

# 생활문화의 배움터 파주문화학교



경서강독반



단소반



문예창작반



서예반(수)



서예반(목)



문인화반



예쁜 손글씨반



한국화반



향토문화체험반

# 테마로 떠나는 파주 향토문화체험



4월 파주삼헌 유적지 순례



5월 고인돌을 찾아서



6월 능원 순례



7월 민통선 탐방



8월 테마박물관 답사



9월 향교서원 순례



10월 불교유적을 찾아

**2012 향토문화체험 참가안내**

- 일 자 : 4월-10월 매주 2주차 토요일
- 장 소 : 테마별 유적지
- 접 수 : 매월 1일(공휴일은 다음 날)
- 인 원 : 선착순 40명
- 참가문의 : 031-941-2425

# 뛰뛰빵빵 주말버스학교



봄꽃 돌아보기



천문대에서 별 만나기



역사체험-활만들기



통일현장 견학



영어마을 Hi, friends!



에코-백 만들기

# 군장병 파주투어 '청년! 파주를 만나다'



울곡선생유적지



파주 영어마을



화석정



반구정



임진각



평화의 종

# 창의체험학습 '弘報가기가막혀'



가방에 꾸며보기



연만들기로 표현하기



자료수집 및 현장답사 1



자료수집 및 현장답사 2



책만들기로 표현하기



캐릭터쳐로 표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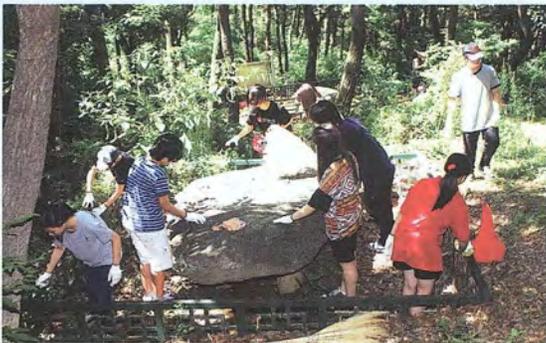
#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섬김과 이음'



교하고인돌 돌보기



방촌영정각 돌보기



월룡고인돌 돌보기



자운서원 돌보기



통일공원 전적비 돌보기



파산서원 돌보기

# 파주 바로알기 파주역사문화대학



월릉고인돌 답사(1차)



박물관 답사(2차)



소령원 답사(3차)



허준묘 답사(4차)



박중손묘 장명등 답사(5차)



파주향교 답사(6차)



보광사 답사(7차)



강화 석모도 답사(수료답사)

# 파주 전통문화행사



적성향교 춘계석전



방촌영당 춘향제



피산서원 제향



여충사 춘향제



교하향교 전교 이취임식



월계단 제향

# 파주 전통문화행사



신사임당 기신제



파주향교 사무실 개소식



동현단 제향



성사영묘 제향



향교 기로연



용주서원 추향제

# 파주 직물문화공예품 공모전



[대상] 다래끼 흥순자 작



[금상] 꽃도래방석 이재환 작



작품전시회



작품전시회 2



출품작 심사



입상자 시상

# 전통문화축제 제24회 율곡문화제



전국율곡서예대전



율곡사상학술강연회



유가행렬 취타대



개막식



자운서원 추향제



자운서원 추향제 2

# 전통문화축제 제24회 율곡문화제



줄타기 공연



전통혼례



파주 유적지 순례



전국한시백일장



신사임당미술제



마당극 '심봉사의 딸'

# 전통문화축제 제24회 율곡문화제



우리놀이 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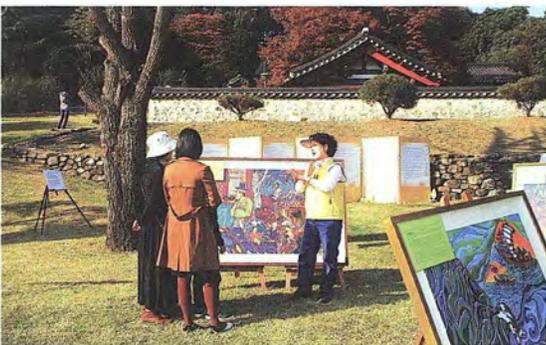
서예 퍼포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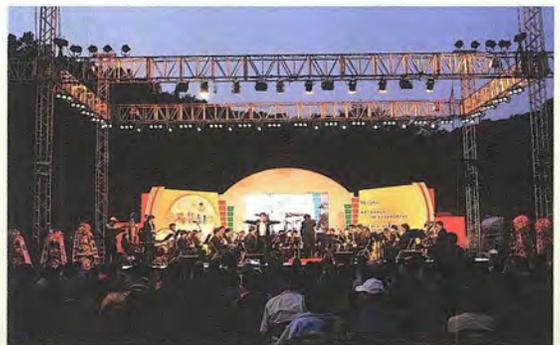
율곡백일장



가훈 써주기



파주 이야기 그림전



서원음악회

## 문향파주지킴이 파주문화원



월릉초 숲도서관 도서기증



평생학습축제



할머니가 들려주는 파주이야기



서원으로 떠나는 가족소풍



문화가족 답사(양평)



파주문화연구소 임진강 정자 답사

문향파주지킴이 파주문화원



경기도민속예술제



문화가족 답사(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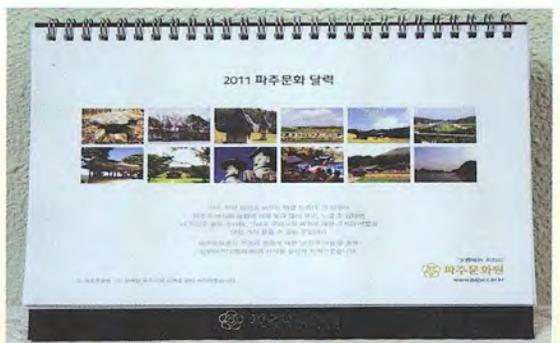
강사 파견사업



청소년문화유산해설사 교육



창립44주년 기념식



파주문화 달력 제작



특·별·좌·담

## 파주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원로와의 좌담회

- 일시 : 2011년 11월 22일 오전 10시~ 12시
- 장소 : 금촌 덕성원
- 참석자  
 신춘범(전 파주문화원장, 파주노인대학 학장)  
 민태승(파주문화원장)  
 이동륜(시조시인, 한국문협 파주지부 고문)  
 이경형(전 푸른파주21 대표,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헤이리 리&박 갤러리 운영)  
 정우용(동화기술서적 대표, 사회복지법인 '사랑과 나눔 실천회' 회장)
- 진행 : 박재홍(파주문화연구소장)
- 기록 : 권효숙(파주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민태승 : 파주문화 연구소가 주관이 되어 '파주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좌담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파주문화'의 현주소를 짚어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문화 예술계 원로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파주 문화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기대하겠습니다.



□ 박재홍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마도 파주에서는 문화계 원로분들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이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된 말씀들은 잘 정리해서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파주문화연구’에 수록하고 파주시와 파주문화원에 ‘문화예술 정책’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파주에서 문화체육과장이 참석할 계획이었습시다만 정기의회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늘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다른 분야보다 적어서 걱정입니다만, 과장이나 국장이 이 자리에 안 나와도 좋으니 의회에 가서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한 푼도 깎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외 오늘 자리를 만드느라 수고한 서교송 문화원 사무국장과 권효숙 파주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소개드립니다. 특히 대담 프로그램은 사진이 중요한데 시사복지 타임즈의 최항준 주필이 촬영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 박재홍 : 그러면 대답을 시작 하겠습니다.

대담 방식은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주제는 파주문화의 정체성 부분과 전통문화의 전승과 발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 예술 프로그램의 시민참여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이슈는 아무래도 ‘파주문화의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8



박재홍

년간 문화원장을 하시면서 파주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신춘범 원장님께서 말씀을 풀어 주시지요.

□ 신춘범 :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정신을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주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허리부분에 위치하여 남과 북이 오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역사문화 유산이 풍부하고 분단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장차 21세기를 선도하는 통일조국의 중심지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파주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파주의 역사문화 자원을 잘 간직하는 게 중요합니다.

파주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전국 대학에 가 있는데 이러한 출토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 또는 향토사료관 같은 전시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전시관에는 파주에 관한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출토 유물은 물론, 문화재를 소개하는 전시공간과 파주에 관한 각종 사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파주에 관해 어떤 것이라도 알고 싶을 때 어느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파주문화원사가 속히 독립 건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춘범

□ 이경형 : 파주의 정체성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파주에는 유명한 학자들이 많아 예부터 문향으로 불리워졌는데 아직도 파주에는 선비정신이 깊게 배어있는 살아있는 선비문화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남북분단 현장으로 평화를 지향하는 DMZ 생태, 평화 브랜드로써 미래의 정체성을 들 수 있습니다.

□ 이동륜 : 문화는 우리의 삶과 일상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파주는 지리적, 역사적으로도 특수한 지역이며 전통문화가 아직 남아있는 곳입니다. 파주의 문화가 많이 발전되었으나 주민들의 삶 속에서 충실하게 내용적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가 현대적 삶 속에서 융합과 어우러짐이 필요합니다. 많은 역사자원과 현대문화를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출판도시나 헤이리 등 문화적인 인프라에 비해 뒤떨어지는 시민의 문화의식 수준의 차이를 메워 나가야 합니다.



이동륜

□ 민태승 : 파주는 문화적 바탕은 뛰어나지만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문화회관, 전시관, 공연장, 박물관, 문화회관 건립 등을 염원하고 있지만 중장기 계획에만 반영되어 있고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도시에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 또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문화에 대한 예산 책정이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파주는 개성과 한양 중간에 위치하여 고려와 조선시대의 역사상 중요인물들의 묘소가 400여기 이상 있습니다. 이 묘소에 대한 문헌과 현장 조사 등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도 상당부분 확보되어야 합니다.



민태승

□ 정우용 : 책과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독서활동이 많이 줄어 작가활동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출판도시에는 230여개 출판사가 입주해 있고 1만 3천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출판사는 4만5천개에 달하지만 실제 출판은 10%정도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1년에 발행되는 책의 종류가 약 4만종, 1억3천만부가 발행되는데 1회 발행에 2,639부를 발행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500억을 지원해줘서 영세한 출판사에게 저렴한 대출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또한 학술도서를 발행하면 학술진흥원에서 1,200만원을 지원해 책을 구입해주는 정책도 있습니다. 이런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출판 국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행사 때에는 출판도시 외에 헤이리, LGD, 임진각, DMZ등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여출판과 관광 등의 연계적 사업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는 파주에 와서 파주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끌고 있는 봉사단체인 '참사랑실천회'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법인체입니다. 1년에 1억원 정도를 회원들의 회비로 모아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파주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각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용

□ 박재홍 : 이 정도면 파주문화의 베이스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체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의 전승과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 신춘범 : 파주 전지역의 문화가 다 전통문화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유교를 전통문화 입장에서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종교단체에서는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파주는 향교가 세 개, 서원이 세 개이며 지역의 유림인물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 유교적인 문화가 뿌리깊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곧 지역에서 뿌리깊이 내려오는 유교적 문화가 파주의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유교문화의 발굴과 연구가 파주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이경형 : 파주문화의 전통문화를 생각해보는 때, 과거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수용되고 발전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파주전통문화의 현대적 확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율곡이 과거에만 묶여있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율곡문화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율곡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술, 과학의 한계성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이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융합학문의 시대, 장르가 깨지는 시대, 철학전공자와 공대전공자가 함께 공부하는 시대이므로, '21세기 한국정신문화의 방향은 무엇인가' 등의 주제로 율곡인문학 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율곡문화제 때만이 아니라 한여름 밤에 자운서원에서 세계적인 인문학자, 노벨상 수상자 등을 초청하여 강연도 듣고 토론회를 한다면 세계적으로 율곡사상이 주목받을 것입니다.



이경형

□ 신춘범 : 예전에 율곡문화제 때 율곡국제학술세미나를 몇 년 했었습니다. 그 때 참석했던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국제적으로 율곡을 공부하는 학자들의 학술모임을 해보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 이경형 : 좋은 콘텐츠만 있으면 파주시를 넘어 국가행정부나 경기도 행정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파주시 문화발전을 위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륜 : 율곡선생 이외도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파주엔 많습니다. 그 중에서 황희선생, 성혼선생, 백인걸선생 등 유명인물을 한분씩 조명해서 연구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주를 알리기도 하고, 문중에서도 환영할만한 일이지요. 또한 제가 파주를 주제로 한 한시를 수집해 온 것이 약 5백편 됩니다. 파주를 알리기 위한 책자로 만들어 냈으면 좋겠으나 아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우용 : 제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 파주 지역에 대한 컬럼을 몇 편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짧고 단편적인 글 말고, 파주에 대한 명승지, 관광, 인물, 민속 등을 책으로 엮어내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예산을 미리 받아서 책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아요. 차라리 미리 책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시나 도에 가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일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술원에 학술지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 이경형 : 파주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책자가 있는지요? 지역의 역사적 기록에 대한 시정 행정자의 인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출판단지에서 하는 ‘북소리’ 라는 행사에서 파주의 고문서나 한시 등의 원적을 전시하고 책도 만들어 보여주는 행사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파주라는 지역에서 행사가 열리는 것이니까요.

□ 권효숙 : 파주에 대한 종합적인 책자가 <파주시지>라고 총 9권이 있습니다. 제가 <파주시지> 작업에 연구원으로 참석했는데요, 문중, 마을, 인물에 대한 고문서, 유물 등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자료들이 <파주시지>에 다 실지 못하고 남아 있어 자료집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루지 못해 아쉽습니다. 문중과 관련한 이야기, 전쟁과 관련된 잠재된 이야기들을 원로들로부터 끄집어내어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일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할일이 참 많은데 내 일이라 생각하고 꾸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효숙

□ 박재홍 : 다음은 전통 못지않게 ‘창조적인 예술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실 한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은 그 지역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문화 예술 공연 또는 전시, 발표회 등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증진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형 대표께서는 현재 헤이리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계시고 아이디어도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를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형 : 파주에는 문화적인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강 하류나 임진강을 따라가는 자유로가 있고, 북한의 개성이 연결되고,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도 있는 파주는 남북관계의 중요한 관문이며 경기북서부의 중요한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파주에는 자유로를 따라 예술문화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곳에 파주를 상징하는 테마가 무엇이며 콘텐츠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DMZ와 연결되는 것, 전쟁과 평화 그리고 생명과 생태를 주제로 하는 예술이 파주지역의 전통과 접목되면 더 훌륭한 문화콘텐츠가 탄생될 것입니다. 파주는 전쟁으로 인해 발전이 늦었지만 오히려 이러한 지리적인 것을 장점으로 하여 고유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평화와 생태를 테마로 많은 문화행사를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캠프 그리브스는 임진강 북쪽 미군대대의 반환공여지입니다. 한미동맹에 의해 한국에 반세기 이상 주둔한 미군부대 중 원형이 보존된 유일한 기지이며, 가장 북방에 배치된 미군기지입니다. 2004년에 철수하여 지금은 한국의 1사단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전체 7만5천평 가운데 1만5천평을 파주시가 관할하여 역사공원으로 만들기로 하여 전쟁과 관련한 박물관 또는 기념관, 호국추모관 등을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즘 20개동의 4층 벽돌 막사들 건물이 있는데 이들 중 일부건물을 철거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건물들을 허물지 말고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과거지향적인 전쟁관련 역사박물관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군사박물관 등 다른곳에 없는 특유한 시설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막사를 평화관련 설치미술관 그리고 생물 생태 자원관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전쟁을 상징하던 건물이 역으로 생명과 평화를 상징하는 건물로 재탄생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은가 생각합니다.

중국의 군수기지창고를 세계적인 아트밸리시장으로 변환시킨 '789 예술구'와 유럽의 미술 시장의 중심이 된 독일의 루르 지방의 철강 기기 제조 공장, 파리의 도살장을 라베뜨라는 미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예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는 역사적인 현장을 스토리텔링이 있는 흔적으로 그대로 남겨서 더욱 가치있는 명소로 만든 것입니다. 미군부대 자리는 이에 합당한 아주 훌륭한 장소라 여겨집니다.

되도록이면 옛날 건물을 무너뜨리지 말고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민관군 합동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여기에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박재홍 : 활발하게 토론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파주의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문제에 대해 한말씀씩 해주시지요. 시인이신 이동륜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줄 아는데요? 전국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지역 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을 하시는 정우용 대표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민간부분에서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 정우용 : 출판도시에서 서점도 하지만 산업단지에서는 다른 물건은 팔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잔도 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찾아와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갤러리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겁니다. 요즘 천재교육 출판사에서 6천평을 매입해서 그 안에 공연장, 인쇄소, 출판사, 전시장 등 종합문화공간을 만든다고 하니 기대를 해 봅니다.

- 이동륜 : 문화원에서 펼쳐지는 전통문화 행사에 비해 현대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지역민들의 활동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전문문화예술인들과 파주예총 산하 단체들도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행사를 많이 펼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그 첫째 원인은 시민참여가 저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행사가 있을 때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미리 널리 알려져서 파주시민만이 아닌 타 지역시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경형 : 헤이리에서 열리는 '판 페스티벌' 등의 축제행사는 한 열흘씩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민은 입장료 등이 무료이니 지역민들이 많이 참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 '파주 북소리' 행사가 올해 크게 이뤄졌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했던 내방객들이 즐겁게 참여하는게 중요한데 행사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졌다거나 화장실 이용이 불편하다던가 하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행사규모에 비해서 지역문화예술단체 참여프로그램이 너무 적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 정우용 : 출판도시에서는 5월에 어린이 책잔치가 있고, 10월에는 '파주 북소리'행사가 있었으며, 11월 1일이 책의 날이라서 이때는 출판사 공동 행사가 있습니다.  
출판도시의 행사는 예산을 문화관광부에서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판도시의 장소가 너무 넓어 행사시 동선이 너무 떨어져 연계성이 떨어진다면 화장실이 적어 이용에 불편하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내년엔 좀 더 보완해서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출판사들 간에 네트워크가 잘 되고 있으니, 함께 협의하여 더 나은 행사를 만들어 내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파주에 이렇게 문화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파주문화연구소가 좀 더 알려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출판물도 좀 더 나와야 하고...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고 우리도 같이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경형 : 파주시의 각종 문화행사에는 인근 도시나 서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주는 파주를 뛰어넘는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시민들이 활발히 대중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교통쪽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륜 : 시민 대다수가 흥미를 갖고 참여하고 즐겁게 참여하는 문화행사가 많아져야 하며, 장단콩축제, 개성인삼축제 등 파주의 대표적인 축제 기간에도 파주의 각종 문화예술단체가 행사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파주의 문화예술이 크게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재홍 :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꼭 하고 넘어가야 할 소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고 담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파주문화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은 사실 문화예술 정책을 담당하시는 시장님이나 국과장님이 직접 들었으면 참 좋을 이야기였습니다. 기록으로 남겨 정책 당국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문화(Culture)라는 말은 경작을 뜻하는 Cultura에서 왔습니다. 인류 문명은 끊임없이 새로운 전통을 세워왔고 전통 속에서 새로움을 추구해 왔습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근본이 없는 문화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파주의 문화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파주라고 하는 기름진 밭에다가 전통과 창조의 씨앗을 뿌려서 앞으로 파주문화의 ‘르네상스’를 활짝 꽃 피울 날을 기대 하면서 좌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 풍계사(豊溪祠)의 역사적 의의와 복원(復元)에 대한 제언

이 동 루\*

1. 서론
2. 본론
  - 가) 사당의 연혁과 기능
  - 나) 풍계사의 건립 연도와 위치에 대하여
  - 다) 풍계사의 건립 배경과 배향인물
3. 결론

## 1. 서론

풍계사(豊溪祠)는 조선19대 숙종때 충숙공 이세화(李世華), 충정공 오두인(吳斗寅), 문열공 박태보(朴泰甫)선생을 모시고 향사를 올리던 사당이다.

이 세 사람은 1689년(숙종15)에 일어난 ‘기사환국’ 때 화를 입은 사람들이다. ‘기사환국(己巳換局)’이란 숙종의 왕비 인현왕후 민씨가 후사가 없자, 후궁 장희빈이 낳은 아들 균(鈞)을 인현왕후의 양자로 삼아 세자에 책봉하려는 숙종에게 '이의 부당함'을 항소하다 많은 신하가 처형되었거나 귀양을 간 사건을 말한다. 이 때에 이세화는 정주로 귀양을 가고 오두인은 의주로 귀양가는 도중 파주에서 죽었으며, 박태보는 진도로 유배가다 장독으로 노랑진에서 죽었다.

\* 파주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시조시인

이세화가 유배생활을 마치고 고향 파산에 돌아와 있던 중 1694년 숙종은 인현왕후를 다시 왕후로 복위시키고 장희빈을 처벌하니 이세화는 ‘인현왕후복위도감제조’를 맡았고 여러 요직을 맡으며 국정쇄신에 힘썼다. 1701년 이세화가 죽자 숙종은 이들 세사람의 충성심을 기리고자, 이세화가 살던 파주 문산 칠정리에 풍계사를 세워 제향을 올리게 하였다.

그러나 풍계사는 1868년(고종5)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폐철된 후 지금까지 빈터로 남아 있어 풍계사의 역사적 의미가 날로 잊혀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종 역사관련 서적에 ‘파주 풍계사’는 대부분 누락되었고 ‘풍계 충렬사’에 제향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풍계사를 역사교육과 인성교육의 현장으로 삼아야 한다는 명제 아래 ‘풍계사 복원’을 제안하고자 본 주제를 조사·연구하였다. 더욱이 이세화는 파주의 자랑스러운 선현의 한 분이다.

## 2. 본론

### 가) 사당의 연혁과 기능

사당(祠堂)은 유교 유적이다. 유교 유적은 서원(書院), 향교(鄉敎), 사우(祠宇)의 세가지 형태로 남아 있다. 그 중에 사당은 특정 인물을 받들고 제향하기 위해 신주(神主)를 모시고 제례(祭禮)를 행하는 곳이다. 대개 지역의 유림이나 문중에 의해 세워진게 일반적이다. 사당은 사우(祀宇) 또는 가묘(家廟)라고도 하며, 사마서의(司馬書儀)에서는 영당(影堂),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는 사당이라고 하였다.

사당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는게 역사학자들의 정설이다. 왜냐하면 원시시대부터 인류는 조상이나 신(神), 자연현상에 대한 숭배의식을 거행하였고, 이러한 신(神)이나 조상에 대한 경배사상은 지역과 씨족간의 차이는 약간씩 있었지만 고조선에서 삼국시대를 이으며 계승·발전 되어 왔다.

고려시대에는 각 부족들이 자기들의 공동시조신(共同始祖神)을 숭상하였으며, 특히 1390년(고려 공민왕 2)에 나라에서 가묘를 설치하라는 영이 내려져 각 가정에 부모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을 짓게 된 것이 사당의 시초가 되었다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고려말 학자 조준은 『시무서(時務書)』에서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가묘가 있었으나 중간에 없어지고, 다만 각 가정에 신사(神祀)를 두어 그 집을 보호하고 있었다.” 고 하면서 상고시대부터 사당이 있었음을 주장하였다. 또 조선 선조때 학자 이제신은 “사당은 고려말 정몽주에 의하여 비로소 시작 되었다.” 고 했으나, 불교를 숭상했던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세력에 눌려 널리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자학(朱子學)을 국가정교(國家政敎)의 근본으로 삼은 조선 초기에는 가묘제(家廟制)가 철저히 강요되어 조선 초기에는 이를 시행하지 않는 사대부는 문책을 당했다. 『경국대전(經國大

典』의 규정에 의하면 대부(大夫)는 3대, 사(士)는 2대에 불과하였으나 통제사대(通祭四代)의 관습에서 사대봉사(四代奉祀)가 제도화 되었다.

가묘는 집 담장 밖에 세우기도 하고 집안에 세우기도 했다. 그러다가 조선 중기 1542년(중종 37)에 풍기군수 주세붕이 순흥에서 고려의 학자 안향을 모시는 사당을 짓고, 이듬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라 하고, 1550년 이황의 건의로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 사액을 받아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 서원이 되었다. 그 이후 전국 각지에는 많은 서원과 사당이 생기게 되었다.

특히 중종때 조광조의 개혁적 신진세력이 기묘사화 이후 대거 산림에 우거하며 후학의 교육에 전념하면서, 서원의 교육적 기능에 선현을 제사하는 선현사(先賢祠), 충현사(忠賢祠), 향현사(鄉賢祠) 등이 건립되었으며, 이 중에 사당은 향사(享祀)기능만 행하던 곳이다.

이러한 현상은 유교에 대한 인식과 유교적 윤리관념의 일반화를 의미하기도 하며,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역성혁명 과정에서 정몽주를 비롯한 72현의 절의파와, 조선 세조때의 계유정란 과정에서 충절을 지킨 사육신, 생육신에 대한 존경심, 또 임진란, 병자호란을 겪으며 목숨으로 나라를 지키다 순직한 많은 분들에 대한 경외심, 그 외 조선조 때 많은 사화(士禍)를 겪는 과정에서 충절과 지조를 지킨 선현과 뛰어난 학자들을 위한 사당이 많이 건립되었다.

따라서 파주에는 교하향교, 적성향교, 파주향교 장단향교(폐철) 등의 향교와 파산서원, 자운서원, 용주서원, 신곡서원(폐철) 등의 서원, 황희영당, 여충사, 성사영묘, 장포영정각, 경현단, 월계단, 사씨단, 동현단(옛 양단), 이수별묘, 파평윤씨 소부공 추원단, 상서대 추원단, 덕진묘 등 유교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풍계사도 그중의 하나이다. 특히 풍계사는 나라의 사액을 받은 뜻깊은 유적이다. 이에 1990년 4월 1일 파주문화원 선정 사적 제 18호로 지정 받았다.

## 나) 풍계사의 건립 연도와 위치에 대하여

풍계사의 건립 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헌 기록이 있다.

### ① 『연려실기술,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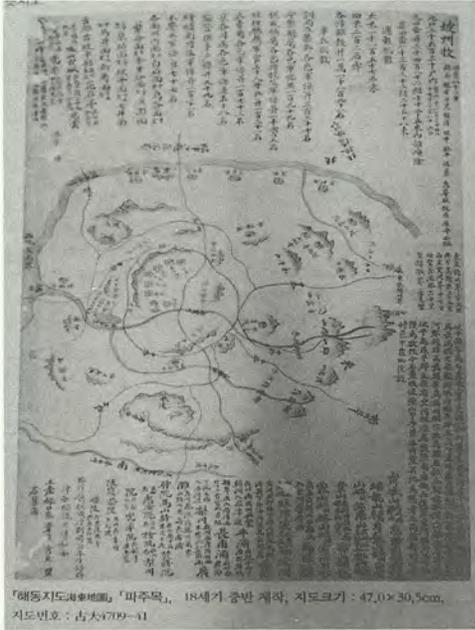
풍계사는 숙종 갑술년(1701년)에 건축해서 다음해 을해년(1702년)에 사액(嗣額)하였으며 오두인, 이세화, 박태보를 함께 배향한 곳이다.

### ② 『신증동국여지승람, 파주목 사원』

풍계사는 숙종 갑술년(1701년)에 세우고 을해년(1702년)에 사액을 받았다.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 되었다.

풍계사의 위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헌 기록이 있다.

- ① 『경기지』 「파주목읍지」 - 풍계사(豊溪祠宇)는 주에서 북으로 1리에 있다.
- ② 『신증동국여지승람』 「파주목 사원」 - 풍계사에 대한 기록이 있다.
- ③ 해동지도 - 18세기 중반 제작
- ④ 여지도(輿地圖) - 18세기 중반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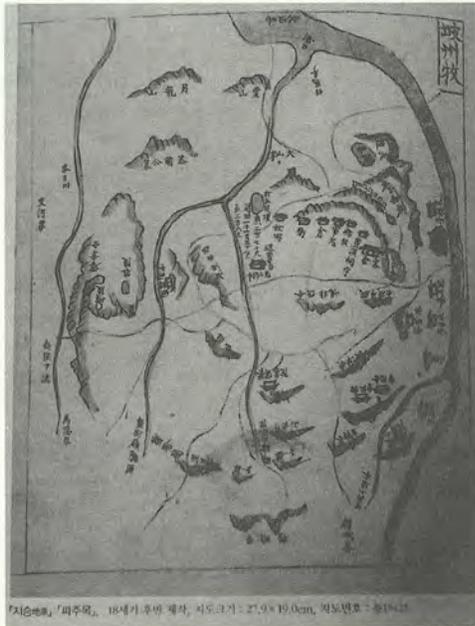


『해동지도(海東地圖)』 「파주목」, 18세기 중반 제작, 지도크기: 47.0×30.5cm, 지도번호: 古大4709-41



『여지도(輿地圖)』 「파주목」, 18세기 중반 제작, 지도크기: 26.5×19.1cm, 지도번호: 古4709-10

- ⑤ 지승(地乘) - 18세기 후반 제작
- ⑥ 광여도(廣輿圖) (19세기 초)



『지승(地乘)』 「파주목」, 18세기 후반 제작, 지도크기: 27.9×19.0cm, 지도번호: 古1842



『광여도(廣輿圖)』 「파주목」, 19세기 초 제작, 지도크기: 35.8×28.6cm, 지도번호: 古4709-30

- ⑦ 신대우의 『완구유집』  
大羽 十一日宿坡州碣 豐溪祠  
(대우(신대우)는 11일 파주 풍계사에서 묵었다.)
- ⑧ 오원의 『월곡집』  
歷碣 豐溪祠 祠在坡州鄉教傍  
(풍계사를 방문했다. 사당은 파주향교 인근에 있다.)
- ⑨ 파주군지(중) p149 풍계사터 - 문산 선유리에 있다. 부평이씨 묘역 안에 있다.
- ⑩ 국조보감 1784년(정조 8년) 8월 17일  
영릉(파주 조리)을 참배하고 각신을 보내 풍계사에 치제토록 하라.  
본읍(파주) 풍계사는 고 이세화, 오두인, 박태보 3인이 모두 배향되었다고 들었는데 오두인의 자손이 마침 각신(關臣)으로 배종하였는데...
- ⑪ 순조실록 1808년 8,10  
자운서원(법원), 파산서원(파평), 풍계사(파주), 금성위 박명원(파주), 화평옹주묘(파주)를 치제토록 하였다.

## 다) 풍계사의 건립 배경과 배향인물

조선 19대 왕 숙종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태평한 시대였다. 오랫동안의 임진란과 병자호란의 후유증을 수습하고 조선 사회제도의 재도약과 문예부흥이 활발히 일어난 시대였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 계속된 붕당정치가 절정에 이르고 논쟁의 쟁점인 ‘예송논쟁’은 숙종대에 이르러 더욱 과열 되어 사색당파로 갈라져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이에 숙종은 정치적 고비마다 이들 ‘붕당’의 세력을 적당히 활용하여 ‘환국정치’를 감행하여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그 중 1689년 ‘기사환국’은 풍계사 건립의 배경이 되었다. 기사환국이란 숙종의 후궁 소의장씨의 소생을 원자로 책봉하려는 문제로 서인계의 거두 송시열이 사사되고 서인계 사람들이 귀양을 가거나 축출되고 민암 등 남인들이 정권을 잡은 사건을 말한다.

숙종의 왕비 인현왕후 민씨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때마침 숙종이 총애하던 장희빈이 낳은 아들 균(경종)을 인현왕후의 양자로 삼아 세자로 책봉하려하자, 서인 노론계들이 이를 극력 반대했다. 그러나 숙종은 1689년 왕자 균의 정호를 종묘사직에 고하고, 그의 생모 장씨를 희빈으로 격상시켰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원인이 인현왕후 민비에게 있다하여 다시 중전을 폐비 시키고 장희빈을 중전으로 삼으려하자, 이세화, 오두인, 박태보 등 86명이 연명으로 이의 부당함을 상소했다. 숙종은 진노했다. 주동자인 이세화 박태보 오두인 등을 친국하고 처벌했다. 기사환국 이후 숙종은 인현왕후를 폐비시킨 것을 크게 후회하고 있던 중, 김춘택 등이 폐비복위운동을 꾀하자 장희빈을 다시 희빈으로 내리고 인현왕후 민씨를 왕비로

복위 시키니, 남인계열이 사사되고 1694년 정권은 다시 서인계열이 장악하게 된다. 이를 ‘갑술 환국’ 이라 한다.

그러나 1701년 ‘기사삼간신’ 중 이세화도 죽으니 숙종은 이세화가 살던 파주 선유리 칠정촌 집터에 ‘풍계사’를 세워 이들 세 충신을 향사하도록 했다. 풍계사의 배향인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헌 기록이 있다.

① 『신증동국여지승람』 『파주목, 사원』

이세화 자는 군실(君實), 호는 쌍백당(雙栢堂)이고 부평사람이다. 숙종 기사년에 향소하였으며, 벼슬은 행이조판서였으며,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오두인 자는 원미(元微) 호는 양곡(陽谷)이고 해주 사람이다. 숙종 기사년에 향소하여 절개를 지키다 죽었다. 벼슬은 형조판서에 이르렀고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박태보 자는 사원(士元), 호는 정제(定齋)이고, 나주 사람이다. 숙종 기사년에 향소하여 절개를 지키다 죽었다. 벼슬은 응교에 이르렀고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열(文烈)이다.

② 『경가지』 「파주목읍지」 풍계사우 배향인물

쌍백당 충숙공 이세화, 양곡 충정공 오두인, 정제 문열공 박태보

③ 1701년(숙종 27) 실록

11월 16일 파주 유생 안유 등이 상고하여 고 판서 이세화, 고 판서 오두인, 고 응교 박태보를 함께 풍계사우에 병향(並享) 하기를 청했는데 그대로 따랐다.



이세화 묘소

이제 이들 세명의 배향인물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세화(1630-1701)는 파주문산 선유리 칠정촌에서 거주하였으며 그곳에 묘가 있다. 이세화는 사람됨이 장중하고 의연함이 태산과 같았다. 성격이 침착하고 온후하여 충효사상이 뛰어났다. 1653년 23세시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에 올랐으며, 1657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정자에 제수되었다. 이어 사헌부장령 등 여러 관직에 봉직하였으며 1672년 광주부윤으로 있을 때 지수당(池水堂)을 건립하고, 황해, 함경, 전라, 평안도의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689년 경상도 관찰사를 지내고 향리에 있던 중 기사환국을 맞았다. 숙종이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려하자 이의 부당함을 상소하였는데, 상소문을 오두인이 주선하고 이세화가 직접 초하고 박태보가 붓글씨를 써서 86명의 서명을 받아 올렸다.

이에 숙종은 진노하여 친국에 나섰는데, 이 때에 이세화는 “신은 국사를 위하여 죽기를 원

했는데 이제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의 죽음이 성덕에 누를 끼칠까 두려울 뿐입니다. 신에게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옥리에게 맡기면 될 것을 밤새도록 친국하시니 혹시라도 옥체를 상하실까 두렵습니다.” 하며 오히려 왕의 건강을 염려하였다.

기사환국 때 정주로 유배되었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폐비되었던 민비가 복위되자 ‘인현왕후복위도감제조’를 맡아 인현왕후가 다시 왕비로 책봉되는 모든 절차를 완수하였다. 이어 여러 요직을 두루 거치고 7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청백리에 녹선되고 문집으로 『쌍백당집』이 있다.

오두인(1624-1689)은 숙종때 문신이다. 안성의 덕봉서원에 모셔지고 묘도 그곳에 있다. 오두인은 사람됨이 침착하고 고요하고 중후하여 걸치례를 일삼지 않았다. 숙종의 누이동생이 오두인의 며느리이다. 인조때 문과에 장원하여 형조판서에 이르렀다.

기사환국때 숙종이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세자로 삼으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네 분 임금의 후한 은혜를 받아 재상의 반열에 올랐으나,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른 지금 어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죽음을 어찌 두려워 하겠는가” 하고 임금께 올리는 상소문 작성에 앞장섰다. 이때 오두인은 연로하여 모진 고문에 생명이 위태했으나 그 태도는 의연하고 태연하였다. 결국 사형은 면했으나 의주로 귀양가는 도중 파주에서 죽었다. 문집으로 『양곡집』이 있다.

박태보(1654-1689)는 숙종때 문신이다. 의정부 수락산 아래 임강서원에 재향되고 그곳에 묘가 있다. 1677년 문과에 급제하여 전직, 예조좌랑을 거쳐 암행어사로 있을 때 호남지방을 순회하여 숙폐를 시정케하니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했다.

박태보는 청명특절하고 경솔까지 뛰어나 이치를 봄이 눈이 밝고 의를 행함에 용감하며 성품이 결백하고 아부하지 않아 시기하는 자가 많았으나 항상 임금의 총애를 받았다. 1688년 파주목사를 역임하였다. 기사환국때 모진 형벌을 받고 몸이 몽구러졌으나 정신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진도로 귀양가는 도중 장독이 극심해 노량진 육신사(六臣祠)앞에서 죽었다. 문집으로 『정재집』이 있다.

### 3. 결론

이와 같이 ‘풍계사’의 위치에 대해 여러 문헌과 지도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파주 풍계사’와 ‘풍계 충렬사’를 혼돈하기 쉽게 기록되어 있다.

- ① 국사대사전(민중서관)-이세화-풍계의 충렬사에 모셨으며 고향에 정문(旌門)이 세워졌다.
- ② 파주금석문대관(파주문화원)-p340-이세화 비문(남구만 씀)-파주 유생의 요청으로 풍계

충렬사에 배향되었으며 정려문을 세우고 충숙공이라 시호를 내렸다.

이에 관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坡州儒生疎合享于豊溪忠烈祠又命旌表門閭賜諡曰忠肅公)

여기서 ‘豊溪忠烈祠又…’라는 기록은 파주 유생들의 건의로 파주의 ‘豊溪祠’ 또 ‘의성의 학산 忠烈祠에도 제향되었다’라고 해석해야 맞다. 그런데 【豊溪祠】에 祠가 누락되고 【忠烈祠】에 지역인 【義城 鶴山】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이런 해석상의 오류가 생기지 않았나 사료된다.

파주 유생들이 연고가 없는 지역에 사당건립을 건의할 이유가 없으며, 다만 이들 세 사람이 경상도에 있는 의성 학산사당에 추향된 연유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사육신의 한사람인 단계 하위지 선생의 유고(遺稿)에 실린 「원향록(院享錄)」에 “의성 학산 충렬사에 사육신과 삼간신(이세화 오두인, 박태보)이 추향되었다” 는 기록이 있다. 이는 박태보가 노량진의 사육신 묘 옆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들 세 사람을 사육신과 같은 충신의 반열에 놓고 기리고 추모한다는 뜻으로 후대에 추향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풍계사의 위치는, 파주향교와 객사에서 북으로 1리(당시 거리 측정 단위는 지금과 다름을 참조) 쯤인 현재의 문산읍 선유리 산 89-4번지 이세화 묘역 내이며, 연대는 1701년부터 1868년까지 167여 년간 존치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초 제작된 ‘광여도’에도 풍계사는 표시되어 있으니 19세기 초까지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다. 이들 세 사람이 제향된 곳은 ‘파주의 풍계사’, ‘의성 학산의 충렬사’로 통일 되어야 한다. 또한 풍계사에 제향된 이세화는 파주, 오두인은 안성, 박태보는 의정부 등 모두 경기도에 유적이 있다.

따라서 기전(繼田)의 역사문화 계승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현대에 사라져가는 충효정신과 인간성 회복, 정의사회의 도덕적 재무장이라는 높은 뜻을 선양하기 위해서도 풍계사는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 ◎ 참고자료

국사대사전 - 민중서관(2001)

파주금석문대관 - 파주문화원(2000)

파주시지 - 파주시(2009)

기타 「쌍백당집」 「양곡집」 「정재집」 등을 참고하였음.



# 글로스터 이야기를 통해 본 파주 칠중성과 감악산 전적지에 관한 고찰

박재홍\*

1. 들어가면서
2. 글로스터 이야기
3. 칠중성이야기
4. 글로스터가 주는 교훈
5. 마무리

## 1. 들어가면서

임진강을 빼놓고는 그 어떤 이야기도 진행시킬 수 없을 정도로 임진강 유역은 파주문화의 흥망성쇠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역이다. 특히 임진강은 고려시대의 도읍지인 개성과 가깝고, 경관이 수려하여 술한 시인묵객들에 의해 찬사를 받았으며 조선조에는 임진나루를 통해 개성, 장단, 파주, 한양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 번영을 구가하였다. 경치가 좋은 곳에는 반구정, 화석정 같은 정자가 28개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고 겸재 정선이 그린 적벽도 임진나루 옆에 있다. 율곡이이와 우계 성혼, 황희 정승 등 역사상 존경받는 선각자들이 모두 임진강변에 세거하였다. 또한 임진강은 원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축을 벌이며 뺏고 빼앗기던 역사의 현장이었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 임금께서 이 곳 임진나루를 통해 의주 몽진길에 올랐고, 아직도 남북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군사적 긴장의 현장이자 평화를 열망하

\* 행정학박사, 파주문화연구소장

는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지금도 이 지역은 수많은 6.25 전쟁 전적비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임진강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장’이자 평화가 공존하는 곳이다.

임진강 상류에 자리 잡은 감악산(675m)은 경기 5악의 하나로 알려진 명산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면 산행을 즐기기 위해 이 산을 찾는다. 감악산은 또 파주사람들에게는 파주 10경으로 유명하다. 여름이면 더위를 피해 수많은 피서객들로 계곡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계곡 입구에 ‘영군묘지’로 알려진 전적비와 공원이 있다. 전적비 옆에는 ‘새들의 쉼터’가 있고 그 옆에는 사정(射亭)이 있어 침묵 속에서 신중하게 활시위를 당기는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다. 깊은 산세와 어울려 지극히 평화로운 모습이다. 이곳에서 3만 명이상 병력이 치열한 전투를 벌인 곳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60년 전 1951년 4월 22일 유서 깊은 임진강 칠중성과 감악산 설마치에서는 한국전쟁을 통해 가장 드라마틱하고 처절한 전투가 있었다. 전사(戰史)상 임진강 전투 혹은 설마리 전투로 불리는 이 전투의 주인공은 용맹스러운 영국군 제29여단 글로스터 연대 장병들이다. 중공군 3개 사단 2만 7천명을 상대로 652명 대대병력으로 치열한 전투를 벌여 30명만이 탈출하고 526명이 포로가 되었다. 포로들 중 300명이 사망했다.<sup>1)</sup> 이 처절한 전투가 있었던 설마 계곡에는 영국군 전적기념물이 세워져 이들을 기념하고 있고 해마다 4월에는 영국대사관과 전쟁기념 사업회 주관으로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서울이 함락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목을 지켜내,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결정적으로 저지한 이 전투는 머나먼 이국, 이름도 낯선 땅에서 자유와 평화라는 고귀한 가치를 지켜낸 글로스터 장병들의 이야기다.

## 2. 글로스터 이야기

글로스터 연대(Gloucester Regiment)는 1694년 창설되어 보어전쟁과 1,2차 세계대전, 워털루 전투 등에 참전하여 용맹을 떨쳤다.<sup>2)</sup>

1951년 4월 22일 중공군의 공격이 있기 전날인 21일, 글로스터연대 1대대는 칠중성(중성산 148고지)과 감악산 고지에 주둔하여 임진강을 도하하는 적을 감시하고 여단은 임진강 남단에서 중공군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오후 6시 중공군의 공격을 받은 것은 임진강을 건너가 있던 벨기에 부대였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벨기에 대대가 후퇴하고 새벽1시 피리와 나팔을 불며 중

1)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영국자료에 의하면 글로스터 연대 1대대 800명 가운데 59명이 전사하고 522명이 최후까지 물러서지 않고 버티다 포로로 잡혔으며 217명만 탈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영국군은 6.25전쟁 기간 중 6만 2천명이 참전, 1,086명이 전사하고 2,674명이 부상을 입었다.

2) 비슷한 시기에 명예혁명(1688년)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조선 숙종 20년에 해당하는 시기다. 흔히 글로스터 연대로 표기하지만 원래는 Gloucestershire 다.

공군이 몰밀 듯이 임진강을 건너왔다. 최전방에 주둔하던 A중대가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해 궤멸되었다.<sup>3)</sup> 우 전방 217고지를 방어하던 푸실리어 대대도 무너졌다. 글로스터 대대는 좌 전방 314고지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얼스타 대대는 398고지에서 중공군과 대 접전을 벌였다. 수적 열세에서 감악산 고지와 능선에서는 육박전이 벌어졌다. 23일 중일, 그리고 밤새도록 전투는 계속되었다. 설 새 없이 기관총 탄환이 날아들어 오는 깊은 참호 속에서 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웠다. 글로스터대대 병력을 지휘한 지휘관은 평소 말이 적은 J.P 카안 중령으로 결사적으로 고지를 오르는 중공군을 물리쳤다. 고립된 대대를 구하기 위해 문산 방면에 있던 미 3여단 병력과 필리핀 대대, 벨기에 대대가 글로스터 대대가 투입되었으나 막대한 병력의 중공군에 밀려 실패하였다. 여단 본부와의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글로스터 대대 병력은 3백 명으로 줄었고 25일 새벽 후퇴를 시작하였다. 글로스터 대대를 제외한 퓨질리어 대대와 얼스타 대대의 피해도 막심했다. 글로스터 대대는 계속 고지에 간헐했다. 그 날 아침, 다시 돌격하기 위해 병력을 집결시킨 중공군의 나팔소리는 마치 지옥의 절규처럼 계곡 곳곳의 절벽과 바위를 때렸다. 그 순간 나팔수가 길게 기상나팔을 불었다. 중공군이 멈칫하는 사이 점호나팔과 식사나팔을 차례차례 불었다. 나팔소리가 몇자 정적을 뚫고 글로스터 병사들이 갈채를 보냈다. 사격은 다시 개시되었다. 폭격기가 중공군을 불바다로 만들었지만 오후 8시가 다되어 갈 때까지 60시간 동안 전투가 계속되자 통신기 전지도 다 닳고 탄알도 바닥이 났다. 이제 그들에게는 항복 아니면 탈출밖에 없었다. 60명의 중상자들을 운반할 가망은 없었다. 카안 중령과 군의, 데이비스 군목 그리고 홉스 준위가 50여 명의 중상자들과 남기를 자원했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빈 소총을 부수었고 나팔수는 나팔이 중공군의 전리품이 되는 게 싫어 한발 남은 수류탄과 함께 참호에 넣어 파괴했다. 카안과 홉스준위는 그들의 청춘을 고스란히 글로스터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 자기 부대원들을 적진에 버려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10시경 감악산 314고지를 떠나 탈출을 시도한 D중대 하비대위 중대원들은 치열한 포위망을 뚫고 한국군 1사단이 배수진을 치고 있던 파평 방향으로 탈출한다. 100명중 살아남은 대원은 38명이었다.<sup>4)</sup> 나머지 중대는 탈출도중 죽거나 포로가 되었다.

글로스터 대대의 선전으로 중공군의 서울 침공 계획은 실패했다. 최소한 중공군 15,000명이 죽었다. 글로스터 부대원들에게는 45개의 무공훈장이 주어졌다. 부대가 해체될 정도로 참담한 패배를 겪었지만 글로스터 대대는 영웅으로 남았다.

글로스터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고지를 사수하다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던 글로스터 연대 소속 부대원들은 모두 522명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탈출에 성공한 제1대대 D중대 3대대 38명을 제외하고는 235고지를 사수하다 후퇴과정에서 포로가 된

3) 이 당시의 전투 상황을 페렌바크가 쓴 실록 '한국전쟁'에서는 비교적 리얼하게 서술하고 있다. 중공군이 A중대로 소리를 지르며 쳐들어 왔다. 중대장 안기어 소령과 두 명의 장교가 쓰러졌고 중대본부가 습격당했다. 중대 통신병은 실탄이 떨어지자 어둠속에 몰려드는 중공군을 총대로 후려갈겼다. 그리고 불꽃이 난무하는 어둠 속에서 적에게 에워싸이자 통신기가 있는 곳으로 기어가서 "중대는 전멸이다! 만세!"하고 최후 연락을 했다.

4) 이 극적인 전투상황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 보병장교로 참전했던 T. R. Fehrenbach가 1963년에 쓴 'THIS KIND OF WAR-Korea, A Study in Unpreparedness', 맥밀런출판, 1963에서 인용한 것이다.

나머지 대대 장병들이었다. 이들은 끔찍한 포로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탈출을 시도하거나 고문에 시달리면서 300여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128명만이 판문점을 통해 송환되었다. 끔찍한 포로 생활과 영국군의 용맹함은 송환된 안소니 파라 호커리(Anthony Farrar-Hockley) 대위의 저서를 통해 밝혀졌다.<sup>5)</sup> 호커리 대위뿐만 아니라 생환한 글로스터 용사들에 의해 생생한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런던 남부 한 주택가엔 ‘설마리’란 이름을 가진 집이 있다. 이 집의 주인은 샘 머서(Sam Mercer, 80)다. 4월 22일 그 전투에서 한 쪽 눈과 한쪽다리를 잃고 귀향한 상이용사다. 자신을 돌봐준 간호사와 결혼하여 꾸민 보금자리에 ‘설마리’란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런 분들의 증언을 담은 책이 영국인 기자 앤드류 새먼에 의해 ‘마지막 총알’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다.

매년 4월 22일에 열리는 글로스터 추모식에는 영국 왕실에서 반드시 참석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찰스 황태자, 앤드류 왕자가 다녀갔고 엘리자베스여왕도 다녀갔다. 매년 당시 용사들을 한국정부가 초청하여 행사를 참관하고 헌화하고 있다. 영국기와 태극기, 유엔기와 함께 백파이프 연주를 앞세우고 그 뒤를 글로스터 용사들이 따라 입장하는 것으로 추모식이 거행된다. 영국대사와 파주시장이 참석하고 적성종교와 구로여상 학생들도 자리를 함께한다. 매년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주는 행사도 곁들인다. 학생들은 이 곳 전적비 공원에 모여 전적비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봉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글로스터는 이미 이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매년 이 설마계곡에는 진혼곡이 울린다. 슬프고 장엄하다. 60년 전 그 기상나팔 소리를 기억하는 용사들에게 진혼나팔의 의미는 무얼까? 행사가 끝나면 참석자들은 중성산 정상(일명 캐슬고지) 칠중성을 찾아 당시 전멸한 A중대의 자취를 돌아보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 한다.

영국군은 1,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전에서 영국군의 용맹을 보여준 전투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08년 잉글랜드 남부 글로스터셔 인스워드 공군기지의 이름을 ‘입진기지’로 명명했다.

### 3. 칠중성 이야기

1951년 4월 22일 글로스터 대대 A중대가 주둔하여 전멸한 중성산 148고지 주변은 칠중성이라고 부르는 옛 원삼국시대 테피식 산성 터로 국가사적 437호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적성마지리 시가지를 지나 감악산을 끼고 연천방향으로 가는 길에 적성향교가 있다. 향교를 지나 산을 오르면 시야가 탁 트여 입진강이 한 눈에 들어오는 중성산 정상에 이른다. 행정구역으로는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산148번지다. 148미터에 불과한 야트막한 산이지만 이 곳에 서면 앞

5) 제1대대 소속은 아니었지만 감악산 235고지 전투(4. 23)에서 대위로 고지를 사수하다 중공군 포로로 잡혀 7번이나 탈출을 시도하면서 28개월간 갇힌 고문에 시달리다가 1953년 7월 27일 포로교환 협정으로 귀환하였으며 나중에 대장으로까지 진급하고 기사작위까지 받는다. 후에 ‘장검의 날’(The Edge of the Sword)이라는 책을 통해 글로스터 장병들의 용맹과 불굴의 의지를 알렸다. 이 책은 ‘파란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으로는 개미 한마리라도 보일 것 같은 임진강, 뒤로는 감악산이 병풍처럼 배수진을 친 것 같은 지형을 볼 수 있다. 문자 그대로 천혜의 군사적 요충지가 아닐 수 없는 곳이다. 이런 요충지이다 보니 문헌상으로도 많은 기록이 등장하는데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1년 온조왕이 말갈 추장을 잡아 적들을 모두 구덩이에 묻었다. 장소는 칠중하다”라는 기록이다. 이로부터 이때까지는 백제의 영토였음이 분명하다. 이후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령한 553년부터는 신라의 영토였다가 삼국이 통일전쟁을 벌인 7세기부터 이 지역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638년 고구려가 갑자기 칠중성을 공략하니 사람들이 산곡(山谷)으로 도망갔다는 기록으로 볼 때 간헐적으로 고구려가 이 지역 일대를 자주 공격한 것으로 보이며, 이 후 660년 ‘고구려가 칠중성을 침공하자 현령 필부는 20일간 성을 지켰고 고구려 장수가 지켜 퇴각하려 할 때 대사마 비삼이 성에 식량이 떨어졌으니 치라고 고구려와 내통하였다. 필부가 이 사실을 알고 반역자 비삼의 목을 쳤다. 고구려가 화공을 써 다시 총공격하니 필부는 빗발 같은 화살에 맞아 구멍이 뚫리고 피가 발꿈치까지 흘러내려 죽을 때까지 싸웠다는 기록으로 보아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이 곳은 고구려 영토였던 것이 분명하다

고구려가 멸망하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자 이번에는 당나라와 국경전쟁을 벌였던 것 같다.<sup>6)</sup> 역사상 칠중성 일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 나중에는 당나라까지 가세하여 치열한 각축을 벌였음을 알 수 있다. 역사를 거슬러 당나라까지 가세한 국제 전쟁이 있는 지 1276년 지나 중공군과 영국군이 이곳에서 전투를 벌였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신라는 당나라의 힘을 빌려 한반도를 통일 했고, 통일된 조국이 분단되자 다시 영국의 힘을 빌려 중공군을 막았다는 역설이 이곳에 존재했던 것이다.



칠중성 성곽

6) “638년 고구려가 칠중성을 침범하니 백성이 놀라 산골짜기로 들어갔다” - 삼국사기 선덕여왕조  
 “660년 고구려가 칠중성을 쳐 필부가 전사하였다” - 삼국사기 태종무열왕조  
 “675년 당 유인계가 우리군사를 칠중성에서 깨뜨리고 돌아갔다.” - 삼국사기 문무왕조



중성산에서 내려다 본 임진강

#### 4. 글로스터가 주는 교훈

한국전쟁은 한국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고 세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전쟁도 아니었다. 승리 한쪽도 패배한 쪽도 없이 휴전이라는 이름으로 중단된 미완성 전쟁이었다.

페렌바크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장기판으로 비유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청국과 일본, 러시아와 일본의 대국에서는 일본이 이겨 36년간 한반도를 지배하였고, 일본과 미국의 대국에서는 미국이 승리하였고 20세기 중반,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미국과 공산측의 대국은 언제 또 장기판에서 유혈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다만 장기판이 되었다고 말한다. 언제 또 장기판에서 유혈 충돌이 일어날지 모른다. 어찌 보면 한국전쟁은 ‘세계’라는 광장 속의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경우를 가상한 열강국의 국지전 실험실로 이용되지는 않았는지 반문해 본다.

1953년 8월 포로교환 시 에피소드는 한국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증언에 의하면 포로 교환 과정에서 북에서 출발한 남측 포로와 남에서 출발한 북측 포로가 판문점 부근에서 조우하였다. 훨씬 많은 차량이 북으로 향하는데 비해 남측으로 향하는 차량은 아주 적었다. 서로 길에서 교차하면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남측 포로들이 북으로 향하는 포로들에게 “고

생했다! 잘 가거라!” 고 소리치자 북측 포로들도 손을 흔들며 “고생했다! 잘 가거라!”고 외쳤다는 것이다. 포로수용소에서 고통과 잔인함을 기억하고 있는 포로들끼리 증오가 담긴 욕설이 아니라 동병상련의 인사를 나눴다라는 것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동족이기에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

D중대원으로 그날 탈출에 성공한 38명 중의 한명인 필립 아네츠(79세)씨가 한국을 방문해 당시 전장을 돌아보면서 한 말은 한국전쟁의 의미를 아주 간명(簡明)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

“그 문제를 풀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비로소 알았다. 한국이 이제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후회 없다”

‘글로스터 이야기’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영국의 용맹한 부대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시종일관 그들의 의연함을 잃지 않고 자존심을 지켜낸 전투 이야기다. 일반적으로 전쟁의 역사는 전과를 나열하고 공과를 되짚어 보는 것으로 그 생명을 다한다. 그러나 글로스터 이야기에는 사람들의 진한 감동이 있기에 단순하지 않다.

부상병들과 함께 고지에 남기를 자청한 카안 중령과 데이비스 군목, 홉스준위의 진정한 용기와 중과부적의 불리한 싸움에서 피하지 않고 글로스터 고지를 사수하다 몰살한 안기어 소령과 중대원들의 책임감, 포로로 잡혔지만 2년 4개월간 7차례나 탈출을 시도하고 갖은 고문을 당했던 호커리 대위의 의지,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굴하지 않고 기상나팔을 불어 전우들에게 용기를 심어 주었던 나팔수의 지혜, 용감하게 조국의 명예를 지켜낸 용사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지구 반대편에서 해마다 설마계곡을 찾는 영국왕실과 이제는 나이가 지긋한 전우들의 모습 등.

## 5. 마무리

문화는 옛 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행위다. 인류는 음악, 미술, 연극, 소설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를 통하여 문화를 꽃 피워 왔다. 철학자 매킨타이어는 이야기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이야기 하는 존재’ 즉 서사(敘事)를 통해 자기를 찾아간다는 의미다.

우리는 오늘도 문자로 표현된 이야기 즉, 시나리오를 통해 드라마와 만나고 영화와 만난다. 21세기 화려한 멀티미디어의 세계는 전설적인 로망스를 판타지로 발전시키며 놀라운 콘텐츠 문화를 창조한다.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이야기’나 톨킨의 ‘반지의 제왕’은 전 세계를 흥분으로 몰아넣으면서 엄청난 문화 콘텐츠 산업의 부가가치를 생산해 냈다. 이야기는 창조의 원천이다. 이야기를 선점한 기업은 살고 이야기를 만들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한다. 이야기가 있는 지역은 번영하고 이야기가 메마른 지역은 퇴보한다. 가장 훌륭한 마케팅 전략은 좋은 이야기, 독창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전략’이다.

한 지역의 문화적 수준은 그 지역 사람들이 갖는 문화에 대한 관심이다. 지역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 발 길 닿는 곳마다 전설, 민담, 마을의 유래와 설화 등 이야기꺼리가 넘쳐난다.

글로스터 이야기 또한 단순한 전쟁 영웅담이 아니라 임진강, 칠중성, 감악산이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벌어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승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부대 시설(진지 및 참호 등)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칠중성 유적에 대한 복원을 서둘러야 한다. 추가적인 훼손을 막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보존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인근에 위치한 적성향교 역시 지역 문화 유산인 점을 감안하여 사설 설치물들을 철거하고 경내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종합적으로는 임진강과 감악산에 이르는 광범위한 문화유산을 묶는 스토리텔링 관광전략을 구상 할만하다.

‘이야기’는 문화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큰 자산이다. 임진강을 끼고 수많은 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는 파주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이야기가 넘쳐나는 고장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글로스터 이야기’와 ‘칠중성 이야기’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시간의 흐름을 뛰어 넘은 ‘미완성된 전쟁과 평화 이야기’라는 점에서 맥을 같이한다.



전적비 전경

\*주) 사진자료는 [blog.naver.com/kkkimccc](http://blog.naver.com/kkkimccc) 옮김

# 파주 민통선 내 장단지역의 세거성씨와 인물

권효숙\*

1. 시작하는 글
2. 장단군의 지리와 역사
3. 장단군의 세거성씨와 이거(移居)
4. 파주 장단지역의 인물
5. 맺는 글

## 1. 시작하는 글

문산에서 경의선을 타고 가다보면 임진강역을 지나 도라산역으로 갈 수 있다. 유유히 흐르는 임진강 위를 철교로 건너면 철조망이 쳐져있는 민통선 지역으로 들어서게 된다. 민간인통제지역이라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무성한 숲과 나무들,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동물들과 이름 모를 풀꽃들, 그리고 그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는 백로, 기러기, 독수리가 보인다.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듯한 민통선 내 장단지역.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던 6·25전쟁 이전에는 임진강가에서 배를 부리는 소리, 도당굿하는 소리, 열차가 지나가는 소리, 주막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담소 나누는 소리들로 북적였을 이곳이 적막한 군부대 관리지역으로 변한 것이다.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왕건에게 신라를 넘겨주고, 개성으로 와서 왕건의 딸

\* 파주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낙랑공주와 결혼해 살면서 신라의 도읍지가 그리워 늘 오르던 도라산(都羅山), 비무장지대 땅 밑을 뚫고 들어온 1,653m 북한외 제3땅굴, 장단콩 두부를 만들어 파는 통일촌, 대성동 자유의 마을, 실향민이 정착한 해마루촌, 동의보감을 쓴 허준 묘역 등은 우리 민간인이 가볼 수 있는 민통선 내 지역이다.

국내외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이곳... 분단의 아픔으로만 기억되는 이곳... 이곳의 정확한 지명은 '경기도 장단군'이다. 고려 때부터 왕궁이 있던 도읍지 근교이고, 조선 조에도 한양과 멀지 않아, 왕실과 사족들이 거주하거나 사후 문중의 선영지가 많은 곳이다.

많은 사람들이 판문점,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도라산역이 현재 파주시로 알고 있으나 이는 모두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에 따른 임시행정구역이다. 현재 도라산역, 도라산전망대, 제3땅굴, 판문점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다.

	현재 임시행정구역	본래 행정구역
도라산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경기도 장단군 장단면 노상리
도라산전망대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경기도 장단군 장단면 도라산리
제3땅굴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경기도 장단군 군내면 점원리
판문점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 개성직할시 판문군 판문점리	경기도 장단군 진서면 어룡리



제3땅굴



판문점

필자는 이 지역을 답사할 때마다 이 지역에서 터를 잡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상상해보곤 한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뛰어놀았을 것이며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며 환갑잔치를 하고, 장례도 치르고 묘도 썼을 것이다.

지금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는 인물은 있을까? 그 인물들의 집안은 어떤 문중일까? 이런 의문에서 필자는 장단지역의 세거성씨와 인물을 연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한반도의 찢겨진 땅 장단지역에는 동의보감의 주인공 허균의 문중 양천 허씨 집안도 있었고, 세조 때 살생부를 쥐고 흔들던 청주 한씨 한명회 집안도, 조선에 유교를 도입한 순흥 안씨 안향의 집안, 문장이 뛰어나고 경학에 밝은 안동 권씨 양촌 권근의 집안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장단군민회가 있어서 고향을 잃은 아픔을 서로 달래며 결속하고 있고 명예군수까지 선출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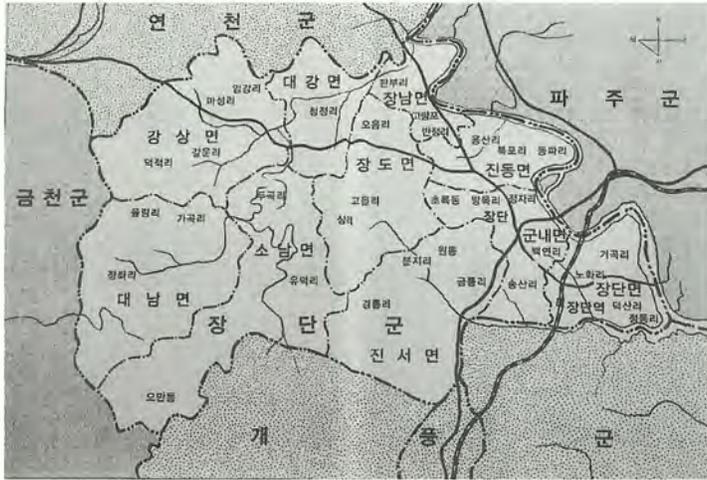
## 2. 장단군의 지리와 역사

### 1) 위치와 면적

장단군은 경기도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은 연천군(漣川郡), 남쪽은 파주시(坡州市), 서쪽은 개풍군(開豐郡), 북쪽은 황해도 금천군(金川郡)과 이웃하고 있다. 면적은 1916년에 간행된 <통계연보>의 자료에 의하면 총 10면 67개 동(洞)·리(里)에 면적 46.92방리(方里)로 되어 있다. 46.92평방리면 약 724km<sup>2</sup>에 해당된다.

국토 총면적의 0.057%에 해당되며, 도(道) 소재지까지의 거리는 철로로 38.6마일, 즉 62.12km이다. 행정구역은 1849년에 간행된 장단지(長湍志) 방리조(坊里條)에서는 20면 63개리였으나 1911년 한·일 합병 이후에는 20면 68개리로 되었다가 1930년 초에는 10면 66개리로 조정되었다. 1934년 초에 간행된 <面, 名稱 及 區域(면의 명칭과 구역)>에 의하면 10면 66개리의 구역은 다음과 같다.

장단면(長湍面)	동장리, 도라산리, 노상리, 노하리, 서장리, 정동리, 덕산리, 거곡리, 석곶리, 강정리, (이상 10개리)
군내면(郡內面)	읍내리, 점원리, 방목리, 정자리, 백련리, 송산리, 조산리(이상 7개리)
진동면(津東面)	하포리, 동파리, 서곡리, 초리, 용산리(이상 5개리)
진서면(津西面)	늘목리, 분지리, 금릉리, 어룡리, 선적리, 경릉리, 전재리 (이상 7개리)
장남면(長南面)	고랑포리, 원당리, 반정리, 판부리, 자작리.(이상 5개리)
장도면(長道面)	고읍리, 사시리, 석주원리, 중리, 상리, 하리, 오음리, 향동리, 매현리, 두매리 (이상 10개리)
대남면(大南面)	위천리, 성곡리, 석재리, 장좌리, 가곡리, (이상 5개리)
대강면(大江面)	청정리, 나부리, 포춘리, 우근리, 독정리(이상 5개리)
강상면(江上面)	구화리, 마성리, 덕적리, 갈운리, 임강리, 자하리, 솔랑리(이상 7개리)
소남면(小南面)	유덕리, 지금리, 흥화리, 박연리, 두곡리.(이상 5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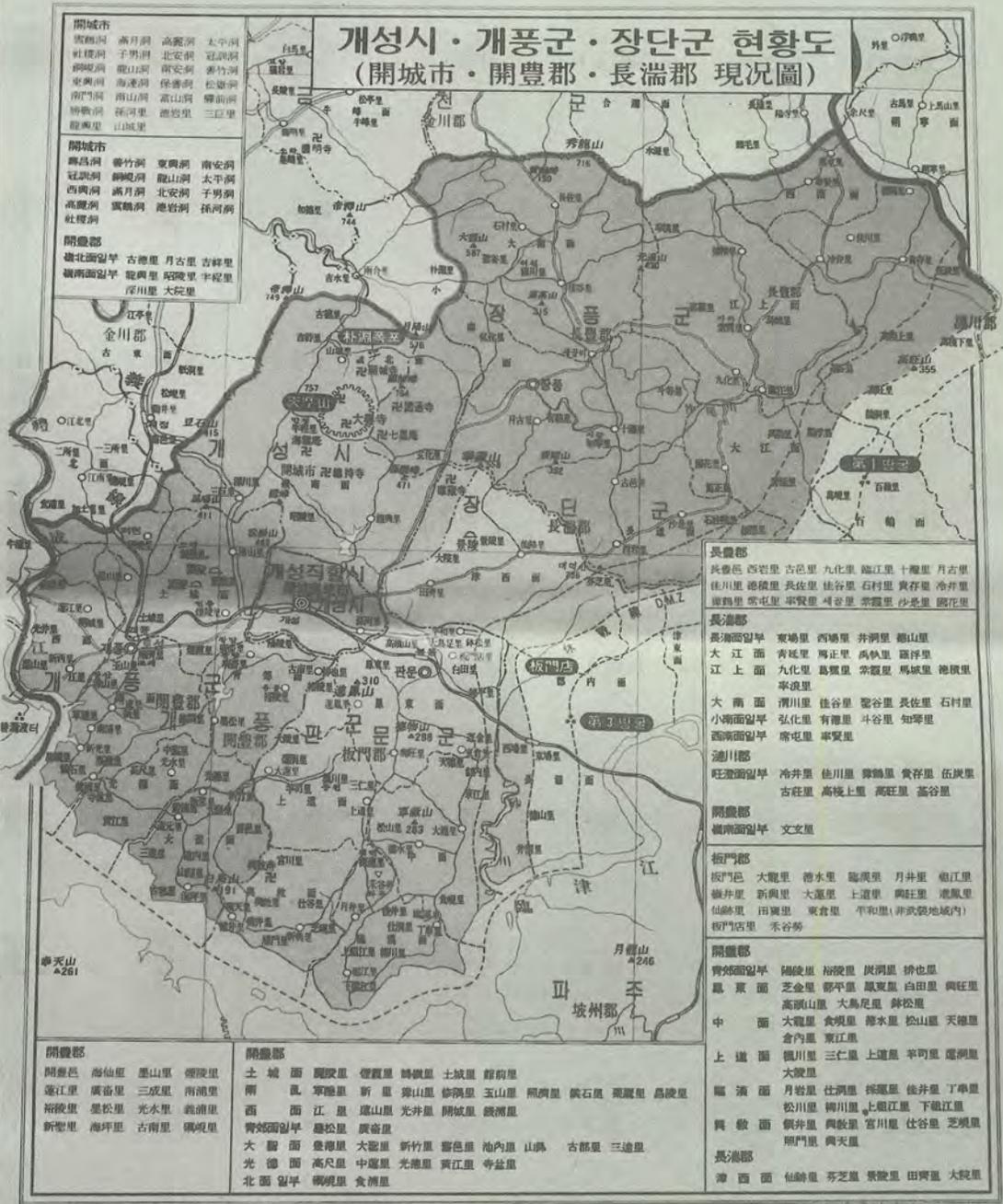
6.25전쟁 이전의 장단군 행정구역 지도

장단군은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이후 38선으로 양단되었고, 6.25 전쟁 이후 휴전선이 장단군의 동남부를 지나, 3분의 1정도만이 수복된 상태인데 이 지역 역시 4km 넓이의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어 거의 전역이 황폐화되고 말았다.

장단군은 1934년 당시 10면 66개리였는데 6.25 전쟁 휴전 후 북한은 장단. 개성지역의 행정구역을 1시(개성시) 3군(개풍군, 판문군, 장풍군) 86동으로 개편하였고, 이중 판문군과 장풍군이 주로 장단지역이다. 북한은 이 지역의 원주민들을 사상적으로 믿을 수 없다 하여 점차적으로 내륙의 오지(奧地)로 이주시켰다.

1962년에 이르러 남한 쪽 장단군 지역은 파주와 연천에 폐합되었다. 파주지역에 포함된 곳은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이며, 연천군에 포함된 곳은 장남면, 장도면, 대강면이다. 강상면, 대강면, 대남면, 소남면이 DMZ속에 들어갔거나 일부는 북한의 장풍군, 판문군으로 흡수되었다.

장풍군(長豊郡)	장풍읍 서암리 고읍리 구화리 임강리 십탄리 원고리 가천리 덕적리 장좌리 가곡리 석촌리 귀촌리 냉정리 장학리 석둔리 술현리 세골리 자하리 사제리 국화리
판문군(板門郡)	판문읍 대룡리 덕수리 임한리 월정리 조강리 영정리 신흥리 대연리 상도리 흥왕리 진봉리 선적리 전재리 동창리 평화리(비무장지역내) 판문점리 화곡로
개풍군(開豊郡)	개풍읍 해선리 묵산리 연릉리 연강리 광답리 삼성리 남포리 유릉리 묵송리 광수리 의포리 신성리 해평리 고남리 여현리



북한의 개성시 개풍군 장풍군 판문군 지도

최근의 북한지도에서 보면 세 군의 읍,리는 다음과 같다.  
장풍군에 장단군의 마을이 많이 포함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장 단 면	동장리 서장리 정동리 덕산리
대 강 면	청연리 독정리 우근리 나부리
강 상 면	구화리 갈운리 자하리 마성리 덕적리 솔량리
대 남 면	위천리 가곡리 성곡리 장좌리 석촌리
소 남 면	홍화리 유덕리 두곡리 지금리
서 남 면	석둔리 솔현리

이밖에 연천군 왕징면의 일부 마을 냉정리, 가천리, 장학리, 귀존리, 오암리, 고장리, 고잔살리, 고왕리, 기곡리도 장풍군으로 흡수되었다.

관문군에는 장단군, 진서면의 선적리, 분지리, 경릉리, 전제리, 대원리가 포함되었으며 개풍군에는 장단군지역 마을이 포함되지 않았다.

## 2) 장단군의 역사

장단은 본래 고구려의 장천성현(長淺城縣)인데,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에 장단으로 개칭, 우봉군(牛峰郡)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고려시대 목종(穆宗) 때에는 시중(侍中) 한언공(韓彦恭)의 고향이라 하여 단주(湍州)로 승격시켰으나, 그 후 다시 장단현(長湍縣)이 되었고, 문종(文宗) 때에는 개성부(開城府)에 직속되었다. 조선시대 태종(太宗) 때에는 이웃 임강현(臨江縣)과 합쳐서 장림군(長臨郡)이 되었는데, 세종 때 또다시 장단현이라 칭하게 되었다.

세조(世祖) 때에는 중궁(中宮)의 3묘(三廟)가 이 땅에 있다 하여 군(郡)으로 승격시키고, 치소(治所)를 당시의 백악산(白岳山)의 남록(南麓) 임진(臨津)에서 도원역(桃源驛)으로 옮겼다. 그러나 광해주(光海主) 때 다시 옛 터로 돌아갔다. 예종(睿宗) 때 도호부(都護府)로 승격된 후 대체로 변경이 없다. 가 조선 후기인 1895년, 지방관제 개정으로 지금과 같이 되었다.

별칭(別稱)으로 장천성(長淺城)·야야(耶耶)·야야(夜牙)·단주(湍州)·장림(長臨)·임단(臨湍) 등이 있다. 관할구역은 장단·군내(郡內)·진서(津西)·소남(小南)·대남(大南)·강상(江上)·대강(大江)·장도(長道)·장남(長南)·진동(津東)의 10개면이고, 군청소재지는 장단면 도라산리(都羅山里)이다.



1924년 당시 장단군청의 입단문

여러 문헌 사료에서 살펴보면 장단군의 강역(疆域)은 옛날의 장단현, 임강현, 임진현의 땅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풍군과는 시대에 따라서 군계(郡界)에 이동이 있었으므로 개풍군에 속하는 지방 중에는 일찍이 장단군에 속했던 땅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방 후 장단군은 38선으로 갈라지면서 많은 군민들이 북한과의 접경을 벗어나 남하하였다. 1950년 6.25 전쟁 3년간 상당수의 군민이 남으로 피난 나왔으며, 종전(終戰)되기 3개월 전 전선을 고착(固着)시키려는 무렵, 고랑포 전투 등의 격전지가 되기도 하고, 휴전이 성립되자 대부분의 구역이 비무장지대 또는 이북에 들어감으로써 장단군은 1962년에 마침내 파주, 연천 등에 폐합되었다.

### 3. 장단군의 세거성씨와 이거(移居)

#### 1) 장단지역을 본관으로 삼고 있는 성씨

임진 김씨(臨津金氏)

임진(臨津)은 경기도 장단(長湍)에 위치한 지명으로 본래 고구려의 진임성(津臨城)이다. 시조 김인조(金仁朝)는 신라종성(新羅宗姓)이며 김일신의 아들로 신희위상장군(神虎衛上將軍)을 지냈다고 한다. 문헌이 없으므로 세계(世系)나 본관의 유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데, 다만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임진(臨津)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2000년 통계청 조사에서는 임진 김씨가 전국에 25가구 115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에 12가구 34명이 있으나 파주시에는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단 김씨(長湍金氏)

시조 김선(金璣)은 신라 대보공(大輔公) 김알지(金閼智)의 후예로 전하고 있으나 사적(事蹟)이 없기 때문에 그 세계(世系)를 알 수 없으나 그가 장단부원군(長湍府院君)에 봉하여졌으므로 그 후손이 관향을 장단(長湍)으로 하였다고 전한다.

또는 신라 제56대 경순왕의 아홉 번째 아들 학성부원군(鶴城府院君) 덕격(德擊)의 후예로 전하는 김일신(金日新)을 시조로 전하는 문헌도 보인다. 장단 김씨는 2000년 통계자료에서 전국에 4가구 1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주시에는 거주자가 없다.

#### 단주 한씨(湍州(湍川)韓氏)

단주(湍州)는 파주시 장단면(長湍面)·군내면(郡內面)·진서면(津西面)·진동면(津東面) 일대의 옛 이름이다. 시조 한총례(韓聰禮)는 고려 현종의 국구(國舅)로서 광록대부(光祿大夫), 소경(少卿)을 역임하였고 사후에 내사령(內史令)에 증직되었다고 한다. 1001년(목종 4)에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올랐던 한총례의 아들 언공(韓彦恭, 940~1004)이 고향인 장단을 단주(端州)로 승격시켰는데 이후 아버지 한총례를 시조로 하여 단주 한씨가 되었다. 그러나 본래 청주 한씨의 분파였기 때문에 후에 다시 청주 본관과 합본(合本)되었다. 고려인물중 장단이 고향인 인종 때의 안인(韓安仁, ?~1122)과 그의 사촌 충(忠, ?~1129)은 본관이 단주로 기록되어 나타나지만 그 후의 인물 악(濕, 1274~1342)과 수(脩, 1333~1384) 공의(公義, 1307~1365) 제(濟, 1340~?)는 본관이 청주로 기록되어 있어 단주 한씨가 후에 청주 한씨로 합쳐졌음이 확인된다.

2000년 통계청이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단주 한씨는 전국에 31가구 총 138명이 있으며 파주시에는 거주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파주 한씨가 전국에 698명 파주시에 10명, 교하 한씨가 전국에 7명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 한씨는 모두 청주로 합본되고 곡산 한씨만 제외되었음이 1987년~1993년 사이에 편찬된 제6교 청주한씨대동족보에서 확인되었다.

## 2) 장단군의 동족부락

장단군은 고려 왕조가 한반도를 통치하는 동안 개성(開城)에 이웃해서 고려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러므로 장단군의 문화는 왕가 및 정치 중심지로서의 문화를 그대로 이어 온 곳이다. 신라 경순왕의 왕릉을 비롯하여 고려 세 왕릉이 이곳에 있고, 수많은 명승 고적이 이 고을에 있으며, 고려조에서 관직을 갖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곳 장단 지역에서 세거해 왔다.

조선시대 성종 때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이 지역의 성씨는 장단에 한(韓)·전(田)·풍(馮)·허(許)·선(宣)·김(金)·이(李)씨와, 임진의 송(宋)·김(金)·함(咸)·형(邢)·표(標)·

선(宣)·종(宗)씨와 임강의 이(李)·정(鄭)·노(盧)·경(卿)·사(史)씨와 송림(松林)의 김(金)·문(文)·전(田)·송(宋)·차(車)·미(米)씨가 장단에 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뒤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1931년에 일제가 실시한 동족부락에 대한 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성씨가 있었다.

면	동리(洞里)	성(性)	본관(本貫)	호수(戶數)
군내면(郡內面)	조산리(造山里)	김(金)	김해(金海)	45
			강릉(江陵)	21
진동면(津東面)	백련리(白蓮里)	최(崔)	강릉(江陵)	18
	초리(哨里)	이(李)	전주(全州)	38
장남면(長南面)	하포리(下浦里)	김(金)	의성(義城)	22
		정(鄭)	청주(淸州)	21
대강면(大江面)	자작리(自作里)	이(李)	전주(全州)	38
	원당리(元堂里)	최(崔)	전주(全州)	26
대강면(大江面)	포춘리(浦春里)	한(韓)	청주(淸州)	27
		안(安)	죽산(竹山)	25
		최(崔)	전주(全州)	15
	독정리(篤正里)	한(韓)	청주(淸州)	22
		허(許)	양천(陽川)	30
	우근리(禹勤里)	허(許)	양천(陽川)	66
강상면(江上面)	나부리(羅浮里)	이(李)	전주(全州)	28
	임강리(臨江里)	이(李)	전주(全州)	70
		윤(尹)	파평(坡平)	18
	덕적리(德積里)	이(李)	전주(全州)	45
		김(金)	경주(慶州)	24
	구화리(九化里)	이(李)	전주(全州)	38
마성리(馬城里)	이(李)	개성(開城)	16	
	김(金)	신평(新平)	20	
대남면(大南面)	위천리(渭川里)	이(李)	경주(慶州)	45
		김(金)	경주(慶州)	45
	석촌리(石村里)	이(李)	전주(全州)	25
	장좌리(長左里)	이(李)	전주(全州)	29
		김(金)	전주(全州)	23
	가곡리(佳谷里)	김(金)	김해(金海)	27
성곡리(聖谷里)	이(李)	김해(金海)	26	
소남면(小南面)	홍화리(弘化里)	이(李)	전주(全州)	17
		박(朴)	울산(蔚山)	24
장도면(長道面)	매현리(梅峴里)	이(李)	한산(韓山)	15
	오음리(梧陰里)	이(李)	전주(全州)	25
	갈현동(葛峴洞)	윤(尹)	해평(海平)	25
	계당동(桂堂洞)	김(金)	강릉(江陵)	38
진서면(津西面)	금릉리(金陵里)	우(禹)	단양(丹陽)	18
		김(金)	김해(金海)	30
	경릉리(景陵里)	박(朴)	무안(務安)	94
	눌목리(訥木里)	김(金)	경주(慶州)	15
진남면(津南面)	노산리(盧山里)	이(李)	전주(全州)	20
	도라산(都羅山)	박(朴)	창원(昌原)	31
		이(李)	밀양(密陽)	29
	거곡리(巨谷里)	이(李)	진위(振威)	29
	이(李)	전주(全州)	23	

이 표에서 보면 장단군에서 가장 많이 살던 성씨는 다음과 같다.

성씨	총호수	가장 많이 살던 곳(호수)
전주 이씨	418	강상면 임강리 (70호)
김해 김씨	128	군내면 조산리 (45호)
양천 허씨	96	대강면 우근리 (66호), 대강면 독정리 (30호)
무안 박씨	94	진서면 금릉리 (94호)
경주 김씨	84	강상면 마성리 (45호)
강릉 김씨	59	장도면 갈현동 (38호)
청주 한씨	49	대강면 포춘리 (27호)
죽산 안씨	25	대강면 나부리 (25호)

2009년 증보판 『장단군지(長湍郡誌)』에서 각 면의 지명유래를 보면 마을의 집성촌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대강면, 강상면, 소남면 등은 조사되지 않았지만 다른 면에서 조사 기록된 마을의 집성촌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집성촌이 있었다는 기록만 있고 몇 호나 되는지 알 수 없는 곳이 많아 아쉽다.

면	리	마을명	성씨	호	집성시기
장단면	서장리	창동(倉洞)	선산김씨		1450년부터
	덕산리	사창동(士昌洞)	해주오씨	80	
	강정리	고루동(高樓洞)	행주기씨	50	
		도무동(桃茂洞)	제주고씨		
	석곶리	한수동	황해황씨	50	
	거곡리	조랑동	밀양박씨		1580년부터
군내면	점원리	점희릉동	안동권씨		
진동면	하포리	아현동 독매마을	풍양조씨(趙氏)	40	
진서면	금능리	금촌동	김해김씨	30	
		마장동	의령남씨	50	
		내동	무안박씨	80	
장남면	원당리	원말	함안조씨		
	백작리	오리골	해평윤씨 전의이씨		
	고랑포리	배나무골	연일정씨		
		갈매울	안동김씨	20	
	반정리	운개미	단양우씨		

### 3) 장단군의 주요세거성씨의 이거(移居)현황

#### 행주 기씨(幸州奇氏)

행주기씨는 고려조의 성족(盛族)으로 순우(純佑)의 손자 윤위(允偉)·윤숙(允肅)이 대장군(大將軍)으로 고종(高宗) 때 이장대(李將大)의 난과 여진(女眞)의 내침을 격퇴하였고, 탁성(卓誠)은 명종조(明宗朝)에 부원수(副元帥)로 조위룡(趙位龍)의 난을 평정하였으며, 자오(子旣)는 충렬왕(忠烈王) 때 내안(乃顔, 원태조의 동생)의 반당을 토벌하는 등 많은 장신(將臣)을 배출했다. 따라서 고려 때부터 관직생활을 하던 기씨들의 거주처가 장단지역이었으리라 추정되며, 그 후손들이 장단면 강정리 지역에서 50여 호가 집성촌을 이루어 살아오다가 6.25 전쟁 이후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

파주시 교하읍 송촌리 감골마을에는 행주 기씨가 15세기에 입향조 기정지(奇廷芝, 1461년생)이 후로 정착하여 살고 있는데 현재 송촌리에 행주 기씨가 40여 호 집성촌을 이루어 세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고양시에서 제일 오랜 성씨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행주기씨는 고려 때 융성하였던 시대에 고양, 행주, 능곡 등지에 수십 가구가 살다가 가문의 입지가 쇠퇴되고 난세를 당해 전국각지로 이주 하였다가 조선조 중엽에 능곡 지방에 점차 집성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후 기묘사화 등으로 인하여 전라도 등 각 지방으로 다시 분산, 은거하면서 학문에 전념하였다고 한다. 현재 고양시에는 특별히 집성되는 마을이 없고 선조의 묘역 인근에 최근 덕양 서원이 설립되어 업적을 연구 발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 안동 권씨(安東權氏)

안동권씨는 고려 때 시조 권행의 10세손 추밀원부사 권수평(權守平)이 1210년경 안동에서 출생하여 관직을 이수하기 위해 송도로 진출한 이후 그를 비롯한 그의 후손들이 대개 장단의 임진강 주변(현재 진동면 기온리 주위)에서 세거하게 되었다.

그는 추밀공파의 파조가 되었는데 장단에 있던 묘소는 실전되어 진동면 하포리에 제단을 설치했고, 한림학사, 지제교를 역임했던 그 아들 위(巍)의 묘소도 실전되어 추밀공 단소아래 단소를 마련했다. 찬성사, 판군부사사를 지낸 손자 단(塤)의 산소는 개성 근처 덕달동에 있고, 고려 충선왕이 양자로 삼았던 추밀공의 현손 후(煥)의 묘소는 진동면 기온리(지금의 하포리 저운동)에 있다.

이후 시조로부터 19세손까지 후손들의 묘소가 장단의 진동면에 있고 20세 이후의 후손 묘는 김포에 있다. 17세 화산부원군 복(復)의 3자 공(恭)은 태종의 12녀 숙근옹주의 부마였다. 추밀공의 증손 권부(權溥)는 자신을 포함해 그의 아들 5형제와 그의 사위 3명이 모두 군(君)에 봉해져서 명성을 떨쳤다. 당대 9봉군(當代九封君)은 역사상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이 가문의 자랑이다.

이를 볼 때 안동권씨는 1200년경부터 개성근교인 장단지역에서 뿌리를 내려 동족마을을 이루고 6.25전쟁 이전까지 오래 세거해왔다가 이후 각지로 이거해 간 것을 알 수 있다.

장단에 살던 안동권씨들은 최근 서울에 20가구, 고양시에 20가구, 파주시에 16가구, 기타 지역에 11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동권씨 문중의 화산부원군 권복의 신도비문 봉독하는 모습

#### 강릉 김씨(江陵金氏)

고려 공민왕 때 감무공 김윤남(金允南, 1361년생)은 호는 운암(雲巖)으로 공조판서(工曹判書) 추(鍾)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공민왕 때 홍건적과 왜구를 막아 큰 공을 세운 충의지신의 업적을 남겼으나 고려 말에 국운이 다함을 예견하고 장단(長湍)으로 낙향하여 은거하다 별세하자 윤남도 조선 개국 후 낭천감무(狼川監務)의 벼슬을 버리고 오리곶면 내포리(현 문산읍 내포리)에 은거하였다. 매일 산봉우리에 올라 개경을 바라보며 나라의 쇠망을 한탄하여 그 이후 이 산을 국사봉(國思峰)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윤남의 후손들은 국사봉 아래 월릉면 능산리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려 세거해 나갔으며 윤남의 증손 23세(世) 사기(士奇, 1517년졸)는 창녕 성씨 성담수의 사위인데, 사육신 사건의 여파로 진사에 머물렀다. 그의 동생 사희(士熙)의 손자가 파주 사족의 핵심인물의 하나인 장포공파(長浦公派) 김행(金行, 1532-1588)이다. 김행은 뛰어난 덕행과 학문, 그리고 효행으로 이름난 인물이다. 장포공파(長浦公派)로 분기한 김행의 후손들은 내포1리 장포마을에 거주하며 세계(世系)를 이어나가고 있다. 효자 성중(聖重)과 규(矢+見+木)를 배출한 능산리의 감무공파의 입향조 윤남의 묘는 문산읍 내포리 산 24번지에 있으며 현재 능산리에는 후손들이 26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내포1리 장포공파 후손들은 예전에 많이 모여 살았을 때는 45호 이상이었으나 최근엔 외지로 많이 나가 9호가 살고 있다고 한다.

적성면 두포리 밤고지 마을에는 강릉 김씨 한림공파가 15세기 후반부터 정착해서 거주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30여 호 이상 집성촌을 이루어 살았지만 지금은 6가구만 거주하고 있다.

고양시에는 39세손 김남필(金南弼)이 장단군 진서면에서 거주하다가 6·25동란으로 인하여 남하하던 중 고양땅(지금의 사리현동)에 가세(家勢)와 일터를 이루어 그 후 약 50여년동안 강릉김씨 지산군파의 일가를 이루며 번성해왔다.

강릉김씨는 최근 고양시 사리현동에다 망향제단(26世~30世까지)을 세우고, 송조당(납골묘)도 크게 지었다.



고양시 강릉김씨 송조당(납골당)



강릉김씨 망향제단(위),  
26세~30세까지의 망향제단 비문(아래)

### 청주 한씨(淸州韓氏)

청주 한씨는 고려 때부터 장단을 고향으로 한 인물들이 조정에 많이 진출하였다. 한언공(韓彦恭, 940~1004)은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올랐으며 고향인 장단을 단주(端州)로 승격시켰고 목종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으며, 한공의(韓公義, 1307~1365)는 상당부원군 악(濼)의 아들로 음보로 녹남부사에 임명된 뒤, 많은 관직을 거쳐 소부, 위위, 선공의 세 판사를 역임하였고 이어 대인에 이르렀다. 이후 1351년 공민왕의 즉위 후에도 두터운 신임을 받아 산기상시와 호부상서, 형부상서로 임명되어 성실하고 공정한 송사처리로 명성을 떨쳤다. 정조사로 원나라에 다녀왔으며 삼중대광보조공신(三重大匡補佐功臣)에 책훈되었고, 청성군(淸城君)에 봉해졌다. 또한 품계가 벽상삼한(壁上三韓)에 이르고 충혜왕의 묘정에 배향된 한악(韓濼, 1274~1342)이 있으며, 벼슬이 판후덕부사(判厚德府事)에 이르고 청성군(淸城君)에 봉해진 당대의 명필 한수(韓修, 1333~1384)와,

이조판서를 지낸 한리(韓理, ?~1417)와 호부판사를 역임한 한제(韓齊, 1349~1398)는 공의(公義)의 세 아들이며 수(脩)의 아들 상질(尙質, ?~1400) 등이 청주 한씨의 고려 때 인물이다. 진동면과 서곡리에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리(理)의 차남들 승순(承舜, 1380~1448)이 첨지중추원사를 지냈으며 승순의 아들 서룡(瑞龍, 1398~1461)은 사헌부감찰. 첨지중추원사를 역임했고, 차남 서봉(瑞鳳, 1412~1456)은 이조정랑에 제수되고 좌익원종공신 2등에 녹훈되었으며 삼남 서구(瑞龜)는 첨지중추원사와 대사헌을 지냈으며 수충위사협찬 정난공신 2등에 훈록되었다. 이들의 묘역은 교하면 교하리에 있다.

적성면 장파리 봉우재마을 후손들은 연천군 미산면에서 약 300여 년 전에 입향한 참판공파가 20여 호가 세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장단 쪽의 청주 한씨와는 19세 유향공 수(修) 대에서 갈라진 후손들이며 입향조 한내문(韓乃文)의 묘는 적성면 답곡리에 있다. 6.25때 장단에서 피난 와서 정착한 청주 한씨들은 조리읍 장곡3리의 14호가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장단군 대강면에 집성촌을 이루어 살던 청주한씨들은 6.25전쟁이후 서울 등 각지로 나갔는데 장단군민회 대강면회 회원명부에 나타난 최근 주거지는 서울시에 36가구, 파주시에 7가구, 고양시에 3가구, 기타 지역에 19가구이다.



유항 한수 묘역



유항 한수 신도비

#### 풍양 조씨(豐壤趙氏)

문산읍 문산리의 풍양 조씨는 면(沔)을 파시조로 하는 언양공파이다. 입향조 면은 춘천으로부터 장단 진동면 초리로 17세기 후반에 들어왔으며 묘도 진동면 초리에 있다. 초리와 인근 하포리 아현동 독매마을 등지에 60여 가구가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6.25전쟁 이후 피난을 나와 각 처로 흩어졌다. 현재 파주시에 18가구, 고양시에 2가구, 서울시에 18가구, 기타지역에 4가구가 살고 있다.

## 양천 허씨(陽川許氏)

양천 허씨는 고려 목종(穆宗) 때 내사사인(內史舍人)·지제고(知制誥)·태자사의(太子司議)등을 지낸 원(元)과 증손(曾孫) 정(正)이 예부상서(禮部尙書)를 지낸 후 태자재보(太子太保)에 이르는 등 관직 생활을 하면서 장단에 세거한 것으로 보이며, 그 후 많은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왔다. 해방 후 장단군 대강면 독정리(篤正里)에 30호, 우근리(禹勤里)에 66호 등 양천 허씨들은 이곳에서 누대를 이어왔다. 지금 이곳은 비무장 지대로서 후손들은 6.25 전쟁 이후 모두 피난을 가서 각지로 흩어졌다. 대강면의 양천 허씨들은 주로 서울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26가구), 파주와 연천에 각 1가구, 기타지역에 5가구가 살고 있다.

이들은 매년 9월이면 연천군 백학면 백연리 두류봉 최전방 철책선 아래에서 망향제를 올리는데 이곳에서 고향땅이 보이기 때문이다.

## 허준의 고향은 장단군 대강면 우근리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동의보감>을 저술한 명의 허준의 묘가 진동면 하포리 129번지에 있는데 이곳은 문중 묘역은 아니며, 허준의 어머니 묘와 허준부부의 묘만 있다. 허준은 양천 허씨 시조의 11세 판도좌랑공 관(冠)에서 분파하여 12세손에서 영월공(寧越公) 서(舒)로부터 다시 분파되는 영월공파 5세손으로서 그의 고향은 대성동 부근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마을이라고 한다(양천 허씨 장단군민회 前대강면장 허병복씨 증언)

허준 선조의 묘소는 우근리를 중심으로 하여 도보로 1시간을 전후로 한 지역에 몰려 있다. 양천 허씨 시조 허선문(許宣文: 삼한공신 공암촌주)은 고려 태조 때의 인물로서, 837년에 태어나 공암현(현재의 양천, 강서 지역)에 살았으며, 고려 태조가 견훤을 정벌 할 때 많은 군량미를 공급하여 고려의 개국공신이 되었다.

그의 아들 현(玄)이 소부감(나라의 중요 물건보관창고를 관리하는 관청)의 소감(고려 관직, 종4품)을 역임했고 손자 원(元)이 예빈성(국빈을 접대하는 관청)의 경(卿)을 역임한 것으로 보아 그의 아들부터는 개성에 기반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허선문으로 부터 14세 허금(許鎬)까지는 고려시대에 태어나서 고려시대에 사망 하였다. 그런데 시조로부터 9세까지의 묘소는 전하지 않는다. 시조의 10세손 허공(許珙)은 충렬왕 때 추밀원지사와 지공거, 밀지사판사를 지냈으며 묘는 경기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에 있다.

12세손 허백(許伯)은 개성부 전포에, 14세손 허금(許鎬)은 개성부 승제문밖 외수우리 다대동, 14세손의 부인 원주 원씨는 장단군 대강면 우근리에 묻혔다. 16세손 허비(許扉)와 그의 부인 전의 이씨는 장단군 대강면 해공에, 18세손(조부) 허근(許垠: 1468~1523)은 장단군 임진면 북백목동에 묻혔다.

허준의 모친과 허준, 그리고 허준의 9세손 허규(許圭: 1790~?)까지 대대로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에 묘소가 있다. 즉, 고려의 도읍지는 개성이고, 허준의 직계 조상들의 묘소가 개성 주변과 장단에, 그리고 허준의 모친과 허준, 허준의 직계 자손 거의 대부분이 장단에 묻힌 것을 보아,

허준은 장단군 대강면 우근리에 세거(世居)하던 양천 허씨임이 분명하다.

대개의 경우 선산(先山)에서 10리를 전후로 한 거리에 그 선산과 관련된 자손들이 살았다. 선산이란 대개의 경우 공을 세운 신하에게 하사한 땅이므로, 선산은 가문의 근거지이며, 그 주변에 사는 자손들에 의하여 지켜져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았을 때 허준의 고향은 당연히 장단군 대강면 우근리로 확인 된다.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의 허준 묘역

#### 4. 파주 장단지역의 인물들

안동 권씨 중에는 추밀공파의 파시조인 권수평(權守平, 미상~1250)이 있다. 1210년경 안동에서 출생하여 송도로 진출한 이후 추밀원부사를 역임했다. 대정(際正)으로 가난하게 지낼 때, 낭중 복장한(卜章漢)이 죄없이 귀양가게 되자 그의 토지를 넘겨받아 몇 년 동안 조(租)를 받았는데, 그 뒤 복장한이 사면되어 돌아오자 전혀 모르는 사이였지만, 그 토지에서 받은 전조(田租)가 이미 조운(漕運)되어 왔는데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조부(租簿)를 복장한에게 가져다 주었다. 복장한이 토지만 돌려받고 조부를 거절하자, 그것을 그 집에 던져버리고 돌아왔다. 이는 토지의 점탈이 흔히 있던 당시로서는 드문 일이었으므로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고 하며, 또, 이때 귀족자제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견룡(牽龍)에 선발되었으나, 집이 가난해 의복 마련이 힘들다는 이유로 사양하여 역시 많은 칭찬을 받았다.

그를 비롯한 그의 후손들이 대개 진동면 기온리 주위에서 세거해왔다. 장단에 있던 그의 묘소는 실전되어 진동면 하포리에 제단을 설치했다. 한림학사, 지제교를 역임했던 그 아들 위(維)의 묘소도 실전되어 추밀공 단소아래 단소를 마련했다.

그의 증손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 권부(權溥)의 다섯아들 중 권준(權準, 1280~1352)은 1310년(충선왕

2)에 밀직부사(密直副使), 1313년에 지밀직사(所知密直司事)에 올랐으며,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에 임명되고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으로 봉해졌다. 아버지의 지시로 이제현(李齊賢)과 함께 『효행록(孝行錄)』을 지었다. 시호는 창화(昌和)이며, 진동면 서곡리에 묘가 있다.

권준의 동생인 권후(權煦, 1296~1349)는 충선왕의 신임을 받은 형 준(準)의 덕분으로 낭장(郎將)에 오르고, 다시 삼사판관(三司判官)으로 전임되었다. 충선왕이 원나라에 있을 때 불리어 가서 아들로 입적되면서 왕후(王煦)라는 이름을 하사받았으나, 조선조에 들어와서 권근(權近)의 건의로 본성을 회복하여 권후가 되었다. 1314년 원나라에 들어가 있던 충선왕의 요청으로 다시 원나라에 가서 황태자의 시구르치(速古赤: 侍子)가 되고, 계림군공(鷄林君公)의 작위와 전택을 하사받았다. 1320년(충숙왕 7)에 충선왕을 호위하여 원나라의 서울로 돌아와 1347년(충목왕 3) 영도첨의사사(領都僉議司事)에 임명되고 다음해 다시 정승에 올랐다. 1349년(충정왕 1) 원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던 중 창의현(昌義縣)에 이르러 병사하여 공민왕의 묘정에 제향되었으며, 시호는 정헌(正獻)이다. 진동면 하포리에 묘가 있다.

김응순(金應淳 1728 ~1774)은 조선 후기 문신으로 장단군 장북면 조목동에 묘가 있다. 본관이 안동이며, 도승지, 부제학을 거쳐 이조참판, 대사헌, 경상도관찰사 등을 역임했다. 1774년 사노비의 폐지를 상소하였으며, 한성부판윤이 되었다. 사후에 예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저서로 『풍계록(楓溪錄)』이 있다.

김정국(金正國, 1485~1541)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의성이며, 자는 국필(國弼), 호는 사재(思齋)·팔여거사(八餘居士)이다.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의 문인으로 조광조, 이장곤 등과 교류하였다. 황해도관찰사 재임 중 1519년 『경민편(警民編)』을 편찬하고, 기묘사화 때 사림파 옹호의 죄목으로 형인 안국(安國)과 함께 관직이 삭탈되었다. 그 후 고양군 중면 망동으로 내려가 스스로 '팔여거사'라 칭하고 은거하면서 학문을 닦고 저술과 후진 교육에 전심하여 많은 선비들이 문하에 모여들었다.

20년 만에 1537년 관직이 복구되어 예조·병조·형조참판 등의 요직을 차례로 지내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성리학과 역사, 의학 등에 밝았으며, 시와 문장에도 뛰어났다. 장단의 임강서원(臨江書院), 용강의 오산서원(鰲山書院), 고양의 문봉서원(文峰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성리대전절요(性理大全節要)』 4권 2책과 시문집인 『사재집(思齋集)』 4권 2책이 있으며, 그 밖에도 『춘가구급방』, 『역대수수승통입도(歷代授受承統立圖)』, 『기묘훈적(己卯勳籍)』, 『경민편』 등이 있다.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진동면 하포리에 묘와 신도비가 있으며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22호로 지정되어 있다.

상득용(尙得容)은 생몰년 미상이나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장단 출신이다. 본관은 목천(木川)이며, 자는 약능(若能), 호는 덕옹(德翁)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수문장(守門將)이 된 뒤 선전관(宣傳官), 훈련원판관(訓練院判官), 화랑진첨사(花梁鎭僉使) 등을 역임하였다. 무인으로서 독서를 즐겨 병서에 해박하였고, 경사(經史)에도 밝았으며 천문·주수(籌數)에 두루 능하였다. 말년에는 고향에 돌아가 제자 양성에 노력하여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였다. 저서로 『성루합편(星漏合編)』, 『동국산

천고(東國山川攷), 『주행통보(周行通譜)』, 『속장감(續將鑑)』, 『제자수영(諸子髓英)』, 『동인가곡(東人歌曲)』 등이 있다.

서유구(徐有渠, 1764~1845)는 조선 후기의 학자이자 문신이다. 본관은 달성(達城)이며 자는 준평(準平), 호는 풍석(楓石)이다. 주로 장단과 서울에서 살았다. 형조판서, 예조판서, 이조판서, 우참찬, 대제학 등의 내직과 순창군수, 의주부윤, 강화유수, 전라감사 등의 외직 등 핵심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전라감사로 있을 때 흉년으로 고생하는 농민을 위해 『종저보(種菴譜)』를 저술하여 구황식물인 고구마를 재배하여 기근을 탈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농업을 집대성한 백과사전인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완성하였다. 『난호어목지(蘭湖魚牧志)』, 『누판고(鑊板考)』, 『행포지(杏浦志)』, 『금화경독기(金華耕讀記)』 등과 음악 관련 서적 『유예지(遊藝志)』를 저술하였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며, 묘는 진서면 금릉리의 선영 아래에 있다.

서일수(徐日修, 1685~?)는 조선 후기 문신으로 본관은 달성이며, 자는 신지(新之)이다. 관직은 충주목사를 역임했고 사복시정(司僕寺正)에 추증되었다. 장단면 도라산리에 묘가 있다.

서종태(徐宗泰, 1652~1719)는 조선 중기 문신으로 본관은 달성이며, 자는 군망(君望), 호는 만정(晩靜)·서곡(瑞谷)·송애(松厓)이다. 『현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인현왕후가 폐위되자 오두인, 박태보 등과 소를 올리고 은퇴하여 저술에만 전념하였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인현왕후가 복위되자 다시 관직에 나와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거쳤다. 저서로 『만정당집(晩靜堂集)』이 있다. 시호는 문효(文孝)이며 장단면 도라산리에 묘가 있다.

안원(安瑗, 1346~1411)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순흥(順興)이며 초명은 정(定)이다. 고려 말의 유학자 향(昉)의 5대손이며, 정당문학(政堂文學) 원숭(元崇)의 아들이다. 고려 공민왕 때 파주 서교를 개간한 안목의 손자로서 용재 성현의 외증조부이기도 하다. 임진강 낙하 지역의 농장에서 살았고 태조 이성계가 형조판서를 제소했을 때에도 나아가지 않고 파주농장인 서원 별서(瑞原別墅)에 은둔하고 있었다.

태종이 즉위하여 몸소 찾아가 간청하여 벼슬에 나아가니, 경상도관찰사를 지내고 사헌부대사헌이 되어 태종의 밀명을 받고 외척 민무구(閔無咎) 형제를 탄핵하여 외방으로 유배시켰다. 이어서 판한성부사와 개성유후를 역임하고 66세로 병사했다. 시호는 경질(景質)이며 묘소가 장단에 있다.

염제신(廉悌臣, 1304~1382)은 고려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서원(瑞原: 坡州), 자는 개숙(愷叔), 어릴적 이름은 불노(佛奴)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원나라에 가서 평장사로 있던 고모부인 말길(末吉)의 집에서 자랐다. 원나라 태정황제(泰定皇帝)를 시종하며 총애를 받아 상의사(尙衣使)가 되었다.

공민왕 때 좌정승과 우정승을 역임하였으며, 단성수의동덕보리공신(端誠守義同德輔理功臣)에 봉해지고 곡성부원군(曲城府院君)이 되었다. 1356년 친원과 기철(奇黻) 일파를 숙청하고, 1358년 문하시중을 거쳐 관직과 명망이 최고위에 이르렀다. 시호는 충경(忠敬)으로 장단군 강남면 대곡리에 묘가 있고, 왕명에 의하여 이색이 찬하고 한수가 쓴 신도비가 그 앞에 있다.

**우현보**(禹玄寶, 1333~1400)는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단양(丹陽)이며 자는 원공(原功)이다. 정당문학, 문하찬성사, 삼사좌사를 역임했다. 조선조 제2차 왕자의 난 때 문인 이래(李來)로부터 반란의 소식을 듣고 이를 이방원에게 알린 공으로 난이 평정된 뒤 추충보조공신(推忠輔祚功臣)이 되었다. 시호는 충정(忠靖)이며 묘소는 장단군에 있으며 파평면 두포리에 단이 있다.

**윤보**(尹瑀, 1252~1329)는 고려 후기의 문신으로 파주에서 한동안 우거하였다.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초명은 문옥(文玉)이다. 문하시중을 지낸 윤관(尹瑀)의 후손이다. 우문관대제학(右文館大提學), 수첨의찬성사(守僉議贊成事), 정승치사(政丞致仕)를 역임하고, 영평군(鈴平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문현(文顯)이며 원래 묘가 장단에 있었으나 실전되었다.

**윤승례**(尹承禮, 생몰년 미상)은 고려 말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지냈으나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 72현처럼 절조를 지켜 파평산에 들어가 길재 등과 함께 고려를 그리워하면서 노후를 보냈다. 후에 손녀인 변(璠)의 딸이 세조비 정희왕후로 책봉됨에 따라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 묘는 장단에 있다.

**윤안숙**(尹安淑, 생몰년 미상)은 고려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이며 1327년(충숙왕 14) 충숙왕이 심왕고에게 왕위를 빼앗길 뻔 했을 때 왕권을 보위한 공으로 추성익위좌명공신(推誠翊衛佐命功臣) 2등으로 책훈되고 전답과 노비를 하사받았다. 또한 1349년 충정왕을 왕으로 옹립한 공으로 추성좌리공신(推誠佐理功臣)으로 삼사의좌사(三司議左事)에 올랐다. 이후 영평부원군(鈴平府院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양간(良簡)이며 장단면에 묘가 있다.

**윤암**(尹巖, 생몰년 미상)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이며, 태종의 딸 숙경옹주(淑慶翁主)의 남편이다. 좌익공신 2등에 책훈되었으나 일찍 사망하였다. 파평군(坡平君)에 책봉되었으며 시호는 제도(齊度)이다. 장단에 묘가 있다.

**윤인첨**(尹麟瞻, 1110~1176)은 고려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 자는 태조(胎兆)이다.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지낸 언이(彦頤)의 장남이다. 정중부 등의 무신의 난이 일어나 장남 종악이 화를 당하기도 하였다. 1171년(명종 1) 국자감대사성이 되었다.

서경유수 조위총(趙位寵)이 반기를 들자 원수(元帥)가 되어 3군을 거느리고 서경을 쳐서 1176년 이를 평정하고 조위총을 죽였다. 그 공으로 추충정란광국공신 상주국감수국사(推忠靖亂匡國功臣上柱國監修國史)에 올랐다. 사후 수태사문하시중(守太師門下侍中)이 증직되었다. 또한 그의 아들 3형제가 과거에 급제하였으므로, 그 처에게는 나라에서 상을 내리어 매년 녹(祿)을 주었다. 명종 묘정에 제향되고, 시호는 문정(文定), 묘는 장단에 있다.

**한언공**(韓彦恭, 940~1004)은 고려 초기 문신으로 본관은 청주다. 광록소경(光祿少卿) 총례(聰禮)의 아들로 장단이 고향이다. 중추원사, 참지정사상주국(參知政事上柱國)을 역임했으며,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올랐다. 목종은 그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옛 본관인 장단을 단주(端州)로 승격시키기도 하였다. 목종 묘정에 제향되었고, 시호는 정신(貞信)이다.

**한제**(韓齊, 1349~1398)는 고려 말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주이며 밀직부사를 지낸 공의(公義)의 셋째아들이다. 우왕조 초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호부판사에 이르렀으나 고려가 멸망하자

전원으로 들어가 은둔하다 별세하였다. 진동면 서곡리에 묘가 있다.

허공(許珙, 1234~12917)은 고려의 문신으로 추밀원 부사를 지낸 허수(許遂)의 아들이다. 국학박사(國學博士), 합문지후(閣門祗候)를 거쳐 호부시랑(戶部侍郎)이 되어 신종·희종·강종 등 3조(朝)의 실록을 찬수하였다. 원부(元傅), 한강(韓康)등과 함께 『고금록(古今錄)』을 찬술하였다. 청렴하기로 유명하였으며, 충렬왕의 묘정에 배향공신(配享功臣)이고 초현원(招賢院; 경기 장단군)에 배향되었다. 묘는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에 있다.

허금(許錦, 1340~1388)은 고려 말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양천(陽川)이다. 예의정랑, 좌상시, 전리판서를 역임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며, 장단에 묘가 있다.

허중(許琮, 1434~1494)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양천이며 좌의정 침(琛)의 형이다. 한명회(韓明澮)의 종사관이 되어 복변 경영에 공헌하고, 동부승지에 발탁되었다.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헌하여 적개공신(敵愾功臣) 1등에 책록되고 양천군(陽川君)에 봉하여졌다. 대사헌, 병조판서, 우찬성 등을 역임했다. 서거정·노사신 등과 함께 『연주시격(聯珠詩格)』, 『황산곡시집(黃山谷詩集)』을 언해하였다. 1491년(성종 22) 여진족이 함길도 방면으로 침입하자 북정도원수가 되어 이를 격파하고 이듬해에 우의정에 올랐다. 성종 때 청백리로 녹선되었다. 문집으로 『상우당집(尙友堂集)』이 있고, 편서로 『의방유취(醫方類聚)』를 요약한 『의문정요(醫門精要)』가 있다. 시호는 충정(忠貞), 묘가 장단에 있다.

허준(許浚, 1539~1615)은 조선 중기의 의인(醫人)으로 본관은 양천이며, 자는 청원(淸源), 호는 구암(龜巖)이다. 할아버지 곤(琨)은 무과 출신으로 경상도우수사를 지냈고, 아버지 룬(礪)도 무관으로 용천부사를 지냈다. 그런데 그는 의관으로 내의원에 봉직하면서 내의·태의·어의로서 명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동의보감(東醫寶鑑)』을 편술하여 우리나라 의학의 수준을 높였다.

1574년(선조 7) 의과에 급제하여 의관으로 내의원에 들어갔다. 1575년(선조 8) 2월 어의로서 명나라의 안광익(安光翼)과 함께 임금의 병에 입진(入診)하여 많은 효과를 보게 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하였으며, 그 뒤에도 어의로서 내의원에 계속 출사하여 의료의 모든 행정에 참여하면서 왕의 건강을 돌보았다.

1606년에는 양평군(陽平君)에 올라 정1품인 보국숭록대부로 승진하였으나 중인 신분으로는 과도한 벼슬이라 하여 대간들의 반대로 보류되었다. 1608년 선조가 승하하자 책임 어의로서 의주로 유배되었다가 바로 풀려나 광해군의 어의로서 왕의 측근에서 충애를 받았다.

허준의 묘는 위치가 파악되지 않다가 1991년 9월 30일 『양천허씨족보』에 기록된 “진동면 하포리 광암동 선좌 쌍분”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묘역은 약 50평의 규모로 우측 묘는 부인 안동 김씨의 묘로 추정된다. 이들 두 묘 위쪽으로 허준의 생모 묘로 추정되는 묘가 한 기 더 있다. 묘소에는 묘비, 문인석, 상석, 향로석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원래의 묘비는 두 쪽으로 파손되어 땅속에 매몰되어 있었다. 발굴 당시 원비의 마모된 비문 가운데 ‘陽平□□聖功臣□浚’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허준의 묘인 것이 밝혀졌다.

허침(許琛, 1444~1505)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양천이며, 우의정을 역임한 중(琮)의 동

생이다. 홍문관직제학, 예문관응교, 대사헌, 예조참판, 경상도관찰사를 역임했고, 동지춘추관사가 되어 신승선(愼承善) 등과 함께 『성종실록』을 찬진하였다.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으며, 성종 때 청백리에 녹선되고 시호는 문정(文貞), 장단면에 묘가 있다.

홍길민(洪吉旼, 1353~1407)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조선 건국 때 이성계를 추대하여 개국의 공을 세워 좌부승지에 임명되었다. 이와 함께 개국공신2등에 책훈되고 추성협찬개국공신(推誠協贊開國功臣)의 훈호를 받았다. 이어서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로 임명되고 남양군(南陽君)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문경(文景), 장단면 고능동에 묘가 있다.

홍낙성(洪樂性, 1718~1798)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풍산(豊山)이며, 강화부유수, 도승지, 이조판서, 전라도관찰사를 거쳐 좌의정, 영의정에 올랐다. 글씨에 뛰어났으며 시호는 효안(孝安), 군내면 점원리에 묘가 있다.

홍석주(洪奭周, 1774~1842)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풍산이며, 영의정 낙성(樂性)의 손자이며, 우부승지 인모(仁謨)의 아들이다. 대제학을 거쳐, 이조판서, 좌의정겸 영경연사 감춘추관사(左議政兼領經筵使監春秋館事) 세손부(世孫傅)가 되었다. 저서로 『연천집(淵泉集)』, 『학해(學海)』, 『영가삼이집(永嘉三怡集)』, 『동사세가(東史世家)』, 『학강산필(鶴岡散筆)』 등이 있고, 시호는 문간(文簡)이며 군내면 점원리에 묘가 있다.

홍여방(洪汝方, ?~1438)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남양이며 예문관대제학, 이조판서 등을 역임했다. 시호는 문양(文良)이다. 장단면 고능동에 묘가 있다.

근·현대 인물로는 장단출신의 항일 독립운동가 및 의병장으로 강기동(姜基東, ?~1909), 김수민(金秀敏, ?~1908), 백종렬(白鐘烈, 1899~1938), 윤복영(尹復榮, 1868~1967), 이진구(李鎭九, 1899~?) 등이 있으며, 장단출신의 조각가로 국전(國展)·심사위원을 지내고, 한국미술연구소를 개설하여 전통적 청자·백자의 현대적 산업화에 열중한 윤효중(尹孝重, 1917~1967)이 있다.

## 5. 맺는 글

지금은 가볼 수 없는 민통선 지역에 살았던 세거성씨들의 발자취를 추적하는 일은 쉽지 않다. 6.25 전쟁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모두 놓아두고, 각 처로 이거(移居)해나간 장단군 사람들의 고향에서의 삶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서 멈춰져 있다. 집안의 뿌리를 이루던 선조들이 누워있는 땅을 가볼 수 없고, 곡식을 거두어 임진강에 배를 띄워 나르던 일들도 흐르는 강물 위로 다 흘러버려야 했다.

고려 때부터 살아왔던 명문거족 중에 안동 권씨와의 혼맥으로 장단에 와서 거주하던 달성 서씨 집안과 장단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던 전주 이씨 문중, 해주 오씨, 무안 박씨, 의령 남씨, 황해 황씨, 경주 김씨 등에 대해서는 추적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이 글에서 다루지 못했음이 아쉽다. 그러나 평소에 늘 궁금하고 여러 설이 분분했던 양천허씨 구암 허준의 고향

을 확인하고, 양천 허씨 장단문중의 역사적 인물들을 알 수 있게 된 점은 하나의 성과이다. 개인적으로는 안동권씨 추밀공파인 나의 선조가 장단지역에 뿌리를 내린 연유를 찾아볼 수 있었음에 뿌듯한 보람을 느낀다. 차후 문중별 조사가 자세히 이루어져 파주지역의 세거사 연구에 일조를 할 수 있기를 마음먹으며 이 글을 마친다.

◎ 참고문헌

『통계연보』, 1916년

『장단지(長湍志)』, 1849년

『面, 名稱 及 區域(면의 명칭과 구역)』, 1934년

『장단군지(長湍郡誌)』, 2009년 증보판

제6교 『청주한씨대동족보』, 1987년~1993년

『고양시씨족세거사』, 2011. 고양씨족협회.

『파주시지』 제3권 <파주사람>, 제7권<인물자료집>, 2009, 파주문화원

장단군민회원명부, 2010년, 장단군민회

『양천허씨대동족보』

『남강공 권상 실기(南岡公 權常 實記)』, 2011, 안동권씨 남강공 종중

## 문헌을 중심으로 본 임진강과 임진나루

오 순 희\*

1. 서론
2. 선조실록에 실린 임진강과 임진나루
3. 조선왕조실록의 임진강과 임진나루의 다른 기록
4. 그 밖의 기록
5. 파주에 위치한 임진강 나루터와 포구 현황
6. 결론

### 1. 서론

본 고에서 <임진나루>에 관한 연구를 위해 시작 했으나 임진나루에 관한 자료가 빈약하여, 한반도가 생성할 때부터 있었을 임진강의 역할과 강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만들어진 임진나루와 그 쓰임에 대하여 문헌을 중심으로 조사 하였다.

경기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임진강은 함경남도 마식령산맥의 두류산에서 발원하여 경기도 연천군에서 한탄강과 합류해 흘러 내려오다가 다시 파주에서 한강과 합류하여 서해로 흘러든다. 강의 길이는 254km이고 유역 면적은 8,118km<sup>2</sup>로 한반도의 강 중 일곱번째로 크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곳에는 반드시 물이 있게 마련이다. 옛 사람들이 살았던 곳에도 물이 있고, 현대의 도시 발달도 물과 밀접한 관계 안에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지도에 그려져 있

\* 파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는 것의 하나가 하천이다.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도 조선의 국토는 산줄기와 물줄기로 표현되어 있고, 물줄기 옆에는 취락지역이 표시되어 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하천유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의미한다.

강과 나루는 수운과 교역에서 중심지와 배후지를 효율적으로 연결한다. 경제나 지리적 측면에서 하천연안은 삶의 터전으로서 주거와 생산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산업시대에 하천은 먼 곳의 교역을 용이하게 하고 상류와 하류 지역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소였다. 또한 하천유역은 옛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는 장소로 이용할 만큼 독자적인 지역경관과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하나의 하천유역이 단일교통권, 교역권, 문화권을 형성하는 것은 전통시대일수록 더 중요한 요소였으며 임진강 유역도 그러한 지역의 하나였다. 더구나 임진강은 조선이 개국한 이래 지리적으로 조선의 한양과 고려의 중심지였던 개성과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정치, 경제 문화의 교류가 <임진나루>를 통하여 빈번 하게 이루어지던 곳이다.

## 제2장 선조실록에 실린 임진강과 임진나루

역사 속 임진강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역사 기록에 담긴 이야기를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승정원일기, 세종지리지, 계산기정 등 여러 문헌에서 찾아보았다. 임진강 유역에는 개성, 평양, 의주를 거쳐 중국으로 들어가는 의주대로(義州大路)가 있는데, 한성을 출발해 홍제원, 신원, 벽제역, 파주, 임진, 동파, 장단, 개성, 금교역, 서흥, 서산발참, 황주, 평양, 순안, 신행원, 청천강, 광산, 전문령, 의주, 압록강에 이른다.

의주로 파주구간은 혜음령, 분수원, 신탄막, 마산역, 서작포, 배내, 임진나루, 동파나루, 장단 구간이다. 의주로는 조선시대 한양과 북경을 오갔던 국토 1번지로, 그 길목에 있는 <임진나루>와 <동파나루>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임진강과 임진 나루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조가 임진나루를 건너 의주로 몽진을 갔던 일이다. 선조실록에서 그때 임진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알아보기 위해 한양에서 의주로 가는 길 전체를 알아보기로 한다.

선조25년 임진(1592年) 4月 30日 새벽에 상이 인정전에 나오니 백관들과 인마(人馬) 등이 대궐 뜰을 가득 메웠다. 이날 온종일 비가 쏟아졌다. 상과 동궁은 말을 타고 중전 등은 뚜껑 있는 교자를 탔었는데 홍제원에 이르러 비가 심해지자 속의 이하는 교자를 버리고 말을 탔다. 궁인들은 모두 통곡하면서 걸어서 따라갔으며 종친과 호종하는 문무관은 그 수가 1백 명도 되지 않았다. 점심을 벽제관에서 먹는데 왕과 왕비의 반찬은 겨우 준비되었으나 동궁은 반찬도 없었다. 병조 판서 김응남이 흠탕물 속을 분주히 뛰어다녔으나 여전히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었

고, 경기 관찰사 권징은 무릎을 끼고 앉아 눈을 휘둥그레 뜬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저녁에 임진강 나루에 닿아 배에 올랐다. 상이 시신들을 보고 엎드려 통곡하니 좌우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히 쳐다보지 못하였다. 밤은 칠 홉 같이 어두운데 한 개의 등촉도 없었다. 밤이 깊은 후에 겨우 동파까지 닿았다. 상이 배를 가라앉히고 나루를 끊고 가까운 곳의 인가(人家)도 철거시키도록 명했다. 이는 적병이 그것을 뗏목으로 이용할 것을 염려한 때문이었다. 백관들은 굶주리고 지쳐 촌가에 흩어져 있는데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반이 넘었다.



선조 25년(1592 임진) 5월 1일 선조는 동파관을 떠나 판문(板門)에서 점심을 들었고, 저녁에 개성부에 도착하였다. 5월 6일 아침에 봉산을 떠나 동선령을 넘어 오후에 황주에 닿았다. “권징도 또 지킬 수 없다고 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하니, 충원이 아뢰기를, “임진강 등처에 군사를 매복시켜 적들로 하여금 건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 찬이 아뢰기를, “임진강이 매우 가까우니 반드시 공어(拱禦)해야 됩니다.” 5월 13일 강변에서 징발하여 온 토병으로서 평양을 지원하러 온 병사들을 다 임진강으로 보내야 했는데 행조에는 장령이 없었다. 이에 경상 감사 이성임을 부임 도중 체직하여 조정으로 돌아오게 한 뒤에 그를 장수에 임명하여 강변 토병 8백 명을 거느리고 임진강으로 떠나게 하였다. 5월 16일 비변사가 임진강 수비에 대해 아뢰다. 양사가 아뢰기를, “적병이 이미 임진강에 가까이 왔으니 사태가 진실로 위급합니다. 5월 17일(병자) “적병이 이미 임진강까지 닿게 되었고 또 양주에도 나타났다고 하니 양주에서 영평·마전 등처로 길을 잡아 곧장 평양으로 향한다면 매우 편하고 가까울 뿐더러 나루터 등의 막힌 곳도 없어서 그 속도가 매우 빠를 것입니다. 5월 19일 임진의 군사를 대탄에 나누어 보내는 일을 대신과 논의하다. 5월 23일 상이(선조) 임진 전투의 패배 상황, 군량의 조달, 각도의 전투 상황을 논의하다. 비변사가 임진에 있는 군사들을 위로할 일을 황해 감사에게 하서하기를 청하다. 비변사가 계청하기를, “임진에 있는 군사들이 비바람을 맞고 노숙한 지가 여러 날입니다. 5월의 정역(征役)에 제대로 먹고 마시는지 내신(內臣)을 보내어 호궤

하고 위로하게 하소서. 5월 24일 양사가 임진에서 상의 명을 폐기한 도총 도사 김제현과 선전관 이호의의 정죄를 청하다.

6월 1일 왜장 청정(清正)이 관북(關北)에 침입하여 함경 감사 유영립이 사로잡히고 병사 이훈이 적민(賊民)에게 살해당하였다. 당초에 청정과 행장 등이 함께 임진강을 건너 상의 행차를 추격하면서 거가가 흑시라도 방향을 바꾸어 관북으로 갈 것을 염려하여 길을 나눠 군사를 진격시키기로 약속하였다. 7월 1일 전 참의 이정암이 해서에서 의병을 일으키다. 즉시 대가를 따라 개성(開城)에 이르렀다. 마침 동생 이정형(李廷馨)이 유수가 되었는데 상에게 주청하여 형과 함께 사수(死守)하기를 원하자, 상이 허락하였다. 얼마 있다가 임진강(臨津江)의 방어에 실패하고 개성도 따라서 무너지자, 정암이 대가를 따르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기고 마침내 연안(延安)으로 달려갔다. 8월 3일 양사가 군율을 잃은 김여울, 이덕남, 김억추 등을 처단하라고 청하다. 장연 현감 김여울은 5월 18일 임진강 전투에 척후장(斥候將)으로서 8백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유극량 등이 적과 교전하는 것을 보고서도 군사를 용유(擁宥)하다. 9월 1일 환도시 임진강의 전쟁터를 지나면서 전사한 군인을 제사지내게 하다. 9월 19일 임진강에서 초토사 이정암이 왜적과 싸워 공을 세우자 비변사가 상을 청하다.

선조 26년 계사(1593) 1월 1일 제독 이여송은 파주에 진군하여 벽제역에서 싸우다가 불리하자 후퇴하여 개성에 주둔하였다. 임진강 얼음이 녹다. 1월 17일 개성의 적은 임진강 하류인 덕진단 근처에 목책(木柵)을 설치하고 참호를 팠으니 이곳에 웅거하여 지킬 계획인 듯합니다.” 1월 24일 사간원이 아뢰기를, “강원도소모사(江原道召募使) 심우정이 앞서 도원수의 종사관이었을 적에 임진강이 적의 수중에 떨어지자 그의 주장(主將)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2월 5일 제독은 지금 임진강가에 머물고 있는데 눈이 저처럼 오는데도 기어이 개성으로 후퇴하여 진 치겠다고 하였다.’ 하였다. 3월 20일 유험상과 원황이 조선 정부에 중국군의 상황과 진군에 대해 보낸 자문. 지금 임진강에는 천병이 벌써 여러 진영을 세웠고~ 9월 1일 상이 임진강의 전쟁터를 지날 때 즉시 행주(行廚)임금의 거동 때, 어선(御膳)을 담당할 임시 주방에 명하여 전사한 군사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9월 28일 상이 저녁에 동파역에 머물면서 전교하였다. “지음을 너무 사치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으로 여러 번 전교하였다. 10월 1일 벽제관에서 죽은 중국군에 제사하라고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임진강에서 전사한 장사들에게는 이미 치제(致祭)하였다. 10월 1일 상이 아침에 벽제역을 출발하여 미륵원(彌勒院)에서 주정(晝停)하고 저녁에 정릉동의 행궁(行宮)으로 들어갔다.

\* 서애 유성룡이 쓴 <징비록> - 1592년 4월 30일 선조의 임진나루 도강기록

임진강에 이를 때까지 비는 멈추지 않았다. 배에 오르신 임금께서 수상과 나를 부르셔서 뵈고 나왔다. 강을 건넌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어 길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임진강 남쪽 기슭에 옛날 승침이 있었는데 적들이 그 나무를 이용해서 뗏목을 만들어 강을 건널까 두려워 나무에 불을 붙였다. 그러자 불빛이 강 북 쪽까지 비추어 길을 찾을 수 있었다.

### 제3장 조선왕조실록의 임진강과 임진나루의 다른 기록

태조 3년(1394) 8월 13일 왕사 자초와 여러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다. 적성 광실원(廣實院)이 좋다는 의견도 나오다. 광실원 동쪽에 산이 있어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으니, 계족산(雞足山)이라 하는데, 그 곳을 보니 비결에 쓰여 있는 것과 근사합니다.”이에 임금이 말하였다. “조운할 배가 통할 수 없는데, 어찌 도읍 터가 되겠는가?” 원식이 대답하였다. “임진강에서 장단까지는 물이 깊어서 배가 다닐 수 있습니다.” 7년(1398) 3월 25일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임진강 선상에서 임금께 진향하였는데, 서풍이 크게 일어 티끌과 모래로 눈을 뜰 수 없었다.

태종 6년(1406) 10월 15일 태상왕에게 갔다가 오면서 임진강변에 머무르다. 돌아오다가 임진강변에 머물렀으니, 태상왕이 먼저 돌아가라고 명하였기 때문이었다. 10년(1410) 9월 19일 어가(御駕)가 임진도에 머무르고, 세자(世子)에게 도성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였다. 13년(1413) 2월 5일 통제원 남교에서 머무르다. 임금이 임진도를 지나다가 거북선과 왜선이 싸우는 것을 구경하다. 18년(1418) 2월 14일 어가(御駕)가 임진나루 북쪽에 머물렀다.

세종 2년(1420) 2월 2일 두 임금이 원평부 들에서 매사냥을 구경하고, 임진강을 건너 저녁에 나룻가에서 머물렀다. 4년(1422) 3월 15일 두 임금이 해풍(海豐)의 봉화산 등지에서 사냥을 구경하고 임진강 가에 머물렀다. 7년(1425) 10월 21일 재정 운영에서 호조의 인색함을 지적하는 전지를 내리다. 쓸데없는 낭비를 절감(節減)하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꼭 감해야 할 것을 감하지 아니하고, 꼭 써야 할 것을 쓰지 아니함은 모두 잘못이다. 요즈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임진도승의 봉급을 이어가지 못해서 호조에 청해도 얻지 못하고 자비로 먹고 있다고 하며~ 11년(1429) 12월 3일 박서생이 시행할 만한 일들을 갖추어 아뢰다. 널빤지(板子)를 죽 깔아 다리를 만들어 놓고는, 진리(津吏)로 하여금 건너는 세를 가볍게 징수하게 하여 후일에 교량이 남아 허물어졌을 때의 보수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강과 임진강은 남북을 통하는 큰 관진입니다.

세조 6년(1460) 10월 5일 개성부 유수 겸 병마절제사 권지, 강화진 첨절제사(江華鎭僉節制使) 정자원이 군사를 거느리고 대가를 임진도에서 맞이하였다.

성종 5년(1474) 9월 1일 제색군사(諸色軍士)를 뽑아 보내어 경기에서는 4천 7백 명이 16일치 양식을 가지고 본월 21일에 양철원 앞뜰에 모이게 하고, 개성부에서는 7백 명이 황해도에서는 흉년든 여러 고을과 잔열(殘劣)한 군사를 제외하고 건장한 자를 골라 4천 1백 명이 12일치 양식을 가지고 22일에 임진도 북쪽에 모이게 하라고 일렀다. 9월 30일 도총부·병조·낭청·선전

관을 임진도에 보내어 군졸을 보호해 건너게 하고, 대가(大駕)는 배로 임진강을 건넜다.

연산군 12년(1506) 8월 26일 개성부에 거동할 때 백관들은 모화관에서 지송(祗送)한 뒤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어가를 맞이하며, 보군도 역시 모화관 밑에 떨어져 있다가 마군이 어가를 수행하여 임진강에 이른 뒤 장수가 인솔 결진하여 어가를 맞이하며~

중종 30년(1535) 9월 6일 홍문관 부제학 유세린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이번 제릉에 친제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조상을 추모하는 지극한 정성입니다. 다만 환궁하실 때에 석벽(임진강 연안에 있는 장단 석벽) 아래 배를 띄우는 일은 유람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이곳은 전대의 황란(荒亂)했던 임금 연산군이 놀이하던 곳이므로~ 9월 20일 어둑새벽에 대가가 통제원을 출발하여 석벽(장단의 임진강가에 있음)에 도착한 뒤 상이 누선(樓船)에 임어하여 ‘제릉을 배알하고 박연 석벽에서 배를 띄우다. [展謁齊陵朴淵泛舟石壁]’라는 제목으로 호가(扈駕)하는 여러 신하들에게 칠언 율시 한 수 씩을 각각 짓게 하였다.

명종 13년 (1558) 2월 23일 중국 사신이 돌아갈 날자에 대하여 권철에게 듣건대, 사신이 책력을 가져다 보고 말하기를 ‘18일이 길하다.’ 하였고, 또 임진강의 배위에서 머리를 돌려 사방을 바라보며 말하기를 ‘이 근처에는 반드시 경치 좋은 곳이 있을 것이다.’ 하기에~

광해군 2년 (1610) 7월 3일 원접사가 치계하기를, “임진강의 부교(浮橋)가 지난해에 빗물에 떠내려갔는데 책사가 그 사실을 듣고 은 1천 냥을 내라 하였습니다.”하니~ 7월 5일 선전관이 덕부가 개성에서 돌아와 아뢰었다. “책사가 오늘 연향(宴享)을 받고 본부에서 떠났으며, 7일에 서울로 들어오게 됩니다. 임진강의 부교도 엮어 만들었습니다.” 10년(1618) 6월 18일 도성 방어 절목과 대동·임진강을 수어하는 절목 등을 미리 조치하도록 전교하다. 6월 22일 비변사에서 임진강을 파수할 장수를 선출하는 일 등을 아뢰다.

인조 3년(1625) 3월 22일 정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삼전도승에 김관을, 임진도승에 최덕남을, 양화도승에 고천주를 차하하였다. 8월 7일 병비가 이상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전라감물에 김효성을 단부하고, 임진도승에 정창수를 단부하고~ 6월 10일 모유견이 도로를 살피고 돌아와서 천사에게 고하기를, ‘넷물은 그래도 건널 수 있는데 임진강의 부교가 끊어졌습니다. 인조 5년(1627) 1월 17일 금나라가 침입하자 대책을 논의하다. 상이 이르기를, “남한산성을 버릴 수는 없다.”하였다. 최명길이 아뢰기를, “임진강에 대한 방비도 마땅히 미리 좋은 계획을 생각해 놓아야~ 1월 17일 남한산성을 수비하는 일과 임진강을 방어하는 등의 일이 다 본도에 책임이 있다. 1월 17일 비국이 아뢰기를, “임진강을 차단하는 일이 오늘에 있어서 급선무입니다. 혹자는 ‘장만이 지금 비록 서쪽으로 내려가더라도 수하에 병력이 없으니, 개성

부 임진강에 먼저 기내(畿內)의 군대를 보내어 각 여울을~ 1월 18일 비국이 아뢰기를, “이서와 최현으로 하여금 임진강을 수비하도록 하는 것이 편리할지의 여부를 의논해 처리하라는 분부를 하셨는데, 임진강은 상하 50리에 곳곳이 얇은 여울이고 군병은 고단하고 세력은 약하니 한 번이라도 실수하는 날이면 차례대로 와해될 것입니다. 1월 19일 양사가 분조와 임진강 수비를 청하다. 또 아뢰기를, “임진강을 파수하는 계획을 아직도 확정하지 못하고 단지 약간의 병력으로~ 1월 19일 임진강 수비, 분조, 장수 등용, 곡식 수송, 강화도 수비 등에 대한 논의. 신희이 아뢰기를, “임진강의 저탄은 군병을 배치하여 굳게 수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월 23일 맨 먼저 도성을 떠나자고 제창한 자를 조속히 목 베어 군문에 효시하신 뒤, 먼저 이서, 신경진 등을 파견하여 기병과 호위하는 제군을 나누어 인솔하여 변성을 지원하거나 임진강을 수비하도록 하소서. 1월 24일 독전어사(督戰御史) 윤지경이 임진강으로부터 돌아와 뵈기를 청하니 드디어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임진강의 형세를 두루 살펴보았는가?”하니, 윤지경이 아뢰기를, “여울 가까이 사는 촌민들이 신이 왔다는 말을 듣고 모두 다듬잇돌을 져오고 나무를 끌어와 목책을 세우는 데 협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2월 7일 비국 등이 장만, 조기 등을 시켜 임진강을 지키게 하기를 청하다. 조기의 3천 군사를 또 장만으로 하여금 영솔하게 하였으니, 마땅히 임진강으로 급히 가 강여울을 파수하게 해야 합니다. 2월 8일 연미정에 행차하여 나룻터 기찰, 방패선, 군량, 임진강 방어와 화친 등에 대해 논하다. 박동선이 아뢰기를, “임진강을 방어하여 지키는 것에 있어서 시기를 놓칠 수 없습니다.”하고, 2월 8일 대신 비국 당상 등이 민심을 안정시키고 임진강을 지킬 것을 아뢰다. 2월 11일 유도대장 김상용이 적병이 임진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성을 버리고 달아나니, 도성이 크게 혼란하여 선혜청과 호조가 도적이 지른 불에 타버렸다. 2월 13일 양사가 합계하기를, “완성군 최명길이가 군국의 정사를 마음대로 천단하여 나라를 그르치고 일을 낭패시킨 죄가 한둘이 아닙니다. 서울을 떠나는 계획을 일찍 정한 것과 임진강을 지킬 것이 없다는 의논도 이를 시종 주장한 사람은 명길입니다. 2월 27일 임진강을 수비하는 것이 소홀하여 사람들이 모두 걱정하니, 비국이 청하기를, “임진강을 방어하여 지키는 것이 한강보다 긴요한데, 한강은 병사가 거의 2만 명이나 되지만 임진강에는 5천여의 병사뿐입니다. 이서의 수천 명 병사를 철수하여 임진강의 수비에 보태더라도 한강에는 대단한 지장이 없을 터이니~ 2월 28일 수어사 김자점을 인견하고 임진강을 방어하여 지킬 계책을 강론하였다.

숙종 즉위년(1674) 11월 23일 진위사와 부사 등을 인견하고 북경의 일을 문의하다. 원컨대 유혁연(柳赫然)에게 물어보소서.”하니, 유혁연이 말하기를, “임진강에 적벽이 있어서 상하 30리 사이는 참으로 천험입니다. 19년(1693) 9월 2일 임금이 임진강에 도착하였다. 처음에는 말에다 행장을 갖추어 부교를 건너려고 하였는데, 약방(藥房)의 계청(啓請)으로 인하여 사람이 메는 가마로 건너도록 고쳐서 명하였다.

영조 4년(1728) 3월 19일 명하기를, “파주 목사 정혁선은 임진별장과 함께 임진강을 방비하라.”하였다. 40년(1764) 5월 2일 총융사 구선복이 장단의 임진강 상류에 적벽이 깎아지른 듯한 형세를 이용하여 그 위에 성을 쌓고 서쪽에서 오는 적을 막기를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정조 2년(1778) 윤6월 24일 만일 변고를 당하면 경기 우측의 군사를 지휘하여 임진강 이남을 장악하게 되어 공격과 방어가 모두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4년(1780) 2월 2일 성정각에서 승지 이진형 서유방 박우원을 소견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김재찬은 들어왔는가?”하니, 서유방이 아뢰기를,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니다.”하여, 내가 이르기를, “오늘 들어올 수 있을 듯한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니, 괴이한 일이다.”하니, 이진형이 아뢰기를, “삼가 들으니, 임진강에 얼음이 녹아 물이 넘쳐흘러서 건너기 어려울 듯하다고 합니다. 15년(1791) 6월 9일 파주 목사 이사렴이 상소하여 파주 산성의 축조를 청하다. 또 임진과 장산(長山)에는 이미 돈대를 만들어 놓은 데다가 수목이 울창하고 임진나루 상류에서 10리쯤 되는 곳에 고랑진이 있어 또한 하나의 큰 길이 되고 있으니~

고종 9년(1872) 3월 2일 맑음 개성부 행궁에 나아가 행행할 때 행 도승지 한경원 등이 입시하였다. 인부들이 가교를 메었다. 임진강 북쪽 진의 머리로 나아갔다. 15년(1878) 11월 28일 맑음 상이 이르기를, “임진강에 이미 얼음이 얼었던가?”하니, 조익영이 아뢰기를, “얼기는 하였으나 견고하지 않아서 얼음을 깨고 배를 뺐습니다.”하였다. 33년(1896) 11월 14일 상이 이르기를, “어느 길을 경유하였는가?”하니, 조병세가 아뢰기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서 임진강을 건넜습니다.”하였다.



반구정 아래 철책



임진강변 통일전망대



초평도



임진강 갯벌

#### 4. 그 밖의 기록

계산기정(蔚山紀程)은 계구(蔚丘)의 별칭으로 곧 연경(燕京)을 이르는 말로 쓴 것이다. 따라서 계산기정은 연행록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여진 것이다.

제1권 출성(出城) 계해년(1803, 순조 3) 10월 23일

임진은 파주의 관곡지(館穀地)이다. 산이 트여 강에 다가서서 양쪽이 급히 치솟아 있다. 산을 따라 성이 있는데 성문을 진서문(鎭西門)이라고 한다. 성문 안에는 별장이 있다.

동사강목(東史綱目) 임인년 공민왕 11년

방신 이여경 김득배 안우경 이귀수 최영 등 여러 장수들이 군사 20만을 거느리고 동교 천수사 송경 보정문 밖 3리에 둔쳤다. 정세운이 그들을 독려하여 나아가 경성을 포위하게 하고 자신은 뒤로 물러나와 도솔원 임진도 동쪽 기슭에 둔쳤다.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

노량진사후료(露梁鎭司候料) - 한강 대안에 위치하였으니, 개성 남쪽에 임진도와 함께 서울 경비를 맡았다.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

2진(二鎭)은 지방인 파주 중영에 속한다. 임진진은 파주에 있다. 처음엔 낙하도에 있다가

옮겨서 임진도에 설치하고, 별장을 두어 병조에서 파견하다가, 숙종 46년 경인에 약방제조 민진후가 제청하여, 본청에 이속하게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파주목

보신천 남쪽 30리 지점에 있다. 물 근원이 양주 흥복산에서 나와서 교하현 학당포에 들어간다. 마담 미라산 밑에 있다. 임진도 북쪽 17리 지점에 있다.

사가집(四佳集) 임진 나루터에서 비를 만나다.

서거정(徐居正)

馬羸東西日自斜 / 파리한 말에 동분서주로 해는 기울었는데  
秋風開盡木綿花 / 가을바람은 목면의 꽃을 활짝 다 피웠네  
行行恰到臨津渡 / 가고 또 가서 임진의 나루터에 당도하니  
細雨孤帆發興多 / 가람비 속 외로운 돛에 하 흥겨워지누나

사가집(四佳集) 임진도(臨津渡)에서 한 편 지어 올려 바로잡아~

서거정

春光駘蕩天氣新 / 봄 풍광은 화창하여 천기가 산뜻하고  
春江綠漲生玉鱗 / 봄 강물은 벌창하여 잔물결이 이는데  
長風吹吹泛樓船 / 거센 바람 불어올 제 누선에 뚝뚝 뜨니  
兩使風彩如神仙 / 두 사신의 풍채가 영락없는 신선일세  
豪吟已見蛟龍驚 / 소리 높이 읊조림은 교룡을 놀랐는데  
揮毫落紙雲煙橫 / 종이에 휘두른 글씨는 운연이 나는 듯하네

1803년(순조3년) 이해응의 여행록 <계산기정>에는 파주를 떠나며 느끼는 소회를 시로 남기고 있다.

〈일찍 파산을 떠남〉

운산에 고개 돌리니 서울이 까마득한데  
가슴속 철렁하게 변방으로 나가는 소리

하룻밤 묵어도 여전히 오래 머물렀던 것 같은데  
말머리 나란히 하고 이제는 또 새 길을 달려 가려한다.

## 5. 파주 임진강 나루터와 포구 현황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 육지에서는 사람이나 물류의 운반은 말을 이용하거나 걷는 것이 고작이어서, 물에서 배를 이용하여 운반 하는 것이 더 빠르고 편리했다. 배를 이용하려면 나루터와 포구가 있어야했는데,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시대부터 나루터와 포구를 이용한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져 상권이 번창한 곳이 많았다. 특히 한양과 개성은 수상교통의 요지로 임진강의 나루와 포구를 통해서 많은 양의 물류가 오갔으나, 6·25로 남북이 갈라지면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으나 예전에 활발히 교역이 이루어지던 파주의 나루와 포구에 대해 알아본다.

연번	구분	주소	역사적 기능
1	임진나루	문산읍 임진리	고려, 조선시대 개성과 한양을 오가는 주요 길목으로 임진진을 두어 관리하였으며, 외국 상인들과의 무역도 활발히 이루어진 곳으로 현재도 고깃배가 드나드는 곳임
2	문산포	문산읍 문산2리	황해도와 연천 고랑포 지역으로 가는 수화물 집산지로 대규모 상권이 형성되어 지방특산물을 수송하는 황포돛배가 끊이질 않았으나 현재는 포구 기능을 상실함
3	낙하나루	탄현면 낙하리	덕진하류 한양과 개성간의 길목에 위치하여 도승을 두어 관리 할 만큼 번영하였다고 함
4	두지나루	적성면 두지리	한국전쟁 이전 생필품과 승객을 운송하였고 비교적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황포돛배를 복원하여 “임진8경”을 관광하고 있음
5	반석나루	교하읍 신촌리	임진강·한강으로 운행하는 배는 이곳에 기항하여 고깃배가 밀려들었고 양곡의 집산지로 제2의 인천이라 불릴 만큼 번성하였으나 현재는 휴전선으로 군사제한 구역이라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임
6	저포진	문산읍 마정리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저포라 하였고 나룻배, 상선이 왕래하던 곳으로 문산읍 마정리와 장단군을 잇는 나루터로 현재는 자유의 다리가 놓여 폐해졌음
7	쇠꽃나루	금촌2동	상선이 지나는 주요 길목에 위치하여 시장이 형성되었고, 많은 돈이 모여 금이 꽃인 쇠꽃이라 칭하게 되었을 정도로 번성하였으나 현재는 잡풀만 무성함
8	썩은소나루	적성면 어유지리	어유지리와 배울을 운행하던 나루
9	토막나루	적성면 어유지리	어유지리와 문막을 운행하던 나루로 큰 배가 정척하였음
10	밤개나루	적성면 울포리	울포리와 두일을 운행하던 나루

연번	구분	주소	역사적 기능
11	독나벌나루	적성면 울포리	울포리와 학곡을 운행하던 나루
12	강선정나루	적성면 주월리	주월리와 노곡을 운행하던 나루
13	자지포나루	적성면 자장리	자장리와 원당을 운행하던 나루
14	용산나루	진서면 용산리	용산리와 장파를 운행하던 나루
15	장개나루	진동면 하포리	장개와 하포를 운행하던 나루
16	덕진나루	문산읍 장산리	오목천 합류지점으로 장산리와 정자포를 운행하던 나루
17	사목나루	문산읍 사목리	사목리와 우장말을 운행하던 나루
18	질오목나루	탄현면 오금리	지오목과 고루동을 운행하던 나루
19	심학나루	교하읍 서패리	돌곳이와 김포를 운행하던 나루
20	쇠재나루	파주시 금능동	쇠재와 공릉천 고인돌을 운행하던 나루
21	능거리나루	교하읍 오도리	오도리와 공릉천 갈우개를 운행하던 나루

자료 : 경기도청 비전경영기획관

## 6. 결론

이상으로 임진강과 임진나루에 관하여 부족한대로 조선시대의 문헌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이미 서론에서 말했듯이 임진나루의 역사적 사실과 중요성을 밝혀내기 위한 과제였으나, 문헌 조사가 부족하여 미흡한 연구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임진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소나마 알게 된 것이 작은 수확이라 할 수 있겠다.

그 외에 백제어 연구에 따르면 백제전기어로 분류되는 지명이 넓은 지역에 분포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임진강은 1세기부터 5세기까지 백제의 세력권에 들어 있었다고 한다. 그 후 광개토대왕 때 고구려는 백제를 한강 이남으로 몰아내고 임진강의 맹주로 부상하였고, 신라는 진흥왕대에 와서야 임진강 유역으로 진출하여 신라 영역으로 편입 시켰다. 이로써 임진강의 교통로 발달이 고대국가가 성립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진강은 삼국시대의 치열한 전투 현장이었던 만큼 많은 관방유적들이 분포하고 있고, 현재에도 한반도의 허리에 위치해 있어 항상 전쟁의 위험을 내포한 남북 대치의 휴전선이 강 옆으로 지나고 있다.

임진강 하류 쪽에 있는 임진 나루는 의주로 구간에 놓여 있어 이곳을 건너 선조가 몽진하였고, 조선과 중국의 사신들이 한양에서 중국을 오가는 사행길이기도 하였다. 1592년 선조는 칠혹 같이 어두운 임진나루를 건넜다. 8촌형 박명원의 사행길에 따라갔다가 ‘열하일기’를 쓴 조선시대 대문장가 연암 박지원이 건넜던 길도 임진 나루이다.



임진나루 진서문 자리

임진나루의 위치에 대한 문헌 기록에 ‘임진보(臨津堡)는 임진(臨津)의 남안(南岸)에 있으며 영종 41년에 별장 연강(緣江)을 설치하고 관성(關城)을 쌓았는데 좌우 길이가 백 3십 3보이며 진서문(鎭西門)이라고 불렀다.’ 하였고, <계산기정> 에도, ‘임진은 파주의 관곡지(館穀地)이다. 산이 트여 강에 다가서서 양쪽이 급히 치솟았다. 산을 따라 성이 있는데 성문을 진서문(鎭西門)이라고 한다.

지금은 임진나루터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출입이 불가능하다. 진서문이 있던 자리에 는 커다란 통문이 장벽처럼 가로막혀 ‘철통경계’라고 쓴 문구가 눈길을 끈다. 의주로를 따라 북쪽으로 갈 수도 없고, 배를 띄울 수도 없지만 임진나루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서려 있고 역사적으로도 매우 많은 사건이 벌어진 중요한 곳이다. 임진나루는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유적지로 복원 되어야 한다. 빠른 시일 안에 복원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맺는다.

◎ 참고자료

조선왕조실록

계산기정

신증동국여지승람

만기요람

동사강목

역사속의 임진강, 파주문화원, 2002

조선후기 한강유역의 교통로와 장시, 김종혁(고려대학원, 지리학 박사학위 논문), 2001.

## 交河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 환포(環抱)형국 한반도 최고의 명당,  
통일 수도의 적지 -

이 윤 희\*

### 교하(交河), 한반도 최고의 명당

교하(交河), ‘물이 사귀다’ ‘물이 서로 교합한다’로 풀이된다. 물이 서로 사귀고 교합하기 위해 서는 최소한 두 물줄기가 필요하다. 두 물줄기는 한반도의 대동맥을 중횡으로 달려 만나는 ‘한강’과 ‘임진강’이다. 그래서 교하의 땅이름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교합하는 곳이라는데서 유래되었다. 모든 지명에는 역사성과 유래가 있기 마련이다. 교하는 다른 지명처럼 굳이 유래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지형을 보면 ‘아! 이래서 교하구나!’ 하는 곳이다.

동양에서는 ‘풍수(風水)’를 매우 중요시 해왔다. 풍수는 말그대로 ‘바람과 물’인데 바람은 보이지 않아 논하기 어렵지만 물은 볼 수 있고 만져 볼 수 있어 예로부터 ‘국운풍수(國運風水)’를 얘기할 때 주로 다루어졌던 것은 ‘물(水)’이다. 특히 한 국가의 건국과 천도에 있어 ‘국운풍수’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동양 각국의 역사에도 잘 나타나있다.

교하는 두 물이 만나 서해로 흘러드는 천혜의 풍수를 지닌 곳이다. 조선 광해군 때는 ‘수도 한양의 왕기가 쇠하였으므로 도성을 교하현에 세워 순행(巡幸)을 대비하여야 한다.’는 ‘교하천도론’이 제기되었던 곳이다. 술관 이의신이 제기한 교하천도론은 비록 조정관료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했지만 당시 광해군의 마음을 심하게 흔들어 놓았던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이러한 교하천도론에 대해 우석대 김두규 교수는 교하천도론이 성공했다면 20년 뒤인 1637년 임진(壬辰)이 청나라 임금에게 머리를 박는 ‘삼전도 굴욕’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단언하고 있다. 덧붙여 광해군때의 참언 ‘一漢, 二河, 三江, 四海’를 들어 ‘세계화’에 걸맞는 대한

\* 파주문화원 이사, 청운대 겸임교수

민국의 수도는 한양(‘1한’)과 교하(‘2하’)를 포함하되 ‘3강’과 ‘4해’를 선취(先取)하는 땅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전 서울대 교수 최창조 박사는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통일 후의 대한민국 수도는 ‘교하’가 적지라며 즐기치게 주장해 왔다. 그는 파주는 국토의 중앙이며 한강, 임진강, 예성강의 교회처(交會處)로 항만 입지가 좋다는 점 등 교하의 풍수적, 지리적 입지의 타당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이처럼 교하는 풍수적으로 두 물길이 감싸는 ‘환포(環抱)’ 형국의 한반도 최고의 명당임에 틀림없다.



교하신도시전경

## 교하라는 땅이름

교하의 땅이름은 삼국시대에 비로서 처음 등장하게 된다. 삼국시대 파주지역을 최초로 차지한 것은 백제다. 당시 교하지역의 지명은 ‘천정구(泉井口)’였다. 이 후 475년에 이르러 교하지역은 고구려에게 넘어가고 장수왕은 중국식 균현제로 개편하면서 교하지역은 ‘천정구현’이 된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마지막으로 이 지역을 차지하며 757년(경덕왕 16)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해 이전의 천정구현을 ‘교하군’으로 개명하면서 ‘교하’라는 이름이 첫 선을 보이게 된다. 교하라는 땅이름은 오늘날까지 무려 1,254년의 세월을 지켜낸 질기고도 숭고한 이름이다.

고려 현종 9년(1018)에 교하는 양주에 속하게 되고 고려말 공양왕때는 양광도에 포함된다. 조

선조 태조 3년(1394년)에는 교하현으로 강등되었다가 태종 15년(1415)에는 파평과 파주지역을 합쳐 원평도호부로 승격되기에 이른다. 이후에도 교하지역은 분리와 폐합을 여러차례 겪었고 숙종 13년(1687)에 다시 교하현으로 복구되고 40년 후인 영조 7년(1731) 교하군으로 승격된다. 조선 말 고종 32년(1895)에 일시 파주군에 속하다가 1년만인 고종 33년(1896)에 다시 교하군으로 복구된다. 당시 교하군에 속한지역은 현재의 교하지역을 포함해 금촌, 탄현지역을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하군은 지식면, 아동면, 와동면, 석곶면, 청암면, 현내면, 신오리면, 탄포면 등 8면을 관할하였다.

조선시대 교하의 읍치는 현재 탄현면 갈현리인 검단산 동록이었으나 영조 7년(1731) 장릉(長陵)이 천장되면서 아동면 금성리로 옮겼다. 그 후 영조 13년 다시 읍치를 지식면 휴율리로 옮겼다.

오늘날의 행정체계를 갖춘 것은 1914년 파주군으로 폐합되면서 교하는 파주군 청석면과 와석면의 행정체계를 갖게 되며 또 다시 1934년 청석면과 와석면을 합쳐 교하면이 된다. 비로서 1945년 당시 연천군 적성면이 파주군으로 편입되면서 오늘날 파주시 전체 행정구역의 기틀이 잡히게 된다. 이후 파주군 교하면은 1996년 군(郡)이 도농복합의 파주시로 승격되면서 파주시 교하면이 되었고 2002년 교하면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하읍으로 승격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올해 2011년 교하읍은 신도시 인구 유입의 급증으로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등 4개의 행정동 체계로 분동되었다.



교하신도시조감도

## 교하의 산하

예부터 산 좋고 물 좋은 곳에는 인물과 재물이 많이 난다고 한다. 교하는 천혜의 명당 풍수를 지닌 곳으로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된 지역이다. 특히 지형적으로 볼 때 산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교하땅 끝자리에 해발 193m의 심학산이 우뚝 솟아있다. 주변지역이 구릉과 평야지대로 이루어져 비록 높지않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에 서면 사방이 조망된다. 예부터 심학낙조를 파주8경으로 손꼽을 만큼 심학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낙조는 그 풍광이 으뜸이다. 그 동안 심학의 지명은 심악과 심학으로 혼재되어 왔다. 자료를 보면 한강물을 막고 있다하여 수막산(水幕山)이라 불리기도 하였고 홍수때마다 물속에 잠긴다하여 심악산(深岳山)이라 불렀다 한다. 그 후 조선 숙종때 궁궐에서 기르던 학 두 마리가 도망치자 곳곳에 수소문한 뒤 심악산에 와 있는 것을 보고 찾아갔다 하여 심학산(尋鶴山)으로 변했다 한다. 심학산의 우뚝 솟은 산봉우리는 큰 호랑이가 누워있는 형상 또는 물위에 떠있는 군함같다고 하여 풍수용어로는 비룡상천형(飛龍上天形)이라 한다. 산에는 진귀한 모양의 바위들이 많은데 신선바위, 마당바위, 범바위, 장사바위, 투구바위, 맷돌바위, 두꺼비바위 등 이름도 다양하다.

이 곳 심학산에는 천자지지(天者之地)의 전설이 내려온다. 심학산 중심부 10평 남짓한 자리가 있는데 풍수지리에 의하면 천자가 나올 자리로 전해져왔다고 한다. 이 자리를 욕심내는 사람들이 밤중에 몰래 시체를 매장하였으나 이상하게도 산이 울고 마을에 번고가 생겨 시체를 다시 파내곤 했다고 한다.

오도리와 다울리에 걸쳐있는 장명산(長命山)은 교하의 진산(鎭山)이다. 원래는 단명산(短命山)이었으나 옛날 교하면과 고양군을 같이 관할하던 군수가 교하사람들만 우대하였는데 고양사람들이 이를 괘씸히 여겨 장명산에서 군수를 죽이려하자 교하사람들이 그를 살려냈다하여 ‘단’이 ‘장’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그러나 지금의 장명산은 석회석 광산개발로 인해 산의 형체가 절반이상이 잘려나갔으니 원래 이름처럼 ‘단명’한 셈이다.



심학산

## 교하의 역사인물

교하에는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었다. 교하가 관향(貫鄉)인 교하노씨(交河盧氏)의 노한(盧閑), 노사신(盧思愼), 노공필(盧公弼)로 이어지는 3대가 교하인물이다. 조선시대 예학의 선구자이며 8문장의 한사람인 구봉 송익필(龜峰 宋翼弼)은 심학산 자락에서 출생하였다.

교하땅에 묻힌 역사인물들은 무수히 많다. 대표적 일가묘역이 파평윤씨 정정공파 묘역이다. 신도시 택지개발과정에서 다행히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이들 묘역은 우리나라 단일 종중 묘역 중 최대규모로 조선초기부터 오늘날 묘역까지 6백여기의 단일 종중 묘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시대 분묘 야외박물관’이라 칭할만 하다. 이 곳 종중묘역에는 조선 세조의 장인인 정정공 윤번(尹璠)을 비롯해 중종의 장인인 윤지임(尹之任) 등 부원군과 그 아들들인 윤사흔(尹士昕), 윤원형(尹元衡)등 조선 중기를 주름잡던 파평윤문들의 무덤이 즐비하다. 다울리에는 삼당시인(三唐詩人)으로 불린 고죽 최경창(孤竹 崔慶昌)과 그를 연모해 ‘조선시대 최고의 로맨스’로 이야기되는 기생 홍랑의 무덤이 자리잡고 있다.

## 교하의 마을들

교하지역은 파주시의 읍면동 지역중 가장 많은 16개의 법정리(法定里-현재는 법정동으로 바뀜)를 포함하고 있다. 교하리를 비롯해 다울리, 당하리, 동패리, 목동리, 문발리, 산남리, 상지석리, 서패리, 송촌리, 신촌리, 야당리, 연다산리, 오도리, 와동리, 하지석리 등이다. 그러나 이들 자연마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일부 자연마을을 제외하면 택지개발로 인해 옛 마을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에 추가적 개발이 계획되고 있어 이제 교하는 천지가 개벽한 땅으로 변하게 되었다. 마을들 중 상지석리, 하지석리는 선사시대 유적인 고인돌이 있어 유래된 지명이다. 상지석리는 윗 권돌, 하지석리는 아래 권돌 이라고도 불렸다. 와동리는 옛날 파평윤문들이 많이 살던 곳이며 부자들의 기와집이 즐비하여 기와집 처마밑으로 가면 비를 맞지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신도시 개발전까지도 이 곳에는 기와집이 즐비했다. 문발리는 방촌 황희의 예장시장지에 다녀간 문종의 교시에 힘입어 선비들이 문학에 힘써 이름을 떨쳤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우리나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인 파주 책도시가 들어섰으니 그야말로 문종의 교시를 제대로 받든 셈이다.

## 교하의 문화유산

교하는 살기좋은 땅이었음에 분명하다. 수만년전 선사인들은 넓은 구릉과 물이 풍부한 교하에 모여 살았다. 이들에게 교하는 수렵과 채취를 하기에 안성맞춤의 땅이었다. 그들이 살아

온 흔적들이 교하지역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대표적인 다울리, 당하리 고인돌과 상지석리, 하지석리로 불리는 권돌마을은 선사인들의 무덤인 고인돌이 집단적으로 발견된 마을이다.

최근에는 교하의 주산인 심학산에서도 고인돌 무리가 수십여기 발견 조사되었다. 이미 많은 고인돌 유적이 훼손된 상태지만 지금이라도 심학산 고인돌군은 시급히 보호조치 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 교하지역은 인조대왕릉인 장릉(長陵)을 비롯해 교하향교, 신곡서원 등 유교유적들과 황희, 윤선거, 박중손, 정연, 조온, 한승순, 강경서, 이민서, 정효상 등 당상관 이상의 사대부 묘역, 파평윤씨 정정공파 묘역 등이 교하땅에 조성되었다. 최근에는 왕족 묘역인 청원군 이간 묘역과 다울리 물푸레나무, 상원군 이세령가문 충신열녀비가 향토유적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자유로 - 문발IC

## 교하신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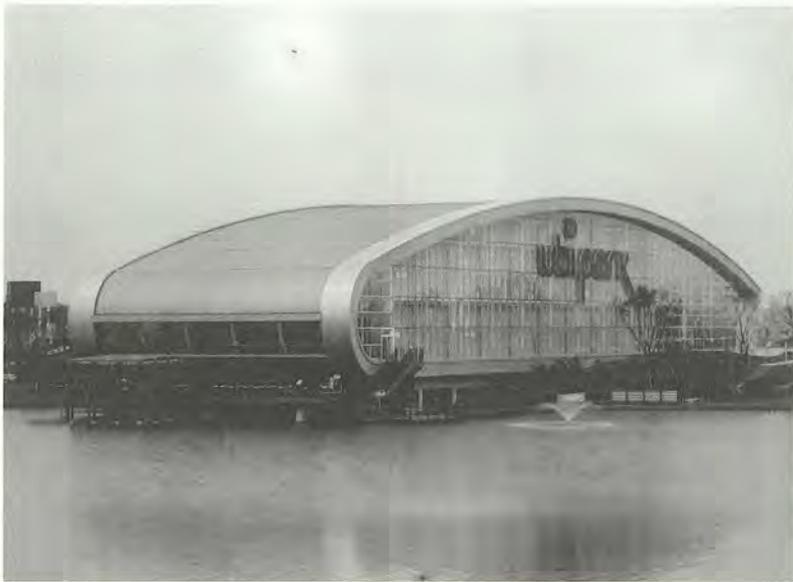
교하가 변하고 있다. 이미 변해버렸다. 다울리 수무골에 있던 물푸레나무는 아파트 정문 입구가 되었고 고래등 기와집이 즐비했던 당하리 와가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변화의 역사라면 너무 순식간의 변화다. 군데 군데 예전에 남아있던 흔적들만이 옛 교하땅의 흔적을 부여 잡고 있다.

교하 변화의 바람은 신도시 계획에 따른 택지개발이다.

교하신도시는 운정1, 2지구(955만㎡)와 운정3지구(695㎡) 등 총 1,650㎡ 규모로 인구 30만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신도시로 추진되고 있다. 1, 2지구는 2003년 사업을 시작해 2009년 12월 토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대부분의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한 상태다. 하지만 추가 조성키로한 3지구가 사업 재검토 대상에 포함돼 작년 2월부터 난항을 겪어왔다. 최근 문제가 해결 되어 계획된 3지구 추가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3지구 보상이 완료되고 애초 계획대로 추진되면 교하신도시는 일산신도시(1,573만㎡)보다 큰 신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 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옛 교하의 마을 이름들도 새롭게 고쳐졌다. 아니 고친것이 아니라 바꾼것이 맞다고 해야겠다. 모두가 부르기 좋고 예쁜 이름들이다. 책향기마을, 숲속길마을, 노을빛마을, 청석마을, 가람마을, 한울마을, 한빛마을, 해솔마을 등 바둑판식으로 구획된 큰 마을이름들이 예부터 불려온 수백개의 크고작은 자연마을 이름들을 모두 삼켜버렸다. 개발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기에는 허탈하기 그지없다. 그나마 새롭게 명명된 지명들마저 지역성과 역사성을 담지못해 안타깝다. 교하택지지구 마을 중 유일하게 고유지명을 계승한 청석마을(옛 청석면 지역)은 명명하고 난 후 쏟아진 민원을 감당하느라 행정이 혼쭐을 나기도 했다. 주민들은 청석마을이 ‘촌스럽다’는 것이다. 전통과 지역성을 계승하는 일이 촌스러운 일이라면 어떤것이 멋스럽단 말인가? 최근 신도시 명칭을 두고 또 다시 혼란스럽다. 논란의 중심은 교하신도시냐, 운정신도시냐 하는 문제다. 신도시 명칭은 도시계획 단계에서 붙여지는 사업지구명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그대로 신도시 명칭으로 불려지는 것이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의 현주소다. 운정이란 자연마을은 교하에 속한 수백개 자연마을 중 운정역을 끼고 있는 작은 마을이라는 점이



신도시 유비파크 전경

다. 애당초 택지개발계획 단계에서 편의적으로 명명한 사업명칭도 문제이지만 뒤늦게 바로 잡겠다고 하여 명칭을 수정한 행정, 또 다시 제기되는 민원에 신도시 명칭을 폐지하고 대신 분동 명칭을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으로 하여 교하지역 대부분의 땅을 운정동으로 만들어버린 행정절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파주시에 교하가 있고 교하에 운정이 속해있는 있는 것이다.

진통과 혼란 속에서 이제 교하의 오랜 역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그리고 새롭게 펼쳐질 신도시 역사가 기록 될 것이다. 그러나 기록은 한 시대를 뒤로 할 뿐 단절하거나 폐기 할 수 없다. 그래서 1천년을 넘게 간직해 온 교하의 이름을 자꾸 불러보는지도 모르겠다.

## 교하의 미래

한반도의 대동맥을 흐르는 한강. 그리고 유일하게 남북을 소통하기도 하고 남과 북을 갈라놓은 경계의 강 임진강. 두 강이 만나 서해로 흘러드는 곳 교하. 교하는 남북이 서로 갈등하다 다시 대동(大同)할 역사의 흐름을 예고하고 있다. 그래서 교하는 통일이 되는 날 남과 북이 서로 부등켜 안고 기쁨의 잔치를 함께 펼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통일수도가 건설될 위대한 땅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교하는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야 할 땅이며 이름이다. 사람이 바뀌고 형체가 바뀐다고 해서 땅이 변할 수는 없다. 땅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지표의 생물(生物)을 떠받치고 있다. 이제 교하땅을 밟고 살아갈 주민들에게 교하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알려주어야 할 때다. 그것이 파주시가 진정으로 그들의 파주시민 됨을 축하해 주는 일이다.

심학산에 올라 교하벌을 품어 보라! 그리고 해지는 노을을 보라!

가장 뜨거운 몸으로 교하벌을 비춘 해가 마지막 몸을 태우는 곳. 그곳이 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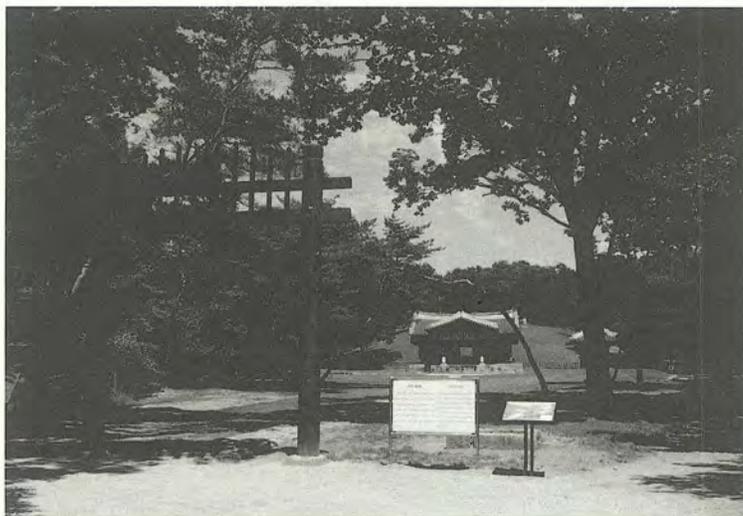
# 파주의 능(陵)과 원(園)

## - 순릉(順陵), 영릉(永陵)

강근숙\*

### 순릉(順陵)

공혜왕후의 순릉은 공릉에서 직선거리 30여 미터 떨어진 왼쪽 등성이에 자리하고 있다. 공릉과 순릉 사이에는 봉일천 시내와 장곡리를 오가는 길이 나 있어 얼마 전까지 능역이 둘로 갈려져 있었다. 순릉으로 가려면 다시 매표소 쪽으로 나와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길을 막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오랜 논란 끝에 2009년 조선시대 능 40기(基)가 세계문화유산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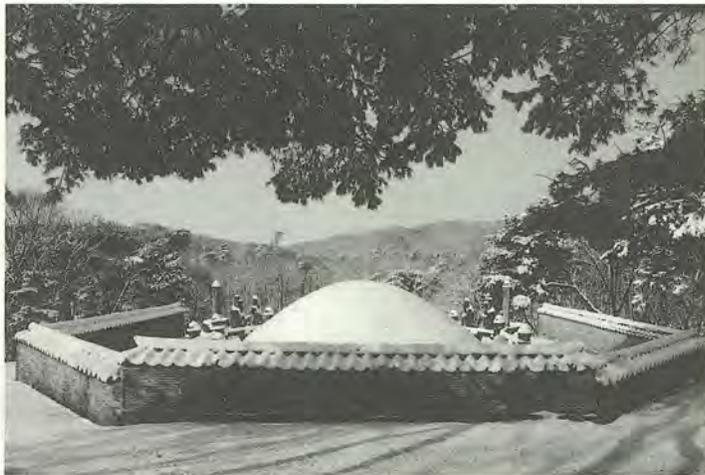


\* 파주문화관광 해설사, 수필가

로 등재되면서 길을 폐쇄하고 철망을 건어냈다. 자동차가 달리던 길에 나무를 심고 숲으로 길을 냈다. 순릉으로 가는 오솔길은 나뭇잎이 겹겹이 차양을 쳐 햇볕이 뜨거운 한낮인데도 서늘하다. 온갖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나무가 뿜어내는 향내와 신선한 공기를 맘껏 들이마신다. 몸과 마음이 상쾌하다. 우리고장 파주에 능이 있다는 것은 자랑스럽고도 고마운 일이다. 40만평의 이 아름다운 경관에 능을 조성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아파트나 공장이 들어섰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순릉에 잠들어 있는 공혜왕후(恭惠王后, 1456~1474)는 조선조 9대 성종(成宗)의 원비(元妃)로 한명회의 넷째 딸이다. 11살에 세자빈이 되었고 성종이 즉위하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공혜왕후는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 왔으나 예의 바르고 효성이 지극해 삼전(세조비 정희왕후, 덕종비 소혜왕후, 예종계비 안순왕후)의 사랑을 받았다 전한다.

열네 살 왕비 자리에 오른 공혜왕후는 궁중 법도를 갖추고 행하며 후궁에게도 너그럽게 하여 칭찬을 받았다 한다. 왕비는 책봉된 지 5년 만에 병이 나 친정인 한명회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빠른 쾌차를 빌며 종사에 제사를 지내고 죄수를 놓아주는 한편 임금은 은전을 베풀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병이 깊어 다시 궁궐에 별전을 마련하고 지성으로 보살폈다. 왕의 명으로 한명회와 부인은 왕비의 병을 돌보러 갔으나 딸의 임종을 보아야 했다. 꽃다운 나이에 왕비는 창덕궁 구현전에서 세상을 떠났다(1474년 4월 15일). 삼전은 슬픔에 잠겨 짝 잃은 임금을 잘 모시게 하였고 모든 대소 신료들에게 호곡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왕이나 왕비가 승하하면 이조판서는 의정부에 보고하여 빈전도감, 국장도감, 산릉도감의 3개 임시관청을 설치하여 국장을 분담한다. 빈전도감에서 습과 소렴, 대렴을 한 후 6일째 되는 날 왕의 즉위식을 갖게 된다. 그러나 숙부였던 예종이 승하하자 열세 살 자을산군을 그날로 임금 자리에 앉혔다. 예종과 계비 안순왕후 사이에 낳은 제안대군은 너무 어려서라지만 형인

월산대군을 제치고 왕의 자리에 앉힌 것은 정희왕후와 한명회의 정치적 결탁이라는 설이 있다. 그러나 덕종과 예종이 모두 요절했기에 정희왕후는 튼튼하고 강골풍인 자을산군을 왕위에 앉혔는지도 모른다. 성종은 스무 살까지 할머니인 정희왕후의 섭정을 받았고 제위기간 중, 열명의 후궁과 스물여덟 명의 자식을 두었다.

무슨 연유인지 성종은 왕비를 찾지 않았다 한다. 어린 나이에 국모의 체통을 지키며 후궁들만 찾아가는 성종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왕비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왕의 여자는 정략적인 관계이다. 애뜻한 사랑이 싹터서 부부가 된 것은 아니다. 권력의 장점인 왕에게 다가가는 다리를 놓는 최고의 방법이 혼인이다.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운명이 있다고는 하나 만약에 왕비의 신분이 아니고 평범한 여인으로 아들딸 낳고 자유롭게 살았다면 그리 단명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열아홉 자손 없이 세상을 떠났지만 왕비의 신분이었기에 오백년이 지난 지금까지 받들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순릉 속지를 보면 그 당시 ‘능을 지키는 군인이 70명이고 1년에 번갈아 3일씩 돌아가며 번을 서는 급료는 한 명당 복결(세금 없이 빌려 쓰는 땅)로 지급되는 땅은 1구50복이다. 중간에 본 읍에서 항상 정착한 사람에게만 12냥을 주기로 하였으나 병자에 없어졌다.’고 쓰여 있다. 70여명의 군사는 가까운데 사는 사람을 썼고 급료는 땅으로 빌려 주고 세금을 면제했다. 수군에게 돌아가는 음식이며 말 먹이는 물론이고 접시와 숟가락 숫자까지 자세히 적혀 있어 그때의 현황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능군이 언제까지 있었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숙종16년 정월 재실을 중건했고 24년에 정자각도 중건했다. 숙종과 영조가 여러 차례 친히 제사를 지낸 기록과 축문서식도 적혀있다.

왕이 친히 와서 봉심하고 제사를 올렸을 전경을 그려본다. 지금도 일 년에 한 번, 양력 5월 9일이면 옛 방식 그대로 정자각에서 기신제를 지낸다. 순릉은 왕비의 능이기에 언니인 장순왕후 공릉에 비해 구성물이 많다. 난간석주도 돌렸고 석수(石鬮)도 각각 두 쌍씩이다. 석물의 유



훈유석 아래 고석의 귀면

래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능실을 지키는 의미이다. 석양은 흙의 요사스런 괴물을 막는 액막이고 석호는 사람의 간과 뇌 먹기를 좋아하는 망랑이란 괴물이 호랑이와 잣나무를 겁내므로 능 주위에 침엽수를 심고 석호를 세워 놓았다. 능상 앞에 널찍한 장방형 상석(床石)은 제물을 차리는 곳이 아니라 혼이 나와 노시는 곳이라 혼유석(魂遊石)이라 부른다. 혼유석을 받치고 있는 4개의 고석(鼓石) 역시 잡귀가 근접 못하게 귀면(鬼面)이 새겨져 있다. 능역 한 가운데에는 가신분의 명복을 빌며 자손번창을 위한 장명등(長明燈)을 밝혀 놓았고, 한 단 아래 갑옷으로 무장한 무석인(武石人)이 서 있다. 장검을 빼어 두 손으로 짚고 서서 만약의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위엄 있는 자세로 서있는 무석인은 아무리 봐도 그 시대 권력을 휘둘렀을 인물처럼 보인다.

온갖 영화를 누릴 수 있었는데도 열아홉 나이에 세상을 떠난 왕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도 살고 죽는 일에는 어쩔 수 없었나보다. 무덤 속 주인공의 슬픈 단명은 역사의 뒤편길에 묻히고 왕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소풍을 와서 자연을 즐기고 있다. 휴일이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유모차를 밀고 오는 젊은 부부가 유난히 많다. 나무 그늘에 앉아 싸 가지고 온 음식을 먹으며 정담을 나누는 사람들, 부모와 함께 수첩을 들고 역사공부 나온 학생들, 왕비님은 행복한 이들을 지긋이 내려다보고 웃을 것만 같다.



순릉 능침 아래 무석인

## 영릉(永陵)

장마가 끝나지 않아 끈적이는 8월 중순, 오랜만에 파주삼릉을 찾았다. 종전에는 마을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앞에 주차장과 재실이 훤히 보였는데 지난 6월 24일 <파주삼릉 역사문화관>을 개관하면서 주차장도 옮기고 삼릉입구는 철문을 달았다. 팔학골 방향으로 돌아서 역사문화관으로 가 보았다. 문화관 내에는 조선왕릉 공간구성과 왕계도가 걸려 있고, 의궤에 기록되어 있는 영릉(永陵)의 부장품이 그림과 함께 자세히 적혀있다. 효순왕후 발인반차도(發輶班次圖)는 발인 전에 행렬의 순서를 그림으로 그려 철저히 점검한 것으로 1752년(영조 28년) 1월 21일 축시, 창경궁에서 효순왕후를 모시고 장지인 파주로 향하는 발인 행렬을 영상으로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경기감사를 선두로 교명죽책요여, 책빈옥인현빈옥채여, 혼백영, 방상시, 소귀채여, 죽산마·죽안마, 견여, 명정, 대여, 곡궁인 등 장례행렬이 뒤를 따른다. 효순왕후는 풍양 조씨 조문명의 딸로 13세에 세자빈으로 책봉 되었으나 이듬해 홀로되어 한 많은 삶을 살다가 37세에 돌아가 진종(眞宗)과 함께 영릉(永陵)에 잠들어 있다.



조선시대 능 40기(북한지역 2기(基)제외)중에 영릉은 3기(基)가 된다.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에 세종과 소헌왕후의 합장릉인 영릉(英陵)이 있고, 바로 옆 700m 떨어진 곳에 있는 효종과 인선왕후의 영릉(寧陵)이 있다.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에 있는 영릉(永陵)은 조선 제 21대 왕인 영조(英祖)의 맏아들 진종과 효순왕후의 쌍능이다.

진종은 1719년에 태어나 10살에 세상을 떠나 효장(孝章)이라 시호를 받았고 두 차례에 걸쳐 추존되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폐위한 뒤, 당시 세손인 정조를 효장세자(사도세자 이복형)의 양자로 입적시켰다. 훗날 정조가 왕이 되어 진종으로 추존하고 무덤의 이름도 왕릉으로 높여 영릉(永陵)으로 부르게 되었다. 영릉은 다른 능과 달리 비석이 셋이나 된다. 맨 위쪽 추존되기 전의 비석과 진종으로 추존하여 정조가 친히 짓고 쓴 비문이 새겨진 비석, 그리고 1908년 대한제국 황제인 순종에 의해 황제와 황후로 다시 한 번 추존되어 세워진 비석이다. 파주삼릉에서 해설하는 날은 영릉 비각 앞에서 가장 많이 머문다. 역사적인 이야기도 많고 정조가 쓴 어필을 감상하기 위해서이다. 비석 앞면에 쓴 전서(篆書)와 뒷면의 음각을 한 해서(楷書)가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지 볼수록 감탄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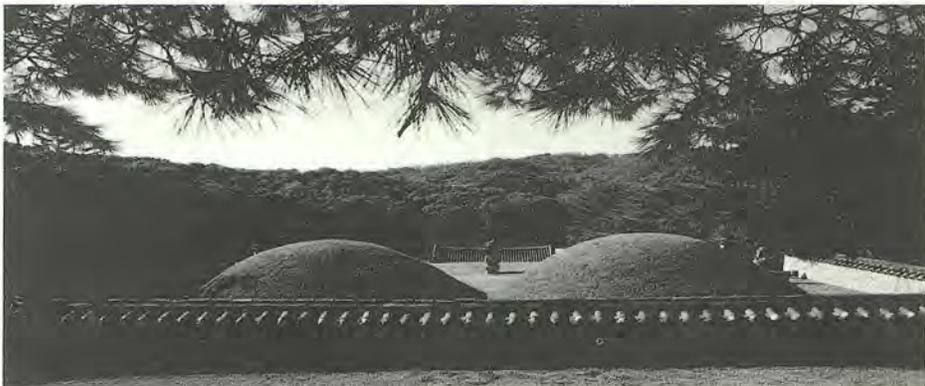
2011. 08. 14

영조는 정성왕후, 정순왕후 두 명의 왕비가 있었으나 자식을 얻지 못하고 정빈이씨에게만 아들 효장세자가 태어난다. 영조의 즉위와 더불어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나 겨우 10살의 나이로 명을 다한다. 목숨이 사위어 가는 아들에게 영조는 “내가 누구인지 알겠느냐” 묻는다. 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다. 정빈이씨는 세자를 낳고 3년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어미 없이 키운 어린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졌다. ‘아야! 나는 덕이 부족하여 오로지 세자만 믿었다. 성품도 이와 같아서 이 나라에 만세의 복이 되기를 바랐다. 어찌 10세의 나이에 이 지경에 이를 줄 생각이나 했겠는가. 종사를 생각하니 애통함을 억누르기가 더욱 어렵다’ 이 글은 아들을 위해 지은 지문(誌文)이다.

어느 부모인들 자식을 먼저 보내고 애통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능지(陵紙)를 보면 영조가 세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는지 알 수가 있다. 날이 가물어 능침의 잔디가 말라 죽었을 때, 손수 지휘하며 떼를 입히고 물을 뿌렸다는 기록이 있다. 능역을 거닐며 영조의 발자국이 수없이 찍혔을 능상을 올려다본다. 왕과 왕비의 능에는 각각 혼유석을 앞에 두었다. 그 중간에는 조선 후기 양식인 사각 장명등을 배치하였고, 석양(石羊)과 석호(石虎)가 능 주위를 호위하고 있다. 당초 효장세자 장례 때, 영조는 정자각은 옛 제도에 따라 지을 것과 석물은 사가(私家)의 석물에 비하여 좀 풍후하게 하라고 명하여 그대로 하였다.

피기도 전에 떨어진 꽃봉오리, 어린 나이에 가례를 올리고 세자는 그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났다. 부부간의 애뜻한 정도 모르는 채 외로운 섬처럼 궁궐에 남겨진 세자빈은 차라리 남편을 따라 요절이라도 하고 싶었을지 모른다. 당시 병조판서였던 아버지 조문명, 권력가의 딸이 아니었다면 왕가로 시집을 가지 않았을 것이고 평생 외롭게 살지도 않았을 것이다. 왕가의 여인은 고독하다. 혼례를 올리고 합방도 못한 효순왕후는 죽어서 진중 옆에 나란히 누웠다.

파주삼릉에 누워 있는 무덤의 주인들은 단명해서 더 애달프다. 공릉의 장순왕후도 인성대군을 낳고 산후증으로 17세에 세상을 떠나고, 순릉의 공혜왕후는 후사도 없이 19세에 세상을 떠났다. 부러울 것 없는 왕실 가족이 되어 왜 그리 일찍 세상을 떠났을까. 살고 죽는 일은 하늘의 뜻이라 해도 너무나 안타까운 삶이다.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왕과 왕비는 한 많은 삶도 애통함도 세월 속에 묻고 우리고장 파주에 잠들었다.



# 파주 청백리록 (坡州 清白吏錄)

- 파주지역 청백리 조사 -

서교송\*

1. 들어가는 글
2. 파주지역 연관 청백리 일람표
3. 전고대방 본문
4. 파주지역 연관 청백리 소개

## 1. 들어가는 글

청백리(清白吏)는 ‘청백탁이(清白卓異: 청렴하고 결백함이 뛰어남.)’한 이상적인 관료를 말한다.

청백리의 자격은 법전에 명문화된 기록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통일된 기준을 찾을 수 없지만, 조선시대 선발된 청백리의 선발 사유를 보면 ‘청백(清白)’ ‘근검(勤儉)’ ‘경효(敬孝)’ ‘후덕(厚德)’ ‘인의(仁義)’ 등의 품행이 제시되어 있어 관리로서 선정을 베푸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존경받는 성품을 지녀야 했음을 알 수 있다.

청백리의 선발은 조선 전기에는 의정부와 이조, 후기에는 비변사와 이조에서 2품 이상 관료가 생존하거나 사망한 인물을 대상으로 2인씩을 추천하게 하고, 추천자를 육조판서가 심사한 뒤 국왕의 재가를 얻어 확정하였다.

조선시대를 통해 청백리에 녹선된 수는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전고대방(典故大方)》에는 218명, 경종·정조·순조대가 제외된 《청선고(淸選考)》에는 186명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00여명 내외가 선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파주문화원 사무국장

이중 파주와 연고를 맺은 이가 무려 23명에 이른다. 방촌 황희 정승처럼 대표적인 청백리로 널리 알려진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청백리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본 조사에서는 파주와 인연을 가진 청백리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소개를 통해 선현들의 삶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정신을 본받아 나아가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조사에서 청백리의 명단 확인은 《전고대방(典故大方)》 청백리록(清白吏錄)을 통하여 이뤄졌으며, 청백리 소개 자료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파주의 인물》, 《파주문화재대관》의 자료를 인용했다.

## 2. 파주지역 연관 청백리 일람표

	녹훈	성명	본관	관직	연관
1	태조	우현보(禹玄寶)	단양	찬성사	단, 파평 두포리
2	태종	경 의(慶儀)	청주	서북면병마도절도사	묘소, 군내면 방목리
3	세종	황 희(黃喜)	장수	영의정	묘소, 탄현 금승리
4	세종	이정보(李廷輔)	경주	경기좌도관찰사	묘소, 맥금동
5	성종	성 현(成愼)	창녕	대제학	묘소, 문산 내포리
6	성종	허 종(許琮)	양천	우의정	묘소, 장단면
7	성종	허 침(許琛)	양천	좌의정	묘소, 장단면
8	중종	김 흔(金訢)	연안	참판	묘소, 교하 교하리
9	명종	이몽필(李夢弼)	전주	대사간	묘소, 문산을 사목리
10	명종	윤춘년(尹春年)	파평	대사헌	묘, 교하읍 당하리
11	선조	백인걸(白仁傑)	수원	참찬	서원, 월릉 덕은리
12	선조	최흥원(崔興源)	삭녕	좌의정	묘소, 금촌 아동동
13	선조	정곤수(鄭崑壽)	청주	좌찬성	관직, 파주목사(1581)
14	선조	이광정(李光庭)	연안	참찬	묘소, 조리 뇌조리
15	선조	이후백(李後白)	연안	판서	묘소, 조리 뇌조리
16	선조	김장생(金長生)	광산	형조참판	서원, 자운서원 배향
17	선조	이기설(李基嵩)	연안	장령	묘소, 적성 마지리
18	선조	김 행(金 行)	강릉	목사	묘소 영당, 문산 내포리
19	인조	김덕함(金德諫)	상주	대사헌	묘소, 적성 설마리
20	숙종	류경창(柳慶昌)	전주	참판	묘소, 교하 와동리(이장)
21	숙종	이세화(李世華)	부평	판서	묘소, 문산 선유리
22	선조	최경창(崔慶昌)	해주	부사	묘소, 교하 청석리
23	순조	심익신(沈宜臣)	청송	경기도관찰사	묘, 광탄면 방축리

출전 典故大方

3. 전고대방 본문

**趙持謙**

光甫翼孫  
副學邊齋

**林泳**

德涵羅州人  
副學滄溪大憲

**吳道一**

貫之海州人  
大學西坡

**李畚**

見相

**朴泰**

**輔**

士元潘南人  
三諫臣定齋

**徐宗泰**

見相

**右大提學李敏叙選**

壬戌

**李玄祚**

季商聖求  
孫大學

**閔昌道**

士會熙  
子吏議

**柳世鳴**

爾能成龍  
玄孫校理

**金文夏**

聖起清風人  
吏佐選翁

**權重經**

道一大連孫  
監司異齋

**洪塾**

承基南陽人  
應教梧隱

**蔡彭胤**

仲著裕後從  
孫泰何希菴

**右大提學閔顯選**

己巳

**李海朝**

子東一和子  
慶司鳴巖

**李肇**

子始全州人  
鶴山吏判

**李緯**

熙卿嗣孫  
大學陶庵

**林衆德**

彝好羅州人  
校理老村

**任守幹**

用汝昌川人  
承旨高

**洪萬遇**

履祥曾孫  
校理楸軒

**右大提學姜親選**

己丑

**朴宗甲**

同甫潘南  
人判判

**丁範祖**

海左羅州  
人判判

**閔鍾顯**

公紀國興  
人判書

**徐有臣**

舜五志修  
子泰朝賀

**彥鎬**

見相

**洪相簡**

敬而趾深子  
承旨丁西誅

**右大提學李福源選**

癸巳

**清白吏錄**

故事

廉吏之選所以勵世道而振清操也進秩而褒之錄后而勸之列朝之崇獎至矣第其抄選之規多有不可曉者清白之錄廉謹之選或有同時並舉則似不無差殊今案中所記初不標而別之亦有或錄或否者及至于肅廟甲戌南溪朴文純白上曰吏曹廉吏之錄惟以子孫之有力於銓曹懸註錄用者始爲入錄故當錄不錄者甚多請令爆瀝翰林考出於實錄以作成案事蒙允未知厥後果然釐正而試之而本曹案錄之累加添補云英祖丁巳命抄清白吏二品以上各薦三人各五十餘人會圈丁卯右相趙顯命以尹容等

五人別薦正祖丙辰又命抄備堂各薦二人而尹著  
東時有相請以故相所薦五人先為磨勘上從之

### 太祖朝

**安省** 廣州人日三參贊以一  
**禹玄寶** 丹陽人壬申以兩隱黨流拜官不起養浩堂  
**柳珣** 晉州人靖平藝文提學  
**吉再**

治隱麗朝注書太祖即位棄官歸金烏山  
**徐甄** 利川人麗朝堂令

### 太宗朝

**慶儀** 清州人節度使順節公  
**李之直** 廣州人恭議道村子  
**金若恒** 光山人大成  
**李伯持** 龍仁人監司  
**崔有慶**

全州人恭贊平度公  
**李原** 見相  
**朴瑞生** 比安人憲  
**崔士儀** 有慶子判敦寧襄度公

### 世宗朝

**鄭陟** 晉州人判尹整庵恭戴公  
**崔萬理** 海州人副學  
**黃喜** 見相  
**柳寬** 見相  
**孟思誠** 見相

**柳謙** 晉州人文利曹左參議  
**李石根** 益安大君芳敷子  
**閔不貪** 驪興人主簿  
**洪桂芳** 南陽人參議  
**朴彭年**

六臣  
**李廷輔** 慶州人監司  
**李知** 廣州人判官  
**黃孝源** 尙州人左贊成襄平公  
**柳琰** 晉州人吏判官簡公  
**金膺**

### 世祖朝

**盧叔全** 豐川人松齋大憲  
**鄭文炯** 奉化人判書道傳孫  
**朴薑** 羅州人判中世襄公  
**李暉** 興陽人府尹良敬公  
**奇慶**

幸州人成德  
**郭安邦** 玄風人郡守  
**金從舜** 慶州人判尹恭胡公

### 成宗朝

鄭誠謹

晉州人直學孝旌

林整

利安人禮判恭惠公

成倪

文衡 參贊

許琮

見相 許琛

見相 弟

朴說

密陽人贊成夷靖公

尹碩輔

漆原人直學燕山被禍

具致寬

見相

李塤

韓山人和伯安昭公

李賢輔

永川人譽岩孝節公

金謙光

光州人擢卿判書

安彭命

廣州人司成

梁灌

南原人武同敦

朴處綸

高靈人文副學

瑞

伯符林川人知足堂文輔德

閔暉

鹽興人 大憲

李慎孝

全義人 監司

李淳

牛峯人 參判

李約東

碧珍人 知中樞

柳塤

晉州人 判書

中宗朝

鄭梅臣

晉州人 判官

趙士秀

楊州人季任文吏判文貞公

崔命昌

開城人松石 己卯名賢

權瓊

安東人 典簿

金斌

曹致虞

昌寧人 文司總正

吳世翰

羅州人 兵使

宋欽

新寧人前後以孝廉七承恩 授判中

金詮

見相 姜

叔突

於川人司諫善書燕山時謫

李善長

韓山人 郡守

柳軒

全州人 大諫

李樺

全義人 金宗直

鄭甲孫

贊成

鄭昌孫

見相

柳濱

吏判謙五世 孫忠定公

李崇元

吏判 柳希轍

金訢

工參 諡弟

孫仲暉

慶州人

表斌

文科 茅齋

趙元紀

漢陽人文判 樞文節公

金延壽

安東人

朴祥

忠州人昌世 訥齊文簡公

尹思翼

判中樞 恭胡公

李鐵均

星州人 李彥迪

金淨

慶州人元冲 冲庵判書

俞儼

川寧人 水使

韓亨允

清州人 刑判

申公濟

高靈人 吏判

魚泳濬

見湖堂

明宗朝

盧白堂

人判

金楊震

豐山 諡

典收大方卷二 清白吏錄 三十四

鄭淵 郡守 尹釜 坡平人 李世璋 全州人 鄭宗榮 草溪人仁吉 安珪 見相

朴守良 泰仁人 金洵 正郎 任虎臣 同知 任輔臣 虎臣弟 洪暹 見相 李

莫 見相 李榮 水使 李夢弼 文吏 洪曇 太虛判 成世章 昌寧人景 尹春

年 坡平人 尹鉉 坡平人子用 柳渾 文化人 禹世謙 丹陽人 朴永俊 吏判 朴

民獻 咸陽人希正 李增榮 工正 金夢佐 直長 李俊慶 見相 周世鵬 尙州人景

金 判書 李況 退溪 宋贊 鎮川人始 許世麟 武左 安潛 別坐 金

彭齡 司勇 姜允權 正 吳祥 海州人祥之 申潛 牧使 金雨 府使 李

重慶 廣州人 安從錫 竹山人郡 金擴 府使 俞彥謙 昌原人 卞勳男 縣令 金

若默 誠齋 盧禎 豐川人子膺 辛士衡 縣監 金就文 大諫 宋翼璟

宣朝朝

沈守慶 見相 許潛 陽川人吏判 李暨 韓山人吏 李友直 驪州人禮判 李元翼

柳成龍 見相 李直福 見相 李直彥 全州人贊成 白仁傑 泰贊 李時彥

崔興源 見相 張弼武 武兵 安自裕 順興人 李濟臣 全義人 鄭峴壽 清州人汝

成 院府 金 暉 安東人子益文 李光庭 延安人德輝海 李後白 延安人季真吏 沈喜壽 見相

冰 許 頊 見相 李有中 德水人時可 崔汝霖 承旨 金長生 光山人沙 李

基高 延安人逸 掌令逆峯

吳億齡 同福人 大年判 書晚翠文肅公

金行 江陵人 周道 直學長浦

仁祖朝

金尙憲 見相

金時讓 安東人判樞 荷潭忠翼公

閔汝任 驪興人 泰 判振衣

李安訥 德水人 東岳

金德誠 尙州

李命俊 全義人 泰 判滄窩

成夏宗 昌寧人 武兵使

崔震立 慶州人 武工 泰丙子戰亡

李時白 見相

洪

命夏 見相

辛慶晉 寧越人 大 憲了湖

具坤源 綾城人 蔭 正郎省齋

金蓋國 清風人 領中樞

肅宗朝

李尙眞 見相

趙洞 漢陽人 日章龍 洲判樞文簡公

姜栢年 晉州人 叔久 雪峯泰贊

趙錫胤 白川人 樂靜

朴信圭 密陽人 泰贊

崔寬 全州人 而 栗知樞

李之醞 公州人 左尹

成以性 昌寧人 府使

定 延安人 泰知

趙涑 豐壤人 逸 進海滄江

洪茂 南陽人 蔭正

洪宇亮 南陽人 水使

姜說 晉州人 武府使

秦英 全州人 武府使

李世華 富平人 判書 已 卯立節雙柏堂

姜世龜 晉州人 大 諫三休堂

尹推 坡平人 房弟 農隱堂令

姜裕後

崔慶昌 嘉運府 使孤竹

尹趾仁 坡平人 兵 判楊江

李濟 全州人 文右尹

景宗朝

柳尙運 見相

宋廷奎 監司

姜錫範 武郡 正

李明俊 武府 使

金斗南 安東人 獻納

李

夏源 廣州人 文判書

英祖朝

清白吏錄

三三五

許晶 陽川人 水使 李秉泰 韓山人 副學文清公 尹容 趾仁子 刑判 韓德弼 恭判 鄭亨復 崔

有賢 邦彥洗馬 不仕自隱 尹得載 李台重 三山 李謙鎮

正祖朝

李義弼 鹿川會孫 文恭贊 李端錫 文恭判

純祖朝

南履焯 必留 徐箕淳 判書 韓益相 東伯 沈宜臣 錦伯

功臣錄

太祖朝純忠奮義佐命開國功臣 洪武二十五年壬申七月十六日 太祖即位 于松京壽昌宮錄益安大君芳毅等三十九員

一等十五員

益安大君芳毅 太祖第三男 贈大匡輔國 贈馬韓安妻公配定宗廟 星山伯裴克廉 見相 平壤伯趙浚 見相

上洛伯金士衡 見相 興安君李濟 星山人 景武公配 太祖廟 義安大君和 太祖 異母

弟益安 景昭 公配 太祖廟 鷄林君鄭熙啓 慶州人 景政部僉 議司 車良景公 青海伯李之蘭 本姓名修 豆齒 姓李 籍青海 武贊成 拜襄烈公 太祖廟

宜城君南閔 宜寧人 武判 顯剛 武公配 太祖廟 花山府院君張思吉 安東人 居義州 參贊 僖襄公 西原君鄭

摠 清州人 字曼碩 號復齋 政堂文學 文憲公 徵入大明流大理衛卒 漢山君趙仁沃 漢陽人 字晉史 判 忠靖公配 太祖廟 宜寧府院君南在

見相 清城府院君鄭擢 見相 益和君金仁贊 楊根人 武贊成

## 4. 파주지역 연관 청백리 소개

### 우현보[禹玄寶]

1333(충숙왕 복위 2)~1400(정종 2).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본관은 단양(丹陽). 자는 원공(原功). 아버지는 적성군(赤城君) 길생(吉生)이다. 1355년(공민왕 4) 문과에 급제하고 춘추관검열이 되었다. 이어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를 역임하였다.

우왕이 즉위하자 밀직사대언(密直司代言)이 되고, 곧이어 제학으로 승진하였다. 그 뒤 대사헌을 거쳐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오래 역임하면서 정사를 주관하고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에 올랐으며, 순충익대좌리공신(純忠翊戴佐理功臣)에 봉해졌다.

1388년(우왕 14) 이성계(李成桂)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자 우왕의 명령에 따라 좌시중에 임명되어 방어하려 하였으나, 실패해 파직되었다. 그 뒤 공양왕이 즉위하자 인척인 관계로 단양부원군(丹陽府院君)에 봉해졌다. 1390년(공양왕 2) 판삼사사(判三司事)가 되었으나 이초(彝初; 尹彝和李初)의 옥사에 연루되어 외방으로 유배되었다가 곧 석방되었다.

그러나 이듬 해 대간의 탄핵을 받아 다시 철원으로 유배되고, 곧 풀려나 단산부원군(丹山府院君)으로 다시 봉해졌다. 1392년 이방원(李芳遠) 일파에 의해 정몽주(鄭夢周)가 살해되자 시체를 거둬 장례를 치렀다. 그래서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의해 다시 탄핵을 받고 경주에 유배되었다가 곧 석방되었다.

조선이 건국되자 광주(光州)에 다시 유배되었다가 이듬 해 석방되었고, 1398년(태조 7) 정도전(鄭道傳) 일파가 제거된 뒤 복관되었고, 1399년 단양백(丹陽伯)에 봉해졌다. 1400년(정종 2)에 제2차 왕자의 난 때 문인 이래(李來)로부터 반란의 소식을 듣고 이를 이방원에게 알려준 공으로 추충보조공신(推忠輔祚功臣)에 봉해졌으나 곧 병사하였다.

장손 성범(成範)이 공양왕의 부마로 왕의 재위시에는 탄핵을 받았으나 곧 풀려났으며, 이색(李穡)·이승인(李崇仁)·정몽주 등과 교분이 두터웠다. 시호는 충정(忠靖)이다.

\* 장단군에 묘가 있으며, 파평 두포리에 단이 있다.

### 경의[慶儀]

미상~1395년(태조 4). 고려·조선의 문신. 본관은 청주(淸州). 경대승(慶大升)의 5대손이며, 아버지는 시중을 지낸 경복흥(慶復興)이다.

1377년(우왕 3) 4월 밀직부사로서 서경도순문사 겸 서북면부원수(西京都巡問使兼西北面副元帥)가 되고, 1388년 4월 좌군도통사(左軍都統使) 조민수(曹敏修) 휘하에서 계림원수(鷄林元帥)로서 요동정벌에 출정하기도 하였다.

위화도회군 뒤 이성계(李成桂)의 집권과정에서 일시 소외되었으나, 1390년(공양왕 2) 4월 전원주 등처병마절제사(前原州等處兵馬節制使)로서 무진회군공신(戊辰回軍功臣)에 녹훈되었다.

1392년(태조 1) 6월 문하평리(門下評理)로서 남경(南京)에 가서 성절(聖節)을 축하하였으며, 1393년

7월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로서 회군이등공신(回軍二等功臣)에 녹훈되고, 같은해 12월 하정사로 서 요동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그뒤 외직으로 나아가 서북면병마도절제사(西北面兵馬都節制使)로 평양윤(平壤尹)을 겸하였다. 시호는 순절(順節)이다.

\* 군내면 방목리에 묘가 있다.

## 황희[黃喜]

1363(공민왕 12)~1452(문종 2).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장수(長水). 초명은 수로(壽老). 자는 구부(懼夫), 호는 방촌(龐村). 석부(石富)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균비(均庇)이고, 아버지는 자현대부 판강릉대도호부사(資憲大夫判江陵大都護府使) 군서(君瑞)이며, 어머니는 김우(金祐)의 딸이다. 개성 가조리(可助里)에서 출생하였다.

1376년(우왕 2) 음보로 복안궁녹사(福安宮錄事)가 되었다. 1383년 사마시, 1385년 진사시에 각각 합격하였다. 그리고 1389년에는 문과에 급제한 뒤, 1390년(공양왕 2) 성균관학록에 제수되었다.

1392년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杜門洞)에 은거하였다. 그러다가 1394년(태조 3) 조정의 요청과 두문동 동료들의 천거로 성균관학관으로 제수되면서 세자우정자(世子右正字)를 겸임하였다. 이후 직예문춘추관·감찰 등을 역임하였다.

1398년 문하부우습유(門下府右拾遺) 재직 중 언관으로서 사사로이 국사를 논의했다고 문책되어 경원교수(慶源教授)로 편출되었다가, 1398년(정종 즉위년) 우습유로 소환되었다. 이듬 해 언사로 파직되었다가 그 해 2월경 문하부우보궐에 복직되었다.

그러나 또다시 언사로 파직되었으며, 곧 경기도도사(京畿道都事)를 거쳐 형조·예조·이조·병조의 정랑을 역임하였다. 1401년(태종 1)경 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이 태종에게 천거해 도평의사사경력(都評議使司經歷)에 발탁되었다.

그 뒤 병조의랑에 체직되었다가 1402년 아버지의 상으로 사직하였다. 그러나 그 해 겨울 군기(軍機)를 관장하는 승추부의 인물난으로 기복되어 대호군 겸 승추부경력에 제수되었다. 1404년 우사간대부를 거쳐 승정원좌부대인에 오르고, 이듬 해 박석명의 후임으로 승정원지신사에 발탁되었다.

1409년 참지의정부사가 되고, 형조판서를 거쳐 이듬해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대사헌 등을 지냈다. 1411년 병조판서, 1413년 예조판서를 역임하고, 이듬 해 질병으로 사직했다가 다시 예조판서가 되었다.

1415년 이조판서 재직중 송사(訟事) 처리와 관련해 육조에 문책이 내려지면서 파직되었다. 그러나 그 해 행랑도감제조(行廊都監提調)에 복위된 데 이어, 참찬·호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416년에는 세자인 양녕대군(讓寧大君)의 실행(失行)을 옹호하다가 다시금 파직되었다.

그 뒤 조정으로 복귀해 공조판서가 되었다. 그리고 평안도도순문사 겸 평양윤, 판한성부사를 역임하였다. 1418년 세자 폐출의 불가함을 극간하다가 태종의 진노를 사서 교하(交河)로 유

배되고, 곧 남원부에 이치(移置)되었다.

세종의 치세가 시작되고 아울러 상왕(上王 : 태종)의 노여움이 풀리면서, 1422년(세종 4) 남원으로 소환, 직첩과 과전을 환급받고 참찬으로 복직되었다. 1423년 예조판서에 이어 기근이 만연된 강원도에 관찰사로 파견되어 구휼하였다.

그리고 판우군도총제(判右軍都摠制)에 제수되면서 강원도관찰사를 계속 겸대하였다. 1424년 찬성, 이듬해에는 대사헌을 겸대하였다. 또한 1426년에는 이조판서와 찬성을 거쳐 우의정에 발탁되면서 판병조사를 겸대하였다.

1427년 좌의정 겸 판이조사가 되었고, 그 해 어머니의 상으로 사직하였다. 그 뒤 기복되어 다시 좌의정이 되었다. 이어 평안도도체찰사로 파견되어 약산성기(藥山城基)를 답사하였다. 이때 약산이 요충지라 해서 영변대도호부를 설치한 뒤 평안도도절제사의 본영으로 삼게 하였다.

1430년 좌의정으로서, 감목(監物)을 잘못해 국마(國馬) 1,000여 필을 죽인 일로 해서 사헌부에 구금된 태석균(太石鈞)의 일에 개입해 선처를 건의하였다. 그러나 일국의 대신이 치죄에 개입함은 부당할 뿐더러, 사헌부에 개입하는 관례를 남기게 되므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그래서 한때 파주 반구정(伴鷗亭)에 은거하였다. 1431년 다시 복직되어 영의정부사에 오른 뒤 1449년 치사(致仕 :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는 것)하기까지 18년 동안 국정을 통리(統理)하였다. 그리고 치사한 뒤에도 중대사의 경우 세종의 자문에 응하는 등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성품이 너그럽고 어질며 침착하였다. 그리고 사리가 깊고 청렴하며, 충효가 지극하였다. 학문에 힘써 높은 학덕을 쌓았으므로 태종으로부터 “공신은 아니지만 나는 공신으로서 대우했고, 하루라도 접견하지 못하면 반드시 불려서 접견했으며, 하루라도 좌우를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할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그는 농사개량에 유의해 곡식 종자를 배급하고, 각 도에 명령해 뽕나무를 많이 심어 의생활을 풍족하게 하였다. 또한 《경제육전(經濟六典)》을 펴내면서, 종래 원집(元集)과 속집(續集)으로 나누어 내용이 중복되고 누락되거나 내용과 현실이 괴리되는 것을 수정, 보완하였다.

한편, 국방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북방 야인과 남방 왜에 대한 방비책을 강구하였다. 그리고 예법을 널리 바르게 잡는 데에 노력해, 원나라의 영향이 지대한 고려의 예법을 명나라의 예법과 조선의 현실을 참작해 개정, 보완하였다.

또한, 인권에 유의해 천첩(賤妾) 소생의 천역(賤役)을 면제하는 등 태종대의 국가기반을 확립하는 데 공헌하였다. 세종대에는 의정부의 최고관직인 영의정부사로서 영집현전경연예문관춘추관서운관사 세자사 상정소도제조(領集賢殿經筵藝文館春秋館書雲觀事世子師詳定所都提調) 등을 겸대하였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鎮定)시키면서, 4군6진의 개척, 외교와 문물제도의 정비, 집현전을 중심으로 한 문물의 진흥 등을 지휘, 감독하였다. 특히, 세종 말기에 세종의 숭불과 연관해 궁중 안에 설치된 내불당(內佛堂)을 두고 일어난 세종과 유학자 증신 간의 마찰을 중화시키는 데 힘썼다.

이처럼 그는 왕을 보좌해 세종성세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로써 조선왕조를 통해 가장 명망 있는 재상으로 칭송되었다. 1452년(문종 2) 세종묘에 배향되었다. 그리고 1455년(세조 1) 아들 수신(守身)이 좌익공신(佐翼功臣)에 책록되면서 순충보조공신 남원부원군(純忠補祚功臣南原府院君)으로 추증되었다.

상주의 옥동서원(玉洞書院)과 장수의 창계서원(滄溪書院)에 제향되고, 파주의 반구정에 영정이 봉안되었다. 저서로는 《방촌집》이 있으며, 시호는 익성(翼成)이다.

\* 탄현면 금승리에 묘가 있고, 문산 사목리에 반구정과 방촌 영당이 있다.

### 이정보[李廷輔]

조선 초기의 문신이자 청백리로 자는 맹주(孟周), 호는 천정(泉亭), 초명은 제두(齋斗), 본관은 경주(慶州), 중서문하 판병부사를 역임한 경중(敬中)의 손으로, 장작소감에 오른 육(毓)의 아들이다.

고려 말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한 뒤 청화(淸華)를 지내고 조선조에 들어와서 태조의 잠저시 경기좌도관찰사에 특제되었다. 1428년(세종 10) 황희(黃喜)·유관(柳寬)·맹사성(孟思誠) 등과 함께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재직시 보여준 큰 절개와 국가에 충성스런 마음은 후세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다. 청렴한 생활로 일관하여 동시대인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인물이었다.

\* 맥금동에 묘가 있다.

### 성 현[成 俔]

1439(세종 21)~1504(연산군 10). 조선 초기의 학자.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경숙(馨叔), 호는 용재(齋)·부휴자(浮休子)·허백당(虛白堂)·국오(菊塢). 시호는 문재(文載)이다. 아버지는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염조(念祖)이다.

성현은 1462년(세조 8) 23세로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다. 1466년 27세로 발영시(拔英試)에 각각 3등으로 급제하여 박사로 등용되었다. 홍문관정자를 역임하고 대교(待敎) 등을 거쳐 사록(司錄)에 올랐다. 1468년(예종 즉위년) 29세로 경연관(經筵官)이 되었다. 그리고 예문관수찬·승문원교검을 겸임하였다. 그는 형 임(佐)을 따라 북경(北京)에 갔다. 그는 가는 길에 지은 기행시를 엮어 《관광록(觀光錄)》이라 하였다.

성현은 1474년(성종 5)에 지평을 거쳐서 성균직강(成均直講)이 되었다. 이듬해에 한명회(韓明滄)를 따라 재차 북경에 다녀왔다. 1476년 문과중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부제학·대사간 등을 지냈다. 1485년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천추사(千秋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대사간·대사성·동부승지·형조참판·강원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성현은 1488년에 평안도관찰사로 있었다. 조서를 가지고 온 명나라 사신 동월(董越)과 왕창(王敞)의 접대연에서 시를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그들을 탄복하게 하였다. 이 해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사은사가 되어 다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에 대사헌이 되었다.

성현은 1493년에 경상도관찰사로 나갔다. 그러나 성현은 음률에 정통하여 장악원제조(掌樂院

提調)를 겸하였기 때문에 외직으로 나감으로써 불편이 많았다. 그래서 한 달만에 예조판서로 제수되었다. 이 해에 유자광(柳子光) 등과 당시의 음악을 집대성하여 《악학궤범》을 편찬하였다.

성현은 성종의 명으로 고려가사 중에서 <쌍화점(雙花店)>·<이상곡(履霜曲)>·<북전(北殿)> 등의 표현이 노골적인 음사(淫辭)로 되었다고 하여 고쳐 썼다. 한편으로는 관상감·사역원·전의감(殿醫監)·혜민서(惠民署) 등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곳에 딸린 관원들을 종전대로 문무관의 대우를 받도록 하였다.

성현은 연산군이 즉위한 후에 한성부판윤을 거쳐서 공조판서가 되었다. 그리고 그 뒤에 대제학을 겸임하였다. 1504년에 《용재총화(慵齋叢話)》를 저술하였다. 죽은 뒤에 수 개월 만에 갑자사화가 일어나서 부관참시(剖棺斬屍) 당했다. 그러나 그 뒤에 신원되었다.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성현의 저서로는 《허백당집》·《악학궤범》·《용재총화》·《부휴자담론(浮休子談論)》 등이 대표적이다.

\* 문산 내포리에 묘가 있다.

## 허 종[許 琮]

1434년(세종 16)~1494년(성종 25).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종경(宗卿)·허종지(許宗之), 호는 상우당(尙友堂). 군수 허손(許蓀)의 아들이며, 좌의정 허침(許琛)의 형이다.

1456년(세조 2)에 생원시를 거쳐, 1457년 별시문과에 3등으로 급제하여 의영고직장 겸 세자우정자(義盈庫直長兼世子右正字)가 되고, 1458년에 군기시직장 겸 세자우정자가 되었다.

1459년 언로를 개방하고, 이단을 물리치고, 경연을 열 것 등을 상소하여 세조의 신임을 얻으면서 선전관을 겸하였으며, 그해 지평 이영은(李永垠), 승문원부교리 정효상(鄭孝常) 등과 함께 사가독서의 혜택을 받았고, 이어 통례문봉례랑 지제교 세자좌정자(通禮門奉禮郎知製教世子左正字)가 되었다.

1460년 여진족의 침입 때 평안도병마절제사도사로 출정하였고, 돌아와서 성균관주부·예문관봉교를 거쳐 이듬해에 형조도관좌랑이 되었다.

그뒤 함길도도사·사간원정언·함길도경차관·훈련원판관을 거쳐 1465년에 성균관사예에 오르면서 평안·황해·강원·함길도체찰사 한명회(韓明澮)의 종사관이 되어 북변경영에 공헌하고, 동부승지에 발탁되었다.

1466년 함길도병마절도사가 되었으나 아버지상을 당하여 사직하였다가, 이듬해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계기로 기복(起復)되어 조석문(曹錫文)·강순(康純)·어유소(魚有沼)·남이(南怡) 등과 함께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헌하여 적개공신 1등에 책록되고 양천군(陽川君)에 봉하여졌다.

1469년(예종 1)에 평안도관찰사·전라도병마절도사 등을 거쳐 대사헌에 오르고, 그 이듬해 병조판서가 되었다.

1471년 순성좌리공신(純誠佐理功臣) 4등에 책록되고, 그뒤 지중추부사·판중추부사·오위도총부도총관을 거쳐 1477년 예조판서가 되었다. 이해 10월 건주위(建州衛) 여진족이 침입하자 평안도순

찰사로 파견되어 이에 대비하였고, 이듬해 의정부좌참찬이 되었다가 할머니상으로 사직하였다.

1481년 환조(還朝)하여 북변방어를 위한 <평안도연변계읍적로요해산천험이도平安道沿邊諸邑賊路要害山川險易圖>를 제작하여 올리고 호조판서가 되었으며, 이듬해 임원준(任元濬) 등과 함께 《소문충공집(蘇文忠公集)》을 주해(註解)하고 우찬성이 되었다.

1483년에는 세자이사(世子貳師)를 겸하였고, 세조비 윤씨의 국상 때 산릉도감제조(山陵都監提調)가 되었으며, 서거정(徐居正)·노사신(盧思愼)·어세겸(魚世謙)·유순(柳洵)·유윤겸(柳允謙) 등과 함께 《연주시격(聯珠詩格)》·《황산곡시집(黃山谷詩集)》을 언해하였다.

1485년에 어머니상으로 사직하였고, 1487년에 기복되어 이조판서가 되었으며, 이듬해에 명나라 사신 동월(董越)과 부사 왕창(王敞)의 원접사·반송사로 활약하고 병조판서가 되었다.

1489년 강원도축성사로 파견되어 축성·병기를 고려했고 곧 영안도관찰사가 되었다.

1491년 여진족 우디거(兀狄哈)가 함길도방면으로 침입하자, 북정도원수(北征都元帥)가 되어 이를 격파하고, 그 이듬해에 우의정에 올랐다. 문무를 겸전하여 국방과 문예에 큰 공을 남겼고, 의학에도 조예가 깊어 내의원제조(內醫院提調)를 겸대하면서 종종 때의 명의원 김순몽(金順蒙)·하종해(河宗海) 등을 교회(敎誨)하였다.

그리고 서거정·노사신 등과 함께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을 언해하였으며, 윤호(尹壕) 등과 《신찬구급간이방(新撰救急簡易方)》을 편찬하였다. 성종조의 청백리로 녹선되었다.

문집으로는 《상우당집》이 있고, 편서에는 《의방유취(醫方類聚)》를 요약한 《의문정요(醫門精要)》가 있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 장단면에 묘가 있다.

## 김 흔[金 訥]

1448(세종 30)~1492(성종 28).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군절(君節), 호는 안락당(顔樂堂). 형조판서 자지(自知)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내자사윤(內資寺尹) 해(愨)이고, 아버지는 지중추부사 우신(友臣)이며, 어머니는 지청풍군사(知淸風郡事) 이계충(李繼忠)의 딸이다.

어렸을 때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에서 수업하여 크게 칭찬을 받고 사림의 촉망을 받았다.

내용1468년(세조 14) 진사시에 1등으로 합격하고, 1471년(성종 2)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에 임용되었다.

그 뒤 병조좌랑·홍문관교리를 지내고, 1479년 통신사의 서장관으로 대마도(對馬島)까지 갔으나 신병으로 인하여 되돌아왔다. 1481년 질정관(質正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홍문관응교, 1483년 전한(典翰)을 지내고 1484년 직제학에 승진하여, 충청도 천안지방의 수령·만호(萬戶) 등의 불법행위를 사찰(查察)하였다.

1486년 시강관(侍講官)·공조참의에 이르렀다. 풍질(風疾)로 여러 차례 사직을 원하였으나, 1489년 행호군(行護軍)을 역임한 뒤 1490년 행부사과(行副司果)를 지냈다. 성품은 고결하고 지조가 있

있으며 언행이 한결같았다. 문장은 율시에 능하였으며, 시호는 문광(文匡)이다.

\*교하읍 교하리에 묘가 있다.

### 이몽필[李夢弼]

1507년(중종 2)~1562년(명종 17).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은경(殷卿). 종실 백피도정(白岐都正) 이상(李常)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옥계도정(玉溪都正) 이현동(李賢童)이고, 아버지는 이맹원(李孟元)이다. 어머니는 윤종손(尹宗孫)의 딸이다.

1519년(중종 14)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형조좌랑·지평·장령·헌납·교리·사간·예조참의·병조참의·병조참지·형조참판·경주부윤·대사간·호조참판 등 청현직(淸顯職)을 두루 역임하였다. 1534년(중종 29) 헌납으로 있으면서, 무과초시(武科初試)에서 강서(講書)할 때, 시관이 빨리 출방(出榜)하고자, 과거보는 사람 중에 점수가 적은 사람에게는 들어와 강서하는 것을 허락치 않았는데, 과거를 이처럼 거칠게 할 수 없다며, 그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1537년(중종 32)에 장령으로 사헌부의 여러 관원과 더불어 외척 윤원로(尹元老)·윤원형(尹元衡)과 김안로(金安老)를 죄줄 것을 청하였다. 시독관이 되어 당시 첨사(僉使)·만호(萬戶) 등이 백성들에게 침탈한 재물을 조정의 김안로에게 뇌물로 바친다 하고 염치를 숭상하는 풍습을 반드려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1538년(중종 33)에는 언관으로서 현량과(賢良科)의 복구를 주장하다가 외방으로 좌천되었다. 나주목사(羅州牧使)가 되어 위엄을 부리지 않고 일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며, 백성들의 부세와 요역을 간략히 하여 몇 달 사이에 교화가 널리 베풀어져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한다.

1559년(명종 14)에 대사간이 되어 열 조목의 나라 다스리는 도리를 상소했는데, 기강을 세우고 학교를 높이고 하늘의 경계에 조심할 것, 언로를 열 것, 사기 양성, 내시 억제, 상벌을 분명히 할 것, 수령 선택, 어진이를 등용할 것, 염치를 북돋울 것 등이었다. 사람됨이 간소하여 번잡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직무를 이행함에 청렴·근면하여 훌륭한다는 평판과 함께 청백리에 뽑혔다.

\* 문산 사목리에 묘가 있다.

### 윤춘년[尹春年]

1514년(중종 9)~1567년(명종 22).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언구(彦久), 호는 학음(學音)·창주(滄洲). 이조참판 윤안인(尹安仁)의 아들이다.

1534년(중종 29) 생원이 되고, 1543년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문한직(文翰職)을 역임하다가 1545년(명종 즉위)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친족인 소윤 윤원형(尹元衡)에게 아부하여 대운 일파의 제거에 앞장섰고, 다음해에는 병조좌랑이 되어 윤원로(尹元老) 제거에 크게 노력하였다. 이를 계기로 윤원형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 이후 급속히 출세하게 되었는데, 이조정랑·장령·교리 등을 거쳐 1553년 대사간에 발탁되었다.

2년 뒤 부제학을 거쳐 대사헌이 되었으나 윤원형의 서얼허통론(庶孽許通論)을 공박하지 못하여 많은 비난을 받았다.

1558년 동지 겸 주청사(冬至兼奏請使)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이어서 이조판서가 되었다.

1565년 예조판서로 있을 때 윤원형이 제거되자 파직당하고 향리에 은거하였다.

성격이 경박하고 자부심이 강하여 일찍부터 대학자로 자처하는 등 공명심은 많았으나, 주색을 즐기지 않고 비교적 청렴·결백하였다고 하며 청백리로 뽑히기도 하였다.

\* 교하 당하리에 묘가 있다.

## 백인걸[白仁傑]

1497(연산군 3)~1579(선조 12). 조선 중기의 학자·문신. 본관은 수원(水原). 자는 사위(士偉), 호는 휴암(休菴). 서울에 거주하였다.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효삼(效參)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참교(參校) 사수(思粹)이고, 아버지는 왕자사부(王子師傅) 익견(益堅)이다. 어머니는 사직(司直) 우종은(禹從殷)의 딸이다.

조광조(趙光祖)의 문인으로 김안국(金安國)에게서도 학문을 배웠다. 송인수(宋麟壽)·유희춘(柳希春)·이이(李瑀)·성혼(成渾) 등 당대 사림계 인물들과 널리 교류하였다. 김식(金滉)이 대사성이 되어 새로운 학풍이 일어나게 되자 구도(求道)의 뜻을 세워 학문에 전심하였다. 특히 조광조를 존경해 그의 집 옆에 집을 짓고 사사하였다.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비분강개해 금강산에 들어갔다 돌아와 1531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537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러나 기묘사림의 일원으로 지목되어 오랫동안 성균관에 머물다가 이듬해에 예문관검열이 되었다. 이 때 예문관 관리가 이조(吏曹)의 인사 행정의 잘잘못을 기록하던 옛 관습을 복구해 실행하였다.

예조좌랑을 거쳐 남평현감(南平縣監)이 되었는데 이 때 학당(學堂)을 세우고 학장(學長)을 두어 자제들의 교육에 힘쓴 공로로 품계가 높아졌다. 1541년에는 홍문록(弘文錄 : 홍문관의 수찬·교리 등을 선발하기 위한 제1차 추천 기록)에 올랐다. 1545년(인종 1) 지평을 거쳐 호조정랑이 되었으며, 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을 겸하였다.

같은 해 명종 즉위 뒤 윤원형(尹元衡) 등이 대비인 문정왕후(文定王后)를 등에 업고 을사사화를 일으켜 윤임(尹任)·유관(柳灌) 등을 제거할 때,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으로 있으면서 극력 반대하다가 파직되고 옥에 갇혔으나 정순봉(鄭順朋)·최보한(崔輔漢) 등의 도움을 받고 풀려났다.

그 뒤 1547년 문정왕후의 수렴청정과 이기(李?) 등의 농권을 비난하는 양재(良才)의 벽서를 기화로 소윤(小尹) 세력이 대윤(大尹)의 잔존 세력과 사림계 인물들을 제차 축출할 때 연루, 안변(安邊)에 유배당하였다. 1551년 사면되어 고향에 돌아간 뒤, <<태극도설(太極圖說)>>과 정주학(程朱學)의 서적들을 깊이 연구하였다.

1565년(명종 20) 윤원형이 몰락하자 승문원교리(承文院校理)로 등용, 이듬해 사도시첨정(司?寺僉正)

· 선공감부정(繕工監副正)을 지냈다. 1567년 양주목사가 되었을 때 공납의 폐단을 개혁하는 치적 등을 쌓아 고을 사람들이 기념비를 세웠다. 선조가 즉위한 뒤 1568년(선조 1) 기대승(奇大升)의 건의로 특별히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공조참의·대사헌을 역임하고 뒤에 병조참판이 되었다. 이 밖에 공조참판 등을 지냈다. 그리고 1568년에는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수렴청정에 반대하는 소를 올려 오래지 않아 철렴(徹廉 : 수렴청정을 그만둠)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망할 때까지 조광조를 문묘에 배향할 것을 여러 번 요청하였다.

그러나 선조가 아버지 덕흥군(德興君)을 추존하는 작업을 추진할 때 일반 신하들의 강력한 반대와는 달리 임금의 처지를 두둔해 사림의 탄핵을 받고 지방으로 내려갔다.

조정에서 분당의 조짐이 나타나자 이준경(李浚慶)의 의견을 좇아 당론을 잠재우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선비들을 해하려 한다는 사림의 의심을 받아 1571년 파주로 퇴거하였다. 그 뒤 우참찬으로 징소되었으나 치도(治道)를 논하는 소를 올리고 나아가지 않았다.

1579년에는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있으면서 이이(李瑀)와 함께 다시 동서분당의 폐단을 논하고 진정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서인(西人)을 편든다는 공격을 받았다. 그 밖에도 국경의 상황을 논하고 군비를 닦을 것을 주장하는 등 국정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로 《명종실록》의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선조 초에는 많은 정치적 문제에 연관되었고 매우 연만해 많은 시간을 파주에 퇴거해 있었다. 이에 선조는 대사헌·우참찬 등의 관직을 내려 부르거나 식량을 내리기도 하고, 1569년의 경우와 같이 직접 편지를 보내 부르는 파격적인 대우를 베풀기도 하였다.

나이가 든 뒤에도 성리학에 대한 탐구를 열심히 했으며 이이·성혼(成渾) 등과 더불어 학문을 익히고 토론하였다. 기묘사화 뒤 명종대까지 계속되는 훈구세력의 발호에 맞서 사림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특히 1545년 을사사화 때 일신을 돌보지 않고 윤원형의 음모에 대항한 것은 후대에 길이 칭송되었다.

선조 때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으며 청백리에 뽑혔다. 파주의 파산서원(坡山書院)과 남평(南平)의 봉산서원(蓬山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 《휴암집(休菴集)》이 전한다. 인조 때 충숙(忠肅)의 시호를 받았으나, 뒤에 문경(文敬)으로 고쳐졌다.

\* 월릉 덕은리에 유허지가 있고, 선생을 모신 용주서원이 있다.

## 이광정[李光庭]

1552(명종 7)~1627(인조 5).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자는 덕휘(德輝)이다. 호는 해고(海阜)이다. 부사(府使) 말(鎰)의 증손이며, 할아버지는 군수 경종(慶宗)이다. 아버지는 정언(正言) 주(澍)이며, 어머니는 유사필(柳師弼)의 딸이다.

1573년(선조 6) 진사시에 합격했다. 1590년 교관(敎官)으로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591년 승문원정자·사관(史官)·시강원설서 등을 역임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주에 선조를

모시고 가서 정언과 지제교(知製敎), 예조·병조의 좌랑을 지냈다. 이듬해 환도 후 접반사(接伴使) 이덕형(李德馨)을 도와 실무를 담당하였다.

지평·병조정랑·동부승지 등을 지내고 이조·예조·병조의 정랑, 동부승지 등을 지냈다. 그 뒤 이조·예조·병조의 참의, 좌승지를 거쳐 대사성이 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 때 접반사로서 명나라의 부사였던 심유경(沈惟敬)을 만나러 갔다. 명나라에서 돌아와 호조참판이 되어 군항(軍餉 : 군수용 물품)을 정리하여 바로잡는 데 힘썼다.

공조참판을 거쳐 1598년 접반사로서 명나라의 제독 마귀(麻貴)를 따라 울산을 다녀왔다. 왜적을 물리치는 데 공헌했다. 1599년 호조·공조의 판서를 거쳐 한성부윤이 되었다. 1601년에는 지중추부사로서 청백리에 뽑혔다.

1602년 예조판서를 거쳐 대사헌이 되었다. 이 때 주청사(奏請使)로서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책봉에 대한 고명(誥命)을 받으러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 공로로 승정대부(崇政大夫)로 승계되었다. 판돈녕·판의금을 거쳐 예조·이조의 판서가 되었다.

1604년에는 호성공신(感聖功臣) 2등에 책록되어 연원군(延原君)에 봉해졌다. 뒤에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에 올라 부원군(府院君)이 되었다. 1621년(광해군 13) 호조판서로 제수되었으나, 당시의 정치상황이 어지러운 것을 보고 병을 핑계로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1623년 인조반정 후에는 공조·형조의 판서를 거쳐 1626년(인조 4)에는 개성유수가 되었다. 이 때 그곳의 인심이 매우 이익을 탐하여 이를 개혁하는 일을 단행하다가 마찰이 생겨 해직당하고, 기로소(耆老所)로 들어갔다. 정묘호란을 당해 왕을 강화도에 모시고 갔으나 병사했다. 인품이 근검하고 신중하여 주요 직책을 두루 맡았다.

\* 조리 뇌조리에 묘가 있다.

## 이기설[李基高]

1558(명종 13)~1622(광해군 14).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공조(公造), 호는 연봉(蓮峯), 참봉 계장(繼長)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장령(掌令) 언침(彦忱)이고, 아버지는 지남(至男)이며, 어머니는 정원(鄭源)의 딸이다. 박지화(朴枝華)의 문인이다. 정세규(鄭世規)·목낙선(睦樂善)과 교유하였다.

1586년(선조 19) 효행과 순덕(純德 : 도덕을 빠짐없이 행함. 또는 순수한 덕)으로 남부주부에 특별 임명되고, 다시 청산현감에 추천되었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그러나 어버이의 뜻을 거역하지 못해 그 해 겨울 무주현감을 거쳐 이듬 해 송화현감으로 나갔다.

1591년 한성부판관이 되었고, 다음해 임진왜란의 발발로 굶주리는 백성이 많아지자 구제에 힘썼다. 이듬해 호조정랑으로 선릉(宣陵)과 정릉(靖陵)의 도감낭청(都監郎廳)을 겸했으며, 해주의 행재소(行在所)에 갔다가 그 해 겨울 왕과 함께 환도하면서 군항(軍餉) 수급의 책임을 지고, 또 비변사낭청까지 겸해 군량미 조달에 힘썼다.

12월에 덕천군수로 나갔으나 1594년 어머니 정씨(鄭氏)의 사망으로 사직하였다. 1596년 청풍

군수에 제수되었는데, 군(郡)이 고향 가까이 있어서 사양하지 못하고 부임해 얼마 되지 않아 충북에서 가장 훌륭한 치적을 쌓았다는 평을 들었다 한다. 1599년 이산해(李山海)의 강력한 추천으로 상원군수로 나갔다.

1601년 청백리에 뽑혔으며, 이듬해 연안부사로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그 뒤 군자감부정·사도시정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고 은거하면서 학문에만 열중하였다. 광해군이 즉위한 뒤 이천부사·예빈시부정에 임명되었으나 역시 부임하지 않았고, 1610년(광해군 2) 부호군 임명도 거절하였다.

그 뒤 승지 등의 직책을 내렸으나 영창대군(永昌大君)이 서인(庶人)으로 쫓겨나고 폐모론이 일어나자 시국을 개탄해 끝내 벼슬을 사양하였다. 서울 삼청동 백련봉(白蓮峯) 아래에 연봉정(蓮峯亭)을 짓고 학문에 전심해 경사·천문·지리·올학·병술 등 여러 방면에 정통했으며, 당시 사대부의 사표가 되었다.

1623년(인조 1) 정경세(鄭經世)의 건의로 이조참판에 추증되고, 1633년 인조가 특명으로 정려를 내렸는데, 편액을 효자삼세(孝子三世)라 하였다. 저서로는 『연봉집』이 있다.

\*적성 퇴골 산 중턱에 묘가 있다.

## 이후백[李後白]

1520(중종 15)~1578(선조 11).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계진(季眞), 호는 청련(靑蓮). 관찰사 숙함(淑臧)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현감 원례(元禮)이고, 아버지는 국형(國衡)이며, 어머니는 홍씨(洪氏)이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큰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어버이의 상을 예법대로 치렀다. 하루는 집안 어른이 그에게 단술을 권하자 비록 단술이라도 '주(酒)'자가 붙은 이상 상주가 마실 수 없다고 거절했다 한다. 1535년(중종 30) 향시(鄉試)에 장원하고 곧 상경해 이의건(李義健)·최경창(崔慶昌)·백광훈(白光勳) 등에게서 배웠다.

1546년(명종 1) 사마시에 합격하고, 1555년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승문원주서를 거쳐 1558년 승문원박사로 사가독서(賜暇讀書 : 문흥을 위해 유능한 젊은 관료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에 전념케 하던 제도)하였다. 그 뒤 전한이 되고, 이어 시장원설서·사서·정언·사간·병조좌랑·이조정랑·사인 등을 역임하였다.

1567년(선조 즉위년) 원접사(遠接使)의 종사관이 되어 명나라 사신을 맞았다. 그 해 동부승지에 발탁되었으며, 이어 대사간·병조참의를 거쳐 도승지·예조참의·홍문관부제학·이조참판을 역임했으며, 1573년 변무사(辨誣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어 인성왕후(仁聖王后 : 仁宗의 妃)가 죽어 복제 문제가 일어나자 3년상을 주장해 그대로 시행되었다.

1574년 형조판서가 되고 다음 해 평안도관찰사가 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그 뒤 이조판서와 양관(兩館 : 홍문관과 예문관의 합칭)의 제학을 지내고, 호조판서로 있을 때 휴가를 얻어 함안에 성묘를 갔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청백리에 녹선되고, 앞서 종계변무(宗系辨誣 : 명나라의 『태조실록』과 『대명회전』에 이성계가 고려의 권신 李仁任의 후손으로 잘못 기재된 일을 바로잡은 것)의 공으로 1590년 광국

공신(光國功臣) 2등으로 연원군(延原君)에 추봉되었다.

문장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사림의 추앙을 받았다 한다. 함안의 문회서원(文會書院)에 제향되었고, 시호는 문청(文淸)이다. 저서로 『청련집』이 있다.

\*광탄 발랑리에 묘와 사당이 있다.

### 최흥원[崔興源]

1529(중종 24)~1603(선조 36).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삭녕(朔寧). 자는 복초(復初), 호는 송천(松泉). 영의정 항(恒)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영호(永灑)이고, 아버지는 전침(典籤) 수진(秀珍)이며, 어머니는 이세신(李世臣)의 딸이다.

1555년(명종 10) 소과를 거쳐 1568년(선조 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장령·정언·집의·사간을 역임하였으며, 이어 동래와 부평의 부사를 지냈다. 1578년 부평부사로 재임중 효릉(孝陵)의 감역(監役)이 문제되어 파직되었다가 다시 승지로 기용되고, 1588년 평안도관찰사가 되었다.

이후 지중추부사를 거쳐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우의정·좌의정을 거쳐 유성룡(柳成龍)의 파직에 따라 영의정에 기용되었다. 이듬해 병으로 사직,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영평부원군(寧平府院君)에 봉해졌다.

임진왜란 당시 왕을 의주까지 호종했던 공으로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추록(追錄)되었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 아동동 시청 뒤 군부대 내에 묘와 비가 있다.

### 정곤수[鄭崑壽]

1538년(중종 33)~1602년(선조 35).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청주(淸州). 초명은 규(逵). 자는 여인(汝仁), 호는 백곡(栢谷)·경음(慶陰)·조은(朝隱). 곤수는 선조의 하사명이다. 성주(星州)에 향촌적 기반을 두고 있었다. 아버지는 부사맹 정사중(鄭思中)이며, 어머니는 부사과 정희수(鄭希壽)의 딸이다. 큰아버지인 대호군 정승문(鄭承門)에게 양자로 들어갔다.

1565년(명종 20) 예안 도산정사(陶山精舍)로 이황(李滉)을 찾아가 《심경(心經)》을 전수하였다. 그 이후로도 관계를 지속하여, 1566년에는 김굉필(金宏弼)의 사적·시문과 그에 관한 다른 선비들의 글을 모아 이황에게 보내기도 하였으며, 이황은 주로 그것들을 바탕으로 《경현록(景賢錄)》을 편찬하였다.

1555년 별거초시(別舉初試)를 거쳐 1567년(선조 즉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1572년 성균관의 천거를 받아 의금부도사가 됨으로써 관료에 들어섰다. 그 이후 경력·전생서직장·주부·장례원사평을 역임하였다. 1576년 증시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고, 부사과를 거쳐 1577년에 공주목사로 승진하였다가 곧 상주목사로 옮겼다.

1581년 사과·파주목사, 1583년 부호군 겸 오위장을 거쳐 강원도관찰사가 되었으며, 이때 단종의 능인 영월의 노릉(魯陵)에 사묘(祠廟)를 세우고 위판(位版)을 봉안하였다. 1585년 첨지중추부

사·동부승지·우부승지, 1586년 상호군·호조참의·좌부승지·우승지를 역임하고, 1587년에는 여러해 흉년을 겪은 황해도에 관찰사로 특별히 임명되어 진휼사업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1588년 첨지중추부사가 되고 서천군(西川君)에 봉하여졌다. 1589년 도총관을 겸하고 판결사가 되었으며, 이듬해에는 충훈부 공신등록을 편찬하고 동지돈령부사 겸 오위장·대사성·동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

1591년 동지의금부사·대사성·한성부좌윤 등을 거쳐 1592년 병조참판이 되었다가 형조참판으로 옮겼으며, 그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주로 선조를 호종하였다. 대사간이 되어서는 명나라에 원병을 청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청병진주사(請兵陳奏使)로 중국에 파견되었다.

1593년 원병을 얻어온 공로로 승정대부에 오르고 판돈령부사가 되었다. 이즈음 영위사(迎慰使)·접반사(接伴使)를 맡아 명나라 장수와의 교섭을 담당하였다. 같은해 거듭 보국승록대부에 오르는 상을 받고 판의금부사가 되었다.

1595년 도총관·예조판서, 1596년 좌찬성을 역임하고, 1597년 판의금부사·도총관 등을 겸하고 사은 겸 변무진주사(謝恩兼辨誣陳奏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601년 선조를 호종한 원훈으로 이항복(李恒福)과 함께 녹훈되었다. 일찍이 수령을 지낼 때는 학문을 진흥시키고 사풍(士風)을 진작시키는 데에 힘썼으며, 임진왜란 당시의 대명외교에 큰 역할을 하였다.

죽은 뒤인 1604년 호성공신(感聖功臣) 1등에 녹훈되었으며 서천부원군(西川府院君)에 추록되었다. 성주의 유계서원(柳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 《백곡집》 4권 4책이 규장각도서에 전한다.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민(忠愍)이었는데 충익(忠翼)으로 바뀌었다.

\* 파주목사를 지냈다. 진동 하포리에 묘가 있다.

## 김 행[金 行]

1532(중종 27)~1588(선조 21).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강릉(江陵). 자는 주도(周道), 호는 장포(長浦). 상(湘)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군수 사희(士熙)이고, 아버지는 국평(國樞)이며, 어머니는 거창신씨(居昌愼氏)로 극효(克孝)의 딸이다. 1558년(명종 13) 생원·진사 양시에 합격하고, 1566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어려서 백인걸(白仁傑)과 성수침(成守琛)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성수침은 성흔(成渾)의 아버지인데 그는 성흔과 동문수학하고 평생 형제처럼 지냈다. 벼슬은 내직으로 전직·형조좌랑·호조좌랑·예조정랑·한성부서윤·사성·사도시정(司寺正)을 지냈고, 외직으로는 무장현감·고양군수·서천군수·양주목사·광주목사를 지냈다.

성품이 강직하여 주로 외직에 머물고 크게 현달하지는 못하였다. 글씨에도 능하여 필법이 호장활동하다는 평을 들었고, 1575년(선조 8) 무장현감으로 있을 때에는 안평대군(安平大君)의 「증도가(證道歌)」를 보완하여 간각(刊刻)했다.

또한, 무예와 지략에도 뛰어나서 1588년 광주목사로 있을 때 순변사(巡邊使) 신립(申瑬)이 그를 천거하여 전라도병마절도사의 물망에 올랐으나 곧 죽었다. 이제신(李濟臣)과 친교가 두터웠다.

\*문산 내포리에 묘와 영당이 있다.

### 김장생[金長生]

1548년(명종 3)~1631년(인조 9). 조선 중기의 학자·문신.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희원(希元), 호는 사계(沙溪). 서울 출신. 아버지는 대사헌 김계휘(金繼輝)이며, 김집(金集)은 그의 아들이다.

1560년 송익필(宋翼弼)로부터 사서(四書)와 《근사록(近思錄)》 등을 배웠고, 20세 무렵에 이이(李瑋)의 문하에 들어갔다. 1578년(선조 11)에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창릉참봉(昌陵參奉)이 되고, 1581년 종계변무(宗系辨誣)의 일로 아버지를 따라 명나라에 다녀와서 돈령부참봉이 되었다.

그 뒤 순릉참봉(順陵參奉)과 평시서봉사(平市署奉事)를 거쳐 활인서(活人署)·사포서(司圃署)·사옹원(司糞院) 등의 별제(別提)와 봉사가 내렸으나 모두 병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 후 동몽교관(童蒙敎官)·인의(引儀)의 직을 거쳐 정산현감(定山縣監)이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호조정랑이 된 뒤, 명나라 군사의 군량조달에 공이 커 종친부전부(宗親府典簿)로 승진하고, 1596년에 한때 연산으로 낙향했는데, 단양·양근 등지의 군수와 첨정(僉正)·익위(翼衛)의 직이 거듭 내려졌으나 나가지 않았다.

이듬해 봄에 호남 지방에서 군량을 모으라는 명을 받고 이를 행함으로써 군자감침정이 되었다가 곧 안성군수가 되었다. 1601년에 조정에서 《주역구결(周易口訣)》의 교정에 참가하도록 불렀으나 병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이듬해에 청백리로 올려졌으나, 복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1605년 관직을 버리고 연산으로 다시 내려갔다. 그뒤에 익산군수를 지내고, 1610년(광해군 2)에 회양·철원부사를 역임하였다. 1613년 계축옥사 때 동생이 그에 관련됨으로써 연좌되었으나 무혐의로 풀려나자, 관직을 버리고 연산에 은둔하여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그 뒤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하자 75세의 나이에 장령으로 조정에 나갔으나, 곧이어 사업(司業)으로 옮겨 원자보도(元子輔導)의 임무를 겸하다가 병으로 다시 낙향했다.

이듬해 이괄(李适)의 난으로 왕이 공주로 파천해오자 길에 나와 어가를 맞이하였다. 난이 평정된 뒤 왕을 따라 서울로 와서 원자보도의 임무를 다시 맡고 상의원정으로 사업을 겸하고, 집의의 직을 거친 뒤 낙향하려고 사직하면서 중요한 정사(政事) 13가지를 논하는 소를 올렸다.

그뒤 좌의정 윤방(尹昉), 이조판서 이정구(李廷龜) 등의 발의로 공조참의가 제수되어 원자의 강학을 겸하는 한편, 왕의 시강과 경연에 초치되기도 하였다.

1625년에 동지중추부사를 임명받았으나 이듬해 다시 사직하여 행호군(行護軍)의 산직(散職)으로 낙향하여, 이이·성혼(成渾)을 제향하는 황산서원(黃山書院)을 세웠다.

같은 해 용양위부사직으로 옮기고, 1627년 정묘호란 때 양호호소사(兩湖號召使)로서 의병을 모아 공주로 온 세자를 호위하고, 곧 화의가 이루어지자 모은 군사를 해산하고 강화도의 행궁(行宮)으로 가서 왕을 배알하고, 그해 다시 형조참판이 되었다.

그러나 한달 만에 다시 사직하여 용양위부호군으로 낙향한 뒤 1630년에 가의대부로 올랐으

나, 조정에 나아가지 않고 줄곧 향리에 머물면서 학문과 교육에 전념하였다.

늦은 나이에 벼슬을 시작하였을 뿐더러 과거를 거치지 않아 요직이 많지는 않았지만, 인조 반정 이후로는 서인의 영수격으로 영향력이 매우 컸다. 인조 즉위 뒤에도 향리에서 보낸 날이 더 많았지만, 그의 영향력은 같은 이이의 문인으로 줄곧 조정에서 활약한 이귀(李貴)와 함께 인조 초반의 정국을 서인 중심으로 안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하였다.

학문과 교육으로 보낸 향리생활에서는 줄곧 곁을 떠나지 않은 아들 김집의 보필을 크게 받았다. 그의 문인은 많은데,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이유태(李惟泰)·강석기(姜碩期)·장유(張維)·정홍명(鄭弘溟)·최명룡(崔命龍)·김경여(金慶餘)·이후원(李厚源)·조익(趙翼)·이시직(李時稷)·윤순거(尹舜舉)·이목(李穆)·윤원거(尹元舉)·최명길(崔鳴吉)·이상형(李尙馨)·송시영(宋時榮)·송국택(宋國澤)·이덕수(李德洙)·이경직(李景稷)·임의백(任義伯) 등 당대의 비중 높은 명사가 즐비하게 배출되었다.

아들 집도 문하이지만, 문인들 사이에는 그를 ‘노선생’, 그리고 아들을 ‘선생’으로 불렀다고 한다. 학문적으로 송익필·이이·성혼 등의 영향을 함께 받고 있었지만, 예학(禮學)분야는 송익필로부터의 영향이 컸으며, 예학을 깊이 연구하여 아들 집에게 계승시켜 조선예학의 태두로 예학파의 한 주류를 형성하였다.

인조 즉위 뒤 서얼출신이었던 송익필이 그의 아버지 송사련(宋祀連)의 일로 환천(還賤)된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같은 문하의 서성(徐滄)·정업(鄭擘) 등과 신변사원소(伸辨師冤疏)를 올렸다.

또한, 이이와 성혼을 위하여 서원을 세웠을 뿐더러 1만8천여자에 달하는 이이의 행장을 짓기도 했다. 스승 이이가 시작한 《소학집주》를 1601년에 완성시켜 발문을 붙였는데, 《소학》에 대한 관심은 예학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1583년 첫 저술인 《상례비요(喪禮備要)》 4권을 비롯, 《가례집람(家禮輯覽)》·《전례문답(典禮問答)》·《의례문해(疑禮問解)》 등 예에 관한 것이 있고,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경서번의(經書辨疑)》와 시문집을 모은 《사계선생전서》가 전한다.

1688년 문묘에 배향되었으며, 연산의 돈암서원(遯巖書院)을 비롯하여 안성의 도기서원(道基書院) 등 10개 서원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원(文元)이다.

\* 울곡 선생의 수제자로 자운서원(범원읍 동문리)에 제향되었다.

## 김덕함[金德誠]

1562(명종 17)~1636(인조 14).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상주(尙州). 자는 경화(景和), 호는 성옹(醒翁). 형(衡)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증 좌승지 장수(長瑒)이고, 아버지는 증 이조참판 홍(洪)이다.

어릴 때 부모를 잃었으나 스스로 문예에 힘써 1587년(선조 20) 생원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다시 진사가 되었으며, 1589년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관직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번 이항복(李恒福)의 후원을 받았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연안(延安)에서 초토사 이정암(李廷)을 도와 의병을 모집하고 군량을 조달하는 일을 맡았다. 이듬 해 행재소인 정주까지 왕을 호종, 그 공으로 공조좌랑이 되

었다.

1594년 임시로 군공청(軍功廳)을 세워 전쟁의 공과를 실시할 때 비변사낭청을 제수받았다. 이 밖에 예조와 공조의 좌랑과 비변사낭청·호조정랑·직강·사예 등의 중앙관직과 선천·청풍·단천·성천·장단·안주의 지방관을 역임하였다.

1597년 일본의 재침으로 분조(分曹)가 세워지자 호조정랑으로서 분호조정랑(分戶曹正郎)을 겸임해 군량 조달에 힘썼다.

광해군 때 근기시정에 이르렀으나 1617년(광해군 9) 인목대비(仁穆大妃)에 대한 폐모론이 일자 이항복·정홍익(鄭弘翼)의 의견을 좇아 반대하다가 남해(南海)에 유배되었으며, 명천·온성·사천 등지에 이배되었다.

1622년 인조반정으로 풀려나 집의와 예조·병조·형조·공조의 참의와 승지·부제학·대사성·대사간·여주목사·춘천부사를 거쳐 1636년 대사헌에 올랐다. 이 때 왕에게 사치를 경계하고 김공량(金公諒)의 신원을 반대해 인조의 미움을 사기도 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 때는 호소사(號召使)로 활약했으며 청나라에 대한 척화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청백리로 뽑혔으며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문집으로 《성용유고》가 전한다. 사천의 구계서원(龜溪書院), 온성의 충곡서원(忠谷書院), 배천의 문회서원(文會書院), 북청의 노덕서원(老德書院), 안주의 청천사(淸川祠)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 적성 무건리 감악산 중턱에 묘가 있다.

### 류경창[柳慶昌]

1593(선조 26)~1662(현종 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선백(善伯), 호는 성탄(聲灘) 혹은 미천(薇川). 균(均)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영성(永成)이고, 아버지는 집(楸)이며, 어머니는 이종운(李從運)의 딸이다.

1618년(광해군 10) 사마시를 거쳐, 1628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홍문관부정자를 시작으로 수찬(修撰)·교리(校理)·지평(持平)·사서·헌납(獻納) 등을 두루 역임하고, 1647년 이조정랑이 되었으며, 암행어사로도 활약하였다.

1649년 효종이 즉위하자 사간·승지·강원도관찰사를 거쳐 대사간이 되었다. 현종대에는 동지사의 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고, 이어 대사헌에 올랐다.

관직에 있을 때에 항상 청렴하기로 이름났으며, 비록 재능이 남보다 뛰어나지는 않았으나, 검소와 청렴으로 일관하여 선비들이 매우 존송하였다 한다. 숙종대에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 교하읍 와동리에 묘가 있었다.(파주의 인물)

### 이세화[李世華]

1630(인조 8)~1701(숙종 27).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부평(富平). 자는 군실(君實), 호는 쌍백당

(雙栢堂)·칠정(七井). 병조정랑 계록(繼祿)의 증손으로, 아버지는 통덕랑 이재(以載)이다. 큰아버지 장릉참봉 희재(熙載)의 양자로 들어갔다.

1652년(효종 3)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고, 1657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 뒤 정언·장령 등을 거쳐 황해도·평안도·전라도관찰사를 역임하고, 1689년(숙종 15) 경상도관찰사를 지내고 서호(西湖)의 향리로 돌아갔다.

그 해 인현왕후(仁顯王后) 폐비설을 듣고 반대소를 올렸다. 소에 판서 오두인(吳斗寅)과 그의 이름이 전면에 올라 있는지라, 숙종은 분노하여 밤중에 친국하였다.

그는 국문에서 “국사로 인해 죽기를 원했는데 이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 “다만, 신의 죽음이 성덕에 누를 끼칠까 두려우며, 신에게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옥리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면 될 것을 밤새도록 친국하니 옥체를 상할까 두렵다.”고 형간(刑諫)하였다.

다음 날 정주로 유배가다 풀려나와 파산(坡山)의 선영 아래로 돌아왔다. 갑술환국 후 1694년 4월 대사간·호조판서에 제수되었으나 고사하고 나아가지 않다가 인현왕후복위도감제조로 차정한다는 말을 듣고 곧 상경하였다. 그 뒤 의금부사 겸 지경연사·세자빈객에 오르고, 청백리로 선정되었다.

그 뒤 공조·형조·병조·예조·이조판서를 두루 역임하고, 지중추부사에 이르렀으며, 파주 풍계사(豐溪祠)에 향사되었다.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저술활동저서로는 『쌍백당집(雙栢堂集)』이 있다.

\* 문산 선유리에 묘가 있다.

### 최경창[崔慶昌]

1539년(중종 34)~1583년(선조 16). 조선 중기의 시인.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가운(嘉運), 호는 고죽(孤竹). 전라도 영암 출생. 충(沖)의 18대손이며 자(滋)의 13대손이다. 아버지는 수인(守仁)이다. 박순(朴淳)의 문인이다.

최경창은 백광훈(白光勳)·이후백(李後白)과 함께 양응정(梁應鼎)의 문하에서 공부했다. 1555년(명종 10) 17세 때에 을묘왜란으로 왜구를 만나자, 통소를 구슬피 불어 왜구들을 향수에 젖게 하여 물리쳤다는 일화가 있다.

1561년(명종 16) 23세 때부터 상상(上庠)에서 수학했다. 1568년(선조 1)에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북평사(北評事)가 됐다. 예조·병조의 원외랑(員外郎)을 거쳐 1575년(선조 8)에 사간원정언에 올랐다. 1576년(선조 9) 영광군수로 좌천됐다. 이때에 뜻밖의 발령에 충격을 받고 사직했다. 그 뒤에 가난에 시달렸다.

다음해에 대동도찰방(大同道察訪)으로 복직했다. 1582년(선조 16) 53세에 선조가 종성부사(鍾城府使)로 특별히 제수했다. 그러나 북평사의 무고한 참소가 있었고 대간에서 갑작스러운 승진을 문제 삼았다. 그래서 선조는 성균관직강으로 고치도록 명했다. 최경창은 상경 도중에 종성객관에서 죽었다.

최경창은 학문과 문장에 능하여 이이(李珣)·송익필(宋翼弼)·최립(崔立) 등과 무이동(武夷洞)에서 서로 시를 주고받았다. 또한 정철(鄭澈)·서익(徐益) 등과 삼청동에서 교류했다.

당시(唐詩)에 뛰어나 백광훈·이달(李達)과 함께 삼당시인(三唐詩人)으로 불렸다. 그의 시는 청절하고 담백하다는 평을 얻었다. 문장에도 뛰어나 이이·송익필 등과 함께 8문장으로 일컬어졌다. 서화에도 뛰어났다.

숙종 때에 청백리에 녹선되고 강진(康津)의 서봉서원(瑞峯書院)에 봉향되었다.

저서로 『고죽유고』가 있다.

\* 교하 다올리에 묘가 있다.

### 심익신[沈宜臣]

1791년(정조 15)~미상. 조선 후기 문신. 자는 순흠(舜欽)이다. 본관은 청송(靑松)이고, 거주지는 경(京; 서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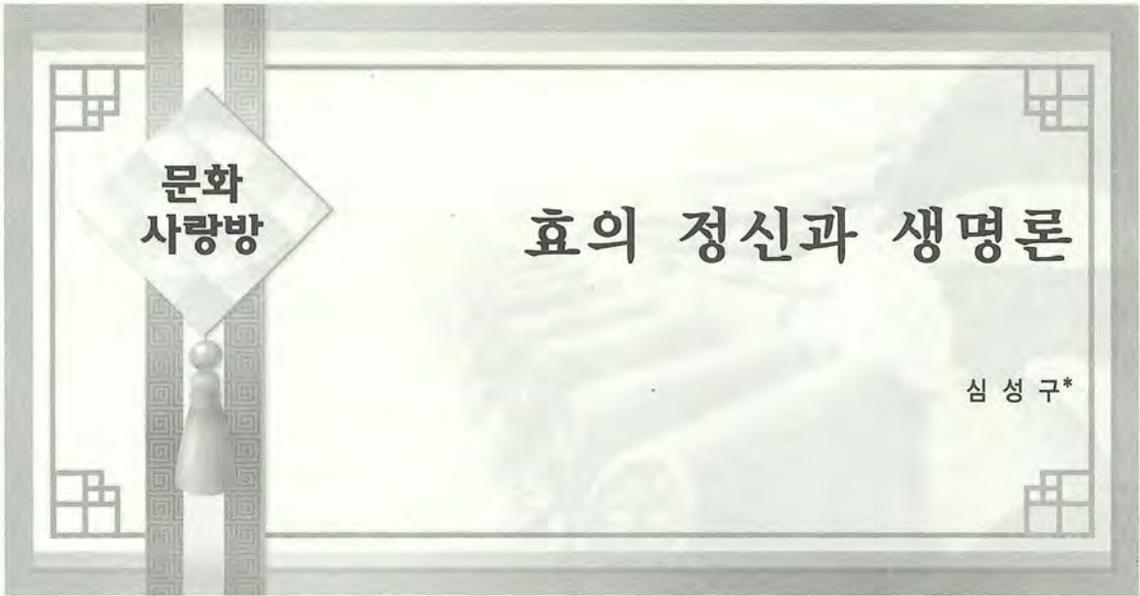
증조는 심구(沈鉞)이고, 조부는 심건지(沈健之)이며, 부친은 통훈대부(通訓大夫) 안동진관병마동첨절제사(安東鎭管兵馬同僉節制使) 심능술(沈能述)이고, 생부는 통훈대부 해주진병마절제도위(海州鎭兵馬節制都尉) 심능악(沈能岳)이다. 외조부는 참판(參判) 김이희(金履禧)이고, 처부는 예조판서(禮曹判書) 민명혁(閔命赫)이다. 동생으로 심의린(沈宜隣)이 있다.

1810년(순조 10) 식년시 진사 3등에 23위로 합격하였으며, 1829년(순조 29) 정시 병과에 26위로 문과 급제하였다. 관직은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이조참판(吏曹參判)·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등을 역임하였으며, 품계는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다.

1829년(순조 29) 중궁전승후관(中宮殿承候官)으로서 통정대부에 가자되었다. 1837년(헌종 3) 충청도 관찰사가 되어 충청 지역을 진휼(賑恤)한 후 장계(狀啓)를 올렸다. 같은 해에 비밀리에 장계를 올려 대흥군(大興郡)의 괘서(掛書) 사건에 관련된 성국로(成國老)·이종려(李鍾呂) 등을 조정에서 국문(鞫問)하여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일이 커지는 것을 반대하던 대왕대비(大王妃)의 저지로 금부도사(禁府都事)의 입회하에 성국로와 이종려는 도신(道臣)이 직접 참형(斬刑)으로 다스려졌다.

\* 광탄 방축리에 묘가 있다.

[출처] 전고대방 청백리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파주의 인물, 파주문화원



## 1. 효의 정신과 생명론

오늘날의 사회현실과 혼란한 시국을 타개할 묘책은, 오직 모든 국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직분과 도리를 충실하게 다하는 만고불변의 진리, 다름 아닌 오륜(五倫)의 숭상인 것이다. 현대 산업사회의 각종 병폐의 해결책을 동양의 유교에서 찾아야 한다는 서양학자들의 근래의 말에서도 알 수 있는 현실이다. 유교사상은 공맹(孔孟)을 중심으로 한 인륜사상이다. ‘앎’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 하는 ‘삶’의 문제를 더욱 문제 삼는 까닭에, 생태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며, 윤리도덕의 사회를 건설하여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 그 궁극적 목적인 것이다. 오늘날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상실된 인륜을 회복하는데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인간생명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효라고 할 때에 나의 몸과 생명을 주신 부모 조상에게 효도함은 당연한 것이다.

## 2. 효행의 시간·공간관계와 생명론의 시작

헤겔은 세계전쟁의 문제를 지적하고 “싸우는 사람은 가면 그만이지만 성인들은 싸우지 아니하고 영영 살 것이다”고 하였다. 공자(孔子)의 인(仁)사상을 비롯한 동양의 고전에서도 그 지혜를 찾아보고자 한다.

\* 성균관전례연구위원, 파주문화원 부원장

① 효와 천륜관계

부모와 자식은 몸은 다르지만 같은 핏줄과 같은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생명과 삶의 본체를 보면 부모와 자식은 영원히 하나이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늘에 의해서 주어진 인간관계 다시 말해 절대적인 천륜(天倫)의 관계인 것이다.

② 서양정신의 성경에서는 가정윤리의 효를 강조하고 있다.

십계명 5번째 항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창세기 출애굽기 에베소서 잠언에도 잘 나타나 있다.

③ 『효경』의 「기효행장」(원문을 논자의 번역으로 한다)

효자가 父母를 섬김에 평소 슬하에 있을 때에는 자신의 공경을 지극히 하고, 봉양함에 있어서는 父母의 즐거움을 지극히 하고, 병이 나셨을 때에는 자기의 근심을 지극히 하고, 상사 시에는 자신의 슬픔을 지극히 하고, 제사 지낼 때에는 그 엄숙함을 지극히 할 것이니(논어팔일의 내용), 다섯 가지가 갖추어진 후에 父母를 잘 섬겼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는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공경으로 섬기는 천륜적인 행위로 인간윤리의 첫째가는 규범인 것이다.

④ 논어 학이편2장 유자(有子)는 “효와 제라는 것은 그 인(仁)을 행하는 근본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효와 제는 모든 사람관계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효라 하고 형과 어른을 잘 섬기는 것을 제(悌)라고 한다.

⑤ 『효경대의』 제1장을 보면, “덕(德)의 근본인 “인(仁)”은 사랑하는 것이 주장이고, 사랑이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효도가 “덕”의 지극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인”을 행하는 데에는 반드시 “효”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한다. 공자는 효도함에는 예도를 중시하였고, “예”를 말하는 데에는 공경하는 것일 따름이다 한다.

『효경』의 「광요도장」에서는 공경을 곧 효라고 말하고 있다. 공경은 예법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 사람이 질서를 지키고 화락(和樂)하려면 언제나 이 공경함에 근본 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⑥ 율곡 선생 말씀에 육체의 보전에 대하여

이이 율곡(1536-1584), (중종 31-선조 17), 성리학자, 아명(어릴 때 이름); 현룡(見龍), 9번이나 장원급제한 9도장원공이며 ‘인심도심 상위중시설’을 선조 임금에게 지어 올리기도 하였다. 육체의 보전에서 “천하의 모든 물건은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몸은 부모가 준

것이다. 어찌 감히 내가 나대로 몸을 가졌다고 하여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지 않으리오. 이 말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몸을 훼손시키지 아니하고 잘 지탱하여 지켜 나가는 것이 자식 된 도리가 된다는 것이다.

### 3. 결론

공자는 「효경」에서 육체의 보전은 효도의 시작이며 몸을 세우고 도를 행하고자 하는 모든 도리를 터득하는 것은 효의 끝이 되는 것이라 하였다. 우리 대한민국의 효의식을 세계적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구름따라 꿈같이  
흘러간 발자취

이기현(李琪鉉)\*

학령산 끝머리 별판 가운데 우뚝 솟은 자그마한 봉우리는 마치 제비가 날아가는 형국이다. 경의선 철도 스물네 칸 다리 금성철교(金城鐵橋) 밑으로 맑은 쇠재개울이 흘러 가나무골(柯谷) 또는 제비(燕) 마을 앞을 휘돌아 흐르는데 철도가 양쪽 산 뿌리를 건너 질러 삼태기 같이 생겨 삼태기 안말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개울은 영조 때 금성리(현 금능리)에 교하군 청사가 있을 당시 상선 배들이 한강 하류 삼도품에서 오르내린 ‘휴를강’이라고 불러 내려오면서 호황을 이루었다는 지역이다. 조수물이 봉일천까지 오르내렸으나 300여 년이 흐르는 동안 현재는 전부 매몰되어 변모되었다.

나는 이 마을 오른편 산 활기 안쪽 토담집 3칸(방1칸, 부엌과 퇴 2칸)에서 아버지(29세), 어머니(22세), 누님과 같이 네 식구가 함께 어렵게 살았다. 아버지는 5남 1녀중 셋째로 종가댁에서 21세까지 엷혀 사시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야 운막을 짓고 분가하였다. 남의 집 고공살이와 품팔이, 저녁에 새끼 꼬기, 짚세기를 삼아 팔아가며 개풀에 수수와 피, 감자 등을 심어 약식으로 생활을 이어갔다. 3년이 지나 푼푼이 모은 돈으로 앞에 있는 가옥 7칸을 사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내가 3살 때로 그 당시만 해도 이 근동에 토담집은 거의 없었을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러한 가운데 밤을 낮삼아 남의 땅을 도지와 타작으로 경작하면서 개풀을 이루고 감자와 피, 수수, 호밀 등을 심어 추수를 하였으나 매년 잘 먹는 것은 아니었다. 간혹 홍수로 인하여 전부 매몰되기도 하고 유실되는 파란만장의 시련을 겪으면서 끈질기게 살아오신 아버지의 거



\* 파주문화원 고문

룩한 집념을 어린 마음으로 새삼 느끼게 된다.

허수간을 건립해서 푼푼이 모은 돈으로 송아지와 돼지, 닭을 사서 키우며 능골 거물논 세마지(6백평)를 내가 9살 때 사서 처음 농사를 지어 추수를 하시고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시던 아버지이었다. 이렇게 점차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제 치하 새끼꼬기와 가마니 공출, 퇴비 장려와 피사리 등 어수선한 세월을 겪으면서 살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금촌 보통학교에 입학을 하여 공부를 하면서 친구들과 제기차기, 딱지치기, 팽이치기. 엽전과 돈으로 판지치기, 비장치기, 썰매타기, 연날리기, 사방치기 등을 하면서 놀았다. 특히 여름에는 앞개울에서 먹을 감으며 조개와 메기, 뱀장어, 붕어, 게 등을 잡고 놀던 추억이 가끔 새삼스러워지기도 한다. 또한 추석이나 정월 명절에는 아버지를 따라 선조 산소에 참배와 일가 친척집을 일일이 찾아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고, 설음식을 먹으면서 엿치기, 줄치기, 윷놀이와 제기차기, 연날리기를 하며 웃고 즐기며 놀았는데 이러한 옛 훈훈한 온정이야말로 우리의 미풍양속이라 하겠다.

이때만 해도 결인과 돌파리 돌중 들이 많이 있어 밥과 옷, 돈을 보태주고 서로서로 이웃을 도와가며 친척을 끔찍이 사랑하였으나 오늘날 사회는 왜 이러한 인심이 사라졌는지 한심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한 세월 속에서 나는 4년제인 금촌학교에서 교하 보통학교 5학년에 전학해서 10리(4km) 거리를 통학하였다. 그 당시 겨울에는 모진 바람과 함께 얼마나 추웠던지 전기줄에서 뽕뽕되는 아리랑소리, 영하 20도가 오르내리는 강추위에 속옷도 없이 솜바지와 저고리, 두루마기만을 입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학교를 다녔고, 1938년 3월 25일 졸업을 하였다.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어 서울 중학교 진학을 거의 포기하게 되니, 나는 10리 거리에 있는 등원리 글방에서 이경호(李慶浩) 선생님께 2년간에 걸쳐 한문을 배웠다. 서울 친척 집에 올라가 있으면서 경성사범학교 도서실 급사로 들어가 서울 삼각동에 있는 한영중학원 야간부 3년을 수료한 후 배제중학교 4년에 전학했다. 그러나 이듬해 1945년 4월 학도병으로 착출되어 용산 육군 제222부대에서 2주간 훈련을 받고 지구 육군 1120부대에 편성되었다. 그 후 제주도로 가서 부두작업과 한라산 방공호 구축을 하였다. 그때는 일제말기로 16세 이상 일본 청소년들이 군대에 입대하여 같이 생활을 하는 중에 미그19기가 수시로 나타나 기관총 세례를 받기도 했다. 마침내 미군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항복을 함으로써 36년간의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는 기쁨의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0월 1일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동안 아버지께서는 약식(피죽, 수수풀따기와 조당수, 김치죽, 통나물죽, 밀개떡, 감자범벅, 옥수수, 콩개묵 등)으로 배를 채우시면서 밤을 낮 삼아 열심히 일해 황무지 3천여 평을 구입하여 논으로 개간하고, 아울러 산전밭 1천5백여 평도 구입해 경작하는 등 올빼미 또는 뜯북이라는 별명을 들으면서 영농에 열중하시고 계셨다. 또한 송아지와 돼지, 닭을 키우는 등 생활이 안정되고 있었고, 누이동생들도 잘자라고 있었다.

나는 집에서 농사에 조력하다 1945년 12월 8일 손규학 아동면장이 있을 당시 아동면사무소에 취직이 되어 서무, 호적, 재무, 회계 등을 하며 두루 일을 하였다. 그 후 1952년 3월 파주군 내무과 도시계로 전직하였으며 파주군청 회계사무를 보던 중 징병 대상이 되어 1954년 4월 10일 한국 군부대에 입대했다. 논산훈련소에서 전반기를 수료하고 김창용이 지휘하는 육군 특무부대로 배속되어 대구대학에서 정보 특수교육을 수료하고 대통령 직속 육군 1928부대 본부에 배속되었다가 육군 205부대(5사단)에 예속되어 특수조사업무를 전담했다. OP와 완충지대 감시, 검문, 검색 등을 하면서 부대장 김창용이 시해되자 강원도 원통리에서 의가사로 3년간의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였다.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파주군 산업과 양정계에 복직하여 근무하였다. 그 이후 윤보선 대통령이 당선되어 지방자치가 시작되어 당시 파주군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주사 4호봉)로 전직되었다. 박정희 씨가 1961년 5월 18일 군사혁명을 일으켜 대통령이 되자 2년 만에 지방자치가 없어지니 내무과 행정계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각 행정기관장(시,도,군,읍,면)을 고위급 장교 출신으로 교체하고 재건 국민운동 본부와 시도군에 지부, 리단위로 자치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게 했다. 그리하여 1961년 7월 18일 파주군지부 간사로 전임했다. 그 당시는 각읍면 단위로 전임 간사를 두고 파주군지부위원회 위원 및 조정위원회 위원, 각 면리동위원회 재건 청년 및 부녀회 조직을 완료하고 승공민주이념 확립과 국민도의 선양, 건설의식증진 정서순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그 후 새마을 운동으로 개편, 3년만에 각 시군면에 배치하였던 행정요원(간사)를 해당기관에 복귀시켰으며, 박정희 대통령이 1980년 10월 26일 시해되자 전두환 대통령이 출범하여 새마을 운동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파주군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금촌시내에서 신진문화사(인쇄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1981년 10월 1일 인쇄업을 전매하였다. 그 후 최병덕 문화원장께서 파주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같이 일을 하자는 권유를 받았다. 나는 생각 끝에 우리 고장의 수많은 문화유적을 조사하여 젊은이들에게 계도하고자 하는 결심을 가지고 사무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10여 년에 걸쳐 파주 관내 방방곡곡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각 부락 유지들을 만나 사제로 술과 담배를 사드리면서 문화유적(능, 향교, 서원, 영묘, 단)을 비롯하여 각 리동부락지 이름과 산천, 정자, 나루터, 유래, 당상관급 이상의 묘역(450개), 사찰, 교회 등을 살살이 찾아 매년 한권씩 <파주문화>를 10호까지 만들면서 각 1천권씩 편제하여 공개하였다.

또한 별지와 같이 여러 문화자료를 조사하고 편제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뒷받침이 없어 많은 고충과 눈물겨운 사연도 많았다. 그렇지만 의례해설 책자가 4천3백여 권이나 편제되어 배포되었으며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파주군지를 발간하였다는 것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참고자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니 내가 고생한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연유로 파주문화원장을 비롯하여 국사편찬위원, 정신문화연구위원, 교하향교 전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고장에 나와 같이 향토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고자 하는 젊고 뜻있는 유능한 향토사 연구요원이 있어 우리 고장 문화유적조사에 따른 보완 작업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인재가 없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내가 죽기 전에 젊은이를 지도 양성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나 뜻대로 되질 않는다. 문화유적조사에 있어 한문에 능숙하고 향토사 연구에 조취가 있어야 하며, 깊은 관심과 집념이 뒤따르고 봉사정신이 투철하여야 된다고 사료된다.

유수같은 세월은 어느덧 고회를 넘어 석양을 바라보는데 70여 평생을 돌이켜보면 꿈결같기만 하다. 가나무골에서 금촌리 355번지로 1966년 7월 이주하여 살면서 우리 어머님(임인생)은 68세에 돌아가시고 아버지(을미생)께서는 95세라는 고령에 세상을 뜨셨으며, 1남 3녀인 우리 형제 중에 누님과 여동생들도 출가하여 잘 살고 있다. 22세에 결혼한 우리 부부의 슬하에는 4남 2녀의 자식이 있어 제각기 짝을 맺어 잘 살며 셋째 아들과 며느리, 두 손자들을 데리고 평범하게 살고 있는 이 운명도 쉽지만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 아버지 4형제에서 나만 독신이고 12종형제가 있어 한울타리 가나무골 삼태기안 문중자손이 200여 세대가 되었다는 것은 오직 선조께서 남을 위하여 많은 공덕을 이룬 보은이 아닌가 여겨진다. 오늘날 여생을 살면서 그날그날 옛추억을 되새겨 본다.

### 왜 이 세상을 살고 있나

청산은 나를보고 말없이 살라는데  
 창공은 나를보고 티없이 살라는데  
 탐욕도 버리고서 욕심도 버리고요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고 하네  
 오늘날 어찌하여 남을 죽이면서 죽고  
 나만이 호화주택 흥청망청 살라하나  
 아무리 돈이 많고 위대한 사람들도  
 세상사 사라지면 물거품이 되리라

이세상 모든사람 공수래 공수거인데  
 우둔한 사람들은 나만이 잘살려하나  
 정다운 일심동체 사랑의 꽃 활짝 피어  
 이웃과 부모형제 오순도순 살아가리  
 흐르는 강물따라 자연을 사랑하면서  
 하늘의 구름같이 살아가는 인생이요  
 내생명 분수대로 남을도와 살아가며  
 순고한 이름석자 남기고서 가리라

가곡(柯谷) 이규현(李圭炫) 근직(謹職)



파주문화원 44주년 창립기념식에서 공로상 수상

저서편집일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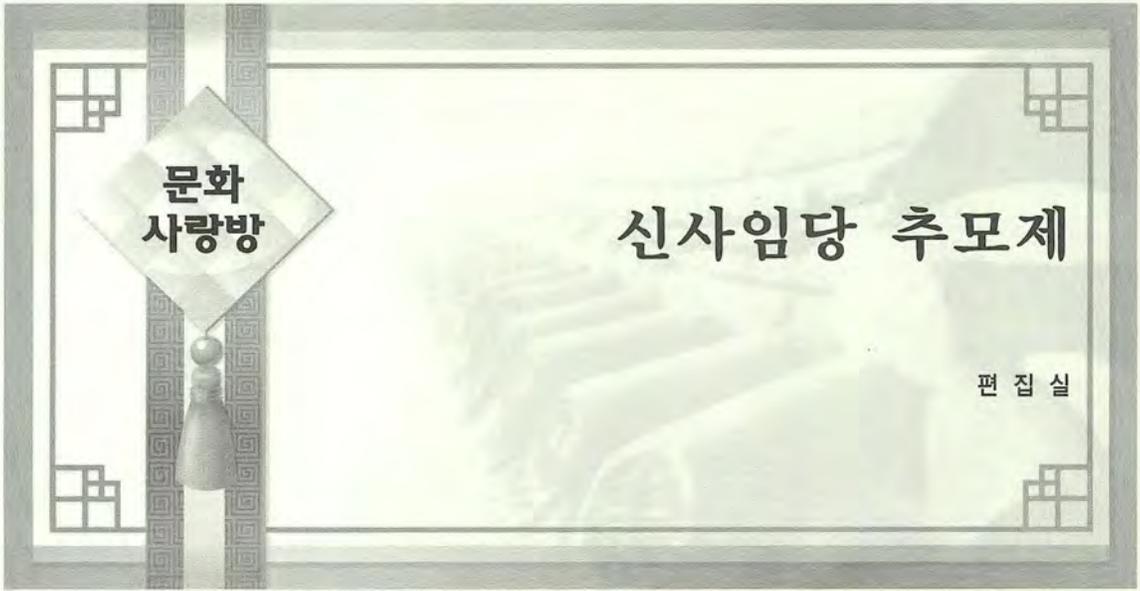
책 명	부수(권)	편집내용	저자명	발행일	발행처
파주문화 (1호~10호)	각호 1,000	파주문화유적 소개 및 문화논단	이기현	1985. 10. 1부터 1996. 12. 30까지 매년 발행	파주문화원
전설의 향맥 (傳說의 香脈)	1,000	관내 각종 전설 발문	이기현	1992. 12. 18.	파주문화원
파주노래집	1,000	흘러간 노래와 교가	이기현	1993. 12. 20	파주문화원
파주문화유적지 (坡州文化遺蹟誌)	1,000	당상관급 이상 묘역인물	이기현	1994. 12. 20	파주문화원
파주전투사지 (坡州戰鬪史誌)	1,000	관내 역대 전투사항	이기현	1995. 9. 30	파주문화원
유림보감(儒林寶鑑)	1,000	관내 유림향사 절차	이기현.조영수	1987. 12. 31	파주문화진흥회
의례해설전서 (儀禮解說典書)	4,300	유림보람해설 예절	이기현.조영수	1991. 3. 25	파주문예진흥회
파주문향지 (坡州文鄉誌)	4,300	관내 고위층 인물 명시	이기현	1993. 10. 30	파주문예진흥회
교하향교지 (交河鄉校誌)	4,300	성현약사 제례 절차	이기현	1990. 1. 10	교하향교
파산서원지 (坡山書院誌)	4,300	현인약사향재 및 재산	이기현	1996. 8. 1	파산서원
파주군지(坡州郡誌)	2,000	上:역사,인물 中:문화재,민속 下:현대사회	편찬위원 13명 상임위원 4명 강진갑,이달호	1995. 6. 30	파주군 파주문화원
파주지명유래전설지 (坡州地名由來傳說誌)	1,000	파주시 약사, 지명유래, 전설	이기현	1997. 12. 10	파주문화원
한시백일장선집 (漢詩白日場選集)	500	울곡사상의 한시	이기현	1997. 12. 10	파주문화원
자운서원지 (紫雲書院誌)	1,000	자운서원 약사와 유래	이기현	1999. 3. 10	파주문화원

파주 10승 8명당 지지 조사

소재지	산맥내령	형국	좌향	봉위분묘	자손번창내용
교하읍 동패리 산42	삼각산 북맥내령 고봉산 황룡산에 이은 서맥 끝 봉우리	비룡상천형	子坐牛向	심학산 정상 天子出	이 자리를 탐내어 3차에 걸쳐 밀장을 하려했으나 주민들이 병고가 생겨 부락민들이 시신을 색출, 퇴관 후 안정되었다 함.
교하읍 산남리 24, 9-4	삼각산 북맥내령 고봉산 황룡산에 이은 서쪽 한강변에 구봉산조성	맹효출납형	子坐牛向	구봉 생거지 송익필	안당정승의 서생질 구봉산에서 고명한 인재 등을 많이 양성, 성흔 이이와 교우, 기호학파 3대학자, 묘가 당진에 있음.
교하읍 당하리 산4-1	삼각산 북맥내령 고봉산 황룡산 이은 서북맥 외동산 끝봉우리	금계포란형	酉坐卯向	판도판서 윤승례	안동권씨를 모신 자리로 정희왕후를 비롯하여 대대후손들이 국구정승과 판서 등 고위층의 인물이 많이 배출, 세세손 번창하다.
금촌1동 아동동 산9-1	삼각산 북맥 고령산 앵무봉에 이어 노고산 서북맥 월룡산 남쪽 내령 황룡산 봉우리	흑룡비천형	子坐牛向	중추부사 정홍	연일 정씨 중시조로서 조선조 개국후 사대부기문으로 자손이 크게 번창하다.
금촌1동 맥금동 산6, 7-3	삼각산 북맥 고령산 앵무봉에 이어 서북맥 월룡산과 서맥내령 흑룡 봉우리	금구포란형	子坐牛向	문하시중 이천	조선조 개국후 3형제가 정승판서를 역임하고 후손들이 청백한 사대부기문으로 번창하고 23대손 이명박 대통령을 배출하였다.
탄현면 오금리 산1	삼각산 북맥 고령산 앵무봉에 이어 노고산 북서맥 월룡산 북쪽 아가산 아래 봉우리	황룡망해형	卯坐酉向	영의정 황희	아들 중 영의정 배출, 사대부 명문가로 후손들이 번창, 장관, 장성,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있다.
탄현면 오금리 산19	삼각산 북맥 고령산 앵무봉 노고산 서맥 내령 월룡산에 이은 아가산 서북쪽 봉우리	금오포란형	卯坐酉向	밀산군 박준손	밀양박씨 중시조 규정공 후손 사대부 명문가문으로 내려오면서 고위공직자들을 많이 배출하다.
문산읍 내포리 산118	삼각산 북맥 고령산 앵무봉에 이어 서북맥 월룡산에 이은 아가산 북맥 끝 봉우리	갈룡귀수형	牛坐子向	동지중추부사 성염	자손들이 대제학을 비롯한 정승, 판서 등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으며 사대부가문으로서 우계 성흔 대학자를 배출하고 자손이 번창하다.
문산읍 당동리 산77	삼각산 북맥 고령산 앵무봉에 이어 노고산과 자운산 서맥 백운산 끝 봉우리	금구출복형	子坐牛向	좌의정 박언	자손들이 정승, 판서 등을 역임한 사대부가문으로 박명원 부마를 비롯, 현석 박세채 대학자를 배출하였다.
파평면 두포리 산10	삼각산 북맥 고령산 앵무봉에 이어 노고산과 파평산 서맥 연화 봉우리	연화만발형	卯坐酉向	공조참의 이양	덕수현에서 울곡리 575로 이주한 이명신은 임진강변 화석정자를 건립후 아버지 충당공이 돌아가자 두포리 이 자리에 안장하고 6대손 울곡 이이를 배출하였다.

이 10승 8명당 지지는 파주 지역에서 종직 포함 당상관급 묘 400여기 중에서 가장 자손이 번성하고 고명한 사대부와 대학자가 나온 지역을 엄선하여 발췌한 것임.

명인출세순세비율 : 사주(30%) 출생지(30%) 양택(20%) 음택(20%)



파주 법원읍 동문리 울곡선생유적지에는 신사임당과 부군 이원수의 합장묘가 있다. 신사임당은 높은 학덕과 뛰어난 예능에 있어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고 널리 우러러 추앙받고 있는 인물이다. 2011년 6월18일(음5월17) 오전11시, 신사임당의 유덕을 기리기 위해 자운서원 주최, 신사임당 추모선양회 주관, 파주문화원, 파주시 유림총연합회 후원으로 파주 법원읍 동문리 자운서원 강인당에서 신사임당 제459주년 기신제가 봉행됐다.

지역 유림들과 여성단체 회원 등이 함께한 이날 추모제는 신사임당추모선양회에서 주최하고 자운서원에서 주관했으며, 설난영 경기도지사 부인이 초헌관, 권종인 파주시장 부인이 아헌관, 김기남 신사임당추모선양회 고문이 종헌관으로 참례했다.

이날 파주관내 각 기관장과 유림지도자와 덕수이씨 종친회 임원과 평산신씨 종친회 임원,



신사임당추모선양회 임원과 회원, 파주시여성지도자와 새마을 부녀회원 수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채봉화 신사임당추모선양회장은 “올곡선생의 어머니이면서 예술가로 명망이 높은 사임당의 얼을 빛내고자 추모제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사임당의 가르침을 이어나가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사임당 추모제 집행자

집례자		제관 직위	전담임무
명칭	성명		
초헌관	설난영	경기도지사 부인	신위전 첫째 잔을 올리는 제관
아헌관	권종인	파주시장 부인	신위전 두번째 잔을 올리는 제관
중헌관	김기남	신사임당선양회 고문	신위전 세번째 잔을 올리는 제관
제전부장	우관제	파주문화원 부원장	제사를 총괄 지도하는 제관
집례	홍성희	신사임당선양회 부회장	출기를 제창 의식 진행하는 제관
찬자	유명희	신사임당선양회 사무국장	삼헌관과 집사자 안내 제관
대축	김선래	신사임당선양회 운영위원	대축을 낭독하는 제관
전례	허자이	파주향교 여성유도회장	제례 총괄 감독하는 제관
당하집례	이길자	파주읍생활개선 회장	창홀을 해설하는 제관
봉향	박찬화	적성향교 여성유도회장	향을 헌관에게 받치는 제관
봉노	이정희	신사임당선양회 회원	향로를 받들고 있는 제관
사준	심명순	신사임당선양회 회원	술을 잔에 따르는 제관
내봉작	이경순	교하읍 소나무회장	술잔을 받아 헌관에게 주는 제관
외봉작	황혜연	신사임당선양회 회원	술잔을 받아 내봉작에게 주는 제관
전작	황규임	신사임당선양회 회원	술잔을 받아 신위에 올리는 제관
사세	장인자	신사임당선양회 운영위원	헌관 집사자 손을 씻도록 안내 제관

사임당 추모제 축문(追慕祭 祝文)

維 歲次辛卯 5月戊子朔17日 甲辰

京畿道知事夫人 薛蘭寧

敢昭告于

師任堂平山申氏

天資高潔 龍室賢母 閨秀藝術 書畫遺傳 百世師表

時惟孟夏 妖靈遺墟 謹以清酌 式陳明薦 尚饗



## 신사임당이 5만원권 지폐에 존영인물로 선정됨을 고유하는

### 헌다례 고유문

○○○○ ○○년 ○○월 ○○일 중 정경부인 신사임당 추모선양회장 ○○○

사임당께 고하나이다. 중 정경부인 신사임당이시여 오늘은 파주가 낳은 조선시대 대학자이시며 경세가이신 율곡 선생의 스승이며 어머니이신 사임당의 존영이 그려진 오만원권 새지폐가 발행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는 이미 오천원권 존영 인물인 아들 율곡 선생에 이어 모자가 함께 국가 공식 화폐의 존영 인물로 선정된 유일한 사례로 두 분을 함께 모시고 있는 파주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며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 정경부인 신사임당이시여, 사임당께서는 조선의 한 시대를 살다 가신 최고의 여성 예술가이시며 우리나라 어머니의 표상으로 오늘날까지 온 국민의 사표로 남아 계십니다. 특히 조선을 대표하는 기호학파의 거두이신 아드님 율곡 선생의 스승이시며 부모에 대한 효와 지아비에 대한 내조를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되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들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중 정경부인 신 사임당이시여, 우리 파주인들의 가슴 속에는 선생의 학문적 수양 그리고 뛰어난 예술성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성과 자식 사랑하는 정신을 영원히 흠모하며 따를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경사스럽고 기쁜 날에 사임당의 얼을 따르는 파주 유림들이 모여 오만원권 지폐 발행을 기념하고 사임당의 얼을 영원히 추모하고자 정성을 다해 조출한 다과를 올리오니 강림하시어 흠향하소서.

신사임당 추모 선양회 회장 ○○○

매년 5월 17일



# 도시경관은 문화다

김희병\*

## 1. 머리말

도시의 다양한 활동은 인간의 생활이다. 생활이 편리하도록 도시는 형성되어지고 영역성은 점차 들어난다. 영역성의 성장은 도시의 다양성을 설명하게 되고 도시가 나타내는 모습은 구조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국 도시는 모습을 형성하면서 인간의 일상생활, 문화 그리고 역사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 - 명동

도시가 나타내는 모습(도시경관)은 도시 속에서 생활하는 인간들의 생활을 설명하며 생활이

\* 파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파주문화원 이사

편리하도록 변해 간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의 겉모습을 성장하게 할 것이며 변화와 성장의 모습은 도시의 경관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의 생활 자체와 인간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도시는 성장하게 되고 도시 성장의 모습은 도시 경관으로 설명되어지며 도시성장의 원동력인 인간의 사회성, 독창성과 편리함에서 생활은 계속 변화한다. 그리고 인간의 일상생활은 시간 속에서 역사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도시는 도시 스스로의 모습(경관)으로 인간의 생활환경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추억

추억의 도시 - 북촌



현재

현재 도시 - 판교신도시



미래

미래도시

도시경관에 관한 담론은 시간 속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시간 속 여행을 통해 역사와 문화의 방향이 도시의 변화 즉 경관 변화로 반영됨을 알 수 있고, 또한 일상생활의 미래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 도시경관을 통하여 사회적,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인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 2. 도시경관을 통한 문화의 이해

도시는 인류가 모여살기 위해 만들어낸 고유한 정주환경이다. 이 정주환경은 자연환경을 소지로 한 인공 환경으로서, 무엇보다도 거시적으로는 도시의 다양한 활동을, 미시적으로는 시민 각자의 삶을 담아주고 받쳐주는 그릇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경관의 정의가 그러하듯 인간은 의식을 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항상 도시경관(都市景觀-Townscape) '속'에 있고, 역으로 도시경관은 항상 인간을 '둘러싸고' 있다.

한편 도시는 그릇, 또한 환경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에게 보여 지고 느껴지는 모습, 또는 경관으로서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도시경관은 도시라는 존재

의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고, 도시에 사는 인간의 공통된 생활방식 즉 문화가 표현되어 축적된 문화경관(文化景觀-Cultural Landscape)을 이룬다.



역사경관 - 남대문

따라서 도시 경관은 인간의 손에 의해 자연 경관으로부터 문화경관으로 문화화(文化化) 되어가며 인간의 문화가 기록되고 축적되어 있는 산물인 문화경관을 읽음으로써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즉 도시라는 존재는 문화요소 내지 문화 복합의 산물로서 또 인간의 공통적인 생활 방식인 문화의 기록으로서 도시경관을 역사경관(歷史景觀-Historic Landscape)이라는 개념으로서도 이해하며 특히 보통경관(普通景觀-Ordinary Landscape)으로 파악될 수 있다.

또한 도시를 문화경관 측면에서 살펴보면 도시는 환경이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조건과 인간의 의지가 대응하면서 상호 조장된 과정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도시의 문화경관은 인간이 공유하는 생활양식 또는 생활의 한 문화가 구현된 것이기도 하고, 또는 문화의 한 국면인 물질문화 자체로 이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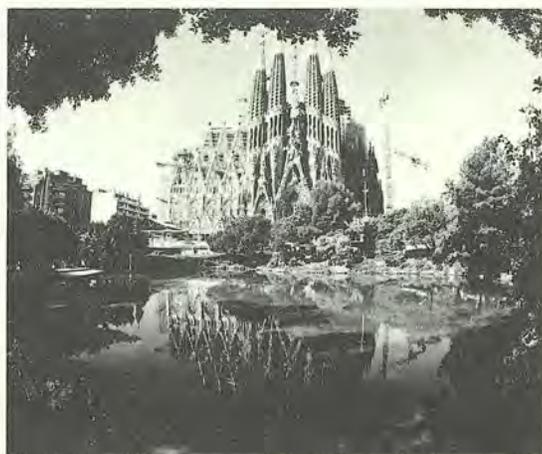
한편 문화 경관은 일시에 또는 짧은 기간 동안에 조성되는 것이기 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에 서서히 형성되는 것이기에 역사경관이라 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문화를 구현하는 것이며 오랜 기간 동안에 서서히 형성되는 것이므로 보통성이 특징이기에 보통경관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도시 경관은 문화경관일 뿐아니라 역사경관이기도 하며 보통경관으로 읽혀진다.

문화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how) 공통적으로 하느냐' 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역사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what) 공통적으로 하느냐' 라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이 강제적으로 부여한 경관 - 문화경관  
Palm Deira, UAE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형성된 경관 - 역사경관  
Sagrada Familia, Spain

따라서 역사의 시간적 사실이 문화라면, 문화의 공간적 사실이 문화경관인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도시경관은 보통경관으로서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의 대부분은 무명 또는 익명의 비전문가에 의해 구상, 제약되며 통상적인 수준에서 이해되는 것들로 이루어져 간다. 그뿐 아니라 이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직설적이며 통상적이다.

다시 말해 보통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과 체험을 위해 꾸며진 것이 도시경관이라는 뜻이다.

이런 모든 관점에서 볼 때, 도시경관은 마치 여러 사람이 무의식 중에 저술한 공동의 자서전이고, 무의식 속에서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이 더 진실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경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 가치가 기록된 경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왔고,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 3. 맺음말

현재 도시경관을 건축적 공간으로 바라보고 미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재정비 하려는 노력들이 많은 진전과 합의가 이루어져 왔다. 제도적 정비 또한 여러 법률체계나 관리 방법들을 동원하여 전문기관의 연구와 관심, 행정기관들의 조정 및 평가로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적인 아름다움에 관하여 조형적, 환경적 접근과 전체 생태계 속에서의 조화 등으로 다양화하여 연구되고 실천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도시를 이해하는 방법들로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정작 도시 속에서 생활하는 인간 중심의 성찰은 소외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인간의 생활, 편리함, 인간의 정서 등

스스로의 일상생활을 고려해보고 도시경관을 구조적인 겉모습 만으로의 변화로 해석하기보다는 도시를 운영하고 생활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해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통해 문화를 바라보면서 곧 우리 모습을 스스로 이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도시경관을 통해 역사의 시간적 사실인 문화를 읽을 수 있으며 또한 지난 세월을 추억하며 살아있는 현재를 구현해보고 우리의 미래를 상상하고 준비하는 초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보통경관 - 뭇본기



생활과 체험 - 판교신도시



- I. 들어가는 말
- II. 세시풍속이 나타나는 문헌들
- III. 월별로 살펴본 명절과 풍속들(태음력을 중심으로)
- IV. 나오는 말

## I. 들어가는 말

세시풍속이란 일정한 여건하의 생활권에서 계절과 연관되어 매년 반복되어 행해지는 민속을 말한다. 즉 해마다 일정한 기기에 주기적으로 행해지면서 전승되는 관습적이고 의례적인 생활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민간신앙의식을 비롯하여 음식, 놀이, 예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 지리, 기후 생업이 같은 사람들은 생활관습이 같아지고, 자연히 토속적인 신앙대상과 방법이 같으며, 언어와 사고도 같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행위, 놀이, 먹을거리 등도 같아지는데 집중적으로 그것들이 행해지는 시기는 명절을 중심으로 한다.

세시풍속은 그 계절, 날짜가 되면 관습적으로 반복하는데서 성립되고 전승되어 생활화된 것이기 때문에, 오랜 역사성을 지니면서 민중생활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통해 그 민족이나 지역 민중들의 역사와 의식을 탐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세시는 농업이나 어업의 생산활동에 효과적인 음력을 모체로 하여 형성 전개되

\* 파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있으며, 이는 달의 순환을 위주로 한 태음력이 사계절의 구분이 뚜렷한 환경 속에서, 농경 위주의 생활을 해 온 우리 민족에게 생산의 극대화를 위해 유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24절기는 그 변화에 맞게 농부들이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있고 농부들은 그에 맞게 농업생산활동을 하였다.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세시명절에 행해지는 민속놀이를 통하여 그 동안 쌓였던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풀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생산 활동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았다. 문헌에 나타나는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알고있던 풍속들을 월별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세 시 풍 속			
봄	여름	가을	겨울
머슴날/ 삼짇날 담청놀이/ 한 식	단오/ 유두/ 칠석	추석/ 중구/ 상달	동지/ 제석/ 설날 정월대보름
4 대 명 절			
설날	한식	단오	추석(한가위)
음력 1월 1일	양력 4월 5일경 초파일로부터 105일째	음력 5월 5일	음력 8월 15일

## II.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이 나타나는 문헌들

1. 신찬팔도지리지(1432. 세종14)
2. 新增동국여지승람(1530. 중종25): 각 지방을 중심으로 신찬팔도지리지를 거듭 증보하여 만들.
3. 京道잡지京道雜誌(유득공柳得恭): 조선 후기 서울의 문물제도와 풍속 등을 기술한 책. 2권 1책. 연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정조 때 쓰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록이 드문 조선시대 풍속과 세시(歲時)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자료이며, 특히 우리나라 민속학 연구에 귀중한 문헌이다. 권1 풍속에서는 당시의 문물제도를 건복(巾服)·주식(酒食)·다연(茶煙)·문방(文房)·시문(詩文)·서화(書畫)·혼의(婚議) 등 19항목으로 나누어 약술하였다. 내용은 주로 사대부의 생활 문화에 국한되어 있으며 일반 백성의 생활상에 대한 기록은 없다. 권2 세시에서는 서울의 세시를 원일(元日)·입춘·한식·단오·복(伏)·중추(中秋)·동지·제석(除夕) 등 19항목으로 분류하여 약술하고 있다.
4. 東京잡기東京雜記(1669. 현종10): 민주면, 경주를 중심으로 쓰인 책
5. 열양세시기烈陽歲時記(1819. 순조19): 김매순, 서울의 풍속을 중심으로 쓰인 책
6. 東國세시기東國歲時記(1849. 현종15): 홍석모, 우리나라 세시풍속을 가장 쉽게 썼다.

세시풍속은 일정지역 주민이 한데 어울리거나 가족들이 함께 놀고 마시고 먹고 겨루는 일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춘하추동의 계절과 상관있는 명절들이 중심이 된다.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한기에 집중되었고, 음력을 주로 썼기 때문에 달이차고 이지러지는 것보다 깊은 관계가 있다. 음력으로 따져지는 1년 중의 명절을 꼽아보면 거의 달마다 명절이 들어있고, 그 명절마다 세시풍속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의 책을 참고로 세시풍속과 놀이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Ⅲ. 월별로 살펴본 명절과 놀이나 행위로 살펴보는 대표풍속

#### - 1월(正)월

1일 설날이고 계절의 시작인 입춘이 있다. 정조正朝, 해 가서는 날이라는 의미의 입세일立歲日, 한해의 때의 시작이라는 의미의 세시歲時, 원일元日, 원단元旦이라고도 하고 세수, 세초, 세시, 연두연시라고도 불린다. 설날은 세 가지 설이 있다.

- 첫째: ‘낫설다’는 의미에서 ‘새해에 대한 낫설음’이라는 의미와 ‘아직 익숙하지 않는 날’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 둘째: ‘선날’이라는 의미 즉 개시라는 뜻의 ‘선다’라는 말에서 ‘새해 새날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선날이 연음화되어 설날로 와전 되었다는 것이다.
- 셋째: ‘삼가다’ 또는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라는 뜻의 옛말인 ‘썰다’에서 그 어원을 찾기도 한다. 그 어원을 한자의 ‘신일’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간 질서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언행을 삼가고 조심하여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생긴 말이라고 보면 되겠다.

설날이 언제부터 우리민족의 최대명절로 여겨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수서]를 비롯한 중국의 사서들에는 신라인들이 원일 아침에 서로 하례하며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의를 하고 [삼국사기][제사]편에는 백제 고이왕 5년(238) 정월에 천지신명께 제사를 지냈으며, 책계왕 2년(287) 정월에는 시조 동명왕 사당에 배알하였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이미 정월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설과 정월대보름, 삼짱날, 팔관회, 한식, 단오, 추석, 중구, 동지를 9대 명절로 삼았으며, 조선시대에는 설, 한식, 단오, 추석을 4대 명절이라고 하여 중요 명절로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 차례(茶禮): 자기 집에서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에게 설날음식을 올리고 새해인사를 하는 것.
- ▶ 세장(歲粧), 설빔: 설날 아침 새 옷으로 갈아 입는 것. 어린이들에게 설날 아침에 새 옷을

입히는 것.

- ▶ **세배(歲拜)**: 설날 아침에 친척이나 어른들을 찾아가 절하는 것. 어린이들에게 세뱃돈을 주고 덕담을 해주기도 하였다. 이때 아이들에게 주는 세뱃돈은 저축정신을 기르라는 뜻으로 곧 계란을 사서 계속 늘려 논밭을 장만하라는 뜻이 있다고 한다.
- ▶ **복조리**: 복조리를 걸어두는 것은 그해의 행운을 조리로 일어 취한다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설 때 1년 동안 쓸 조리를 사서 대청에 걸어두고 쓰면 1년 동안 복이 들어온다는 민간신앙도 있었다.
- ▶ **세찬. 세주(歲饌 歲酒)**: 설날에 대접하는 음식을 세찬, 설 때 대접하는 술을 세주라 한다. 이때 술을 데우지 않고 내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봄을 맞이하는 뜻이 들어 있는 것이다. 설날의 대표적인 시절음식으로 떡 만두국이 있다. 멧쌀로 떡을 만드는데 치고 비벼 한 가닥으로 만든 다음 굳어지기를 기다려 자르는데, 얇기가 돈과 같다고 했다. 그것을 끓이다가 꿩고기, 후춧가루 등을 섞어 세찬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만든다. 생각건대 육방옹<sup>2)</sup>의 새해 첫해를 쓴 책에 보면 시골풍속에 설날엔 반드시 탕병을 먹는데 이를 동흔돈, 연박탁이라 한다고 했다.

고려의 수도 개성에서는 조랭이 떡국도 먹었는데, 그 모양이 누에고치를 닮았다. 내려오는 말에 고려조정에 공을 세운바도 적지 않지만은 끝내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고, 한양으로 수도를 옮긴 이성계가가 미워 떡을 만들면서 목을 조르듯이 잘랐다고도 한다. 나이 먹는 것을 떡국을 몇 그릇이나 먹었는가로 세기도 한다.

떡국을 먹고 식후에 먹는 세찬으로는, 찹쌀가루를 가루 내었다가 진국술로 반죽해 조그맣게 말렸다가 기름에 튀겨 꿀과 조청에 문혔다가 깨나 땅콩 빵은것을 문혀내는 강정과 각종 곡식 송화가루등을 꿀과 조청등에 반죽하여 예쁜 모양으로 찍어 두었다가 내는 다식 등은 추운 겨울의 손님맞이에 좋은 것들이다. 거기에 수정과나 식혜 등의 마실 거리를 미리 준비해놓았다가 낸다. 이때 술을 데우지 않고 내는데, 이는 봄을 맞이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다.

- ▶ **문안비(問安婢)**: 부인들은 잘 차린 어린계집종을 보내어, 좋은 말로 서로 문안을 드리기도 한다. 정초에 여자들이 나들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그런 풍속이 내려오게 된 것이다.
- ▶ **세함(歲啣)**: 유득공의 경도잡지에- 왕기의 우포잡기(王錡.寓圃雜記)에 보면 ‘서울풍속에 설날이 되면 주인은 모두 하례하러 나가고 다만, 장부와 백지, 붓, 벼루를 비치해둔다. 그러면 하례객이 와서 자기이름을 쓸 뿐 환영, 환송하는 일이 없다’고 했다. 이것이 세함의 시초라고 했다. 연말연초에 보내는 연하장이 그 풍속을 이어받았다고 하겠는데, 그러던 것이 요즈음은 간단한 문자로 보내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2) 陸放翁의 歲首書事時에- “시골풍속에 설날엔 반드시 湯餅을 먹는데, 이를 동흔돈冬餛飩, 연박탁年餛飩이라 한다.”고 했다.



문배세화



설날 떡국



설날밤은 일찍 자는 날(야광귀)



대보름연날리기, 쥐불놀이 다리밟기

### ▶ 윷놀이

삼국시대 이전부터 전해오는 한국고유의 민속놀이로 주로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즐겼다. 도. 개. 걸. 윷. 모로 하는 윷놀이는 윷을 던진다는 의미의 척사(擲柶) 또는 사희(柶戲)라고도 한다. 윷놀이는 어디까지나 우리 고유의 놀이이다. 중국에도 저포(擲蒲), 격양희(擊壤戲)가 있고 만주와 몽골에도 비슷한 놀이가 있었으나 그 방식도 다르고 널리 유행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윷놀이는 어디서 유래됐고 윷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윷판(馬田)은 ‘말밭’ ‘말판’ ‘윷밭’이라고도 한다. 윷판을 한자로 ‘사도(柶圖)’라 쓰기도 한다. 윷판은 쌍방이 각각 말 4개를 가지고 승부를 겨루므로 윷판을 ‘말판’ 또는 ‘말밭(馬田)’ 이라고 한다.

양편 중에 말 4개가 모두 첫 발인 ‘도’에서 출발하여 끝발을 먼저 빠져 나가는 편이 이기는 것이다. 4말을 빼는 것을 ‘넉동 뺀다’고 한다.

이러한 윷놀이는 윷을 잘 던지지만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말판을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승리의 관건이다. 남의 말에 잡히지 않으면서 가장 가까운 길로 가되, 자기 말끼리 덧 놓아 ‘두동산이(두동문이)’나 ‘석동산이(석동문이)’ 많게는 ‘넉동산이’를 만들어 한번에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매우 빨리 날 수 있는 것이다.

옷판은 선과 29개의 검은 점을 찍어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점 대신 다른 모양이나 내용을 적어 놓기도 한다. 옷판은 바깥 둘레를 네모지게(方) 한 것은 하늘의 운기(運氣)가 땅에서 이루어짐을 상징한 것. 즉 천지음양의 합일한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29개의 점 중, 가운데 한 점은 북극성(樞星)이고 둘레의 28점은 28수를 의미한 것이다.

그러면 언제부터 옷놀이가 시작되었을까?

첫째, 옷판이 중국의 고사인 “漢沛公西入定關中 … 楚霸王南出潰圍中”이라는 글귀에서 나왔다는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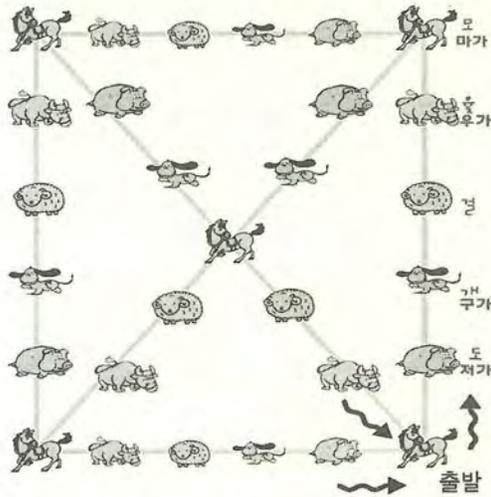
둘째, 《조선상고사》에서 신채호가 주장한 오가(五加)의 출진도(出陣圖)에서 나왔다고 보는 설인데, 부여족시대에 다섯가지 가축을 5부락에 나누어주어 그 가축들을 경쟁적으로 번식시킬 목적에서 비롯된 놀이라고 본다. 도·개·걸·옷·모에서 도는 돼지(豚)의 저가(諸加), 개는 개(犬)의 구가(狗加), 걸의 양(羊)은 임금 자리인 기내(畿內)의 벼슬아치(양을 상징)로, 옷은 소(牛)의 우가(牛加), 모는 말(馬)의 마가(馬加)와의 유사함을 들어 그 행마하는 법을 놀이로 표현해 놓은 것이 옷놀이라는 것이다. 곧 각기 말, 소, 돼지, 개를 상징으로 하는 집단이 각기 한 구역을 다스렸다는 것이다. 이들 제가(諸加)는 각기 사방을 경계 지은 사출도(四出道)를 맡았다. 사출도는 전시체제에서 군사조직의 출진도(出陣圖) 모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당시 부여가 수렵시대를 지나고 농사와 목축을 하는 시대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셋째, 16세기 선조 때 김문표(1568~1608)가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사회변증설’과 《중경지》에 보이는 바와 같이, 천지, 하늘의 추성(북극성)·28수 등을 본떠 만든 것이 옷판이고, 말의 이동은 해가 움직여 동지·춘분·추분·하지를 이루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주장이다.

넷째, 조선후기의 실학자 성호 이익은 “고려의 유속으로 본다”고 했다.

다섯째, 최남선은 그 기원을 신라시대 이전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위의 견해 가운데 아직 명확히 옷판의 유래를 밝혀내 정설화된 것은 없는 실정이다. 한편 지방에 따라서는 옷판이나 말없이 노는 옷놀이도 있다. 평안·함경도 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산웃(算糶)’ 또는 ‘보습웃’이라고도 하는 옷놀이는 옷판과 말이 없이 산가지나 콩·팥 등을 늘어놓았다가 웃을 던져 나온 수대로 그것을 거둬들여 많이 차지하는 편이 이기는 ‘산가지 따기’ ‘콩따기’ 등이 있고 먼저 다섯 손가락을 다 꼽는 사람이 이기는 ‘손가락 꼽기’와 같은 방식으로 노는 것이다.

- 신채호 “부여국서 시작된 고유놀이” -



놀이는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마도 어려워서 대중이 즐기는 일이 없어서 그 맥이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영의정부터 종 9품까지의 관직을 적은 옷판 ‘승경도’ -



승경도



잉어등 연(산동성 위해서 연 박물관에서)



집물박물관의 승경도 판



주령구(경주 안압지 출토)

곧 종정도(從政圖) 또는 승경도(陞卿圖)이다. 이 도판은 큼직한 종이에 종9품부터 영의정까지 내직이든 외직이든 모든 관직의 이름을 써놓았다.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벼슬의 뜻을 세워주려 할아버지가 조카 손자들을 데리고 집안에서 했던 놀이가 쟁경도(승경도)놀이인데, 곧 참봉 만호같은 하위직에서 판서 대제학 병사 수사 등 고위직을 망라하여 문관 무관을 구별치 않고 적은 것이다. 처음 출발할 때 도나 개가 나오면 좋지 않은 벼슬을 받게 되며 옷이나 모가 나오면 좋은 자리를 받는다. 그러나 벼슬살이를 계속하는 동안 좋은 말발을 걷게 되면 고속승진이 보장되어 현관(顯官)의 자리를 누리게 된다. 하지만 나쁜 말발을 걷게 되면 유배를 가기도 하고 파직을 당하기도 하면서 낙백의 길을 걷게 된다. 또 낮은 등급으로 강등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사약을 받은 것으로 마무리되기도 한다. 이는 본디 중국 쌍륙놀이를 조선 초기 하륜이 우리의 관직에 맞게 변형시켰다.

관료사회의 규정과 특성을 치밀한 구도로 짜서 만들었다. 벼슬을 중시하는 관료사회의 산물 이기는 하나 옷판의 천문사상을 인문정신으로 바꾼 한 모델이 된 것이다. 청소년들은 승경도를 이용해 옷놀이를 벌이면서 모든 관직을 외우게 되고 관직생활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수양의 정신을 되새기게 된다. 파주에서는 우리 향토문화연구소의 정현식 연구위원이 이 승경도를 만들어 올곡제때 홍보도하고 판매도 하고 있다.

그리고 1940년경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나 ‘조선여행 옷놀이’라는 것이 팔린적도 있다고 한다. 일종의 개량 옷놀이로, 옷판에는 승람도와 같이 한국지도를 응용해 지명을 써넣었고, 옷판의 선 대신에 발달된 교통로가, 말 대신에 기선·기차·자동차·비행기라는 네 개의 교통기관이 옷판에 있는 전국의 도시와 명산대찰들을 유람하면서 경주하는 방식이었다. 이 옷판의 지명·산명·사찰명 등은 한글·한자·로마자모자로 기입되어 있었다고 한다. 설명문도 영어와 일본어로 되어 있었다니 요즘처럼 관광이 많아지는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해진다.

옷놀이가 한 때 수난을 받은 적이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명절’과 민족놀이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옷놀이도 압제를 받기도 하였으나, 광복과 함께 다시 살아나 농촌 마을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마을 대항으로 척사대회를 벌였다. 또 두 사람을 단위로 놀이를 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패를 갈라 놀이를 할 수도 있어서 그 겨루기 범위가 넓었다. 그래서 조선 후기부터 크게 유행했던 것이다. 따라서 옷놀이는 민중의 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 연 날리기

액을 멀리 날려 보내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픈 마음에서 하던 연놀이는, 중국에서는 한신이 적지를 탐지하기위해 사용되었다는 얘기가 전해온다. 우리나라는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의 진덕여왕때 별이 떨어졌다고 사기가 저하된 것을 김유신이 연에 불꼬리를 매달아 다시 하늘로 띄워 올리고 떨어진 별이 다시 올라갔다고 하며 사기를 진작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 ▶ 제기차기

- 땅강아지 제기: 보통 제기차기의 모습
- 헐랭이 제기: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여러 번 치는 제기
- 동네제기: 어디로 갈지 방향은 예측할 수 없다. 주고받으면서 차는 제기
- 머슴제기: 한사람이 들이면 상대방이 치는 제기

### ▶ 머리카락 태우기

남녀가 1년간 머리빗을때 납지(蠟紙)로 만든 주머니에다 빠진 머리카락을 넣어 빗상자 속에다 묵혀두었다가 이날 황혼에 문 앞에서 태우는 일이 있었는데, 손사막의 [천금방]에 정월 인일에 백발을 태우면 길하다고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 ▶ 야광귀(夜光鬼)

야광귀는 설 날밤에 집에 들어와 신발 훑쳐가기를 좋아한다고 한다. 그러면 신을 잃은 사람은 불길하다고 하여 신을 감추고 불을 끄고 일찍 잔다. 그리고 마루 벽 위에다 체를 걸어두는데 그러면 야광귀가 신발을 훑치러왔다가 무엇이든 세기를 좋아하는 야광귀는 그 구멍을 세다가 다 못 세고 닭이 울면 도망간다고 한다. 야광은 癩鬼, 癩光이라고 하는데 藥王의 음이 와전된 것으로 본다. 약왕의 형상이 추하므로 아이들이 두려워하였는데 어린이를 일찍 재우고자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해석한다.

### ▶ 정월대보름(上元日)

정월대보름은 신라시대부터 지켜온 명절로 달이 가득찬 날이라하여 재앙과 액을 막는 제사를 지내는 날이며 대보름의 풍속은 농경을 기본으로 하였던 고대 사회로부터 풍농을 기원하

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고 하겠다. 농경기본의 문화적 측면에서 보아도 달은 생성력을 바탕으로 한 풍요로움의 상징이었다.

▶ 오곡밥

열나흘날에 오곡밥<sup>3)</sup>에 더위를 먹지 않게 묶은 나물, 세집 이상의 것을 먹어야 그해의 운이 좋다고해서 집집마다 나누어 먹었다. 이때 나물은 9가지 이상을 먹어야 좋다고했고 묶은나물을 먹으면 여름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서도 3집, 9가지 이상의 나물 등으로 보아 그런 숫자를 의미있게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이날만은 개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 이날 개에게 밥을 주면 여름에 파리가 꾀고 마른다고 한데서 유래하는데 그래서 속담에 “개 보름 쇠듯 한다”는 속담이 있다.



정월대보름 오곡밥과 쥐불놀이



짚풀로 만든 제웅, 액막이-



중화척, 경칩



머슴날, 영등할미제

3) 五穀 - 〈주례 周禮〉 천관질(天官疾醫)의 주(注)에 의하면 삼·기장·피·보리·콩, 〈대대례 大戴禮〉 증자천원(曾子天圓)의 주에 의하면 기장·피·삼·보리·콩, 〈초사 楚辭〉 대초(大招)의 왕일(王逸)의 주에 의하면 쌀·피·보리·콩·삼, 〈맹자〉 등문공상(滕文公上)의 주에 의하면 쌀·기장·피·보리·콩, 〈황제내경소문(素問)〉 장기법시론(藏氣法時論)의 주에 의하면 멧쌀·소두·보리·대두·황서(黃黍), 〈관자 管子〉에 의하면 기장·콩·보리·벼·차조 등으로 달리했다. 인도에서는 쌀·보리·콩·밀·참깨를, 일본과 한국에서는 쌀·보리·콩·조·기장을 오곡이라 부른다.

▶ 더위팔기

서로 이름을 불러 대답하면 더위를 판다고 했다.

▶ 부럼 깨기, 귀밝이술

새벽 날밤, 호도, 은행, 무, 잣, 땅콩 등의 부럼을 깨물면서 “일 년 열두 달 동안 무사태평하고 좋거나 부스럼이 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빌었다. 귀밝이술은 귀가 밝아지라고 마신다지만 어른이 부르면 귀가 밝아서 잘 듣고 빨리 대답하라는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먼저 마시게 했다.

▶ 나무시집보내기라고 해서 나무둥치에 돌을 올려놓으며 과실이 많이 열리기를 바랐다.

▶ 연날리기

서울 수표교에서 연줄끓기등을 하는데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어린이들은 한 가닥으로 된 생명주실로 거위의 솜털을 붙들어 매어 바람을 따라 날리기도 했는데, 이것을 고고매(苦苦妹)라하며 몽고어로는 鳳凰이란 뜻이다.

▶ 달맞이 달집태우기

황혼에 햇불을 들고 높은 데로 올라 달을 먼저 보는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긴다는 迎月. 望月이라 한다. 달이 뜬 후 사람들은 모두 종가로 나와 종소리를 듣고 광통교, 수표교 등을 거니는데 피리를 불고 북을 치며 밤새 떠들썩하다. 쥐불놀이도 있다.

중국에서도 다리를 건너는 일을 질병을 없애는 일, 액막이로 다리를 건너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지봉유설에도 “태평성대에는 매우 성하여 남녀들이 줄을 이어 밤새도록 그치지 않으므로, 법관들이 엄금하여 위법자는 체포하도록 까지 하였다”고 했다.

이 무렵에는 약밥<sup>4)</sup>을 해 먹기도 하였다. 동경잡기에 보면, 신라 소지왕 10년 정월 15일 천주사에 행차했을 때 날아온 까마귀가 왕에게 경고하여 거문고 갑을 쏘라고 했다. “활을 쏘면 둘이 죽을 것이요, 쏘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 소지왕은 한사람이 죽는 게 낫다면 쏘지 않으려하였으나 그 한사람이 왕 자신이라는 말에 활을 당겨 거문고 갑을 맞추었다. 그 속에는 왕을 죽이려던 괴한이 숨어있었는데, 그리하여 반역을 꾀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까마귀에 대한 보답으로 약밥을 해서 열댓세 날에 까마귀에게 주기 시작한 것이 약밥을 해 먹는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4) 찹쌀에 대추살, 감편, 삶은 밤, 잣을 꿀과 참기름 진간장에 곁들여 찐 약처럼 영양이 많은 밥. 요즈음은 약실이라고 한다.

## - 2월

중화절은 궁중에서는 중화척(中和尺)을 내려주는 행사였고, 민간에서는 머슴날로 쇠었다. 고된 농사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머슴들의 수고를 위로해 주기위해 음식을 대접하며 즐겁게 놀도록 하는 머슴 날이다. 이날 머슴들은 농악을 울리며 노래와 춤으로 하루를 즐기는데, 주인들은 머슴들에게 돈을 주거나 떡과 음식을 준비해 주었다.

한편 경상도 의령이나 양산군에서는 머슴 날이 성인식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였다. 소년들은 신체가 건강해도 어른들과 노동력을 맞교환하는 품앗이를 할 수 없었으므로, 그해에 20세가 된 젊은이는 이 날 동네 어른들과 성인 머슴들에게 성인이 되었다는 신고의 의미로, 술과 음식을 대접해야 어른으로 취급받아 성인과 품앗이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방에 따라서는 20세가 되어 성인들에게 한턱 내지 않으면 성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머슴 날 이렇게하지 못하면 두레가 났을 때 하는 수도 있다. 그때 동네에 따라 들돌이라는 성인이 드는 큰 돌을 준비해두어 그것을 들면 어른일꾼의 품삯을 주기도 했고, 성인이 되었음을 인정해주는 놀이이기도 했다. 이처럼 머슴 날은 평소에 대접받지 못했던 머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어, 그해의 농사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여는 농정의례의 하나인 것이다.

이날은 가마솥에 콩을 볶아 나누어 먹기도 했고 아이들은 좋아라고 주머니에 가득 넣고 다니며 먹기도 한다. 솥에 콩을 볶으면서 “새알 볶아라, 쥐알 볶아라, 콩알 볶아라”하고 주문을 외우면 새와 쥐가 없어져 곡식을 축내는 일이 없다고 하며, 노래기가 없어져 청결해진다고 믿었다.

또한 콩을 넣은 송편을 빚어 나이 수대로 일꾼들에게 먹이고 하루를 즐기게 했다. 전라도 일대에서는 허드렛날이라 하여 동네회의를 열어 1년간의 마을 대소사를 결정하고 하루를 즐겼다. 충청도지방에서는 정월 대보름에 세웠던 난가리 대(禾糶)를 쓰러뜨려 벼가리의 벼를 헐어 내려다가 흰떡을 빚어 먹었다고 한다. 이로써 동절기 휴식을 끝내고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봄갈이가 시작되는데, 우선 일꾼들에게 떡을 한 아름 해서 잘 먹인 후 일을 시킨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에서 중화절(中和節)을 명절로 삼아 왔는데, 정조(正祖)때(1795)에 우리도 그 고사(故事)를 받아들여 농사를 권장하는 의미로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바닷가에서는 영등할미제가 있다. 영등할미가 내려올 때 떡과 깨끗한 물을 차려놓고 맞이하는데, 하늘에 사는 영등할미는 바람을 부리는 신이라고 한다. 음력 2월 1일 땅에 내려왔다가 2월 15일 다시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꼭 딸이나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고 한다. 딸이 오면 한해가 편하고 며느리가 오면 폭풍 비바람이 심해 한해가 힘들다고 믿었다.

## - 3월

음력 3월 3일을 삼월 삼짇날이라고 하는데, 삼의 양이 겹친다는 의미로 삼월의 첫 뱀날이라

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민족은 옛날부터 월일이 홀수이면서 같은 숫자로 겹치는 날을 대개 명절로 즐겨왔는데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등이 그 예이다. 요즈음은 11월 11일을 빼빼로 데이라고 과자가 많이 팔리는 날이 되더니 농가에서 갈래떡데이라고 해서 갈래떡을 먹는 날이라고 한다. 필자 생각에도 농사 다 지어놓고 갈래떡 뽑아다놓고 구워먹고 떡국 끓여먹으면 좋아하여 추천하고픈 행사이다.

강남 갔던 제비도 돌아온다는 삼진날(三辰日), 주로 이때 범씨를 담근다. 범씨를 큰 항아리에 담그고 진달래를 꺾어다 꽂아 놓는 것은 어린아이들 똥이었다. 꽂은 어떤 기원의 의미가 있는데 범씨가 발아가 잘되어 한해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꽃을 꽂았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 한식(寒食)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며 청명 안팎에 든다. 글자의 뜻대로 풀이를 하면 ‘찬밥을 먹는 날’이라고 하겠는데, 조상을 위한 제례와 환절기 불조심의 의미가 강하다고 하겠다.

이날 나라에서 새로운 불씨를 나누어주는데 묵은 불씨를 없애고 새 불씨를 기다려야 하므로 민가까지 내려오려면 찬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고사에 이날은 비바람이 심하여 불을 금하고 찬밥을 먹는 습관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개자추 전설 이야기가 있다.

- 개자추 전설 -

중국 진나라의 문공이 국란을 당하여 방랑생활을 할 때 먹을 것이 없어 거의 죽게 된 문공을 개자추가 자기 넓적다리 살을 베어 먹이며 보필을 하였다. 그러면서 문공이 개자추의 은공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담에 잘 되면 은공을 꼭 갚으리라고 말 하였다.

그런데 뒤에 왕위에 오른 문공은 너무나 바빠 개자추를 까맣게 잊고 부르지 않았다. 그러자 개자추는 산속으로 은거해 버렸는데 이이야기를 듣고 문공이 찾았으나 나오지 않았다. 문공은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으므로 면산에 불을 질렀다. 그러나 개자추는 나오지않고 타죽고 말았다. 그 뒤 그를 애도하는 뜻에서 또 타죽은 사람에게 더운밥을 주는것은 도의에 어긋난다하여 불을 금하고 찬 음식을 먹는 풍속이 생겼다고 한다.

▶ 묘지사초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라는 재미있는 속담이 있다. 이는 한식과 청명이 하루상관으로 들어있어서 나온 말이다. 한식은 계절적으로 초목이 잘 사는 때라 조상 산소에 나무도 심고 봉분에 잔디도 입히는데, 산에서 음식을 데우기 위해 불을 피우다 건조기인 관계로 산불이 일어나기가 쉽다. 그래서 산화방지책으로 불을 쓰지 못하게 해서 찬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말도 있다.

▶ 답청(踏靑)놀이와 화전(花煎)놀이

진달래꽃을 따서 찹쌀가루 반죽에 올려 예쁘게 붙여먹는 한식의 계절음식이다. 아녀자들이 겨우내 집에 있던 무거운 기운을 떨어내고 봄기운을 맞고오라는 의미에서 장작에 솔 단지 들고 불을 피워주고 놀다오게 하기도 하였다. 바위에서 솟아나는 석간수의 새로운 물을 받아 밥도 해먹고 차도 마시고 봄 햇살을 받고 놀며 하루 놀다오는 답청놀이등이 있었다. 요즈음은 등산 등으로 잘 들 다니니 답청놀이의 연속이라고나 할까. 이날 약밥, 쑥떡, 찬밥을 먹으면 일년 병이 없다고 했다.



한식성묘



나라에서 불씨내리기- 내병조



쥐씨며느리, 불을 먹는 쥐



화전놀이, 답청놀이

- 4월

▶ 초파일

8일 부처님 오신 날이다. 손님을 청해다가 음식을 대접하는데 느티떡, 볶은 콩, 미나리 반찬 등을 내놓는다. 이를 부처 생신날 소밥<sup>5)</sup>이라 한다. 또 어린이들은 등간(燈竿) 아래에다 동이에 물을 떠다 놓는다. 그리고 바가지를 얹어놓고 빗자루로 그 바가지의 등을 두드려 소박한 소리를 낸다. 이를 수고(水鼓)<sup>6)</sup> 라고 한다.

5) 고기반찬 없는 밥

장원의 오지(輿志)에 “서울 풍속에 부처의 이름을 외는 사람은 모두 콩으로써 그 수를 헤아렸다. 사월 초파일 석가의 탄신일에 이르러 소금을 살짝 뿌려 그 콩을 볶아서 사람을 길에서 맞이해다가 먹게 함으로써 인연을 맺는다”했다. 지금 풍속에 콩을 볶는 것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생각건대 [제경경물략(帝京景物略)]에 “정월 대보름 밤 어린이들이 북을 치며 저녁부터 새벽까지 보내는 것을 태평고(太平鼓)라고 한다”고 했다. 지금 풍속의 수고가 곧 태평고와 같은데, 부처 탄신일이 등불을 켜는 저녁이므로 옮겨온 것이다.

인가에서는 자녀의 수대로 등을 켜는데 밝아야 길하다고 했다. 등대는 큰 대나무 수십개를 이어 만드는데 사치를 부리는 사람은 오강(五江)의 돛대를 실어다가 만들고 꼭대기에는 썩은 털을 꽂고 각색 깃발을 매단다. 종로네거리의 여러 가게에서도 높고 큰 것을 숭상하여 수십개의 줄을 펼쳐놓고 “어기어차~”하며 끌어올려 새운다. 이때 등대가 작으면 남들이 비웃는다. 이날을 예에 따라 통행금지가 해제된다. 이 등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남산, 북악산 기슭으로 올라갔고 혹 어떤 이는 통소와 북을 가지고 시가를 따라 멋대로 구경하기도 한다.

생각건대 [고려사]에 “왕궁이 있는 국도로부터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정월 보름날 이들 동안 연등을 달게 했었다. 그러나 최이(崔怡)가 사월 초파일에 연등을 달도록 했다고 하였다.” 또 “우리나라 풍속에 사월 초파일이 석가의 탄신일 이므로 집집마다 연등을 다는데 이 날이 되기 수십일 전부터 여러 아이들이 종이를 잘라 등대에 매달아 기를 만들고, 두루 장안의 거리를 누비면서 쌀이나 돈을 요구하여 그 비용으로 삼았는데 이를 호기(呼氣)라고 한다.”고 했다.

지금 풍속에 등대에 깃발을 다는 것이 이 호기의 남은 풍습이라고 했다. 등의 이름으로는 마늘등, 연꽃등, 수박등, 학등, 잉어등, 자라등이 있는데 모두 그 물건의 모양을 본떴고 종이를 바르거나 푸른 비단으로 만들어 운모(雲母)를 끼워 비선(飛仙), 화조(花鳥)를 장식한다. 북등에는 대개 중국의 삼국시대의 고사를 그렸다. 또 영등의 같이틀에 종이를 잘라 매달거나 매나 개를 데리고 범, 사슴, 꿩, 토끼 등을 사냥하는 모습을 그려 그 선기에 붙여 바람에 빙빙돌게해서 밖에서 그 그림을 본다고 했다. 소동파의 글에 “영등을 아직껏 보지 못했으나 그것을 보는 것 보다는 [삼국지]를 한번 보는 것이 어떤가”했다. 삼국지의 고사를 그림으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송나라때 이미 이런 제도가 있었던 모양이다.



등달기



사월 초파일 등달기

6) 水岳, 물장구

## - 5월

### ▶ 단오(端午)

5월 5일은 다섯 5자가 겹쳐지는 날, 端午(곧+낮)는 우리나라 4대 명절의 하나로 수릿날, 천중절(天中節), 중오절(重五節), 단양(端陽)이라고도 한다. 단오를 수릿날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농사일에 꼭 필요한 수레를 귀하게 여기던 농군들이 단오에 먹는 쑥떡의 모양도 수레바퀴처럼 만들어 먹었다. 수리란 우리말로 수레를 가리키는 말, 또 수리란 고, 상, 신등을 의미하는 우리의 옛말인데, '신의 날' '최고의 날'이라고도 한다.

단옷날 중에서도 오시(오전 11시~ 오후 1시)가 가장 양기가 왕성하다고하여 이 시각에 약쑥, 익모초, 쪼레꽃등을 따서 말려두었다가 배가 아플 때 썼다. 또한 대추풍년을 기원하며 대추나무 가지사이에 돌을 끼워놓는 '대추나무 시집보내기'도 하였다. 단오의 애호(艾虎)를 각 신하들에게 나누어 준다. 잔 값을 사용하여 비단조각으로 만든 꽃을 묶었는데 그 나풀나풀하는 모양이 꼭 갈대이삭 같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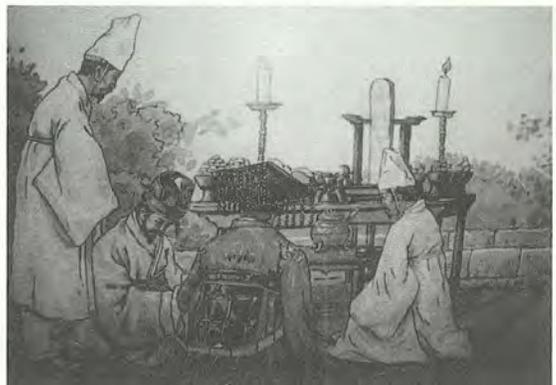
단오 들들들기, 큰머슴, 새경이 달라지다



단오그네뛰기, 강가씨름, 창포머리감기



수리취떡, 쑥떡, 약쑥채취, 초나라굴원



봄엔 농사의 신이나 잠업의 신께 제사

▶ 단오선(端午扇)

단오에 부채를 선물하는 풍습이다. 여름이 가까우므로 서로 부채를 선물한다. 큰 것은 대나무살이 50개나 되는데 이를 백첩(白軸)이라 한다. 이것을 얻은 사람은 흔히 금강산 일만 이천봉을 그린다. 그런데 근래 풍속에는 거기다 버들가지, 복사꽃, 나비, 연꽃, 은붕어, 해오라기 등의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 유득공은 말하기를 생각건대 [계암만필]에 “단오에 경관(京官)에게 궁중의 부채를 나누어주는데, 뗏살에 종이를 바르고 새나 짐승의 그림을 그리고 오색의 비단으로 감았다”고 하였다. 애호란 것이 바로 이것이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감사와 병사는 부채를 조정과 친구들에게 보낸다. 전주와 남평에서 만든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그 만든 모양이 각기 다르다 했다. 청색의 것은 신랑이 갖고 남자는 집에서 부치고 문밖에 나와서는 곧 버린다 했으나 부인은 여러 빛깔의 부채를 갖는다고 했다.

▶ 단오를 다른 말로 수릿날(戌衣日)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물여울의 수뢰를 수레(車)로 발음해 썩떡을 수레바퀴에 던지면 액막이가 된다고 생각했다. 이날 썩(芻)이나 수리치, 모시 등을 짓이겨 녹색이 나게 반죽을 하여 수레바퀴 모양의 떡을 찍어먹는다. 무규의 연북잡지(燕北雜誌)에 요나라 지방 풍속에 발해의 주자(熱手)가 썩떡을 올린다고 한 것이 우리나라 풍속의 시초라고 했다. 중국에서는 초(楚)나라의 충신 굴원이 임금이 버리자 먹라수에 몸을 던져 죽었으므로 충신을 추모하는 뜻으로 여울물에 제사를 지내는 날이라 해서 물여울, 즉 수뢰 날이라고도 한다.

▶ 어린 여자애들이 붉고 푸른 새 옷을 입고 창포탕으로 세수를 한다.

또 창포뿌리를 갈아 비녀를 만들고 주사(朱砂)를 발라 머리에 꽂는 단오장도 있었다.

▶ 그네뛰기, 추천희(秋千戲)

아녀자들이 그네뛰기가 매우 성하기도 하였다. 하늘높이 날아오르고픈 여인들의 마음이 짙은 녹음아래 높이높이 올라갔을 것이다. 남자들은 남산이나 강가에서 씨름을 했는데, 중국인들이 이를 본받아 고려희(高麗戲) 또는 요교(撿鞦)라 한다. 내의원에서는 옥추단(玉樞丹)을 만들어 차고 다니며 재액을 물리친다. 관상감에서는 주사로 벽사문을 찍어 통속적으로 문설주에 붙인다. 벽사문의 내용은 “5월 5일 천중지절에 위로는 하늘의 녹을 얻고, 아래로는 당의 복을 받아 치우치신의 구리머리, 쇠이마, 붉은 입, 붉은 혀의 404가지 병이 일시에 없어져라~”하는 식으로 지난 12월 초하룻날 대대적인 나례를 행하여 액질귀신을 쫓을 때 화답하는 대사였다고 한다.

## - 6월

### ▶ 유두절(流頭節)

6월 15일을 유두절이라 한다. 유두날 아침에는 유두면과 수박, 참외, 자두같은 과일들을 사당에 차려놓고 조상님께 지사를 지냈다. 이것을 [유두천신]이라고하고 논밭으로 가서 농사가 잘되게 해달라고 음식을 차려놓고 빌기도 했다. 떡을 꼬챙이에 꽂아 눈에 산다는 용신에게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기도 했는데 이것을 용신제라고 했다. 유두절은 동류두목욕(東流頭沐浴)의 준말이다. 즉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씻는다”는 뜻이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기 때문에, 태양의 기운이 좋은곳으로 흐르는 물을 보며 머리를 감고 더위를 식히는 물맛이가 성행했다. 그리고 걷어들인 햇밀로 호박부침개와 밀면 등을 해서 먹었는데, 그것을 유두면이라고 했다. 그리고 안 좋았던 일 다 떨쳐버리고 모여서 마시는 것을 유두음이라 했다. 밀가루를 구슬 모양으로 빚어서 먹지않고 여러 색을 물들여 실에 꿰어 벽이나 문에 걸어두면 나쁜 일들을 막을 수 있다고도 했고, 보리수단이나 분단(粉團)을 만들어 꿀물이나 화채에 띄워먹기도 했고, 가을 따놓았던 오미자를 물 내어 꿀에 타 수단을 띄우면 아주 예쁜 마실 거리가 되었다. 물론 물에 띄우지않고 그냥 고물을 묻히거나 꿀을 발라 먹으면 건단이라고 했다. 땅에서 심은 햇과일인 수박이나 참외 자두 등의 햇과일을 먹을 수 있는 계절은 또 다른 새로운 생기가 넘치는 민속명절이었다.

### -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 사연 -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의 다섯 방위 중에서 동쪽은 우리나라의 시원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인 고조선(古朝鮮)은 아침 해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고구려의 시조는 동명성왕(東明聖王), 즉 동쪽의 밝고 성스러운 왕이라는 뜻이다. 추수를 다 하고 동쪽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도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동맹(東盟)<sup>7)</sup>이었다.

신라는 동쪽의 나라, 새벽의 나라여서 새벽을 알리는 닭을 숭상하였다. 그리고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를 동쪽에서 목욕시켰다고도 한다. 뿐만 아니라 백제에서도 동명왕의 묘에 제사를 지냈다고하니 우리민족과 동쪽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수있을 것이다. 동쪽은 즉 새로움을 의미한다. 동쪽에 뜨는 별은 셋별이라하여 좋아하고,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셋바람, 동쪽을 상징하는 색은 청색이며, 계절의 봄이며 하늘이고 아버지를 뜻하며 인의예지의 仁을 뜻하며, 오행중에서는 나무를 상징하며 태극의 첫괘인 건(乾)괘이다.

7) 일종의 추수감사제로 동명(東明)이라고도 하여 고구려 국조신(國祖神)에 대한 제사의식이라는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 고구려조에는 “10월에 지내는 제천행사는 국중대회(國中大會)로 이름하여 동맹이라 한다. 그 나라의 동쪽에 큰 굴이 있는데 그것을 수혈(隧穴)이라 부른다. 10월 국중대회 때는 수신을 맞이하여 돌아와서는 수도의 동쪽 물가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나무로 만든 수신을 신좌(神坐)에 모신다”고 했다. 수신(神)의 성격에 대해서는 단군신화의 혈신(穴神), 즉 웅녀신(熊女神)을 가리키는 것으로, 국토신·생산신인 수혈신을 맞아 수도 동쪽 물가에서 제사지냈다는 것은 동명 신화에서 하백녀가 청하(淸河)의 웅심연(熊心淵)에서 해모수(解慕叟)와 결합했다는 구성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동맹이 농경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추수감사제와 같은 성격의 것인 만큼 수신은 곡신(穀神), 즉 지모신(地母神)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고구려 주몽신화에서 주몽의 어머니로 나오는 하백의 딸 유화(柳花)가 농업을 주관하는 지모신의 성격을 갖는 것과 같다.



유두절, 동류두목욕



유두면, 수단, 각종햇광



초복, 중복, 말복 여름나기



수단, 화채, 식치, 물놀이

### ▶ 복(伏)

개고기를 충백(蔥白), 즉 파의 밑둥과 함께 삶는다. 닭고기나 죽순이 들어가면 더욱 좋다. 이것을 개장이라하여 이것을 먹고 땀을 흘리면 더위를 이길 수 있다고 하였다. 중국 사기에 진덕공(秦德公) 2년에 비로소 삼복 제사를 지내는데, 성안 사대문에서 개를 잡아 충재(蟲災)를 막았다고 한 고사에서 지금 풍속에도 이것을 먹는다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고구려의 동맹은 고려시대에 와서도 계승되고 있다. 즉 <송사(宋史)> 고려전에는 "10월 보름에 나라 동쪽에 있는 굴의 세신(歲神)을 모셔다 제사하는데 이를 팔관재(八關齋)라 한다"고 했고, 송나라의 사신인 서궁(徐兢)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서도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전제하에서 10월에 팔관재를 성대히 치르는 것과 함께 왕실의 조묘(祖廟)가 동문 밖에 있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팔관회를 비롯한 공식적인 불교행사가 폐지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사라졌다. 다만 민간신앙의 차원에서 최근까지 명맥을 이어온 동제(洞祭)에서 신목(神木)을 모신다든가 당굴을 당집으로 삼는 점이 그 유습으로 짐작될 뿐이다.

## - 7월

### ▶ 칠석(七夕)

칠석날 밤에는 아름다운 별자리를 볼 수 있는 별의 명절이다. 특히 은하수가 잘 보이는 때이다. 이때에는 일년에 한번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고 한다. 그 만날 때 까치와 까마귀가 다리를 놓아준다는데 그래서 그들의 머리가 벗겨져 있다고 한다. 칠석날 전후에 부슬비가 내리는 일도 있는데, 이는 견우와 직녀가 서로 타고 갈 수레준비를 하느라고 먼지얕은 수레를 씻기 때문이라고 하며, 그 물이 인간세상에서는 비가되어 내리므로 이비를 ‘수레 씻는 비’ 즉 ‘세차우(洗車雨)’라고 한다. 다음날 새벽에 비가 내리면 이별의 슬픈 눈물이라고 하고 이때의 비를 ‘눈물 흘리는 비’ 즉 ‘쇄루우’라고 한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견우 직녀



7월 칠석, 견우직녀

칠석날 내리는 빗물은 약물이라고 하여 이물을 받아서 목욕을 하면 땀띠, 부수럼 등 피부병에 좋다고 하여 이날을 기하여 산간계곡의 약수터, 폭포 등을 찾아가 목욕을 하는 풍속이 있었다. 이때쯤 가정에서는 여름내 눅눅한 옷과 책등을 말리면 일년내내 좀을 먹거나 상하는 일이 없다고 했다. 이날이 지나고 찬바람이 일기시작하면 밀 냄새가 난다고하여 밀가루 음식을 꺼리게 되므로, 밀국수 밀전병은 반드시 상에 오르며 밀음식을 맛보는 마지막 기회였다. 이때부터 습기 없는 햇바람이 불기 시작함을 볼 수 있다.

### -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오작교(烏鵲橋)이야기 -

먼 옛날 옥황상제에게는 직녀라는 예쁜딸이 하나 있었는데, 하루종일 베짜는 일을 하며 살고 있었다. 직녀가 짠 옷감은 눈부실 만큼 아름다웠다. 어느날 직녀는 베짜는 일을 잠시 중단하고 창밖을 보다가 무심코 은하수 건너편의 늠름하고 잘 생긴 청년을 보고 첫눈에 반해 버렸다. 그리고 아버지께 결혼을 하게 해 달라고 하였다.

옥황상제도 견우가 아주 마음에 들었던 터라 곧 혼인을 시켜 주었다. 그러나 두사람은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잠시도 떨어져 있으려고 하지않고 해야 할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하늘나라 사람들은 옷이 부족해지고 견우의 소와 양들도 병에 걸려 앓기 시작하였다. 농작물들도 말라죽어 하늘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땅의 세상도 어지러워졌다.

이에 몹시 화가 난 옥황상제는 견우는 동쪽으로 가고 직녀는 서쪽에서 베를 짜고 살도록 명령을 내렸다. 이에 견우와 직녀가 용서를 빌었지만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일 년에 딱 한번만 만나게 허락해주었다. 두 사람이 일 년을 기다려 만나러 왔을 때는 은하수가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만나지 못하게 되어 울기만 하였는데, 이 모습을 본 까마귀와 까치들은 자기의 몸을 이어 다리를 놓아주면서 두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었는데 그 다리를 오작교라고 한다. 칠석노래가 전해오기도 한다.

### 칠석요

칠월칠석 오늘밤은 은하수 오작교에  
견우직녀 일 년 만에 서로 반겨 만날세라  
애야 애야 애야 좋네. 칠석놀이 좀 더 좋네.

까치까치 까막까치 어서 빨리 날아와서  
은하수에 다리 놓아 견우직녀 상봉시켜  
일 년 동안 맛본 설움 만단설화하게 하소

닭아 닭아 우지 말아 내가 올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입은 간다. 이제다시 이별하면  
일 년 삼백육십일에 임 그리워 어이 살지  
우지 말아 우지 말아 무정하게 우지말아  
은하수로다 은하수로다 은하수가 원수로다

### ▶ 백중

백가지 과실등이 나와서 백중(百種)·중원(中元)·망혼일(亡魂日)이라고도 한다. ‘백중’은 이때쯤 과일과 채소가 많이 나와 100가지 곡식의 씨앗을 갖추어놓은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절에서는 재(齋)를 올리고 공양을 드렸으며, 민간에서는 100가지의 과실을 차려 제사를 지내고 남녀가 모여 음식을 먹고 노래와 춤을 즐겼다. 가정에서는 한창 익은 과일을 따서 사당에 천신차례를 올리고 백중잔치를 한다. 백중을 전후로 장이 섰는데 이를 백중장(百中場)이라 했다.

머슴이 있는 집에서는 이날 하루는 일손을 쉬고 머슴에게는 휴가와 돈을 주어 백중장에 가

서 하루를 즐기도록 했다. 백중장이 성시를 이루면 씨름판과 장치기 등의 놀이도 펼쳐진다. 또한 한 해 농사를 잘 지은 집의 머슴을 소나 가마에 태워 마을을 돌면서 사기를 북돋아준다. 백중때가 되면 농사일이 거의 끝나서 농부들은 호미를 씻어두는데 이를 호미씻이라고 한다. 원래 백중날 하루만은 일손을 놓고 쉬지만 제주도에서는 해산물 따기에 분주하다. 그것은 백중날에 살찐 해산물이 많이 잡히기 때문이다.

고 15일이 중원(中元), 백가지 야채 과일 등이 나온다하여 백중(百種)일이라고도 하지만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보통 백중일이라고 한다.

## - 8월

### ▶ 추석, 한가위

15일 중추, 한가위, 가배라고 한다. 한가위의 한은 ‘크다’를 뜻하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이다. 이때에도 씨름이나 그네뛰기, 또 닭싸움과 소싸움 거북놀이 소놀이 등이 있었다. 소놀이 거북놀이는 벗집 등으로 만든 속에 사람이 들어가 이집 저집 다니면 맛있는 음식이나 술등을 한상 잘 차려주었다.

추석에는 달을 보고 소원을 비는 ‘달구경’ 소놀이 거북놀이 등이 있고 송편을 먹는다. 송편이란 솔잎에 찌서 먹기 때문에 송편이다. 송편이 반달 모양인 것은 앞으로 둥글어지는 희망이 있는 떡이라고 생각하여 반달모양의 송편을 해 먹었다고 한다. 이때를 추석이라고 하는데 [예기]에는 춘조일. 추석월(春潮日 秋夕月)이라 하여 “봄에는 아침별이 좋고, 가을에는 저녁 달빛이 좋다”는 말에서 유래했다.

### ▶ 신라의 길쌈놀이와 회소곡

삼국사기 신라 유리왕 32년조<sup>8)</sup>에 “왕녀 두 사람을 시켜 경주시내 6부 고을을 반으로 나누어 7월 열엿새부터 8월 보름까지 대부의 뜰에 모여 베를 짜는데 이경(二更)<sup>9)</sup>이 되어서야 파했다. 나중에 진편에서 술과 음식을 갖추어 이긴 편을 사례하게 했다. 이때 노래하고 춤추며 놀이를 하며 즐겼는데 이 놀이를 가배(嘉俳)라고 했다. 이때 진편의 한 여자가 일어나 춤을 추면서 한탄하기를 회소~ 회소~하니 그 소리가 애처롭고 고왔다”는 말이 전해온다. 여기에서 회소곡(會蘇曲)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만 전해올 뿐 가사는 전해지지 않는다.

### ▶ 강강술래

달이 좋은날 온 마을의 아녀자들이 모여서 강강술래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임진왜란 때

8) 고유명절의 놀이가 문헌으로 나타나는 예는 많이 없는데, 그렇다면 2011년은 1980번째 한가위가 되었다.

9) 二更- 밤 10시

왜구에게 우리 군사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시작했다고 한다. 낮에 힘들게 싸운 남자들이 쉬는 사이, 아녀자들이 힘을 주기위해 했다는데서 우리민족의 지혜와 기상을 엿볼 수 있다.

▶ 닭잡기

넓은 마당에 닭을 풀어놓고 맨손으로 닭을 잡는 놀이를 했다. 온 마을의 남녀가 어우러져 엽히고설키며 자연스레 가까워진다. 신라에서는 탐돌이도 하였다.



송편, 토란국, 차레



성묘



베짜기, 회소곡



닭잡기놀이, 강강수월래, 달맞이

- 9월

▶ 국화의 명절 증양절

9월 9일을 증양절, 중구절(重陽節, 重九節)이라 하여 9가 두 번 겹쳤다는 날이다. 이날 제비가 따뜻한 곳을 찾아 떠난다. 양수중에서도 가장 큰 9가 두 번 겹쳐지는 날이기에 아주 각별한

명절이다. 중앙절은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명절이다. 삼국시대에는 중앙절에 왕과 신하, 선비들이 모여 시를 읊었다고도 하는 일종의 백일장 같은 날이기도 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중앙절에 했다고도 한다. 그렇지만 중앙절에는 특별한 놀이는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가을걷이로 바쁜 계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앙절에는 결혼식이나 잔치를 열지 않았다고 한다. 한사람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날이 되어야한다고 해서 말이다. 이 날은 주로 가을단풍을 보러 산에 가기도하고 국화로 국화전 국화주를 마시기도 하였으며 약초 채취도 하였다.

- 중앙절에 산에 올라 국화주를 마시는 이유 -

양나라 오균이 쓴 [속제해기]에 옛날 중국의 어느 마을에 앞일을 내다볼줄 아는 장방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몸이 떨리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징조임을 예감했는데, 어느 날 친구 환경이 사는 마을에 뭔가 재난이 있을 것이니 그길로 찾아가 액을 없애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절 날 집을 떠나 어디론가 피하라고 경고하면서 오수유를 넣은 주머니를 팔에 걸고 높은 곳에 올라가 국화주를 마시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 말을 듣고 해가 떨어진 뒤 마을에 돌아왔더니 집에 남아있던 가족들이 모두 죽어있었다고 한다. 그 후로 9월 9일되면 상서롭지 못한 것을 떨쳐 버리고 무병장수를 비는 마음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 국화주를 마시는 풍습이 생겼다고 한다.

- 10월

음력 시월을 상달(上月)이라고 하는데 일 년 중 가장 좋은 달이란 뜻이고, 신성한 달이며 하늘을 제사하는 달이란 뜻이다. 농경민족인 우리 한민족은 예로부터 시월이면 제천의식을 거행하였는데, 이때는 한해의 농사가 끝나 하늘에 감사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라에서부터 개인 문중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제의와 점복, 금해야하는 행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중국에서도 양월 또는 상동이라 하고 일본에서는 신월이라고 하며 서양의 '추수감사절'이라고 보면 된다. 고사떡이라고 하여 농사의 신, 가정의 곳곳의 신께 감사했다. 칠성신 마당신 등 밖에 놓았던 떡은 집으로 들여오지 않고 아이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윗대 조상의 세일사(歲日祀)를 지내려 문중에 모여 제사를 지내는데, 보통 집에서는 4대까지 제사를 지내고 그 윗대조상은 신주를 묻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세일사때 다함께 지낸다. 그것을 시제, 시향, 세일사라고 한다. 불천위는 집의 사당에서 옮기지 않고 대대로 지낸다. 10월 우일(午日)에는 팔떡을 만들어 외양간에 가져다놓고 말의 건강을 빌기도 했다.



중앙절, 중구절, 단풍놀이



국화주를 마시고 백일장을 열어요



부여영고, 고구려동맹, 추수감사제



개천대제, 세일사, 사당제사

## - 11월

동지는 일 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다. 사실상의 1년의 시작이라고 여겼다. 이는 태양의 운동이 시작되는 날을 동지로 삼았기 때문이다. 즉 동지를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로 태양신에게 제사를 올렸다.

동지의 시절음식으로로는 동지팔죽 혹은 동지두죽, 동지시식이라하여 죽을 쑤어먹는 풍속이 있었다. 양력으로 12월 22일경 동지(冬至)가 있고, 팔죽을 쑤어 먹는다. 어른들은 동지가 설보다 더 중요한 명절이라 했고, 고대인들은 태양이 다시 태어나는 날로 기념해서 하늘에 큰 제사를 지냈고 태양이 다시 살아나는 날로서 ‘아세’즉 ‘작은 설날’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농가에서는 곧 닻쳐올 추위를 준비해야하므로 동짓날 특별한 놀이는 하지 않고 가족과 팔죽을 쑤어먹으며 하루를 보냈다. 동짓날 팔죽을 먹어야 몸이 건강하고 겨울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동짓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역서를 선물했는데, 역법을 맡은 관상

감이라는 기관에서 역서를 만들어 왕에게 올리고 왕은 옥새를 찍어서 신하들에게 선물했다. 이 풍습이 요즈음은 달력을 선물하는 풍습으로 남아있다. 시어머니께 버선을 지어서 선물하는 풍습도 있었는데, 양이 시작되는 때이므로 무병하고 오래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다.

옛날 오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천연두라는 전염병이었다. 지식영선생이 치료법을 들어 오기 전에는 천연두를 못된 귀신이라고 행각했는데 동지팔죽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 - 동지팔죽의 유래 -

중국의 [형초세시기]에 실린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나라 공공에게는 망나니 아들 하나가 있었다. 살아서 팔이 들어간 것은 다 싫어했다. 이 말쟁이가 아들은 매일매일 말썽을 부렸다. 동네사람들은 이 아들만 나타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데 하필 이 말쟁이가 동짓날 덜컥 죽고 말았다. 그런데 이 말쟁이는 죽어서도 귀신이 되어 나타났는데 바로 천연두귀신이었다. 이놈이 지나가면 마을은 썩대밭이 되었고 사람들은 혼이 나갈 지경이었다. 그 아버지가 싫어하던 것을 떠올려 집 앞에 팔죽을 쑤어 뿌렸는데, 그 팔죽을 뿌린 곳에는 그 귀신이 들어오지 않고 무탈했다고 한다. 그 후로 동지에는 팔죽을 쑤어 먹는 유래가 있다.

동지가 드는 시기에 따라 11월 초순에 들면 ‘애동지’ 중순에 들면 ‘중동지’ 그믐께 들면 ‘노동지’라고 하는데 애동지가 들면 아이들에게 나쁘다하여 애동지에는 팔죽을 쑤지 않으며, 동지팔죽은 이웃에 돌려가며 서로 나누어 먹는다. 이때 새알심을 넣은 팔죽 이외에 메밀로 국수를 만들어 시원한 김치국물에 꿩고기 등으로 고명을 한 냉면과 동치미, 꽃감과 수정과 등도 먹었다. 동짓날에는 부적으로 뱀사(巴)자를 거꾸로 써서 벽이나 기둥에 붙이면, 악귀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전해진다.

## - 12월

환약을 짓는 날인 납일(臘日)이 있고, 그믐날을 제석이라 한다. 우리나라 달력에 동지가 지난 셋째 미일(未日)을 납일로 삼아 종묘에 제사를 지내는데, 사맹삭(四孟朔)<sup>10)</sup>과 더불어 오대제향이라 한다. 내의원과 영문에서는 이날 각종 환약을 만들어 각지에 나누어 준다. 청심환과 소합환이 가장 특효가 있으며, 이 청심환은 다 죽어가는 사람들도 소생시키는 신단이라 하여 우리 사신이 북경에 가면 왕공이나 귀인들이 모여들어 구걸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 들볶이는 것이 귀찮아 약방문을 전해주어도 만들지를 못하는 것이 약밥의 경우와 같다고 하며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북경에는 우황이 없고 낙타쓸개만 있어 비록 약방문대로 만들었어도 복용해보면 영묘한 효력이 없다고 한다”고 하였다.

10) 四孟朔- 춘하추동의 각 첫 달, 곧 음력으로 1월, 4월, 7월, 10월을 말함.

이날 잡은 짐승의 고기는 사람에게 다 좋되, 참새는 늙고 약한 사람에게 이롭다 하였으므로 민가에서는 그물을 쳐서 그것을 잡는다.

이상에서 보면 홀수 달의 그 달과 같은 날이 겹치는 날이 명절로 되어있다. 1월 1일 설날, 3월 3일 삼짇날, 5월 5일 단오, 7월 7일 칠석, 9월9일은 가장 큰 양과 양이 겹쳐져서 중양절이다.

또한 달이 꼭 차는 보름날이 명절로 된 것은 1월 15일은 대보름, 6월 15일은 유두절이며, 7월 15일은 백중일이고, 8월 15일은 한가위이다. 이렇게 달마다 명절이 있고, 그때의 계절에 알맞은 놀이와 먹을거리 예절등 풍속이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으나, 지금까지 큰 명절로 알려지고 민속이 가장 많이 행해지는 명절은 4대명절인 설, 한식, 단오, 한가위이다. 여기에 동지를 하나 더 넣으면 5대 명절이라고 한다.

#### ▶ 대나(大難)

온 마을을 징치고 복치며 더러는 폭죽을 터뜨려서 시끄럽게 하는데, 새해에 액을 주는 잡귀를 쫓는다고 생각해서였다.

#### ▶ 나례

연중제란 궁중에서 한해가 끝남을 기념하는 의식으로 조선 말기까지 해왔다. 그런 것의 기본은 모두 묵은 잡귀를 쫓아내고, 새해를 맞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였던 것이다. 설달에는 정월 명절을 대비하여 미리 한과와 강정 등을 준비하여 골동반(비빔밥)과 인절미 등을 먹었다.

#### ▶ 조왕신(竈王神)이야기

조왕신은 부엌을 맡고 있는 신으로 설달 23일 밤, 그 집의 일 년간 살림 한 것을 깨알같이 적어두었다가 옥황상제께 고하러 올라간다고 한다. 그때 조왕신에게 주려고 엿을 아궁이 위 부뚜막에 붙여놓으면 그것을 먹고 올라가 막상 옥황상제 앞에서면 입이 붙어 말을 하지 못하고 내려온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날이 설달 그믐날 밤 굴뚝으로 들어온다는데, 그때 집에 불을 환하게 밝혀놓았으면 조왕신은 자기를 위해 불을 밝혀놓았다고 좋아라 한다. 그때 집주인들이 하는 말을 엿듣는데, 일 년 동안 우리 집을 보살펴주시는 고마운 조왕신이 오늘 오시는 날이라 불도 밝혀놓고 조왕신은 정말 고맙다고 하는 말을 엿듣고는 올해는 봐주지만 내년에는 어렵도 없다고 베푼다고 한다. 그러나 설달에 또다시 엿을 놓아두면 올라가 또 말하지 못하고 일을 되풀이 한다고 한다. 그래서 집안 곳곳에 불을 켜 놓고 밤을 새우는 습관이 있다. 절에서는 큰 스님이 절 식구들, 모든 작은 스님들을 불러놓고 차를 내려주며 한해를 뒤돌아보고 더 나은 새해를 다짐하기도 한다.



동지팔죽  
해가 노루꼬리만큼 길어지기 시작한다요



조왕신, 옥황상제, 영,

1년동안 일들을 고해바치러 옥황상제께 올라갔던  
조왕신이 그믐날밤에 내려온대요

▶ 제석(除夕)

1년의 마지막 날인 설날 그믐날 밤을 제석 또는 제야하고 하는데, 이는 한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밤이라는 뜻이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의 다양한 풍속들이 생겨났는데, 이것은 결국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다음날이 바로 설날 이므로 차례를 지내기 위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데 이를 세찬이라고 한다. 남자들은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며 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신성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려는 것이었다. 궁중에서는 대포를 쏜다. 이를 연중방포라고 하는데, 각 도의 감영과 여러 군에서는 제석 전에 서울로 공물을 바친다. 편지 안에 따로 작게 접어 토산물인 꿩, 닭, 포, 물고기, 담배, 술 등 각종의 물건 이름을 기록하는데 이 종이를 총명지라고 했다.

집안의 묵은 청소를 하고 밤엔 온 집안에 등불을 켜 놓는다. 외양간, 변소까지도 각각 등잔 불을 켜놓고 자기 않는다. 이것을 수세(守歲)라 하는데, 이는 새해에 잡귀가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복을 맞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속담에 밤에 자면 두 눈썹이 센다고 한다. 생각하건데 온혁(溫革)의 쇄쇄록(碎鎖錄)에 “제야에는 신불의 앞이나 마루, 방, 변소 등에 불을 밝혀 새벽까지 가는데, 집안의 광명을 주관하는 것이다”고 했다. 또 맹원로의 [동경몽유록]에는 “제석에는 모든 사람의 집에서 화롯가에 둘러앉아 아침이 되도록 자지 않는것을 수세라 한다”고 했다. 아마도 나이를 먹지않기 위해 설날 그믐밤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를 지키는 습관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이것을 수세라 한다. 가까운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묵은세배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가까운 어른들께만 하였다. 다음날이 설날이니까 설날준비를 하면서 가까운 어른들께만 세배를 하였다.

## IV. 나오는 말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오는 세시풍속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시대따라 이런 풍속들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우리의 뿌리 속에는 이런 풍속과 생활풍습이 남아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해갈수록 이런 이야기가 그리운 것은 왜일까.

산모퉁이 돌아가면 마을이 있고, 모락모락 연기가 날것 같은 마음의 고향을 누군들 그리워하지 않을까. 그런 향수처럼 우리의 풍속들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풍경화처럼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 속에는 생활의 지혜와 사람이 사는 근본의 이야기들이 뿌리처럼 녹아 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현대화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아이들이 자랄 때 들려주는 이야기가 동화로 늘 내려오듯이 이런 세시풍속도 그런 맥락으로 영원할 것이라 믿는다. 이런 이야기속에서 생활의 지혜와 함께 아름다운 마음과 그리움이 함께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리해 보았다.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지듯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이어지리라 믿는다.

### ◎ 참고문헌

\* 歲時風俗 - 이석호 譯

1. 東國歲時記 - 홍석모 著, 1911년, 광문사

2. 烈陽歲時記 - 김매순 著, 1911년, 광문사

3. 京都雜誌 - 유득공 著, 1911년, 광문사

4. 東京雜記 - 민주면 著, 1911년, 광문사

\* 실천예절개론, 한국전례연구원 김득중, 2000년, 교문사

\* 유아예절교육, 김정신, 정해은, 조희진 공저, 2004년, 교문사

\* 어린이 예절교육, 2003년, 학문사

\* 빛나는 우리 문화유산 - 명절편, 2005년, 배동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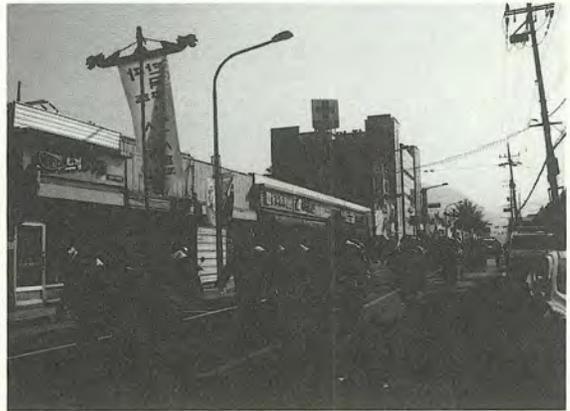
문화  
사랑방

# 어느 멋진 가을날 - 울곡 문화제 유가행렬기

이 종 화\*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이 있고 동네의 작은 도서관에서 수 년째 도서 봉사를 하고 있는 나는 파주에 사는 평범한 주부다. 아이들을 위해 내 고장 역사를 공부하고 가게부를 책임지고 있기에 물가의 오르고 내림에 민감한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학부모이기도 하다. 올해는 도서관 봉사자(봄싹도서관 자원봉사자 모임)들끼리 모여 울곡문화제의 유가행렬에 참여했다.

이른 아침 미리 약속한 흰티에 청바지를 입고 울곡고등학교 운동장에 모인 우리들은 조이플 문화센터, 법원읍자치센터, 시조민요 등의 깃대를 든 단체들과 함께 농악소리에 맞춰 행렬을 시작했다. 20여명의 봉사자와 그 가족들까지 30여명의 단체를 만들어 500여 명이 넘는 유가행렬에 동참했다.



\* 파주싱싱뉴스 시민기자

유가 행렬이란 일생에 한번도 하기 힘든 장원급제를 율곡선생은 아홉 번(구도 장원공)이나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급제 후 귀향행렬을 재현하는 것이다. 행렬의 앞 뒤에서는 풍악이 울려졌으며 시민들의 길놀이인 유가행렬이 시작되었다. 차량 행렬을 통제하고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손 흔들어 주시는 교통경찰, 길가에 죽 늘어선 시민들, 풍악에 맞춰 춤을 추시는 어르신들. 우리 단체의 깃대가 나무로 만들어진 재질이어서 3km를 들고 가기에는 버거웠으나 몇몇 봉사자들의 남편들이 들어 주어 한결 수월했다. 나무보다는 pvc의 가벼운 재질로 만들어 졌다면 좋았을텐데...

우리 단체에는 유모차에 탄 아기부터 오늘 행렬에 참여하고 자원봉사까지 신청한 중학생들도 있어서 파주에서 열리는 행사 중에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에서 참여하는 행사가 또 있을까 싶었다. 붉게 익은 대추알들의 무게를 못이겨 가지를 늘어뜨린 대추나무와 밤송이를 떨어뜨리지 못하는 밤나무를 뒤로 하고 힘든 고개를 넘어 서니 자운서원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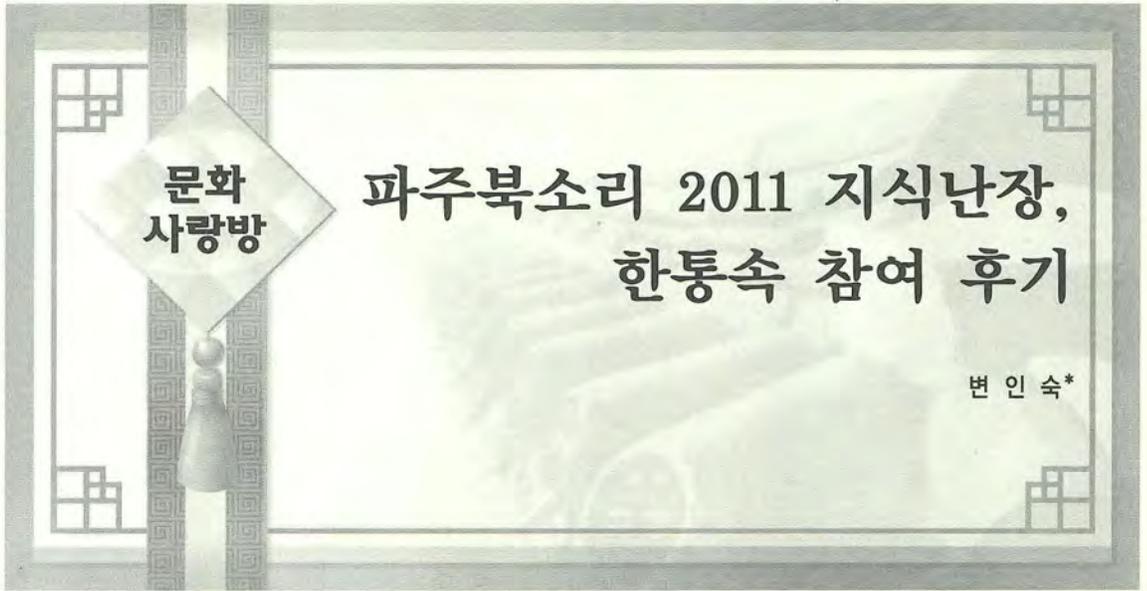


경내에 들어서 잔디광장에서 식전공연을 즐긴 후 개막선언에 이어 우리는 체험활동의 부스로 발을 돌렸다. 앵뎃빛보다 더 붉은 오미자차를 콩떡과 함께 먹고 연꽃차를 입안에 가득 담으니 저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 내 입속으로 들어 온 듯 했다. 우리는 신사임당의 후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소엽선생에게 가훈을 받고 조선시대 여인네들의 솜씨가 전해져 내려온 조각보 전시와 자연의 향이 폴폴 풍기는 천연비누 만들기를 체험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아빠들은 활, 화살 만들기 부스에서 활을 만들며 명궁의 자질을 뽑내었으며 탁본만들기, 다식 만들기, 쿠키만들기 등에 참여하는 아이들도 많았다. 넓게 펴 놓은 돛자리에서 낮잠을 청하는 이도 있고 유가행렬 참여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사생대회 그리고 고추잠자리, 자운서원, 그림자 등의 시제로 백일장에 참여하는 봉사자들도 많았다. 시상에 잠긴 우리들을 보고 노란조끼를 입고 사진기를 들고 돌아다니시는 아저씨께서는 가족사진 외에도 단체 사진을 찍어주셔서 학창시절의 씨니를 떠올리며 맘껏 포즈를 취했다.



비록 내가 태어난 고향은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맺어주고 봉사의 즐거움을 만들어 준 곳이 바로 파주이다. 이번 제 24회 울곡문화제의 참여는 우리들에게 어느 멋진 가을날의 추억의 한 장이 되었다.





- I. 참여 의도
- II. 진행 내용
  - 1. 동시야 놀자
  - 2. 길거리 시화전
  - 3. 작가와 독자와의 대화
  - 4. 시 낭송회
- III. 사업성과 및 문제점

## I. 참여 의도

(사)한국문인협회 파주지부는 글을 쓰고, 읽는 것을 좋아하고,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다. 지난 10월1일부터 10월9일까지 파주시에 있는 출판단지에서 ‘파주 북소리 2011’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파주에 있는 출판단지에서 개최한다기에 책과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학단체의 참여는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파주시청 담당자에게 행사 참여의사를 밝혔더니 적극적인 협조로 진행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와 동시조를 사랑하고 즐겁게 지었으면 한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 바란다.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부스가 설치된 축제장에서 길거리 행사로 시민들과 직접 호흡하면서 추진하였다. 비록 주최 측은 유명 작가들을 초빙하고, 그분들을 주축으로 행사를 기획하였겠으나, 반면에 본 협회는 소외되고 열악한 문학 활동

\* 한국문인협회 파주지부 회장

을 하고는 있지만, 내 고향 파주에서 펼쳐지는 행사이기에 파주의 예술단체들이 당연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길거리 체험행사로 동시 짓기와 삼행시 짓기, 작품을 낭송하고, 거리에 전시한 시화를 감상하고, 독자와 작가회원의 대화로 집필한 작품집을 통해 문학에 대한 관심과 창작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면서 지식난장, 한통속으로 들어갔다.

## II. 진행 내용

경기도와 파주시, 파주북소리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독자와 작가, 출판도시 260여 개 입주사가 함께 만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지식문화 축제였다. 책 읽는 사람, 책 쓰는 사람, 책 만드는 사람이 함께하는 ‘아시아 지식의 축제’라는 기치 아래 펼쳐진 ‘파주북소리’는 올해 처음 열린 축제로 ‘노벨문학상 110주년 특별전’, ‘책으로 신(新) 실크로드를 열다’, ‘한·일 고서 특별전’, ‘아시아 문자전’, ‘고은, 이어령 등의 석학에게 듣는 인문학 특강’, ‘유명인들의 시낭송 축제’ 등 행사도 다양했다.

특히, ‘노벨 문학상 110주년 특별전’은 역대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107명의 문학작품 초판본 뿐 아니라 작가들의 유품과 친필 편지, 사진, 엽서 등 작가의 삶과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볼거리로 구성되었다. 또한 아시아 40개 국가의 문자를 전시한 ‘아시아문자전’은 캄보디아, 몽골,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전시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개막식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의 공연이 선보인 것을 비롯해 2일에는 가수 조영남의 북콘서트와 무형문화재의 승무, 3일에는 고은 시인의 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를 다룬 퍼포먼스가 있었다. 그리고 파주출판도시를 세계 유일의 아시아 독서, 출판운동의 거점이자 책의 수도로 만들자는 의미에서 ‘아시아 책의 수도 선포식’도 있었다.

현대에는 문화예술을 비롯하여 교육과 과학, 산업 등, 책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바탕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인간의 반듯한 사고와 도덕적인 행동, 더 나아가 복지국가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데도 책은 필요하기에 현 시대 상황에서 책의 의미와 또한 책을 쓰고, 만들고, 읽는 행위의 가치와 당위를 함께 체험해보자는 취지에서 파주문협에서도 다음과 같이 4가지 행사를 기획하여 참여하였다.



파주문인협회 북소리 행사장 거리

- 사업기간 : 2011년 : 10월1일~10월9일<동시야 놀자>체험행사  
 10월1일~10월9일 :<길거리 시화전>  
 10월1일~10월9일 : <작가와 독자와의 대화>  
 10월9일 : <길거리 시낭송회>
- 참여대상 : 방문객(성인, 어린이)

## 1. 동시야 놀자

- 행사기간 : 10월 1일~10월 9일

주제를 선정하여 방문객이 동시 및 삼행시 짓기 체험행사

동시는 어른이나 어린이가 모두 좋아하는 글이다. ‘북소리’ ‘심학산’ ‘자유로’ ‘임진강’ ‘잠자리’ 등 행사장과 관계 있는 낱말들로 삼행시 짓기를 하여 전시해서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입을거리도 제공하고,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였고, 작가 회원들의 적극 참여로 즉석 소규모 동시 강의도 진행하여 동시를 사랑하고 창작의 기초 단계로 활용 할 수 있었다.

또한, 삼행시 짓기와 작품 낭송을 통해 글쓰기에 흥미를 유도하고, 글쓰기를 통해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창작활동에 초석이 되고 직접 방문객을 지도하는 것은 문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뜻 깊은 행사였다. 참여한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으로 볼펜을 준비하여 선물했다.



삼행시 짓기에 고심하는 어린이들

## 2. 길거리 시화전

- 전시 기간 : 10월 1일~10월 9일

파주문협회원들의 시화작품을 행사 시작부터 마감일까지 부스 맞은편 길거리에 이젤을 설치하여 전시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은 결과, 작품구입을 희망하는 방문객도 있었고 비교적 원만한 행사 운영으로 소외된 지역 문학인들의 사기진작에 효과 만점이었다고 평가 되었다.



시화전 전경

### 3. 작가와 독자와의 대화

- 10월 1일~10월 9일 1일 2회 실시  
1일 2인의 작가가 참석하여 진행 함.  
오전 10시 ~ 12시, 오후 2시 ~ 4시



작가의 싸인을 기다리는 독자들



작가와 대학생들의 주제 토론

파주문인협회 회원들은 문집을 집필한 분들이 많다. 지금도 준비 중에 있는 분도 있고, 앞으로 계속 작품집이 발간 될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기간이 한정되어 몇 분의 작가 회원은 남아 있는 책이 부족하여 참여를 못한 분도 있고, 작품집을 가지고 있는 신입회원들도 다음기회로 미루게 되어 아쉬웠다. 모처럼의 기회로 많은 회원작가들이 참여하였고, 독자와의 대화를 나누면서 독서의 즐거움을 향유하도록 유도하고 작품집에 싸인을 해서 무료 배부하였다.

독자와 작가가 집필한 작품집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가을과 문학을 이야기하며 교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다시없는 좋은 기회였다.

### 4. 시 낭송회

- 행사기간 : 10월 9일 14:00~16:00

거리 한편의 구석진 자리에 무대를 만들고 풍선아트로 장식을 하여 상큼한 무대를 만들었다. 그곳에서 지나가는 행인들과 어린이들이 문협회원의 작품집에서 마음에 드는 시를 낭송하였다. 동시작가이면서 하모니카 할아버지 서정환 선생을 초대하여 시낭송과 하모니카 연주를 듣게 되니 흥겨운 자리가 되었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감상하였다. 낭송에 참

가한 낭송자들에게 기념품으로 불펜을 선물하고, 작가들이 기증한 책을 특별상으로 증정해서 화기가 넘치는 즐거운 시낭송 자리가 되었다.

파주문인협회원들도 참석하여 시낭송을 하며 독자와 소통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자연과 도시, 출판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거리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고, 누구에게나 잠재 되어 있는 재능, 즉 자기표현의 기회를 발휘하게 하고, 자신감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특히 사회자의 재치있는 진행으로 더욱 돋보이는 행사가 되었다.



하모니케 연주를 경청하고 있는 참가자들



시 낭송학생들

### Ⅲ. 사업성과 및 문제점

이번 행사에서 직접 작가와 독자들이 책의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고, 대화를 나누며 글을 써 보는 체험은 문학의 저변 확대에도 효과적이었다. 한자리에서 참여자의 낭송으로 회원의 시나, 유명작가의 시 낭송을 음미하며 시화전을 감상하기도 하였다.

특히 동시도 지어 보고, 삼행시도 짓고, 낭송에 참여하며 즐거워하는 시민들과 어린이들이 많은 것을 볼 때, 문학에 대한 관심과 창작의욕을 유발하는 1석 다조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 1. 사업실시 성과분석 : 문학의 저변확대와 정서함양에 이바지

- 문학의 저변확대를 위해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회원작가들의 작품집을 무료로 배부함으로써, 회원들은 문학인이라는 자긍심과 아울러 애향심까지 북돋우는

기회가 되었다.

- 방문객들은 자연과 사물을 보면 글로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샘솟곤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심연에 자리하고 있는 의욕을 글로 그려내는 과정에서 더 나은 삶을 향유하고자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다스리게 되고, 남을 배려 할 줄 아는 마음의 소유자로 성장하며 밝은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아주는 기회가 되었다.

## 2. 사업추진상 문제점 : 장소에 따른 시설이 미비

- 요즘은 정보화 사회로 인성교육과 심성교육이 더욱 요구되는 사회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반성의 기회이기에 북소리 행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곳의 출판사들은 그들의 사업장에서 하니까 어려움이 없었겠으나, 파주문인협회는 중앙 무대와 멀리 있어서 공연 등을 관람하는데 연결이 어려웠고, 화장실 같은 필요불가결한 문제 해결도 불편했다. 첫날은 화장실을 찾아 우왕좌왕, 책을 구입하면서 눈치작전을 해야 했던 일은 두고두고 이야기 거리였다.
- 부스 설치장소는 참여단체들의 행사내용과 그 단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더욱 신경을 써서 공연이나 전시 등, 행사장 연결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대 모습

## 3. 건의사항 : 지역 예술인들의 활성화 배려가 필요

- 방문객이나 공연 관객들 중에는 파주 시민과 학생들의 참여도가 크다고 보는데, 지역 문화예술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 거리에서 동시 강의를 하고, 방문객들과 한자리에서 시낭송회를 시행한 결과, 참여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어 만족스러웠다. 특히 시낭송회는 화려한 무대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좋았으나, 음향기기와 여러 가지 시설이 미흡해서 아쉬웠고, 그런 면에서 세심한 준비와 배려가 있었다면 더욱 좋은 행사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 모든 예술활동은 창조하고, 글을 쓰는 일, 책을 만드는 일, 건축을 하는 일 등, 창작한다는 것에 일맥상통하고 있다. 출판도시의 출판인들은 지역문화예술가들과 소통하며 상생을 모색하여 출판뿐 아니라 지역문화발전에도 기여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 더욱 새로운 콘텐츠의 문화예술 축제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 파주전통문화예술학교 김옥조 이사장을 만나다

한 성 희\*

## 파주청소년문화예술 교육의 미래

- 오랜 세월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에 열중하신 걸로 알고 있다.  
그 계기는 무엇이며 왜 청소년 문화교육에 관심을 갖는가?

교수의 입장으로 청소년 교육에 뛰어든 때만 해도 주위의 오해가 많았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는 시선과 무슨 목적으로 그러냐'는 말 등이다.

중앙일보 파리 특파원 남편을 따라 프랑스에서 도자공예를 공부했고 작가로서 명성도 얻었다. 돌아와서 대학강단에 서보니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예술가에 대한 대우와 예술인으로 길러내는 교육, 정부지원 등 차이를 알게 됐다.

프랑스는 예술인으로 실력을 인정받으면 작품에 전념할 수 있는 아파트를 거의 헐값으로 평생 대여해주고 아이들의 보육비까지 지원해준다. 또 작품을 다 사들인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공부한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이 파리 박물관에 소장돼 있고 그것이 프랑스의 자산이 된다. 이러한 정책이 오늘날 프랑스를 예술의 나라로 있게 한 원동력이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깨달은 것은 문화예술 교육은 청소년시절부터 시작해야 한



\* 파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파주저널 기자

다는 것이었다. 내가 배우고 얻은 것을 사회에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유산받은 건물을 팔아 이·시·소를 설립하게 됐다. 당시만 해도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개념자체가 없던 시절이라 고생이 많았다.

- 영장폐교에서 문화예술아카데미를 열고 있는데 소개해달라

초기에 의아하게 보던 사람들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그 방향의 전문가를 찾게됐는데 내가 최초로 시작했으니 문광부 담당자가 재단설립을 권했다. 사실 나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차이도 몰라 아무 거나 고른 것이 사단법인이었다.

지금까지 남편 돈까지 끌어다가 사재 20억을 털어넣었다. 매달 3백만원이라는 큰 돈을 학교를 쓰는 월세로 지불하는 것도 내 월급으로 충당했다.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이 이익사업이 아니고 순수교육사업인데 지원정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프랑스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운영으로 일관하다 보니 이전 인정받게됐고 청소년교육기관으로 문광부에서 각종 정책지원금을 받아 청소년들에게 교육하기도 한다.

또 유치원, 초·중·고(특활), 장애우·노인회관 복지관 문화예술체험, 주부와 회사원 MT 등을 대상으로 도자기, 염색, 목공예, 생태탐구와 정밀묘사, 영상교육 외에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10년 동안 파주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고급문화예술교육을 보급한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파주의 문화환경은 아직 열악한 편인데 개선 방향은?

파주시에 와서 7년째 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하다 보니 서울 등 대도시 보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이 적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예를 들어, 무료 도자기 체험이나 영상 교육을 모집하면 서울이나 일산 신도시에서 희망자가 몰려들어 돈을 내고도 하겠다고 나서서 일찍 마감돼 버린다. 반면 파주시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싶는데 신청자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교육청과 시와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 학생들에게 좋은 문화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일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문화교육이 일원화되지 않고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가 서로 토스하며 미루고 있는 현실과 전문교육자나 정책담당자가 없다는 사실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정책과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

문화관광부,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등에서 지원받아 청소년과 장애청소년, 복지단체, 다문화 가정에게 무료로 클레이애니메이션, 도자기, 염색공예 등을 교육했다. 특히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에서 5억을 지원받아 5년째 무료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파주시는 아름다운 곳이고 많은 문화유적이 있으며 나도 파주시민으로써 아끼고 사랑한다. 또한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누구보다 파주시의 청소년과 장애우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가 돌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문화정책은 하루아침에 성과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먼 훗날을 바라보고 투자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가 함께 발 맞추어 지원해야 할 사업이고 이는 지자체장과 담당자의 인식전환에서 발전하는 것이다.

이인재 시장이 취임하면서 문화와 교육부문에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해서 반가웠다. 지방자치 시대는 시장의 문화마인드가 시민의 문화수준을 좌우하는 힘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시장이 문화정책을 펼치려 해도 담당 공무원이 경직돼 있다면 아무 소용없다. 공무원의 마인드도 변해야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교과과정에 넣어 의무적으로 주당 3시간(중학교) 4시간(고등학교)을 실시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으로서 환영할 일이지만, 교사들이 이를 수용해 가르칠 기량이 없고 교육 받을 기회가 없었다.

따라서 이를 운영할 기관들이 필요한데 검증도 되지 않은 각종 예능 단체, 집단이 서로 맡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판이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미래의 꿈나무들이 올바른 ‘창의적 체험활동’을 배울 수 있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자면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협력해 운영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교육청과 시와 문화예술교육기관이 공감대를 갖고 협조해야 한다. 그리하여 인재 인프라를 구축해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 파주전통문화예술학교

파주전통문화예술학교(이사장 김옥조)가 경기도에서 최초, 전국에서 세번째로 우리시 광탄면 영장리에 문을 열고 전통건축 대목수와 소목수를 양성 교육한다.

김옥조 이사장은 “문화예술의 길은 삶의 질이고 문화예술 교육은 행복한 삶을 만드는 도구”

라며 “단순한 미학적인 이유가 아닌 4계절 채광의 극대화를 치밀하게 고려해 계산한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건축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말했다.

이신열(문화재관리국 대목장) 학교장은 “진정한 장인이라면 자신이 지닌 기술을 아낌없이 물려줘야 하며 전통건축 장인양성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대목수(한옥전문가)와 전통소목수(인테리어전문가) 과정으로 나뉘며 정규과정(4개월)과 주말과정(6개월)을 교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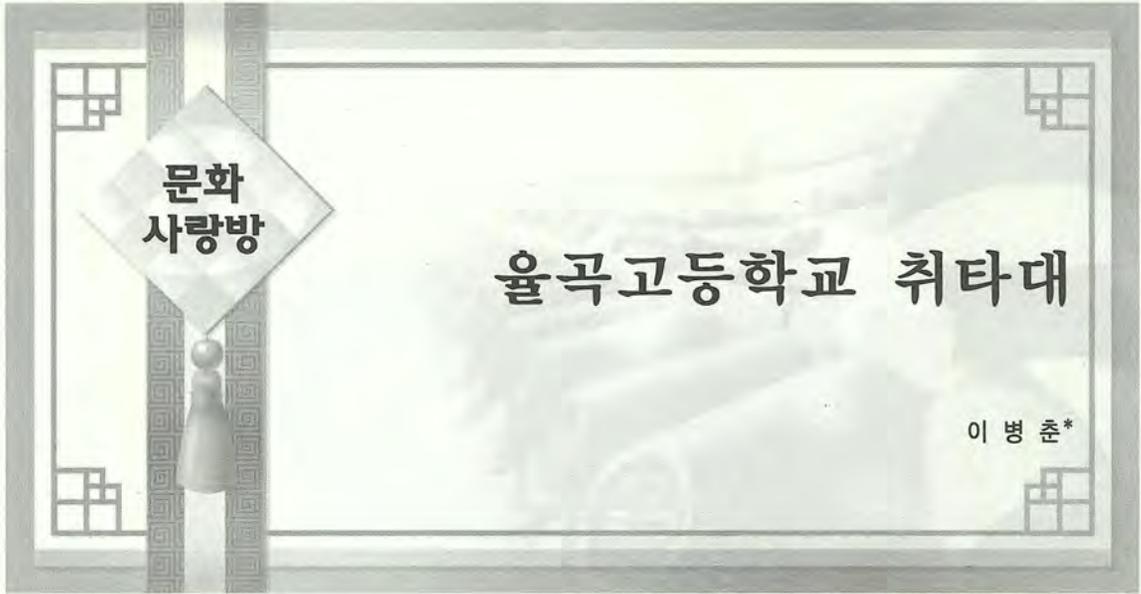
문을 열자마자 신청자가 쇄도해 마감이 되는 등, 인기를 누리고 있는 문화예술학교는 “아름다움과 웰빙을 동시에 충족하는 전통 한옥에 관심이 크고 자신의 집을 직접 지으려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다.

예술학교에서 대목수 교육이수자가 한옥을 지을 경우, 동료들과 직접 지어 건축비가 40% 절약되는 이점이 있어 교육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파주전통문화예술학교는 이어령 전 문광부장관이 대표로 있으며 장명수 이화여대 총장, 최경실 이화여대 교수 등이 이사로 있는 문화예술 교육기관이다.

(문의 파주전통문화예술학교 [www.kitca.org](http://www.kitca.org) 031)943-3170)





울곡고등학교 취타대, 4-H회는 2002년도에 사라져가는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인 대취타를 전승 보전하고자 조직되어 창단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2년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에 파주시대표로 참가하여 최우수상(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 울곡문화제참가, 대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라이온스 동양 및 동남아대회참가공연 및 파주시가 자랑하는 인삼축제 등에 참가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2011년 4월 운현궁 고종황제 가례재연 참가, 5월 경기도민체육대회 입장식, 경복궁 세종대왕 왕자 태봉안의식, 동구릉 건원문화제, 6월 신사임당 추모제, 파주시학생예술발표회, 강화도 외규장각도서 반환행사에 참가하여 세계 여러나라에서 참가한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취타대는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음악계승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수하고 있으며, 파주시 임진각을 찾는 외국인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전통음악인 대취타를 공연함으로 우리문화를 알리는데 적극 노력하는 등 지역 내에서 모범적인 방과 후 특별활동(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 최근 3년간 주요 수상 경력 ◎

- ◆ 2007년 6월 파주시 청소년종합예술제 “최우수상”(파주시장 표창)
- ◆ 2007년 8월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우수상”(경기도지사 표창)
- ◆ 2008년 6월 파주시 청소년종합예술제 “우수상”(파주시장 표창)

\* 울곡고 취타대 지도교사

- ◆ 2009년 6월 파주시 청소년종합예술제 “우수상”(파주시장 표창)
- ◆ 2010년 6월 파주시 청소년종합예술제 “최우수상”(파주시장 표창)
- ◆ 2010년 8월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최우수상”(경기도지사 표창)



# 운문

초저부 최우수

● ● ● 봉일천초등학교 2학년  
전 진 새

예 단 무 화 제 예 단 특 예 장

## 고추잠자리

주말농장 하늘에  
잠자리 백마리  
하늘을 빙빙 날다  
고추밭에 앉았지.

빨간 고추나무에  
앉은 잠자리는  
빨간 고추잠자리  
파란 고추나무에  
앉은 잠자리는  
파란 고추잠자리

서울 고추잠자리는  
잡으면 벌금 내고  
우리고추밭에 잠자리는  
너무 빨라 안 잡히지

주말농장 하늘에  
잠자리 백마리.

# 운문

초고부 최우수

능안초등학교 6학년  
최윤하

## 카멜레온 고추잠자리

고추잠자리는  
수줍음이 많나봐요.  
하늘을 날아다니다  
나를 만나니  
꼬리를 붉게  
물들이네요.

고추잠자리는  
매운 것을  
못 먹나봐요.  
할머니가 내놓으신  
말린 고추맛을 보고  
꼬리를 붉게  
물들이네요.

고추잠자리는  
화가인가봐요.  
초록 단풍잎 위에  
살포시 앉아  
붉은 물감을 문힌  
꼬리로 나뭇잎마저  
붉게 물들이네요.

# 운문

중등부 최우수

●●● 자산중학교 2학년 진 술

예곡문학제 예곡문학제

## 그림자

질게 그림자를 드리우던 때가 있었어  
새까맣게 나를 가두던 때가 있었어

나에게는 왜 빛이 들어오지 않느냐고  
왜 나는 이 소외된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고  
떼를 쓰면서도  
그저 그 작은 원에서 멍하니 있었어

그림자가 사라지길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그곳을 벗어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걸 몰랐어

언제부턴가 믿고 있었거든  
나에게만 이런 어두운 그늘이 있는 거라고,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거든  
누군가 나를 이런 차디찬 공간에서 끌어내 주기를

그러다가 우연히 그 검은 장막을 들어냈을 때

나는 후회했어

저렇게 가까이 빛이 있었는데  
저렇게 가까이 따스함이 있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한 발짝도 내딛지 않고 무엇을 한 것일까

지금 나는 내가 있었던 그 틀을 반쯤은 벗어났어  
내가 고개 숙여 앉아 있던 그 그림자 한가운대를 보면서  
이제는 내 앞에는 피지 않을 꺼라 생각했던  
작은 해바라기를 향해 가려고 해

새까맣게 나를 가두던 때도 있었어  
질게 그림자를 드리우던 때도 있었어

그래도 결국 나는 빛을 보았는걸

# 운문

고등부 최우수

●●● 문산여고 2학년 5반 한 예 지

예  
귀  
민  
화  
제  
예  
귀  
보  
예  
귀  
중

## 반쪽짜리 시계

북녘하늘이 가진 반쪽짜리 시계  
남녘하늘이 가진 반쪽짜리 시계

반쪽시계들은 같지만  
서로 다른 시간을 째각거려왔다  
허리에 철책이 감긴채  
반세기의 시간을 움직여왔고  
찢어진 슬픔을 잊지 않기 위해서  
숫자로 아픔을 새겨왔다.

얼마나 한뫼한 슬픔이길래  
그렇게 소리내어 서럽게 우는가  
가졌던 옛추억의 그리움이  
얼마나 크길래  
두손 모아 기도하고  
두손 벌려 원하는가

틀림없이 확실하게 원한다면  
반쪽의 시계를 하나로 합쳐라

하나의 시계가  
하나의 하늘에서 만나  
같은 시간을 공유할 때  
새로운 역사의 숨결이  
우리 가슴에 전해질 것이다.

# 운문

일반부 최우수

●●● 이용영

예대미화제 예대백예장

## 그림자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말없이 내 곁을 지켜주는 친구

힘들어 주절거리는 내 모습도  
묵묵히 받아주는 고마운 친구

세상에 버려졌다고  
울부짖고 있는 나를  
꼭 감싸주던 포근한 친구

나 보다 더 날 잘 아는  
나의 친구같은 너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할 나의 벗 나의 친구

# 산문

초저부 최우수

●●● 파주초등학교 3학년 정수빈

예  
제  
의  
학  
제  
의  
학  
제  
의  
학  
제

## 자유로의 끝에서 만날 아줌마

“이번 추석에는 아이들 바람 좀 쐬고 오면 어때?”

엄마가 모처럼 반가운 말씀을 하신다.

“그래? 어디로 가?” 그렇게 엄마랑 아빠는 가까운 임진각에 바람 쐬이러 가자는 약속을 하셨다.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에 들러서 자유로에 들어섰다.

“엄마, 여기가 어디야?”

나이 어린 동생이 물었다.

“자유로야.” 이때 동생 대신 내가 물었다.

“엄마 그런데 왜 여기가 자유로야?”

“음...이 도로를 따라서 자유롭게 북한 땅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담겨 있어서, 자유로야.”

“그래?” 재미있는 얘기 같지 않아 대충 들었다. 길옆에는 풀이 크게 자라 있었고 끝도 안 보이게 긴 철조망이 있었다. 임진각까지 가는 길은 심심했다.

임진각에 도착하고 보니 쉬는 날인데도 사람들이 아주 많지는 않았다. 바람도 선선하고, 날씨도 맑아서 기분이 좋아졌다. 동생 손을 잡고 바람개비가 많이 있는 언덕으로 갔다. 하늘에는 커다란 연도 날아다녔고, 방송국 헬리콥터도 보였다.

언덕에 돛자리를 깔고 싸온 음식을 먹으니 마음도 편해졌고 그냥 웃음이 저절로 났다. 다른 사람들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조금 멀리 공터에서 혼자 뭘 하는 사람이 보였다. 아무도 없는 공터에서 혼자 뭘 하는 사람이 보였다. 아무도 없는 공터 흠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긴 철조망 앞에서 엎드려 앉아 있는 아줌마가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아빠 우리 저기도 가보자.”

“그래”

연못을 따라 한참을 걷은 것 같았다. 보는 것보다 더 멀었다. 거의 다 도착했을 때 바람이 ‘훅’ 하고 불었다. 내 모자가 날아가 버렸다. 급히 모자를 주우러 뛰어 갔다. 모자를 줌과 보니 철조망 앞에 엎드려 있던 아줌마는 더 가까워져 있었다. 아줌마는 날아간 돈을 줌과 계셨다. 여기 저기 만원짜리 돈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아줌마는 급하게 굴러다니는 돈을 주우셨다. 바람이 자꾸 불어서, 내가 아줌마를 도와드렸다.

“아줌마 여기도 돈이 있어요.”

“아고, 니가 다 좇어 주는구나”  
 아줌마는 우리 외할머니처럼 환하게 웃어 주셨다.  
 “고맙구나, 아-”  
 “그런데 왜 여기 혼자 계세요?”  
 “응?”  
 “왜 아무것도 없는데서 혼자 계시냐구요? 뭐, 하셨어요?”  
 아줌마 계셨던 곳을 보니 돛자리에 먹을 것들이랑 돈이 있었다.  
 “우리 할머니 산소에도 저런 음식은 가져갔었는데요, 돈은 왜 있어요?”  
 궁금한 것이 많아서 많이 여쭙어 봤더니 아줌마는 얼른 대답을 못해 주시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았다.  
 “음… 내는 말이다. 북에서 온 사람이다.”  
 “네? 북한이요? 북한에서 어떻게 오신 건데요?”  
 “내 정말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서리 혼자 왔지, 거 중국으로 건너 갔다가 여로 온거지…” 그때 아빠도 말씀하셨다.  
 “네…그래서 추석이고 해서 여기 오신건가 보네요? 어떻게 가족분들이 북에 계신가요?”  
 “내, 혼자 넘어오기도 벅차서리 자식 데리고 올 엄두도 안나더라. 그래 혼자 왔지, 내, 배고픈 걸 못 참아 가족도 버리고 왔다.”  
 아줌마는 고개를 숙이시고 입을 꼭 다무셨다.  
 “어서 내 먹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일해서 돈도 벌었는데, 먹여 살릴 식구가 옆에 없으니 여서 이려고 있는 건데…” 아줌마도 아빠도 말씀을 안하셨다.  
 “먹을 게 넘쳐도 먹여 줄 방법이 없구나. 돈을 벌었음 뭐하나 이불 한 채를 못 해서 보내는데…” 아줌마는 또 말씀하셨다.  
 “돈도 보내고 싶고 먹을 것도 먹이고 싶어서 철조망 붙들고 있다.”  
 ‘그래서 돛자리 위에 돈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딴 짓하던 동생이 갑자기 말을 했다.  
 “그러니까 돈이 절루 날아갔잖아.”  
 “그래! 니 말이 맞다. 내가 못 갖다 주니 바람이 갖다 줄건가 보다!” 아줌마의 얼굴은 웃고 있는데도 눈물이 흐를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올 때도 우리는 자유로로 왔다. 자유로가 정말 자유로였으면 좋겠다.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게, 여러개의 길이 더 멀리까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줌마도 식구들과 배부르게 밥을 먹을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자유로에는 긴 철조망이 노을과 함께 어울려 있었다.

# 산문

초고부 최우수

●●● 와동초등학교 6학년 오 연 희

## 나에게 시계는

나는 '시계'라는 주제를 보고 "어린이를 위한 계획성"이라는 생각이 딱 떠올랐다. 책 제목처럼 시간 관리와 계획에 관한 내용이었다. 마봉희라는 아이가 우연한 계기로 방송부에 들어가게 되고, 자신이 헛되이 쓴 시간을 다시 되찾아 변해가는 줄거리의 책이다. 책을 읽으며 봉희의 모습이 내 모습과 살짝 겹쳐졌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봉희의 시간 관리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 대한 의견과 생각이 나와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을 읽고 "시간은 언제나 많으니까"라는 개념을 버려 버렸다. 책을 읽고 많이 반성했고, 나도 봉희와 똑같은 처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리고 엄마가 일하시느라 집에 잘 안 계시는 탓에 시간 관리에 너무 소홀해져 있던 것 같았다. 반성도 했지만 후회도 많이 했다. 그리고 핑계 아닌 핑계도 있었다. "엄마가 있었으면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바로 쓸데없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시간 관리는 내가 혼자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내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봉희처럼 우리 학교 방송부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어렵다고 많이 들어서 인지 많이 긴장했지만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잘 보기 위해 노력했었다. 그리고 발표의 날, 나의 의지 덕인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은 방송부 활동을 한 지 1년. 작년부터 방송부원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 때 방송부에 붙었던 탓인지 좀 더 부지런해진 나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내 자신에 대해 많이 소홀해져 있다. 작년에 시간을 잘 쪼개어 활동했을 때처럼 열정적이지도 않다. 다시 시간 관리가 부실해져 버린 느낌이 든다. 또 다시 방송부에 들어가기 전, 후회스런 나로 돌아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면, 시계를 자주 보게 된다. 시계를 보면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 속의 주인공처럼 시간 관리를 잘못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도록 시간의 소중함을 깨우치며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는 어느덧 초등학교를 마무리하는 6학년을 보내고 있다. 할 것이 많아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기가 괴롭다. 잠을 더 자고 싶는데 시계 알람소리와 엄마의 아침을 깨우는 소리에 힘들게 일어난다. 시계의 자명종 소리가 왜 그렇게 미운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자명종 소리 때문에 지각을 하지 않는 고마운 소리이기도 하다. 나에게 시계는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도 하고, 시간이 무심코 지나쳐가는지 알차게 지나가고 있는지 항상 알려주는 리틀엄마이기도 하다.

# 산문

중등부 최우수

●●● 삼광중학교 2학년 김 거 표

예제문학제  
예제문학제

## 느티나무

안녕하세요. 저는 삼광중학교 2학년 김거표입니다. 저는 이번 울곡문화제에서 느티나무를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느티나무이고요. 제가 잘 알고 흔히 보는 나무입니다. 제가 느티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나무들보다 아름답지는 않지만 듩직하고 넓직한 크기가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항상 그늘을 생각하면 느티나무가 떠오르는 것도 느티나무의 큰 그늘 때문일 것입니다.

느티나무는 저에게 꿈의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느티나무 밑 그늘에 앉아 있으면 저절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나무입니다.

어떤 이는 느티나무를 그리면서 화가의 꿈도 키울 수 있고요.

어떤 이는 그늘에 앉아 노래를 부르며 가수의 꿈도 꿀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이 하고 싶은 꿈과 목표를 상상하는 꿈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는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을 듩직하게 하나하나 소중한 일에 담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느티나무 앞에서 맹세한 꿈을 이룰 때는 그 느티나무가 그리워 지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느티나무에게 찾아가면 반겨주듯 살랑살랑 손을 흔들어 줍니다. 그리고 느티나무의 품에 누워 잠시 쉬다보면 고마워지는 느티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을 오래오래 간직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는 정말 듩직하고 마음에 듭니다.

제가 바라는 마음은 느티나무에서 큰 꿈을 많이 많이 껴서 나중에 느티나무처럼 모든사람들이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많이 발전하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 산문

고등부 최우수

삼광고등학교 2학년 1반

김 다 정

## 시간을 기다려 주세요

우리 고장의 젓줄 임진강엔 시계가 없다. 아니 시간이 없다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인지도 모르겠다. 시간은 분명 흐르고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가능해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시간을 재보려 시계를 봤을 때, 세월 속으로 아득히 멀어질 그대들의 파불이가 생각나서 일지도 모른다. 손만 뻗으면 달을 거리에 반세기 동안 애만 태우고 있는 자신들이 미워서 일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겐 시간이 약이라 한다. 아무리 큰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될 것 이라고, 아무리 깊은 상처도 다 아물 것이라고 그렇게 시간은 누군가에겐 약이 된다.

하지만 자글자글해진 눈가의 주름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대들의 검버섯이 돌아난 얼굴을 보면 결코 시간을 약이라 할 수 없으리라.

친구들과 봉사활동을 하러 자주 근처 요양원에 간다. 나는 그곳에서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짝~해지는 할아버지 한분을 뵈었다. 우리가 찾아 갈 때마다 뵈었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항상 수북한 백발을 한쪽으로 고이 빗어 넘기고 정갈하게 개량한복을 차려입은 모습이셨다. 할아버지의 오래된 지갑 속에는 늘 20대의 모습으로 단아하게 미소 짓는 할아버지의 하나뿐인 아내가 있었다. 할아버지 나이 19세, 할머니 나이 17세의 꽃다운 나이로 만나 식을 올리고 다복하게 자식을 셋이나 두고 있던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 전쟁터로 끌려간 할아버지는 곤하게 잠든 막내딸의 고사리 같은 손을 한번 잡아주고 오지 못한 것이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때 쓴 총알이 이제야 날아와 심장에 박힌 듯 한이 되신다고 한다. 어렵게 어렵게 달은 북녘의 소식은 전쟁 통에 첫째아들이 목숨을 잃었고 걸음마를 겨우 떴던 막내딸이 결혼을 해서 그 새하얀 얼굴을 똑닮은 아이를 낳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40년 전에 끊긴 연락일 뿐 강산이 4번 변한다는 시간 동안 사람 사는 일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가 없다.

더 이상 여쭈볼 수가 없었다. 그 깊은 한숨 속에 80년의 고된 삶이 묻어 나와서, 총탄 박힌 시계 속에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어서...

시침이 따라가면 분침이 도망가듯, 분침이 따라가면 시침이 도망가듯, 우리는 영영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12시 정각이 될 때, 그 오랜 기다림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길 바라본다.

예년민화제 예년민화제

# 산문

일반부 최우수

●●● 심은아



## 내 어린날의 느티나무

큰어머니댁은 광탄면 창만리이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를 낳으면 서울에서 키우겠다며 결혼하자마자 서울에 집을 얻으시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셨다. 출판사에서 일하시던 아버지는 내가 세 살이 되었을 때 좀 병을 얻으셨고 갓난 동생이 있었던 나는 외할머니댁으로 큰어머니댁으로 보내져 키워졌다.

어린 시절 큰어머니댁으로 가는 마을 어귀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었다. 어린 내 마음에 그 느티나무 앞에 오면 엄마가 날 큰어머니댁에 두고 간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었다. 큰어머니댁엔 언니도 있고 오빠들도 많았는데 그 당시엔 서울서 곱게 자란 나는 언니, 오빠들을 따라 다니며 놀기란 쉽지 않았는지 할머니만 졸졸 따라다녔던 것 같다. 할머니가 산에 나무하러 가셨다가 독사에 물려 돌아가시기 전까진.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언니, 오빠들은 어딜 가도 날 잘 챙기고 데리고 다녔다.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도 어린 날 끼워 주곤 했다. 어느 여름 저녁에 동네 아이들이 모여 솜바꼭질을 하였는데 솔래가 눈을 가리고 하나, 둘, 셋 세는 장소는 늘 그 커다란 느티나무였다. 내가 솔래가 되어 눈을 가렸다 떠있을 땐 아이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겁이 유난히 많았던 나는 느티나무 주위를 뱅뱅 돌아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면 대문 뒤에 숨었던, 창고 뒤에 숨었던, 가게 뒤에 숨었던 아이들이 하나 둘 나와서 나를 달래주곤 했었다. 어린 시절 외롭던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던 추억이 커다랄던 느티나무처럼 커져갔고 초등학교가 되면서 난 엄마 아빠와 함께 살게 되어 명절이 되어야 큰어머니댁을 찾게 되었다.

아빠의 오토바이를 타고 큰어머니댁 가까이오면 초등학교가 보이고 그 초등학교를 끼고 작은 길로 들어서면 아직도 커다랄게 마을을 지켜주던 느티나무가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어릴 때 함께 지내서인지 명절에 큰어머니댁에 가면 동네 아이들 모두 반가이 맞아주고 밤에 느티나무 앞에 앉아 학교이야기도 하고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며 도깨비불과 도깨비이야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결혼을 하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나는 지금도 가을 김장철이 되면 큰어머니가 농사 지으신 김장배추를 가지러 큰어머니댁에 간다.

어릴 땐 세상의 어떤 나무보다도 크고 우람했던 그 나무가 지금은 고목이 되어 붉이 되고 여름이 지나도 잎도 돌지 않고 꽃도 피지 않는다. 내가 자라는 만큼

예제문학제 예제문학제

계속 자라서 하늘을 찌를 것만 같았는데... 나무도 나처럼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자라는 것을 멈추고 내가 '아이구 다리야, 아이구 허리야' 하는 것처럼 병들다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가 사시는 모습, 우리 큰어머니, 언니 오빠들이 사는 모습 다 지켜보고 내 할머니가 가신 곳으로 갔나보다.

어느날 문득 죽은 느티나무를 보았을 때 어린 날 함께 놀던 아이들도 지금은 나처럼 부모가 되어 겁 많고 울보였던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 옛날처럼 무성한 느티나무 그늘 아래 앉아 그 아이들과 지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이제 얼마 후 난 또 김장배추를 가지러 큰 어머니댁에 갈 것이다. 큰어머니도 늙으셔서 내가 얼마나 더 그 느티나무를 지나게 될 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따뜻했던 어린 날의 기억들은 아마 영원히 잊지 못 할 것이다.

금상

울국문화제  
시·임·당·미·술·제



서 청 환

초저부, 봉일천초



강 상 욱

초고부, 청암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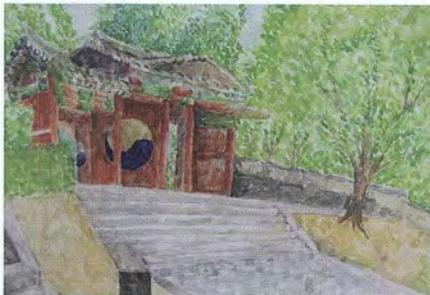
김 혜 민

중등부, 교하중



이 선 애

고등부, 광탄고



제24회 율곡문화제  
전국한시백일장 장원 作

晚秋訪紫雲書院 만추방자운서원

碧江 李東煥

紫雲勝景帶秋陽 자운승경대추양  
滿目煙霞逸興長 만목연하일흥장  
黃菊清香盈畫壁 황국청향영화벽  
丹楓艷色繞祠堂 단풍염색요사당  
文成偉績千年赫 문성위적천년혁  
師任名詩萬世昌 사임명시만세창  
書院庭前開祝祭 서원정전개축제  
學儒感慕永無忘 학유감모영무망

자운서원의 승경이 가을빛을 띠고  
경치가 한눈에 들어오니 흥취가 길구나.  
황국의 맑은 향기는 화벽에 가득하고  
단풍의 아름다운 색은 사당을 둘렀네.  
문성공의 위적은 천년에 빛나고  
신사임당의 명시는 만세에 성하리.  
서원의 정원 앞에서 축제를 여니  
학유들의 경모하는 마음 영원히 잊을 수 없네.

## ❖ 파주문화원 문화가족 모집

- 향토문화 보존계승과 지역문화 창달을 선도하는 파주문화원에서는 파주지역 문화 발전과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계신 문화가족을 모집합니다.

파주문화원 문화가족이 되시면 각종 문화원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파주문화 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향토사 자료 수집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과 향토문화의 자료를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해당 자료 : 고문서, 전적류, 문집류, 고지도, 문중보관문서, 교지류, 일반향토자료, 행정자료, 교육자료, 유적, 전설, 민담, 민요, 지방유래, 전통놀이 그 외 각종 사진류 및 영상자료 등

## ❖ 파주문화 연구 원고모집

“좋은 책은 좋은 원고에서 나옵니다”

매년 발간되는 「파주문화 연구」에 기고해 주실 참신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 집필 장르 : 자유선택 (파주의 역사와 문화 관련 내용)
- 집필 분량 - 특별기고 : A4 5장 이상 - 향토문화연구 : A4 3장 이상 - 문화사랑방 : A4 2장 이상
- 원고 마감 : 매년 10월 말일
- 보내실 곳 - E메일 접수 : pajuc@hanmail.net
  - 우편접수 : 파주시 중앙로 160(금능동, 스타디움) 31번지 파주문화원 우편번호 413-030
  - 방문접수 : 파주문화원 사무실
- 문의 전화 : 031-941-2425, 031-948-2688
- 원고 보내실 때 유의점
  - 가. 출판물로 발표되지 않은 신작이 좋습니다.
  - 나. 작품 말미에 반드시 소속과 성함 등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연락처나 핸드폰 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2011년 제25호  
**파주문화**

인쇄일 : 2011년 12월  
발행일 : 2011년 12월  
발행인 : 민태승  
발행처 : 파주문화원  
          파주문화연구소  
          (031)941-2425  
인  쇄 : 승림 D&C  
          (02)2271-2581

